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721-01

<http://rri.ekr.or.kr>

에코뮤지엄 시범조성 모델개발 연구

**A Study on the Pilot Model Development for the
Ecomuseum as a Rural Heritage**

2014. 12.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에코뮤지엄 시범조성 모델 개발 연구”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연구책임자 : 이 정 환

연구원 : 박 윤 호

윤 상 현

김 미 영

위촉연구원 : 협성대학교 윤 원 근

협성대학교 최 식 인

도시환경연구센터 전 영 옥

(주) 누리넷 구 진 혁

교토대학교 김 두 환

아주대학교 한 지 형

서울대 조경계획연구실 이 차 희

서울대 조경계획연구실 이 재 혁

<요 약 문>

1. 연구배경

-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의 사라져가는 전통 농업 자원을 발굴·보전·전승하기 위해 농업유산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 그렇지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은 그 대상이 국가농업유산에 한정되어 있어 ‘보전’의 개념을 농촌 전반으로 도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 농촌을 ‘보전’의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농업유산 뿐만 아니라 농촌 주변에 산재하는 소중한 자원인 ‘광의의 농업유산’은 누구나 다 하는 ‘개발’을 통해서가 아닌 우리가 직접 ‘보전’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경제활성화에 있어 또 다른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 따라서 국가농업유산을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대상을 ‘농업유산’에서 ‘광의의 농업유산’으로 확대시키고 정책의 대상으로 확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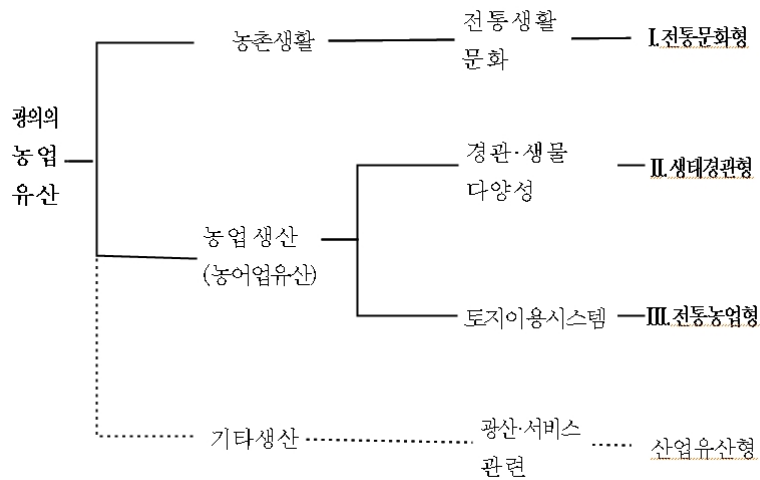
2.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 농촌지역에 있어서의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정립·유형화함으로써 어떤 방법으로 농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에코뮤지엄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 확립을 통하여 에코뮤지엄을 통한 농촌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농업유산을 활용한 에코뮤지엄 시범조성 모델을 개발하고, 농업유산과 연계한 창조상품, 공간적 가치창출 방안을 도출하며, 마지막으로, 에코뮤지엄의 대상범위를 ‘농업유산’에 한정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광의의 농업유산’으로 확대시켜서 농촌지역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에코뮤지엄 시범 조성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다.

3. 연구결과

가. 에코뮤지엄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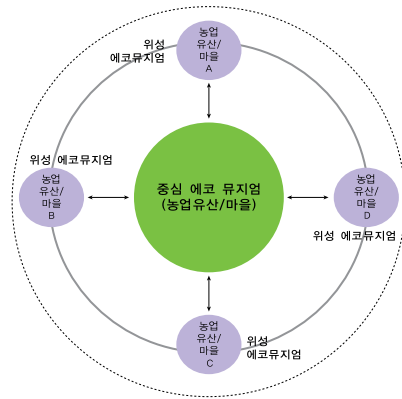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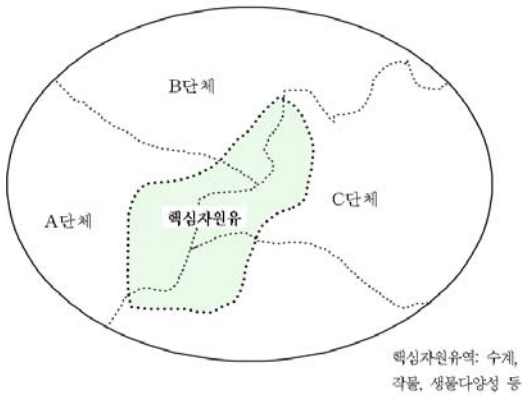
- 본 연구에서는 에코뮤지엄이 19세기 유럽에서 탄생한 배경과 목적을 서술하고, 뤼비에르의 에코뮤지엄의 개념 이후 수정된 ‘에코뮤지엄의 진화적인 정의’를 언급하였다. 진화적 정의에서는 주민의 주체적 참여, 지역민의 정체성확립, 역사와 문화의 총체적 고려, 연구·교육·실험실적 기능의 강화 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광의의 농업유산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농촌에코뮤지엄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농촌에코뮤지엄은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첫째, 생태경관형으로 농업유산의 개념 가운데 생물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두 번째 유형은 전통농업형으로 농업유산 가운데 토지이용시스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마지막 유형은 전통문화형으로, 이는 농민의 농촌생활과 관련된 유산유형이다.



그림} 농촌 에코뮤지엄의 유형 구분

나. 에코뮤지엄 관련 국내 정책

- 에코뮤지엄과 관련한 국내 정책을 분석한 결과, 에코뮤지엄을 ‘지역자원중심’의 면적 보전방식으로 보았을 때, 농식품부, 환경부, 국



그림] 자원분포에 따른 대상구역 범위 설정 그림] 에코뮤지엄의 계획방향

토부, 문체부, 문화재청 등에서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먼저 농식품부의 경우, 농업유산제도와 경관보전 직불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환경부의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여 보전을 꾀하고 있었으며, 관련한 사업으로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사업, 자연생태우수마을 사업 등이 있음. 문체부의 경우 문화지구와 건축자산진흥구역 등의 제도를 갖추고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문화재청의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집단민속 문화재구역 제도를 시행중이며, 관련한 사업으로 생생문화재 사업이 있음.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경우 한옥밀집지역 지정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다. 에코뮤지엄 관련 해외 사례

- 일본의 경우, 에코뮤지엄의 활동 내용, 주요 운영주체, 공간범위를 분석하여 일본 에코뮤지엄의 성격을 우선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일본 에코뮤지엄 관련 일본정부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농수산성의 전원정비사업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실제 사례지역으로 키타하리마 전원공간 박물관을 소개하였다. 또한 유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여러 시정촌에 걸쳐있는 미야카와 에코뮤지엄의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프랑스 사례에서는 에코뮤지엄의 배경 및 형성에 대한 언급으로부

터 시작하여, 프랑스 에코뮤지엄의 유형 및 특징 그리고 에코뮤지엄 현장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어서 프랑스 중앙정부의 관련정책을 소개하고 관련된 사례지역으로 브레스 부르기논 에코뮤지엄과 모르방 에코뮤지엄, 알자스 에코뮤지엄과 렌느지역 에코뮤지엄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라. 에코뮤지엄 시범조성 모델 개발

- 앞서 제시한 에코뮤지엄의 개념, 유형 및 국내·해외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각 유형별 후보지를 나열하고 이중 1개씩 총 3개의 시범모델 대상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지구는 시범지구로서 에코뮤지엄 개념을 적용한 계획을 각각 수립하였다. 에코뮤지엄의 계획방향은 중심에코뮤지엄과 위성에코뮤지엄으로 구분하는 한편, 광의의 농업유산으로서의 보전과 활용의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 선정된 3개 지구는 전남 구례(생태경관형), 전남 완도 청산도(전통농업형), 경북 영양(전통문화)이다. 이들 3개 지구의 계획수준은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을 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업제안서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구례, 영양의 경우 자원조사 및 분석, 개념적용, 사업화방안 등의 다각적 논의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4. 결론 및 시사점

가. 에코뮤지엄의 도입 필요성

- 농업유산을 중심으로 한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국가농업유산에 한정되어 있어 ‘보전’의 개념을 농촌 전반으로 도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의 농촌 주변에 산재하는 소중한 유산자원은 ‘개발’의 방식을 통해서가 아닌, ‘보전’하고 ‘활용’함으로서 지역의 정체성을 되찾고, 나아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농업유산을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대상을 ‘농업유산’에서 ‘광의의 농업유산’으로 확대시키고 정책의 대상으로 확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에코뮤지엄이 갖는 차별성

- 에코뮤지엄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목적, 대상, 접근방법, 유형, 진입단계 등과 같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아래 표 참고).

[표] 기존 일반농산어촌개발과 에코뮤지엄과의 차별성

구분	일반농산어촌개발	에코뮤지엄
목적	농촌개발 및 지역활성화	정체성 회복
지향가치	개발, 정비위주(자원활용)	보전을 통한 활용가치증대
대상지역	마을,권역,중심지	탄력적 공간*
대상자원	농촌 어메니티 자원	보존가치가 있는 농업유산**자원
접근 및 계획	활용(개발위주) - 하드웨어(개발, 정비) - 소프트웨어(역량강화 등)	보전과 활용의 균형 - 중심 에코뮤지엄 - 위성 에코뮤지엄 - 에코뮤지엄간 연계 - 추진체계 구축
사업 진입 단계	역량에 따라 4단계(예비단계, 진입단계,발전단계,자립단계)로 구분하여 사업 진입	1. 농업유산지역은 우선시행 2. 발전 및 자립단계 수준에서 사업 참여 가능 (마을 및 권역단위 사업 경험이 풍부한 지역 대상)
사업시행	공모사업	1. 공공부문의 사업심의를 통해 대상 사업지(POOL) 선정 2. 해당지역 추진협의체가 신청
비고	* 행정구역(리,읍면,군)단위 또는 자원권(생태권, 경관권, 생활문화권, 농업(유산)권 등) 으로 다양하게 설정 가능 **농업유산 : 광의의 농업유산을 의미하며 기존 농업유산을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임. 농촌주민의 전통적 농림업활동 및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 되어 온 지역사회의 차별적이고 독특한 유형·무형 자원	

다.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에코뮤지엄의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의 ‘농업유산’보다 확대된 개념인 ‘광의의 농업유산’을 정의하고 적용시키기 위한 유형화방안 등 그 형태와 범위를 구체화하고, 유형별 3개 시범모델에 대한 계획을 현장기반의 관점에서 수립하고 제시함으로써 에코뮤지엄 사업의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 향후 에코뮤지엄이 정책도입으로 이어질 경우 지자체 담당자, 지역주민 등에게 에코뮤지엄과 농업유산자원 개념의 이해를 돕고, 관련 사업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시범모델을 바탕으로 한 참고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 또한, 농업유산지구에 있어 기존의 농업유산 개념을 확대한 넓은 의미의 농업유산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보전가치가 있는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폭넓게 발굴하고 보전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존 마을 단위 또는 권역단위의 사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미흡한 사업지구의 활성화에 에코뮤지엄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Summary

1. Title

- A Study on the Pilot Model Development for the Ecomuseum as a Rural Heritage

2. Period of Study

- 2014.2. ~ 2014.12

3. Necessities and Objectives of the Study

3.1 Necessities of the Study

- Rural heritages which are involving agricultural heritages could be one of the crucial items to enhance the community identity through strengthening the local economy, creating jobs, and recovery of their identities as a ‘conservation approach method’
- Since 2012, MAFR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f Korea introduced the policy “Korea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and 4 areas have been designated as KIAHS sites. Plus, ‘pluralistic sources utilizing project’ is in progress for each KIAHS sites. However, Agricultural heritage need to be preserved more widely, but Korea government didn’t have further systems for the broad conservation including KIAHS sites. That is the reason why we do study for Eco-museum system.

3.2 Objectives of the Study

- Agricultural Heritage and Ecomuseum system are based on the conservation of their own heritage.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broad conservation methods about rural heritage

including agricultural heritage areas. Specific actions to conduct included the following:

- Review of the ecomuseum system and suggest applicable way for Korea rural areas including KIHAS sites.
- Pilot application on the KIAHS sites and neighboring areas for utilizing eco-museum system.
- Implications for applied results

4. Conclusions

- Ecomuseum system is applicable as methods for wide preservation on the Agricultural heritages.
- Eco-museum system could contribute local activation and identity recovery through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rural heritages.
- Ecomuseum system has a worth that should be reviewed for policy projects.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2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3
1. 연구방법	3
2. 연구의 추진체계	4
제4절 선행연구	5
제2장 에코뮤지엄의 개념 정립	8
제1절 에코뮤지엄의 개념 형성과 전개과정	8
1. 개념형성의 배경	8
2. 개념의 전개과정	10
제2절 에코뮤지엄 개념의 정립	12
1. 에코뮤지엄의 어원	12
2. 개념의 정의	13
3. 에코뮤지엄 개념의 진화적 정의	16
제3절 한국 농촌에코뮤지엄의 개념정립	20
1. 한국 농촌에코뮤지엄의 개념정립방향	20
2. 한국농촌에코뮤지엄 개념구성의 기본요소	21
3. 한국농촌에코뮤지엄의 정의	28
4. 농촌에코뮤지엄과 지역유산	29
제4절 한국농촌에코뮤지엄의 설계	34
1. 기본구상	34
2. 대상구역 범위의 설정	36
3. 농촌에코뮤지엄의 유형화	38
4. 농촌에코뮤지엄 설계의 실제	44

제3장 에코뮤지엄 관련 국내 정책 및 사례분석	47
제1절 부처별 유사제도 검토	47
1. 농림축산식품부	47
2. 환경부	50
3. 국토교통부	53
4. 문화체육관광부	58
5. 문화재청	61
6. 기타	65
7. 소결	67
제2절 부처별 유사사업 검토	70
1. 농림축산식품부	70
2. 환경부	71
3. 문화체육관광부	74
4. 문화재청	75
5. 소결	77
제3절 국내 사례	78
1. 진안군 백운면 에코뮤지엄	78
2. 철암 빌리지움	85
제4절 검토결과	87
제4장 에코뮤지엄 해외 정책 및 조성사례 분석	89
제1절 일본 사례	89
1. 에코뮤지엄에 관한 일본의 현황 및 내용	89
2. 에코뮤지엄 관련 일본 중앙정부 정책 및 실행	97
3. 에코뮤지엄 일본 사례	104
4. 시사점	119
제2절 프랑스 사례	122
1. 에코뮤지엄에 관한 프랑스의 현황 및 내용	122
2. 에코뮤지엄 관련 프랑스 중앙정부 정책 및 실행	130
3. 에코뮤지엄 프랑스 사례	133
4. 시사점	147

제5장 에코뮤지엄 유형별 시범조성 모델개발	149
제1절 기본방향	149
1. 대상지 선정방향	149
2. 계획방향	151
제2절 전통농업형 에코뮤지엄 시범조성	152
1. 대상지 개요	152
2. 기본방향 및 계획내용	169
제3절 전통문화형 에코뮤지엄 시범조성	184
1. 대상지 개요	184
2. 기본방향 및 계획내용	196
제4절 생태경관형 에코뮤지엄 시범조성	212
1. 대상지 개요	212
2. 기본방향 및 계획내용	237
제6장 결론	254
1. 연구의 요약	254
2. 에코뮤지엄 도입 필요성	256
3. 에코뮤지엄이 갖는 차별성	257
4. 시사점 및 기대효과	259
참고문헌	261

< 표 목차 >

[표 1-1] 에코뮤지엄 관련 선행연구	5
[표 2-1] 보이런의 전통적 박물관과 에코뮤지엄의 비교	16
[표 2-2] 광의의 농업유산(농촌에코뮤지엄의 대상)의 분류	33
[표 2-3] 농업유산 대상목록 및 평가(예시)	43
[표 3-1] 농어업 유산의 대상	48
[표 3-2] 환경보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50
[표 3-3] 환경부 자연환경 보호지역 지정 주요현황('13.11)	51
[표 3-4] 환경부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지원(동강유역 프로그램)	53
[표 3-5] 문화지구제도의 목적 및 기대효과	59
[표 3-6] 문화지구제도 규제와 지원	60
[표 3-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범위	62
[표 3-8]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내용	63
[표 3-9] 양동마을 종합정비계획 기본방향	65
[표 3-10] 지자체 한옥관련 조례 운영 현황	65
[표 3-11] 부처별 유사제도 검토	69
[표 3-12] 부처별 유사사업 검토	77
[표 4-1] 일본 에코뮤지엄의 내용	93
[표 4-2] 일본의 에코뮤지엄 리스트	94
[표 4-3] 환경성의 에코뮤지엄 정비사업	97
[표 4-4] 환경성의 에코뮤지엄 정비사업 및 관련 정책과의 관계	98
[표 4-5] 전원 공간 정비 사업의 내역	101
[표 4-6] 전원 교류 기반 정비 사업의 내역	102
[표 4-7] 전원정비사업의 개요	103
[표 4-8] 미야카와 유역 에코뮤지엄의 전개과정	114
[표 4-9] 브레스 부르기논 에코뮤지엄의 소박물관	135
[표 5-1] 에코뮤지엄 유형별 대상지 후보	150
[표 5-2] 청산도 인구 현황	154
[표 5-3] 청산도 농업인구 현황	155
[표 5-4] 청산도 식량작물(정곡, 채소류) 생산량	155
[표 5-5] 청산도 어촌계 현황	156

[표 5-6] 청산도 주민단체현황	156
[표 5-7] 인구 및 농경지현황	186
[표 5-8] 석보면 사회단체현황	186
[표 5-9] 대상지 접근성	213
[표 5-10] 인구 현황	215
[표 5-11] 토지이용 현황	215
[표 5-12] 주요 농작물 현황	216
[표 5-13] 산수유 주산지별 생산현황	216
[표 5-14] 문화재 분포현황	217
[표 5-15] 산동면내 문화재 내역	217
[표 5-16] 산동면 자원 현황	219
[표 5-17] 산수유 군락지에서 서식하는 동·식물군	220
[표 5-18]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 에코뮤지엄 분야별 자원현황	221
[표 5-19]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 에코뮤지엄 자원현황	223
[표 5-20] 산수유 농업에 필요한 관련 농기구	225
[표 5-21] 산수유 시목(보호수) 현황	228
[표 5-22] 구례군 산동면의 주민조직 현황	249
[표 5-23] 산수유 에코뮤지엄 중간조직의 구성	250
[표 5-24] 산수유 에코뮤지엄 중간조직의 역할	250
[표 6-1] 기존사업과 에코뮤지엄의 차별성	258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4
<그림 2-1> 행정단위에 의한 대상구역 범위의 설정	37
<그림 2-2> 자원분포에 따른 대상구역 범위의 설정(예시)	38
<그림 2-3> 농촌 에코뮤지엄의 유형구분	40
<그림 2-4> 농촌에코뮤지엄의 유형별 구성도(예시)	46
<그림 3-1> 국가농업유산지정절차	71
<그림 3-2> 백운면 문화·관광·산업자원 현황 분석도(섬진강 40리길, 정미소 탐방 15리길, 섬진강 600리길을 따라)	80
<그림 3-3> 백운면 에코뮤지엄 구상도	82
<그림 3-4> 지역 주민이 구사한 에코뮤지엄 개발 개념도	83
<그림 3-5> 공동체박물관으로 활용되는 계남정미소	84
<그림 3-6> 특색 있는 간판 정비를 벌인 백운면 소재지 거리 모습	85
<그림 3-7> 공간의 재발견! 미술관의 색다른 변신!	86
<그림 3-8> 부처별 지역자원보전방식	88
<그림 4-1> 에코뮤지엄 정비사업의 에코뮤지엄 이미지	98
<그림 4-2> 농림 수산성의 전원 공간 박물관의 개념	100
<그림 4-3> 키타하리마 전원 공간 박물관의 범위 및 전경	104
<그림 4-4> 하이랜드 파크와 주변 자원, 시설과의 네트워크 형성 이미지	105
<그림 4-5> 다중 구조를 지닌 광역 에코뮤지엄의 개념	106
<그림 4-6> 종합사무소 시찰 모습	107
<그림 4-7> 키타하리마 전원공간 박물관의 조직 및 활동	108
<그림 4-8> 키타하리마 전원 공간 박물관 위성 자원 개소	110
<그림 4-9> 이사리가미 집락과 석축 다랭이 논 의 풍경	111
<그림 4-10> 미야카와 유역 에코뮤지엄의 범위	113
<그림 4-11> 미야카와 유역 에코뮤지엄의 목적 및 추진 체제	115
<그림 4-12> 유역관 및 현지 시찰 모습	116
<그림 4-13> 휴경 논을 활용한 비오톱의 모습	117
<그림 4-14> 자연학교 및 현지 시찰 모습	118
<그림 4-15> 2014년의 에코뮤지엄 및 사회박물관 연맹(FEMS)에 가입된 박물관의 분포	126

<그림 4-16> 브레스 부르기논 에코뮤지엄의 주요 시설	136
<그림 4-17> 모르방 에코뮤지엄 소개브로셔	138
<그림 4-18> 모르방 에코뮤지엄 전경	138
<그림 4-19> 알자스 전통 가옥 중 하나인 Koetzingue 주택 해체, 이전 복원 및 재조립을 위한 작업과정과 완성된 모습(1980년)	140
<그림 4-20> 알자스 에코뮤지엄의 배치도와 마을 전경	140
<그림 4-21> 알자스 에코뮤지엄의 체험프로그램	142
<그림 4-22> 렌느지역 에코뮤지엄 시설위치도 및 시설 설명	146
<그림 4-23> 렌느 지역 에코뮤지엄 주요 사진	147
<그림 5-1> 에코뮤지엄 시범조성 대상지 후보	149
<그림 5-2> 에코뮤지엄 계획방향	151
<그림 5-3> 대상지 위치	152
<그림 5-4> 청산도 지목별 면적구성(2012)	152
<그림 5-5> 에코뮤지엄 종합현황도	157
<그림 5-6> 중심에코뮤지엄 현황(1)	158
<그림 5-7> 중심에코뮤지엄 현황(2)	159
<그림 5-8> 중심에코뮤지엄 현황(3)	160
<그림 5-9> 에코뮤지엄센터-도청항 인근 현황	161
<그림 5-10> 에코뮤지엄센터-도청항 인근 현황(2)	162
<그림 5-11> 에코뮤지엄센터-도청항 인근 현황(3)	163
<그림 5-12> 위성에코뮤지엄 1-국화리 전통경관마을	164
<그림 5-13> 위성에코뮤지엄 2-범바위전망대 일대	165
<그림 5-14> 청산도 에코뮤지엄 조성의 기본방향	170
<그림 5-15> 상당수 눈에 띄는 휴경지	172
<그림 5-16> GIAHS 국제 학술대회 모습	173
<그림 5-17> 구들장논에 대한 방송 및 연구논문	173
<그림 5-18> 청산도 구들장논 오너제도의 단계	174
<그림 5-19> 진안 꽃잔디마을 박물관 사례 (외관:위, 내부:아래)	175
<그림 5-20> 울신광역시 남구 매암동 신화마을 아카이브전 사례	176
<그림 5-21> 서울 관악구 달동네 밤골마을 사진 아카이브 사례	176
<그림 5-22> 제주도 전통경관마을 복원사례	177
<그림 5-23> 국화리 방풍림의 모습	177

<그림 5-24> 마을숲으로 복원된 남해군 물건리 방조어부림 사례	178
<그림 5-25> 경주, 전주 무료셔틀(좌), 포항 관광을 위한 자전거 대여소(우)	179
<그림 5-26> 스마트폰 관광정보 제공 사례	180
<그림 5-27> 대상지 위치	184
<그림 5-28> 영양군 지목별	184
<그림 5-29> 에코뮤지엄 자원현황	187
<그림 5-30> 중심에코뮤지엄-두들마을 현황(1)	188
<그림 5-31> 중심에코뮤지엄-두들마을 현황(2)	189
<그림 5-32> 중심에코뮤지엄-면소재지 현황	190
<그림 5-33> 위성에코뮤지엄 1-연당마을 현황	192
<그림 5-34> 위성에코뮤지엄 2-산촌생활박물관	193
<그림 5-35> 위성에코뮤지엄 3-선바위 영양고추 홍보관	193
<그림 5-36> 두들마을 완충녹지조성계획	198
<그림 5-37> 현재 신규주택지(석보문화마을)전경	199
<그림 5-38> 다층구조식재예시	199
<그림 5-39> 에코뮤지엄센터로 활용가능한 지역활성화센터 시설	200
<그림 5-40> 에코뮤지엄센터 구상(지역활성화센터 활용)	200
<그림 5-41> 안동하회마을 관광안내센터	201
<그림 5-42> 연당마을 입구 현황	202
<그림 5-43> 연당마을 입구 한뼘공원	203
<그림 5-44> 에코뮤지엄 교육장소	204
<그림 5-45> 에코뮤지엄 교육장소 제공	204
<그림 5-46> 영양고추홍보관 수비초 재배장 조성 대상지	205
<그림 5-47> 영양고추 홍보전시관내 (가칭)고추장카페 운영	206
<그림 5-48> 반변천 트레킹시설	206
<그림 5-49> 반변천 트레킹 세부내용	207
<그림 5-50> 자전거길 노선도	208
<그림 5-51> 안동 하회마을 무료셔틀버스 사례	208
<그림 5-52> 안동하회마을 문화해설사	209
<그림 5-53> 대상지 위치	212
<그림 5-54> 구례군 산동면 지목별 면적구성(2011)	213
<그림 5-55> 구례군 산동면 위치	214

<그림 5-56> 산동면내 문화재	218
<그림 5-57> 산동면 주요 관광지	219
<그림 5-58> 산동면에서 관찰되는 멸종위기종 포유류	220
<그림 5-59> 산동면 생태자연도(좌), 국토환경성지도(우)	221
<그림 5-60> 구례군 산동면 에코뮤지엄 자원현황	222
<그림 5-61> 산수유 군락지 봄, 가을 풍경	224
<그림 5-62> 산수유꽃축제	224
<그림 5-63> 산수유 생산과정	225
<그림 5-64> 중심 에코뮤지엄 산수유돌담길 주요자원	226
<그림 5-65> 산수유 사랑공원 전경	227
<그림 5-66> 중심 에코뮤지엄 자원분포 현황	227
<그림 5-67> 산수유 시목관련 자원	228
<그림 5-68> 계척마을 및 주변지역 자원사진	229
<그림 5-69> 지리산 만복대 및 노고산 전경	230
<그림 5-70> 구례 산동면 사포마을 다락논 전경	230
<그림 5-71> 구례 산동면 생태자연도와 멸종위기 동식물 분포지도 ..	231
<그림 5-72> 섬진강 서시천 유역도(좌), 산동면과 서시천 구만제 상류유역(우) ..	231
<그림 5-73> 서시천 유역 주변 자원 분포도	232
<그림 5-74> 구만제 주변 자원현황	232
<그림 5-75> 지리산 온천지구내 나들이장터	233
<그림 5-76> 지리산 둘레길 코스	234
<그림 5-77> 서시천 유역의 산수유 에코뮤지엄 조성개념	238
<그림 5-78> 자연생태계와 유역을 고려한 에코뮤지엄 범위설정 단계 주요내용 ..	239
<그림 5-79> 산동면 중심에코뮤지엄 보전계획을 위한 생태네트워크 구축 ..	240
<그림 5-80> 마을돌담길 및 산수유 돌담길 정비 예시	241
<그림 5-81> 중심 에코뮤지엄 마을네트워크 구축	242
<그림 5-82> 구례 산수유 에코뮤지엄 생태단면도	243
<그림 5-83> 산수유 시배마을 주요 계획 (예시)	244
<그림 5-84> 지리산 다락논 에코뮤지엄 조성	245
<그림 5-85> 생태관찰 조망대(Hide View) 설치 사례	246
<그림 5-86> 지리산둘레길과 산수유고향의 길 연계 방안	247
<그림 5-87> 지리산 나드리장터와 연계한 에코뮤지엄 조성	248

<그림 5-88> 지역조직과 연계한 산수유 에코뮤지엄 중간지원조직 구성(안)	· 249
<그림 5-89> 지리산둘레길 ‘산동-방광’구간 => 산수유 꽃담길로 연결로 개설	· 251
<그림 5-90> 지리산둘레길과 산수유꽃담길 연결로/산동면 - 평촌마을입구 3.2km	251
<그림 5-91> 안내판, 쉼터조성 사례	25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농업유산¹⁾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농업유산을 활용한 지역의 이익(소득, 일자리, 연계상품 판매 등) 창출이 필요
 - 프랑스, 독일 등은 지역의 농업유산을 자연그대로 보전하고 이를 에코뮤지엄(지붕없는 박물관) 형태로 공개함으로써 관광소득 등을 창출과 동시에 농업유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음
- 근래에 들어 지역개발정책에 지역의 유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2003년에 EU회원국의 지역개발 관련부처 장관회의(CEMAT)에서 채택한 유럽농촌유산가이드는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농촌문화유산을 자원으로 하는 개발계획의 중요성과 원리를 채택함
-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 이후의 농촌개발방식은 과거의 농업 중심적이고 도·농간 생활환경의 격차해소에서 농촌이라는 장소가 보유하고 있는 차별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발전을 모색하는 이른바 장소지향적(the place-based approach)발전전략으로 전환을 시도한 바 있음
- 유산이 지역발전의 엔진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를 잘 활용하는 방향에서 지역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오늘날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문화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음. 농촌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변화해야 함. 이 같은 맥락에서 향후 지역개발정책에서는 농업유산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농업유산이 발굴되었다고 해서 지역발전이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때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음. 그러므로 앞으로는 지역의 농업유산을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지역개발정책의 중심으로 가져와 이를 적극 활용하는 데에 정책의 무게 중심을 둘 필요성이 있음

1) 농업유산 개념 등 관련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2012)의 보고서를 참고

- 농업유산제도가 도입 초기단계에 있어 광의의 농업유산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유산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의 축적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고, 농업유산 자원을 활용한 보전·활용 관리방안에 대한 계획수립이 추진되는 단계에 있어 향후 농업, 광의의 농업유산을 포괄하는 지역 활성화 모델의 모색 등이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 농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에코뮤지엄 조성을 통한 농촌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 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농업유산을 활용한 에코뮤지엄 시범조성 모델을 개발하고, 농업유산과 연계한 창조상품, 공간적 가치창출 방안을 마련함
- 또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농촌지역의 핵심적 자원 중 하나인 현재의 농업유산에서 확대하여 광의의 농업유산을 대상에 포함하여 에코뮤지엄의 조성 모델 개발을 추진함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 에코뮤지엄의 개념 정립 및 유형화 등 이론적 고찰
- 에코뮤지엄 및 유사개념간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념 정의, 변천과정, 최근의 동향분석
- 에코뮤지엄의 이론 분석을 통한 유형화 및 유사 정책과의 차별성
- 에코뮤지엄에 대한 국내 관련 정책현황 분석 및 차별성
- 프랑스, 일본 등 선진외국의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에코뮤지엄 시범조성 가능 지역 발굴 및 현황조사
- 유형별 에코뮤지엄 시범조성 모형 개발
- 에코뮤지엄 조성사례 분석 및 시범모델 정립
- 기존의 농림사업과 연계방안
- 에코뮤지엄을 활용한 농업유산지역의 보전·활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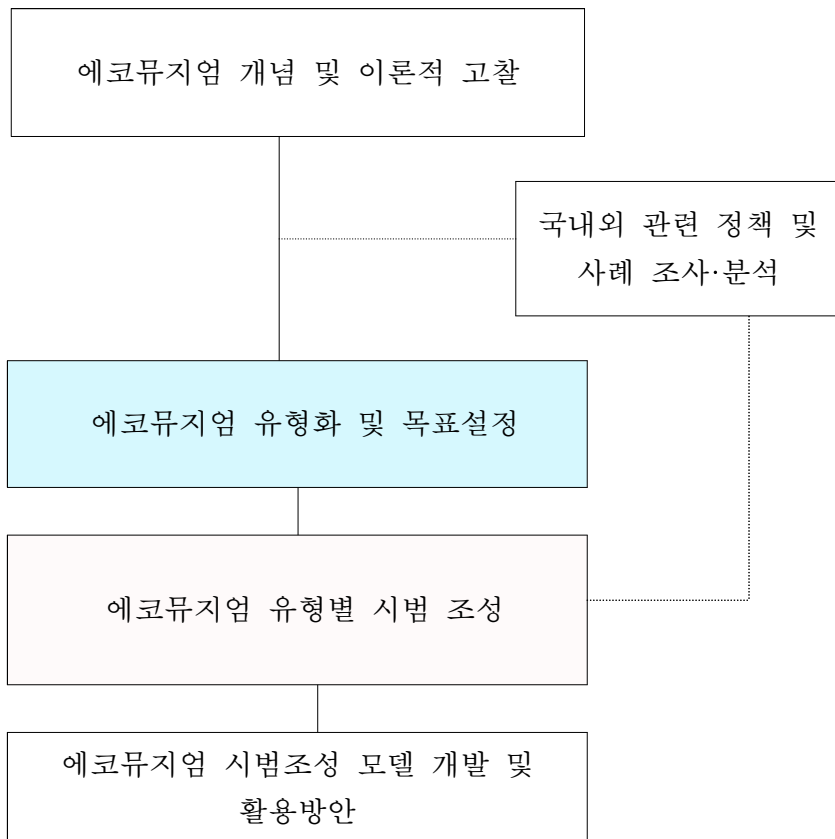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1. 연구방법

- 에코뮤지엄의 개념 정립 및 유형화
 - 선행연구 및 관련 사례 조사·분석
 - 연구진의 정기적 토론회 등을 통해 개념 정립 및 유형화 컨센서스 도출
- 에코뮤지엄 관련 국내 관련 정책현황 분석
 -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를 분석하여 에코뮤지엄 관련 농식품부, 문광부, 국토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별 정책현황 및 추진동향 분석
- 국내외 에코뮤지엄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내 유사사례 문헌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한 실태분석
 - 외국 선진사례에 대한 문헌분석 등을 통해 최근 정책동향 및 시사점 도출
- 에코뮤지엄 시범조성 모델 개발
 - 에코뮤지엄의 유형별 모델 분석
 - 에코뮤지엄 시범모델 적정 대상지 분석 및 선정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기 선정된 지역 1곳과 일반 농촌지역 1~2곳을 선정하여 시범조성 모델을 개발함
- 에코뮤지엄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방안
 - 농업유산 및 광의의 농업유산 등 농어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문헌연구 및 현장연구를 통한 사례조사 분석
 - 일본, 중국 등의 세계농업유산 선정지역의 사례 관련 자료 수집 및 관련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정보 수집
- 연구진 내부토론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농식품부 업무담당자,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에코뮤지엄의 시범모델 추진방향을 도출함

2. 연구의 추진체계

-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대학교수, 관련기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시 자문위원회 개최
 - 3월26일 : 착수세미나 (완료)
 - 7월11일 : 중간자문회의 (완료)
 - 12월5일 : 최종자문회의
- 전문가와의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연구원과 관련분야 전문가 공동 연구진을 구성하여 지자체, 농식품부, 연구진 간의 지속적인 연구협의체 구축을 통한 에코뮤지엄의 시범조성 모델 개발과 추진방안을 마련함
- 연구의 추진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제4절 선행연구

- 국내 에코뮤지엄의 연구는 2000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에코뮤지엄은 기존의 박물관에서 벗어나 생태와 자연을 소재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에게 친근하게 접근한 형태로 정의되었음. 이를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해설사의 역할이 중요시되었음. 이를 반영하는 연구들이 주로 나타났음

[표 1-1] 에코뮤지엄 관련 선행연구

년도	저자	제목	출처	주요내용
2002	방한영 외	농촌활성화정책과 지역통째로 박물관, 에코뮤지엄	한국농촌건축학회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역사자원, 자연자원, 산업자원을 유산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에코뮤지엄이라는 개념을 설명
2003	김선화 외	에코뮤지엄 개념에 기초한 지역문화재의 보존 및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분석	대한건축학회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민참여의 방법으로 문화유산을 보존 및 홍보하는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활용 지역자원의 현황을 잘 파악하여 교육과 관광의 장으로서 에코뮤지엄이 필요
2004	신현요 외	이탈리아 지역의 에코뮤지엄 사례와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이탈리아 사례를 통해 에코뮤지엄은 지역의 정체성을 역사적 유산을 통해 확립하며 지역사회의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수행함을 강조
2004	이민경 외	지역활성화를 위한 농촌 마을간 네트워크 방안 연구 -일본 아산라이브뮤지엄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	에코뮤지엄은 지역민들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상향식 지역발전을 이끌어 주민참여형 지역활성화를 이룩하는 방안
2004	권사빈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에코뮤지엄 개념의 적용 -강화도를 중심으로-	인천문화연구소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온 생태관광은 에코뮤지엄을 통해 교육, 협력, 보전이라는 측면을 모두 달성
2005	김수미 외	에코뮤지엄 실현을 위한 청주시민의 지역유산에 대한 보전의식 고찰	대한건축학회	지역유산의 보존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은 그들의 살고 있는 지역에 더욱 강한 애착을 형성하며 지역의 독창성을 확립
2006	권수미	지역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에코뮤지엄 적용에 관한 연구 -부산사진박물관 설립제안의 철학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소	전형적인 박물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을 통해 문화활성화를 이루는 방안으로 에코뮤지엄이 필요 우리나라 현황에 에코뮤지엄 시스템 구축이 요청

2007	최효승	에코뮤지엄의 농촌계획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청주산업 과학연구 소	농촌계획에 있어 에코뮤지엄은 지역 전체를 박물관으로 보는 새로운 관점에서 적용가능성을 탐구
2009	윤재웅	에코뮤지엄으로서의 미당시문학관 발전 가능성에 대한 고찰	한국문학 연구소	문학이라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 자연환경과 연결된 문학관의 형태로 에코뮤지엄을 제안 에코뮤지엄의 진화와 가능성에 대해 논의
2011	박헌춘	에코뮤지엄 개념을 적용한 농촌 마을만들기	충북대학 교 건축학과 박사학위 논문	에코뮤지엄과 마을만들기의 개념을 접목하여 농촌활성화의 방안을 제시
2012	배은석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에코뮤지엄 모델 연구 -이천 울면 부래미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외국 어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 화콘텐츠 학과 박사학위 논문	에코뮤지엄의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가능한지 이천 울면 마을을 분석하고 실천 전략을 수립
2013	장세길	농어업유산, 유산관광 그리고 에코뮤지엄 -농어업유산의 지역 활성화 연계를 위한 에코뮤지엄 적용 연구-	농촌지도 와 개발	유산관광의 형태로 에코뮤지엄을 활용하기 위한 실행요소(유산, 박물관, 참여, 콘텐츠)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실천적 정책(콘텐츠, 거버넌스, 인터넷, 학술, 소득연계)을 제안함
2014	김재균	농업가치 확산을 위한 박물관교육 연구 -농업계박물관 교육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 교 박물관교 육학 박사학위 논문	농업가치 확산을 위해 박물관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다양한 운영방안을 제시

- 에코뮤지엄 연구초기에는 개념 정립, 해외 사례 연구가 주를 이룬 반면, 최근에는 박사논문들도 어떻게 실제적으로 농촌지역에 적용가능한지 전략 및 정책방안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이 연구들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에코뮤지엄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있던 것을 다시 재구성함으로써 지역 전체를 박물관으로 만들어가는 활동임. 따라서 에코뮤지엄의 존재는 사회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이미 건설이 주도하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생태학적 지역발전을 기본으로 생산을 위한 디자인에서 이용을 위한 디자인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 둘째, 에코뮤지엄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마을만들기의 새로운 대안임. 유럽의 에코뮤지엄은 각국의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고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 요구와 함께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지속가능함을 실현하고 있음
- 셋째, 에코뮤지엄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을 유산의 범주로 보는 포괄적 유산개념을 바탕으로 형성됨. 그렇기 때문에 에코뮤지엄은 다양한 학문분야에 기초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유산의 가치평가와 보존을 위한 해석방법이 새롭게 제시되어야 함
- 넷째, 에코뮤지엄은 단순관람이 아닌 유산의 현지보존에 따른 견학과 체험방식을 가지고 있음.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삶 자체가 유산으로서 존재함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문화를 소개하고 알리는 학예사(또는 해설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함. 그렇기 때문에 에코뮤지엄은 철저하게 주민들에 의해 운영됨
- 다섯째, 에코뮤지엄은 지역문화의 보존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 전문가, 행정가, 지역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김.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한 유산의 발굴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에코뮤지엄 실현을 통한 지역활성화의 근간이 됨

제2장 에코뮤지엄의 개념 정립

제1절 에코뮤지엄의 개념 형성과 전개과정

1. 개념형성의 배경

- 에코뮤지엄의 개념은 전통적 박물관의 전시영역과 전시물의 외연을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음. 그러므로 에코뮤지엄의 개념 이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박물관의 개념에 어떤 개념요소들이 하나씩 추가되어 왔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다음에서는 먼저 기존의 전통적 박물관 개념을 검토함으로써 이 개념이 갖는 특징과 한계를 알아보고 이에 기초하여 에코뮤지엄이란 새로운 개념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알아보기로 함
- 전통적 박물관은 통상적으로 고고학 자료와 미술품, 역사적 유물, 그 밖의 학술적 자료를 널리 수집·보존·진열하고 일반인에게 전시하는 시설을 말함. 이 같은 통상적 박물관은 건물을 갖추고 그 실내에 전시물을 보관하며 전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됨. 전통적 박물관의 경우 전시물인 미술품, 유물, 학술자료 등은 대부분이 유형적이며 고정적인 점적 대상물임. 전통적 박물관의 기능은 유물, 자료 등을 찾아서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보존하며 주민들에게 전시하는 것이었음
- 그런데 19세기말경에 이르러 유럽에서는 전통적 박물관의 운영시스템과 기능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이 같은 변화를 초래한 시대적 배경으로 유럽의 산업화를 들 수 있음. 이 시기에 유럽의 제국은 산업혁명을 어느 정도 완수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농업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음
- 즉, 당시에 유럽은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공업부문의 확대와 도시화, 그리고 그에 따른 농민들의 이농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농촌공동체가 해체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음. 농지의 대단위화 및 기계화로 인해 전통적인 소농 중심의 농촌사회가 해체되었고 이로 인하여 전통적인 마을모습이 상당 부분 훼손되는 현상이 나타났음
- 이 같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라져가는 농촌의 모습을 애석하게 여긴 의식 있는 사람들이 각 분야에 상당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인물로 스웨덴의 헤즐리스(Artur Hazelius, 1833~1901)를 들 수 있음

- 헤즐리스는 당시의 황폐화되어가는 농촌의 모습을 목격하고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사라져가는 농촌의 보전을 위하여 마을 전체를 옛날 모습 그대로 복원하여 전시하려는 구상을 하게 됨. 그가 시도한 이와 같은 농촌공동체의 보전을 위한 구상은 그 후에 박물관학에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이 분야에서 이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 오늘날 우리가 에코뮤지엄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음
- 헤즐리스의 구상은 실제로 1891년 스웨덴의 스톡홀름 지방에서 실현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에코뮤지엄의 시원이 된 스칸센 박물관임. 스칸센 박물관에는 스웨덴의 전통마을이 재건되었으며 전통적 목축방법이 소개되었고, 자생하는 동식물을 기르는 방법 등이 포함되었음²⁾
- 스칸센 박물관이 이전의 박물관과 다른 점으로 야외 박물관(Open Air Museum)의 개념이 도입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야외박물관은 기존의 박물관의 개념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면적 요소로서의 야외, 즉 장소를 박물관의 개념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이전과 구별됨. 이 같은 생각은 기존의 박물관의 관점에서 보면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당시에 야외(Open Air)를 박물관의 개념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첫째는 전시공간이 실내에서 실외로 확대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이를 좀 더 확대해석하면 지역 또는 마을 전체가 전시 공간이 되어 마을 전체가 하나의 지붕 없는 박물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둘째는 전시물의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야외 박물관에서는 점적 요소로서의 유물이나 자료뿐만 아니라 농어업유산지역과 같은 면적, 공간적 요소가 전시대상이 될 수 있음. 스칸센 박물관에서 나타난 야외박물관의 구상은 그후에 정립된 에코뮤지엄의 개념 속에 그대로 반영되었음

2) 야외박물관에서 시작된 생활사복원운동의 전시기법에서 에코뮤지엄의 개념이 처음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음

- 기존 박물관의 개념에 야외의 개념이 도입된 이래로 박물관의 전시 대상과 기능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초래되게 되었음
- 무엇보다도 기존의 박물관이 유형의 것을 주로 전시대상으로 했던 것에서 벗어나 농촌의 생활과 관련된 전통 문화, 지식, 기술 등의 무형적 요소들을 전시대상으로 포함되게 되었음
- 요약하면 에코뮤지엄이 전통적인 박물관과 다른 가장 큰 개념상의 특징은 전시공간을 야외로 확대하였다는 점과 전시대상의 외연을 유형적 요소에서 무형요소로, 그리고 점적인 요소에서 면적인 요소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이 등장하게 된 이면에는 자본주의의 성숙에 따라 나타난 농촌공동체의 해체라는 시대적 변화가 있었음.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의 물결 가운데서 농업과 농촌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가치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애석하게 여긴 이들에 의해서 농촌지역의 가치를 보존하려는 운동이 전개되었음. 그러다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박물관학에서 이러한 운동의 의미를 수용하여 구체화함으로써 에코뮤지엄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게 되었음
- 오늘날 에코뮤지엄이라고 하면 박물관학에서 다루고 있으나 에코뮤지엄의 개념이 형성된 시대적 배경을 보면 박물관학이라는 학문적 성격보다는 농촌자원의 보전과 관련된 학문에 더 가까운 측면이 있음. 그러므로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박물관학이라는 관점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이해하기보다는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분야의 관점에서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개념의 전개과정

- 스칸센 박물관 이후에 19세기말에서 20세기 중반에 걸쳐 이와 유사한 성격의 박물관들이 유럽의 각국에서 설립되게 되었음. 이들은 대부분이 구조적으로는 야외박물관의 형태를 취한다는 점과 지역성(정체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전통적 박물관과 구별됨
- 그러나 당시에 이 같은 박물관들이 모두 통일된 형태를 가진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음
- 특히 이 같은 활동은 프랑스에서 활발히 전개되었음. 그러다가 1971

년에 조지 앙리 리비에르(George Henri Riviere)에 의해 이 같은 활동을 에코뮤지엄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자는 의견이 제안되게 되었음. 그 후에 국제 박물관회의에서 이 용어가 공식적인 용어로 인정되어 사용되게 되었음

- 그러므로 에코뮤지엄의 개념이 먼저 정립되고 이에 의해 실제적 현상으로서의 에코뮤지엄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 현상(presence)이 먼저 다양한 형태로 각국에서 존재하였고 이에 바탕을 두고 개념이 사후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³⁾그러나 일단 개념이 만들어진 후에는 이 개념에 의해 실제적 현상(presence)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경향을 볼 수 있음. 실제로 리비에르에 의해 에코뮤지엄의 개념적 정의가 소개된 이후에 에코뮤지엄은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갔음
- 20세기 후반은 세계적으로 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던 시기임. 특히 유럽은 유럽연합의 출범으로 각 지역 간의 문화적 교류가 더욱 촉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문화유산을 통하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의식을 갖게 되었음. 에코뮤지엄의 개념은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매우 적합한 것이었음
- 20세기에 유럽에서 설립된 에코뮤지엄은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의 에코뮤지엄에서는 장소성(야외)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면 20세기의 에코뮤지엄에는 특히 지역성(정체성)이 강조되게 되었음. 즉 에코뮤지엄이 주민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주민참여의 장으로, 지역활성화의 수단으로, 대중문화의 구심점으로 그 개념이 폭 넓게 확장되게 되었음
- 그 후에, 유럽에서 시작된 에코뮤지엄의 개념은 1980년에 들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었음.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먼저 이 개념을 받아들여 지역의 유산을 이용한 지역의 활성화를 시도하였음. 중국에서는

3) 제2차 대전후 리비에르는 프랑스의 건축유산의 보존 필요성을 절감하였음. 그는 스칸센의 야외박물관에서 시작된 생활사복원운동(living history movement)에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프랑스 민중예술 박물관의 설립시에 생활가옥공간을 전체로 전시하는 수법의 도입으로 이어졌음. 그 후 1966년에 지방자연공원법의 도입에 관여하면서 이에 의해서 농촌건축의 현지보존방법을 적용하고자 하였음. 이러한 시도에 따라 프랑스에 에코뮤지엄이 도입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정립하기에 이른 것으로 생각됨

이 개념을 도입하여 소수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활용하려는 시도를 보였음. 한국에서는 조금 늦은 2000년대 이 개념이 소개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주로 도시와 농촌의 마을 만들기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게 되었음

제2절 에코뮤지엄 개념의 정립

1. 에코뮤지엄의 어원

- 에코뮤지엄(Ecomuseum)이란 용어는 원래 1971에 프랑스에서 조지 앙리 리비에르(George Henri Riviere)와 위그 드 바랭(Hugues de Varine) 등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된 후에, 1971년 9월 프랑스 디종에서 열린 세계학술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게 되었음
- 그 후에 이 용어가 각국으로 전파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나라별로 그 문화적 여건이 반영됨에 따라 국가마다 개념상에 약간씩 차별화가 초래되었음. 나라마다 이 같은 변화가 반영됨에 따라 용어의 선택에서도 다양성이 나타나게 되었음
- 즉, 에코뮤지엄의 다른 이름으로 프랑스에서는 Fragmented museum, 일본에서는 Live museum, 전원(공간)박물관, 멕시코에서는 Regional museum, 중국에서는 생태박물관이라고 불리기도 함. 한국에서는 에코뮤지엄을 지역 통째로 박물관, 생활환경박물관, 살아있는 박물관⁴⁾, 지붕 없는 박물관, 야외박물관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고 있음
- Ecomuseum은 원래 Ecology와 Museum의 합성어로 보고 있음. 에코뮤지엄을 글자대로 번역하면 생태박물관으로 부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임
-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강조하면 Ecology는 생태, 또는 생태환경을 의미하므로 에코뮤지엄이란 전통적인 박물관의 기능에 자연생태, 자연환경의 보전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음. 생태환

4) 최효승(2006), 주민참여에 의한 농촌마을계획과정과 지역 통째로 박물관 개념의 적용실험, 건축학회지

경(Ecology)은 살아있고(live) 변화하는(evolution) 속성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함. 그러므로 에코뮤지엄은 유물과 같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존하는 전통적 박물관의 기능이외에 생태환경이라는 살아서 변화하는 것을 보존하는 기능을 포함시켜야 함을 강하게 암시함. 이때 생태환경은 인간과 별개의 단순한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인간을 그 중심에 포함한 생태자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⁵⁾그러나 개념 형성의 시대적 배경에서 보듯이 에코뮤지엄은 생태환경이외에도 다양한 여러 개념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에코뮤지엄을 해석할 때는 그 개념 속에 생태적 요소를 중요한 것으로 고려하여야 하지만 지나치게 이에 구속될 필요는 없을 것임. 에코뮤지엄의 개념은 이것 이외에 농촌주민의 생활문화 등의 개념요소를 포함하여 보다 넓은 의미로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2. 개념의 정의

- 에코뮤지엄의 탄생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원래 유럽에서 농촌마을을 보존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구상되었음. 그러므로 기존의 박물관과 달리 지역 주민의 참여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포함함
- 그러므로 한 지역에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전통적 모습과 경관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 같은 전제하에 이 지역에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활동이 일부 추가될 경우에 이 지역은 에코뮤지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리비에르는 에코뮤지엄을 ‘지역사회 사람들의 생활과 그 지역의 자연환경· 사회 환경의 발달과정과 역사를 탐구하고 ,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을 현지에서 보존, 육성하고 전시하는 것을 통해서 해당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박물관’이라고 기술한 바 있음⁶⁾
- 이와 같은 리비에르의 에코뮤지엄에 대한 정의는 1971년 디종

5) Eco의 그리스 어원인 ‘Oikos’가 ‘집’을 의미함. 그래서 에코뮤지엄을 ‘집박물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최효정, 2006). 이 같이 직역하는 경우는 집이라는 용어에 오늘날 에코뮤지엄이 가지는 의미를 모두 담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사용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6) 박현준(2011), 에코뮤지엄 개념을 적용한 농촌 마을만들기, 충북대 박사학위논문

(Dijon)에서 열린 세계 학예사들의 학술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게 되었음. 그리고 1972년 산티아고 국제회의(Santiago Round Table)에서는 에코뮤지엄의 개념 속에 장소와 정체성을 중요한 개념 요소로 포함해야 할 것을 천명하게 되었음. 그러므로 에코뮤지엄의 개념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산티아고 회의에서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이상과 같이 정의된 에코뮤지엄이 기존의 박물관과 다른 점은 보이런(P. Boyan) 등에 의해 설명된 바 있는데 그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는 전시영역을 실내에서 지역전체로 확장하였다는 점임. 일반적으로 기존의 박물관이 하나의 건물에 수집품을 모아놓고 전시하며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에코뮤지엄은 지역 혹은 영역을 하나의 박물관으로 보고 지역 전체를 전시영역으로 활용함
- 둘째는 전시물을 다양화하였다는 점임. 기존의 박물관은 수집된 유물이나 자료 등이 주된 전시물인데 반하여 에코뮤지엄에서는 지역 내의 모든 유산이 전시물의 대상될 수 있음. 그리고 전통적 박물관에서는 수집된 전시물이 희귀하고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이었다면 이와 달리 에코뮤지엄에서는 주민의 생활과 관련되는 하찮은 것들도 전시의 대상물이 될 수 있음. 그리고 기존의 박물관이 주로 유형유산을 전시대상으로 한데 비하여 에코뮤지엄에서는 유형유산뿐 아니라 무형유산도 대상으로 함
- 셋째는 자연유산, 역사·문화유산 등의 전시물을 현지에서 보존한다는 점임. 전통적 박물관에서는 문화유산 및 역사유산을 박물관의 안으로 이전하거나 이전 복원하여 전시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와 달리 에코뮤지엄에서는 문화·역사유산을 현지에서 보존하면서 전시한다는 점에서 다름. 유산을 이전하거나 이전·복원할 경우는 유산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지에서 보존할 경우는 유산이 자연환경 및 사회환경과 일체가 되므로 유산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 넷째는 관람방식에서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임. 전통적 박물관에서는 관람객들이 실내에 전시된 전시물을 단순히 보는 데에 그쳤

다면 에코뮤지엄에서는 관람객이 현지에 보존된 유산에 직접 다가가서 관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예컨대 에코뮤지엄의 대상이 되는 농어업유산의 경우에는 전통적 농업기술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다섯째는 에코뮤지엄의 운영에 있어서 주민이 주체가 된다는 점임. 기존의 박물관은 소수의 전문가에 의해서 운영됨으로써 박물관에 지역의 주민이 관람객으로서 참여하는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에코뮤지엄에서는 이와 달리 지역 주민 전체가 박물관운영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임. 그러므로 에코뮤지엄은 지역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계됨. 기존의 박물관이 지역에서 하나의 점적인 구성 요소에 불과하였는데 반하여 에코뮤지엄은 지역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주민 전체가 운영의 주체가 되므로 당연히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됨. 따라서 에코뮤지엄은 지역의 지역발전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임. 이런 점에서 보면 에코뮤지엄은 마을 만들기와 관련이 있음
- 이상과 같은 에코뮤지엄은 특히 유산이 현지 보존된다는 점과 이 때문에 유산이 주변의 자연환경과 일체가 되어 전시 및 관람, 체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박물관과 현저히 구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므로 에코뮤지엄에서는 한 지역의 주민이 운영의 주체가 된다는 점, 그리고 그 지역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보존되어 왔으나 미래의 어느 시점에선가 훼손되거나 사라질지도 모를 지역유산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현장에서 보존한다는 점, 더욱이 이 같은 유산을 지역주민의 삶 가운데로 끌어들여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

[표 2-1] 보이런의 전통적 박물관과 에코뮤지엄의 비교

구분	전통적 박물관	에코뮤지엄
전시영역	건물	장소
전시물의 범위	수집된 유물	전체영역내의 모든 유산
학문영역	박물관학	복합적인 학문
방문객	관광객	공동사회
운영주체	박물관과 전문가	에코뮤지엄과 지역사회
전시방법	단순전시	체험

3. 에코뮤지엄 개념의 진화적 정의

- 에코뮤지엄이란 용어는 1971년에 프랑스의 리비에르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어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오다가 1980년에 이르러 그 개념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시 정의되게 되었음. 즉, 리비에르는 1980년 1월에 세계박물관 총회(ICOM)에서 에코뮤지엄이 지향해야 할 개념적 요소를 추가하여 ‘에코뮤지엄의 진화적 정의’를 발표하게 되었는데, 다음은 그가 발표한 에코뮤지엄의 발전적 정의 및 사회적 역할을 요약한 것임
- 에코뮤지엄은 지방정부와 그 지역주민들이 함께 꿈꾸고 가꾸는 박물관임. 지방정부는 전문가, 시설, 자원을 제공하고 주민들은 열망과 지식을 가지고 개인적 상황에 따라 박물관의 내용과 운영에 참여함.
- 에코뮤지엄은 주민이 스스로를 비추어 보는 거울임. 이 거울은 방문객들에게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관습, 산업 등을 소개해주고, 주민들에게는 스스로의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함
- 에코뮤지엄은 인간과 자연의 표현임. 인간을 자연 그대로의 환경 속에서 파악하고 전통사회 또는 산업사회를 통해 적응해온 모습을 드러내 주기도 함
- 에코뮤지엄은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의 표현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
- 에코뮤지엄은 특정한 공간에 대한 총체적인 해석임
- 에코뮤지엄은 그 지역의 주민 및 환경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연구하고,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인의 양성을 장려하는 실험실임

- 에코뮤지엄은 그 지역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보존기관임
- 에코뮤지엄은 그 지역 주민들이 그들의 보다 밝은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보호 장려해야 하는 학교임
- 에코뮤지엄은 실험실로서, 보존기관으로서, 학교로서 다음의 원칙을 갖는다. 즉, 마을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는 그 연원을 막론하고 각각의 존엄성과 예술적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함. 무엇보다도 에코뮤지엄은 하나의 역할로 만족하는 닫힌 기관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는 열린 기관임⁷⁾
- 이상과 같이 리비에르가 에코뮤지엄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특별히 ‘진화적’정의라고 강조한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에 대해 추측컨대 당시에 전개되던 에코뮤지엄 활동이 그가 당초에 의도했던 방향과 다르게 전개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에서 그는 향후 에코뮤지엄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그래서 그는 기존의 에코뮤지엄의 정의에 대하여 새로운 해설을 덧붙이고 ‘진화적’이라는 접두어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므로 에코뮤지엄의 진화적 정의는 에코뮤지엄에서 향후에 갖추어야 할 개념요소나 더욱 강화해야 할 개념요소들을 열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에코뮤지엄의 진화적 정의는 에코뮤지엄의 발전적 정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리비에르의 이와 같은 의도가 담긴 진화적 정의에 나타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⁸⁾

7) 송주희(2010), 지역활성화를 위한 에코뮤지엄, 향토사연구 21집.

UNESCO(1985), The ecomuseum-an evolutive definition, Museum

8) 리비에르의 진화적 정의에 대하여 알랭 주베르는 다음과 같이 해설을 달았음. ① 행정과 주민이 함께 구상하고 운영해 가는 도구: 지식과 대처 능력은 행정과 주민이 공유하는 것이라는 개념, ② 주민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 투영하는 거울: 주민에게 정확한 지식을 환원한다는 이념, ③ 보다 잘 이해하도록 주민이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거울: 대응한다는 것과 상호존중한다는 이념, ④ 인간과 자연의 표현: 가장 강조하는 이념중 하나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적 구축물, ⑤ 시간의 표현: 미래로 열려있다는 이념으로 에코뮤지엄은 스스로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객관적인 분석자, 정보제공자임. ⑥ 특권적 공간의 해석·이해: 시간의 해석은 에코뮤지엄의 중심 장소로, 공간의 해석·이해는 안테나라는 형태로 표현, ⑦ 연구소: 전문가 육성과 영역, 주민, 환경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음. ⑧ 보존기관: 자연환경과 문화환경의 보호와 활용을 보장하였음. ⑨ 학교: 미래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이 지역을 스스로 연구하고 보호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 ⑩ 공통 원리: 문화를 최대한 넓은 의미로 파악하였음. 유산 속에 있는 문화·고고·건축·기념비·자연·민족·가구·물질 등 문화로 바꿀 수 있는 모든 유산. 영역에 관계하는 끝없는 다양성. 외부로 개방하는 것이지 내부에 머무는 것이 아님

- 첫째는 주민의 주체적 참여를 재차 강조하였음. 전통적 박물관의 운영은 주로 정부와 전문가가 주체가 되었는데 반하여 에코뮤지엄에서는 주민이 박물관의 내용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함. 그리하여 주민, 정부, 전문가에의 협치에 의한 운영을 강조함
-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민과의 협치를 위하여 주민을 박물관의 내용과 운영에 직접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임. 한 예로, 오래된 전통 가옥에서 옛날의 생활방식과 도구들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주민의 경우에, 그가 일 년에 몇 번이든 그의 집과 생활방식을 외부에 공개하는 데 동의한다면 그의 집의 작은 하나의 위성박물관이 되는 것이며 그는 그곳의 관장이 되어 에코뮤지엄의 내용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됨
- 다른 예로, 농어업유산지역과 같이 전통방식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은 전통방식으로 농사를 유지하는 일, 그리고 그 일과 관련되는 역사적 사료를 잘 수집하여 정리하여 전시하는 일에 동의하는 경우 그의 농장은 하나의 위성박물관이 되며 그는 그곳의 관장이 되어 에코뮤지엄의 내용과 활동에 참여하는 것임
- 이때 정부와 전문가는 유산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관리, 전시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주민과 협력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인적·물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임
- 둘째는 에코뮤지엄을 통하여 지역민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됨. 에코뮤지엄은 지역주민 자신의 역사, 일상적 삶 등을 표현하는 도구이며 이를 외부에 알리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점이 강조됨
- 주민이 지역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그 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할 때 지역의 정체성이 확립될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이 하는 일이 일상적이고 하찮은 일이라도 일일이 그 역사와 방법을 알아보고 기록하여 자료를 만들어 나가는 참여의 과정이 필요하며, 그러는 가운데 주민 자신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자긍심을 갖게 될 것임
- 즉 지역민의 자긍심은 그가 하는 일이 단순히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경제적 가치(소득)를 창출한다는 사실 이외에 그가 속한

공동체나 미래세대를 위하여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형성될 수 있을 것임. 에코뮤지엄의 활동은 이 같이 지역민이 일상에서 하는 일의 가치를 찾아내고 이를 전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의 정체성이 확립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셋째는 에코뮤지엄은 자연환경과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반영하여 나타내고자 함. 때문에 에코뮤지엄은 정태적인 전통적 박물관과 달리 동태적 특성을 가지게 됨. 그래서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진보적’으로 재해석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됨
- 에코뮤지엄은 지역의 유산에는 조상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때로는 역경을 극복하고 살아오면서 구축해온 지혜, 기술 등이 함축되어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의 가치에 대하여 재해석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동시에 이것이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하여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임
- 에코뮤지엄에서는 지역의 자연적 환경, 그리고 시대성이 반영된 사회 환경 속에서 인간과 자연에 의해서 이루진 다양한 유산에 대하여 총체적 입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재해석하려는 입장에 있음. 예컨대 지역을 둘러싼 자연적 환경과 인간의 농업활동에 의해 형성된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더욱 큰 가치를 부여함.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주민조직 등과 같은 사회적 노력에도 가치를 부여하여 전시자료로서 활용하려는 입장을 취함
- 넷째는 에코뮤지엄에서는 연구 및 교육적인 가치, 특히 실험적 가치를 중시하려는 입장을 취함. 에코뮤지엄은 주민들이 함께 모여 토의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교실로서의 연구 및 교육적 가치를 갖는 점을 강조함
- 특히 에코뮤지엄은 주민의 과거, 현재를 연구하는 교실로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실험실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진보적 에코뮤지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진화하며 발전하는 유기체와 같은 것임. 에코뮤지엄을 진화하고 발전하는 것으로 이해한 사람으로 메이랜드(P. Mayrand)를 들 수 있음. 그에 의하면 에코뮤지엄은 동적인 운동을 반복하면서 발전하는 것으로

로 봄. 그는 에코뮤지엄은 지식을 얻고 생각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거기서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지역을 만들어 가는 역할이 있음을 강조하였음⁹⁾

- 리비에르의 진화적 정의에서는 알 수 있는 것은 에코뮤지엄이란 정형화된 형태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임. 그는 에코뮤지엄은 보호되고 보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달성하는 것으로 이해함. 다시 말해서 그는 주민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유로운 발상을 내며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에코뮤지엄의 형태가 만들어져가는 것으로 보고 있음

제3절 한국 농촌에코뮤지엄의 개념정립

1. 한국 농촌에코뮤지엄의 개념정립방향

- 한국의 에코뮤지엄의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리비에르가 1980년대에 정의한 진화적 개념에 근거하되 그 이후에 농촌의 유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된 FAO의 세계중요농업시스템, 유럽의 농촌유산정책, 그리고 한국의 농업유산제도 등을 참고하여 한국적 특색이 반영된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정립하기로 함. 개념 정립에 있어서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음
- 먼저 대상지역을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으로 한정하고, 이에 따라 ‘한국농촌에코뮤지엄’의 설계를 위한 개념을 정립함
- 농촌에코뮤지엄의 일차적 목표는 농촌지역 주민의 정체성 확립에 두기로 함. 그리고 이에 따른 부차적 효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초래되고 그리하여 결과적으로는 농촌에코뮤지엄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임¹⁰⁾
- 지역정체성의 확립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에코뮤지엄의 진화

9) 박헌춘(2011), 위의 글, p.12

10) 에코뮤지엄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일차적 목표를 둔다는 점에서 기존의 농촌정책과 차별화되었음. 기존의 농촌정책들 예컨대 새마을운동, 마을 만들기 등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주로 그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에코뮤지엄과 다름. 에코뮤지엄은 원래의 태생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농촌을 보존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데에 있었음. 이런 점에서 새마을운동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면 에코뮤지엄은 개발국을 대상으로 적합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적 개념에 해당하는 주민의 참여와 협치, 지역유산의 현지보존 및 활용, 그리고 에코뮤지엄의 교육·연구 및 실험실로서의 기능 등의 개념이 핵심적 요소로 포함되도록 설계함

2. 한국농촌에코뮤지엄 개념구성의 기본요소

가. 지역의 정체성

- 농촌에코뮤지엄의 일차적 목적은 기존의 박물관과 달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음. 그 이유는 오늘날 산업화의 진전으로 농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상실되어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지역민의 삶 자체가 황폐화되고 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됨. 농촌지역이 획일화되고 고유한 특성을 잃어감으로서 지역의 정체성이 상실될 때의 문제점은 농촌지역이 단순히 도시의 한계지인 주변부로 전락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바람직한 농촌지역의 모습은 도시와 대등한 관계로 그려져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곳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농촌지역민이 그곳에서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이유들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¹¹⁾
- 농촌에코뮤지엄이 농촌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구상이 일차적으로는 그 지역민을 위한 것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때 타지의 주민에 대한 전시라는 박물관의 기능은 이차적인 고려요소가 될 것임
- 지역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제일 목적에 맞게 잘 설계된 에코뮤지엄은 대체로 타지의 주민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므로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므로 지역의 고용창출,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임. 그러나 이 같은 효과는 어디까지나 이차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임. 에코뮤지엄이

11) 에코뮤지엄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의도는 유럽의 여러 에코뮤지엄에서 찾아 볼 수 있음. 최초의 에코뮤지엄인 스칸센 박물관 역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의도에서 설계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노르웨이에 설립된 노르스크 민속박물관 역시 스칸센의 야외박물관과 같이 전원박물관 형태로 노르웨이의 민족적 정체성을 교육하려고 노력하였음. 독일의 하이마트 박물관도 유사한 형태로 지역의 유산과 역사, 지역주민의 생활풍습을 전시물로 포함하였으며 특히 나치에 의해 민족주의 교육수단으로 활용된 바 있음

상업성, 경제성을 먼저 추구하게 될 때 그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게 될 우려가 있음

나. 주민의 참여성

- 농촌에코뮤지엄이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내용과 활동에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임. 지역의 정체성확립이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바로 지역주민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밝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작업의 주체 역시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당연함
- 성공적인 농촌에코뮤지엄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의 참여를 어떻게 극대화하느냐 하는 것일 것임. 이러한 과정은 실제로 주민의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유도해 낼 것인가 하는 주민 참여방식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의 창출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임
- 다시 말해서 큰 틀에서 보면 농촌에코뮤지엄은 주민이 그 내용과 운영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그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운영주체의 능력에 해당하며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것임
- 그 가운데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내기 위하여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 것임.¹²⁾ 참여에 대한 동기로서 경제적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겠으나 이 같은 방법은 주민의 일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가능할지는 몰라도 지역의 정체성확립과는 거리가 있을 것임. 경제적 보상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농촌에코뮤지엄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서 흥미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유도할 경우에 주민들이 더욱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임
- 그러므로 주민이 농촌에코뮤지엄의 내용과 활동에 재미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창의해 내고 실천에

12) 박물관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입한 예로 크뢰조박물관이 있음. 프랑스의 르 크뢰조(Le Creusot)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에코뮤지엄임. 이 뮤지엄은 지역주민들 스스로 지역문제와 유산에 대해 인식하고 지역의 폐산업 시설을 활용해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로 설계되었음. 주민이 직접 박물관의 운영과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나아가 지역공동체개념이 강조되었음. 이후에 프랑스 전 지역으로 이 같은 계획은 확산되었음

움기는 작업이 바로 농촌에코뮤지엄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며 이것이 성공여부의 관건이 될 것임

-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질 때 그들이 재미와 동시에 자긍심을 느끼게 되며 결과적으로 지역의 정체성 확립이란 농촌에코뮤지엄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된 작업이 바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가치부여라고 생각됨

다. 지역자원의 발굴과 가치창조

-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자원을 찾아내어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함
-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자원을 발굴한다고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자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음
- 발굴의 대상은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유산이며 그 개념은 가장 광범위하게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부합되는 개념으로 농어촌연구원의 연구(2012)¹³⁾에서 정의한 바 있는 ‘농어촌유산’의 개념을 들 수 있음
- 이 연구에서 정의된 한국농어촌유산이란 ‘농어촌주민의 전통적 농림어업활동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지역사회의 차별적이고 독특한 유형·무형의 자원’으로 정의됨. 이렇게 정의된 광의의 농업유산¹⁴⁾에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모든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을 모두 포함하므로 사실상 가장 넓은 의미의 유산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음
- 농촌에코뮤지엄상의 대상이 되는 지역유산을 이상에서 설명한 광의의 농업유산의 개념으로 정의할 경우에, 여기에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농업유산제도의 대상이 되는 유산은 당연히 포함될 뿐 아니라 그 외에도 농업유산제도에 포함되지 못하였던 많은 자원들이 포함되게 됨
- 예컨대 광의의 농업유산에는 농업유산제도상의 유산으로서의 조건

13)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2012), 농어촌 자원의 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기준 정립 및 관리 시스템 개발연구

14) 농어촌유산을 이하에서는 광의의 농업유산으로 기술함

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베지, 시목지, 초지 등은 광의의 농업유산으로 분류되며, 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한옥마을, 마을 숲 등이 역시 광의의 농업유산으로 분류되어 농촌에코뮤지엄상의 지역유산에 해당함. 이외에도 농촌에코뮤지엄상의 대상으로서의 광의의 농업유산에는 농촌에 있는 점적 및 선적 요소로서 전통의 담장, 우물, 성황당, 제당, 장승, 철로 등과 같은 고정자산과, 종교용 제기나 농사용 기구와 같은 유동 자산도 포함되게 됨. 이외에도 농촌에코뮤지엄의 대상으로서 지역적 전통에 적응된 결과로 얻어진 것으로서의 식물, 과일, 채소 등의 재래종자, 고유축산품종, 전통공예품 등이 포함되며, 더 넓게는 무형요소로서 생산기술, 농약, 농무, 농요, 축제 등도 포함됨

- 다시 말하면 농촌에코뮤지엄의 대상이 되는 지역유산의 범위는 그 지역에서 과거부터 있어왔으며 그 지역에서 형성된 것이면 유형이든 무형이든 모든 형태의 자원이 유산이 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다른 지역에서 수입된 것, 예컨대 세계 각국의 동물과 식물을 수집해서 만들어 놓은 생태박물관이나 공원 등은 농촌에코뮤지엄의 취지에는 어긋나는 자원임
- 모든 지역은 지역자원을 가지고 있음.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든 지역이 유형·무형의 귀중한 지역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농촌지역이 농촌에코뮤지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 문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 가운데 어떤 것을 선별하여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달려 있음. 이때의 가치란 경제적 가치도 될 수 있고 경제외적인 가치로서 전통 문화적 가치, 경관·환경적 가치, 생태적 가치 등이 될 수 있음. 특히 유산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찾아서 부여하게 될 때 이것에 참여하는 지역민들이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므로 지역자원에서 이 같은 요소를 찾아내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같이 주민이 유산에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에 기여한다는 것은 바로 주민이 농촌에코뮤지엄의 내용과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함. 지역에 있는 유산에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지

역주민만의 힘으로는 어려우므로 지역주민과 전문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할 것임. 특히 자원을 발굴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데에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주민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자료 등을 제공하여 그동안 숨어있던 가치를 밖으로 표출시키는 데에 기여하게 되는데, 주민의 농촌에코뮤지엄의 내용에 대한 참여란 이와 같은 방식으로의 참여를 의미함

- 한 예로, 한 지역에 셋강이 있는 경우 이것은 농촌에코뮤지엄의 대상이 되는 유산이 될 수 있을 것임. 즉 셋강이 있는 경우 이것을 재료로 하는 하나의 위성박물관을 만들 수 있을 것임. 어느 지역이나 셋강이 있지만 문제는 이것에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른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임. 만약 셋강에 수질이 깨끗하고 물고기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것은 더할 나위 없이 에코뮤지엄의 좋은 자원이 될 것임. 운영주체는 그동안 이 셋강이 잘 보전될 수 있었던 환경적 요인, 주민들의 그간의 노력, 주민의 생활과 농경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경험, 자료 등을 토대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전시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자원에 가치를 부여하는 활동인 것임. 이렇게 가치가 창출된 셋강은 에코뮤지엄의 좋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이때에 주의할 것은 이 같은 작업이 정부나 전문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임
- 그런데 만약 한 지역의 셋강이 오염된 경우에 이것이 농촌에코뮤지엄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음. 이 경우에는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유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임. 만약 주민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의미있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에코뮤지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는 통시적이며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임. 예를 들어 말하면 주민들의 기억의 재생으로부터 이 강에 과거에 서식하던 토종 물고기들을 조사해 내고 이것과 관련된 주민들의 먹거리와 생활에 얽힌 추억, 그리고 이 강이 오염되게 된 경위,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통하여 이 강을 지역의 보물로서 정화하고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등을 담은 자료를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에코뮤지엄의 재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이 같은 활동은 주민의 지역에 대한 역사인식과 자각을 일깨우는 데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임

- 이상과 같이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의 유산에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은 지역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지역마다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을 것임. 그러므로 농촌에코뮤지엄은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지역별 에코뮤지엄에 대한 평가는 그 지역이 얼마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채택하였느냐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겠음.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농촌에코뮤지엄은 리비에르의 진화적 정의에서 보듯이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며 진화하는 유기체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다시 말해서 농촌에코뮤지엄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역자원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내용과 운영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 서로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며 지역에 관련한 지식들을 공유하게 될 것임. 그렇게 될 때 주민들은 농촌에 산다는 것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될 것임

라. 유산의 현지보전

- 농촌에코뮤지엄에서의 지역유산은 현장에서 보존한다는 점에서 다른 박물관과 가장 큰 차별성이 있음. 구체적인 예로는 농어업유산 지역, 태마공원, 생태공원, 민속마을, 농촌체험마을 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 이런 예에서 보듯이 농촌에코뮤지엄에서의 유산은 그것이 있는 현지에서 보존되고 전시될 때 본래의 가치를 가장 잘 유지하게 됨
- 지역유산을 현지 보존하는 경우에는 유산에서 지역민이나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이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되므로 지역 정체성회복에 도움이 될 것임¹⁵⁾
- 유산의 현지보존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지역 전체를 하나의 박물관

관으로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그리고 이와 같이 배경에는 농촌을 전체로서 하나의 보물로 보고 농촌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도가 있다고 하겠음. 그러므로 농촌에코뮤지엄에서의 유산이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이것들을 모두 활용할 수 없으므로 이것들 가운데서 농촌지역사회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심미적 측면, 문화적 측면, 경제적 측면 등에서 가치를 갖는 것을 선별해서 지역유산으로 활용하게 될 것임. 이 경우에 선별된 자원들은 특히 과거부터 있어왔던 것으로 역사적 가치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유산으로 명명해도 무방할 것임. 지역의 자원 가운데 이와 같이 활용이 가능한 가치를 가진 유산자원으로 개념규정이 된 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광의의 농업유산의 개념임

마. 박물관의 연구·실험·교육 기능

- 농촌에코뮤지엄이란 지역유산을 발굴하고 현지에서 보존하는 활동과 더불어 기존의 박물관이 가지고 있던 기능들 가운데 특별히 지역자원에 대한 연구·교육·실험 등의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하자는 데에 그 특징이 있음
- 지역유산의 현지 보존은 농어업유산과 같이 유산의 활동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특히 필요함. 이 경우는 활용을 통하여 보존을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임. 농어업유산에서 농사활동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농업활동시스템이나 경관이 훼손되어 유산의 가치성이 훼손될 것임
- 그러나 그 활동이 과거의 기억 속에 남아 있고 현재에는 활동이 멈추어 있고 단지 기억의 단편으로서 유물만 남아 있는 경우는 유물과 함께 그 기억들을 되살려 보존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예전의 농기구나 생활용품과 같은 유물은 과거의 것으로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굳이 현지에서 보관하지 않아도 될 것임
- 과거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유물을 수집하여 보관·전시하는 활동은

15) 1960년대 덴마크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박물관(Atelier Museum)이 처음으로 시도되었음. 체험박물관은 관람객에게는 열린 박물관으로서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전시하고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현지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특정한 유물의 경우는 장소를 이전하여 보관·전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예컨대 지역에서 발굴된 토기, 농기구, 생활용품과 같은 유물은 장소를 이전해 보관하더라도 가치의 손상이 적을 것이며, 현지에서 보관될 경우 훼손의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때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실내공간으로 이전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한편 전통적 박물관은 역사가 오래되고 희소한 가치성이 매우 높은 유물을 주로 보관 및 전시의 대상으로 하였다면 농촌에코뮤지엄에서의 박물관은 지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가치성이 높지 않은 것도 보관·전시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임¹⁶⁾
- 전통적 박물관이 희소하고 역사성을 지니며 특별한 가치를 지닌 유물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이와 달리 농촌에코뮤지엄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용품을 전시물로 포함시킴으로서 대중성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즉 농촌에코뮤지엄에서의 유산이란 과거의 가치 있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대중적인 것일지라도 지역성이 잘 드러난 것이라면 유산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함
- 에코뮤지엄은 유물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데에 치우쳤던 기존의 박물관의 기능들에 더하여 지역유산에 대한 연구·실험 등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특징이 있음. 예컨대 연로한 지역 주민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기억을 찾아서 기록하고 복원하는 것과 같은 조사 및 연구 활동은 기존의 박물관에서는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음. 이에 반해 에코뮤지엄에서는 지역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의 기능이 중시되는데, 그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그 결과를 다시 주민들에게 알리는 교육과정이 이루어짐. 그렇게 될 때 기존의 박물관보다 지역유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임

3. 한국농촌에코뮤지엄의 정의

16) 1894년에 설립된 이탈리아의 피아트레 박물관에서는 전시물 가운데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용품들이 등장하였으며, 1914에 설립된 독일의 하이마트 박물관에도 지역 주민의 유산, 역사, 주민의 생활풍습 등이 전시물로 포함되었음. 미국의 경우 1967년에 설립된 애나코스티아 박물관(Anacostia Neighborhood Museum)에는 전시물 가운데 유물이 될 만한 귀중품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미국 흑인들이 거주하는 작은 도시의 일상적인 생활용품과 그들의 전통문화를 전시하였음

- 한국농촌에코뮤지엄의 개념에는 이상과 같은 기본적 개념요소들을 포함하여 정의될 수 있음. 즉 한국농촌에코뮤지엄이란 ‘농촌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연구·실험·교육 활동을 통하여 이에 역사·문화·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며, 이것들을 그들의 생활과 함께 현장 중심으로 서로 연결하여 보전하고 전시하는 야외박물관’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임
- 한국의 농촌에코뮤지엄을 이상과 같이 기술적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다른 규범적 개념정의에서와 같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임.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임. 즉 어떤 개념요소를 포함시켜야 하며 그 가운데서도 어떤 것에 더 가중치를 부여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논란이 가능함
- 특히 이와 같이 개념을 단정적으로 기술할 경우에는 유산이라는 대상을 진화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여지가 있을 수 있음.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근래에는 개념을 정의할 때에는 그 목적이나 목표만 제시하고 단정적 기술은 하지 않는 방식이 흔히 사용됨. 앞에서 본 리뷰에르의 ‘에코뮤지엄의 진화적 정의’가 이와 유사한 방식의 정의에 해당됨
- 그러므로 한국농촌에코뮤지엄의 경우도 기술적 정의에 지나치게 구속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개념을 탄력적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임. 그래야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융통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임

4. 농촌에코뮤지엄과 지역유산

가. 농촌에코뮤지엄 대상유산의 성격

- 농촌에코뮤지엄은 전통적 박물관과 전시물의 대상에서 차이가 있음. 전통적 박물관에서는 전시물이 주로 유물인데 반하여 농촌에코뮤지엄에서의 대상은 유물보다 넓은 개념인 유산을 대상으로 함. 유물이란 과거로부터 전해온 물건이란 의미이지만 유산이란 과거로부터 전해온 유물을 포함하는 각종 유·무형의 자산을 의미하므로 유산이 보다 넓은 개념임

- 농촌에코뮤지엄은 대상범위를 농촌지역으로 한정하였으므로 농촌에코뮤지엄의 대상이 되는 유산은 대부분 농업활동이나 농촌생활과 관련될 것임.¹⁷⁾ 그리고 전통적 박물관에서는 지역성에 상관없이 유물을 수집하고 전시한 것과 달리 농촌에코뮤지엄은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유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박물관의 성격을 가짐
- 또한 전통적 박물관에서는 주로 가치 있는 유형의 유물을 수집하고 전시하였음. 그에 반하여 농촌에코뮤지엄에서는 유형뿐 아니라 무형의 유산도 대상으로 함

나. 농촌에코뮤지엄에서 광의의 농업유산

- 농촌에코뮤지엄에서의 대상이 되는 유산은 앞 절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있듯이 광의의 농업유산의 개념에 해당하는 유산임
- 이는 농촌에코뮤지엄의 대상으로서 성격에 따라 각종 문화재, 농어업유산, 산업유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이때 이들 상호간의 포괄범위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중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념 간에 구분 역시 명확하지 않음
- 여기에서 ‘광의의 농업유산’ 개념은 유럽의 농촌유산 가이드를 참고하여 농어촌연구원의 연구(2012)에서 잠정적으로 정의했던 ‘농촌유산’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음. 이 연구에서 정의한 ‘농촌유산’은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어 통용되는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농어촌연구원의 연구(2012)에서는 ‘농어촌주민의 전통적 농림어업 활동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지역사회의 차별적이고 독특한 유형·무형의 자원’으로 정의한 바 있음
- 광의의 농업유산에는 농어업관련 유산뿐 아니라 산업과 관련된 모든 유형 및 무형의 유산들이 포함됨. 또한 농촌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유형 및 무형의 모든 유산들이 포함되게 정의되었으므로 사실상 농촌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중요한 자원이 포함됨

17) 대상이 농촌이 아니라 도시지역인 경우는 대상이 되는 유산은 농업활동이나 농촌생활과의 관련성이 약하며 아마도 건축과 관련된 유산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임. 이 같은 경우는 농촌에코뮤지엄에 대칭적으로 도시에코뮤지엄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므로 광의의 농업유산에는 문화재청에서 분류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문화재 등의 각종 문화재와 FAO에서 정의한 농어업유산들이 모두 포함됨
- 먼저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를 보면 문화재에는¹⁸⁾ 국보, 보물, 명승, 사적 등 7가지 유형이 있으며, 시·도지정문화재에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등 4가지가 있음. 이것들은 성격에 따라 유형유산과 무형유산, 그리고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유산으로 다시 분류될 수 있음
- 이상의 분류에서 전통적 박물관은 유형이며 인공적인 유산 가운데 개체로서의 유물을 주로 대상으로 함. 그러나 농촌에코뮤지엄에서는 이것들은 물론 이외에도 무형적이며 자연적인 유산까지도 포함함. 즉, 농촌에코뮤지엄에서는 무형유산으로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 민요, 만담 등도 유산으로 포함함. 또한 농촌에코뮤지엄에는 자연환경이나 마을의 경관 등도 유산으로 포함됨
- 농촌에코뮤지엄에 포함되는 농업유산을 이상과 같이 분류할 할 경우 전통적인 박물관과 다른 점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농촌에코뮤지엄은 다음 절에서 설명할 농어업유산을 주요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점일 것임. 또한 기존의 박물관이 무형의 유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반면에 에코뮤지엄에서는 무형유산을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점임. 무형유산에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 민요, 만담 등이 포함될 것임. 그리고 농촌에코뮤지엄은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주민이 보여주는 대상이 되며, 주민에 의해 유물과 유산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대상으로 포함함. 기존의 박물관이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농촌에코뮤지엄은 그 과정을 모두 포함하여 전시하는 개방형의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음. 이 같은 취

18)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됨. 시도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됨. 그리고 문화재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지칭하였음. 등록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5장53조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를 말하였음. 근대문화유산에 이에 해당함. 이외에 비지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함

지에 잘 적합되는 유산이 농어업유산임

다. 농촌에코뮤지엄에서의 농어업유산

- 농촌에코뮤지엄의 대상이 되는 유산 가운데 농촌에코뮤지엄의 목적인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 농어업유산임¹⁹⁾
- FAO에서 말하는 농업유산이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열망과, 환경과의 동반적응을 통하여 생물다양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 토지이용체계와 경관’²⁰⁾이렇게 정의된 세계농어업유산의 개념에는 문화재청에 의해 문화재로 분류된 유산 가운데 농업과 관련된 것을 일부 포함하게 됨. 특히 농어업유산의 개념은 농촌에코뮤지엄에서 강조된 지역, 영역을 포함하여 정의되었음. 다시 말해서 농어업유산은 일정한 지역을 그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장소성이라는 개념이 문화재보다 강함. 농어업유산이 이와 같이 지역적 장소,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것이 지붕없는 박물관을 지향하는 농촌에코뮤지엄의 대상이 되기에 적합함
- 또한 농어업유산에서 강조되고 있는 생물다양성요소는 생태박물관의 성격을 갖는 농촌에코뮤지엄과 잘 매치가 이루어짐. 농어업유산에서의 생물다양성이란 요소는 살아있고, 진화하는 개념이므로 이 같은 요소를 수용하고 구현하는 것이야 말로 진화적 개념의 에코뮤지엄이 지향하는 바와 매우 일치함. 그러므로 농어업유산은 농촌에코뮤지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더욱이 농촌에코뮤지엄은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주민 자체가 보여

19) 농어업유산과 광의의 농업유산의 관계를 보면 농어업유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어업활동과 관련된 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광의의 농업유산은 농어업이외에 2, 3차 산업과 관련된 유산도 포함하였음. 뿐만 아니라 광의의 농업유산에는 현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활동이 멈춘 것도 포함하였음. 또한 일상생활과 관련된 유형 및 무형의 유산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광의의 농업유산이 포괄범위에서 농어업유산을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임

20) <http://www.fao.org/nr/giahs/whataregiahs/giahs-biodiversity/en/>
유사한 개념인 한국의 농어업유산이란 ‘농림어업인이 지역사회의 문화적, 농업적, 또는 생물학적 환경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적응과정을 통해서 진화해온 보전·유지 및 전승할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업(활동)시스템과 이의 결과로 나타난 농어촌의 경관’으로 정의하였음(농어촌연구원, 농어촌 자원의 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기준정립 및 관시시스템 개발연구, 2012)

[표 2-2] 광의의 농업유산(농촌에코뮤지엄의 대상)의 분류

구분	분류	종류
유형 유산	문화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정 문화재 및 자료 - 마을형성과정, 행정구역 변천 등 마을에 대한 기록물 - 전통가옥, 기념비, 담장, 하수로, 성황당, 제당, 장승 등 전통건축물 - 전통공예, 가구, 제기 등 생활관련 기구 - 전통의복 등 생활관련 자료
	자연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 강, 계곡, 나무, 벌, 물 등 주변 자연환경과 동·식물, 곤충 등 - 약초, 나물 등 - 자연의 풍경, 경치, 늪지, 동식물 야생 서식지 등
	농어업 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농업활동 및 기술관련 유산(다랑이논, 구들장논, 친환경논, 둠벙, 계단식 밭, 건조장 등) - 특정의 작물 및 독특한 경작방법과 관련 유산(작목별 시목지 등) - 전통적 축산활동 및 기술과 관련된 유산(방목지, 채초지 등) - 전통적 임업활동 및 기술과 관련된 유산(생산림 등) - 전통적 어업활동 및 기술과 관련된 유산(독살, 염전, 갯벌, 죽방염, 어항 등)
	산업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이외에 지역 내에서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산업유산(광산, 채석장, 공장지대 등)
무형 유산	문화유산 농어업 유산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습, 풍습, 축제, 행사, 전통예술 등 - 전통음식 조리방법, 생활의 지혜, - 마을명칭의 유래, 전설 등 지역에 관한 이야기 등 - 생활아이디어 등 - 기타 마을과 주민공동체를 형성하는 모든 무형의 요소

자료: 한국농어촌유산학회(2013), 농어업유산의 이해, p. 63. 방한영(2003), 앞의 논문, p.167, 박현준(2011), 앞의 논문, p.119,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주는 대상이 되며, 주민에 의해 유물과 유산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도 포함시킨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²¹⁾ 농어업유산이 가장 적합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농어업유산에서는 주민에 의해 이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임. 그러므로 농촌에코뮤지엄을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중시해야 할 대상이 바로 농어업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²²⁾

제4절 한국농촌에코뮤지엄의 설계

1. 기본구상

- 농촌에코뮤지엄은 앞 절에서 논의된 농촌에코뮤지엄개념의 구성요소로부터 도출된 개념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설계함. 농촌에코뮤지엄은 특히 지역유산, 주민, 박물관 기능이라는 3대 개념요소로 구성됨. 이 가운데 농촌에코에서의 전시 대상이 되는 실체는 지역유산이며, 박물관기능과 주민참여는 지역유산이라는 소재로부터 가치를 창조하는 데에 적용되는 수단적 개념 요소임
- 그러므로 농촌에코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시의 대상이 되는 지역유산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찾아내야 함²³⁾
- 어떤 가치에 초점을 두고 지역유산을 찾아내느냐 하는 판단은 농촌에코의 목표인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하여 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지역의 정체성이란 지역민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산이 특별하고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예컨대 한 지역의 자연경관이 지역민의 정체성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희귀한 생물이 서식하고 심미적으로 우수해야 할 것임. 그리고 그 지역의 농업활동과 관련해서는 토지 및 수자원이용시스템과 같은 농업활동시스템이 고유한 가치를 가져야 할 것임. 또한 농촌생활과

21) 기존의 박물관이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에코뮤지엄은 그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22) 이런 점에서 농촌에코뮤지엄은 농어업유산의 실시계획(Action Plan)으로서의 유용성을 가진다. 그러나 농촌에코뮤지엄이 바로 농어업유산의 실시계획은 아니며 농촌에코뮤지엄은 이것과 이외에 더 많은 포함하여 설계됨

23) 농촌에코의 설계자는 설계에 앞서 먼저 지역유산으로부터 어떤 가치를 찾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관련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전통·문화적 요소들이 다수 있으며 차별적 우수성을 가져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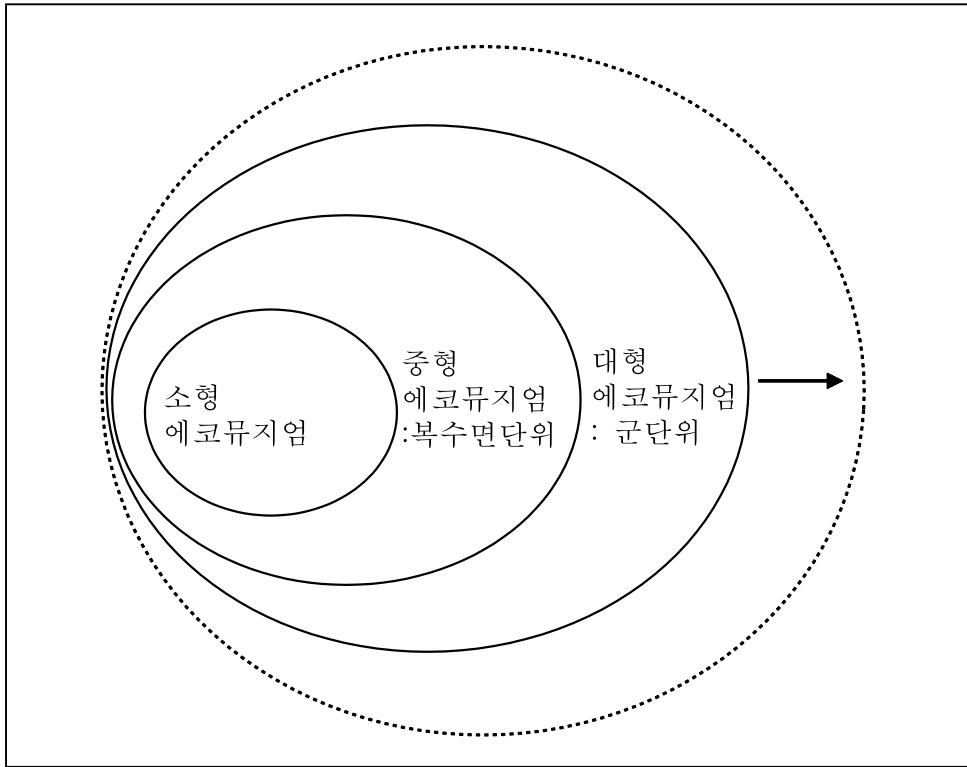
- 이와 같이 농촌에코에서는 지역유산으로부터 생물다양성, 수려한 경관, 전통적 농업시스템, 전통생활문화 등의 가치를 찾아내는 데에 초점을 두게 됨. 이때 이러한 가치를 창조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박물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게 됨
- 그러므로 농촌에코의 구상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 첫 단계는 이상에서 설명한 생물다양성, 수려한 경관, 토지 및 수자원이용시스템, 전통문화와 같은 가치들을 가진 유산이 그 지역에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임
- 둘째 단계는 조사된 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기 위하여 주민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정보 등을 활용하여 유산의 가치를 평가해보고 가치를 부여하게 될 것임. 이 단계에서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연구, 그리고 미래를 위한 실시계획 등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유산의 가치창조가 이루어지게 됨. 그러므로 이 단계가 농촌에코를 설계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세 번째 단계는 전시하는 단계임. 주민들은 위의 두 번째 단계를 거치면서, 즉 지역이 가지고 있는 유산의 내재적 가치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자기만족을 통하여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여기까지는 주관적인 것으로 자체평가에 해당할 것임. 유산이 가진 가치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부에 유산을 전시하여 공개하는 과정이 필요함. 이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기 때문임. 전시를 통해 관람객을 많이 유치할 경우 이는 지역 유산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지역민은 유산에 대하여 더욱 큰 자긍심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임
- 농촌에코에서는 유산을 가치의 훼손됨이 없이 보존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전시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이때는 체험을 통한 관람이 가능하게 됨. 농촌에코의 일차적 목표는 정체성 확립에 두고 있지만 관광이 활성화되면 유산보전의 효과가 더욱 커지고 정체성 확립에도 기여할 것임.²⁴⁾그러므로 농촌에코는 체험 관광이라는 요소도 이

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2. 대상구역 범위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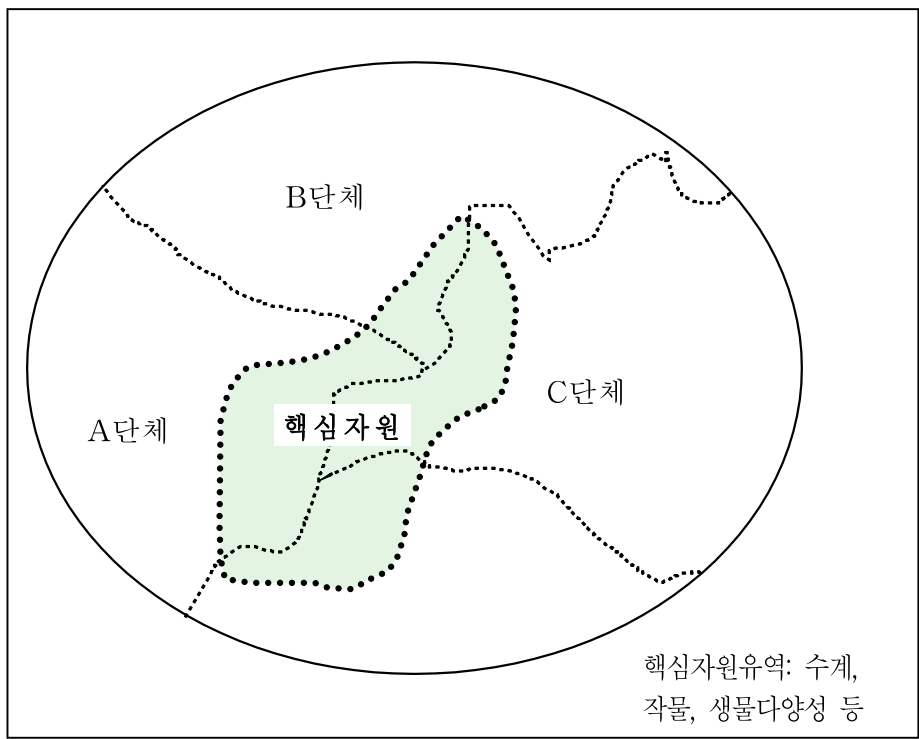
- 농촌에코를 개념적인 측면에서 그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그 대상구역은 탄력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에코뮤지엄의 원래의 성격이 생동적이고 진화적이므로 농촌에코뮤지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역의 규모 역시 확장되어 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즉 면단위의 소형농촌에코뮤지엄에서부터 복수면 단위의 중형농촌에코뮤지엄, 나아가 시·군단위의 대형에코뮤지엄으로 그 구역이 확대되어 나갈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농촌에코뮤지엄은 구역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개념요소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임. 즉, 면단위의 소형농촌에코뮤지엄이라도 그 속에는 있는 모든 유산을 대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면단위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유산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개의 위성박물관을 만들 수 있을 것임. 그러므로 면단위 농촌에코는 그 자체로서도 하나의 완성된 형태를 취하게 될 것임. 이와 같이 만들어진 면단위의 소형에코뮤지엄이 통합되어 시·도 단위의 대형농촌에코뮤지엄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때에 면단위의 농촌에코뮤지엄은 대형농촌에코뮤지엄 속에서 하나의 위성박물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 이 경우에 면소재지에는 거점(위성)박물관을 둘 수 있을 것임

24) 관광이 활성화되면 유산보전에 효과적이라는 생각은 취환(한중문화우호협회장)의 ‘문화 없는 관광은 살아있는 관광이 아니고, 관광 없는 문화는 효과가 없다’는 주장(한국경제, 2014, 5. 16)과 같은 것임



<그림 2-1> 행정단위에 의한 대상구역 범위의 설정

- 한편 에코뮤지엄은 유산자원에 초점을 맞출 때는 유산의 분포에 따라 그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임. 예컨대 수계자원, 생물다양성자원, 작물자원 등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유역을 에코뮤지엄의 대상권역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 이때는 에코뮤지엄의 대상구역에 여러 개의 행정구역이 포함될 수 있음. 이와 같이 여러 개의 행정구역이 포함될 경우는 에코뮤지엄의 실행에 있어서 각 행정단위 간에 협력과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자원의 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을 것임



<그림 2-2> 자원분포에 따른 대상구역 범위의 설정(예시)

3. 농촌에코뮤지엄의 유형화

가. 유형화의 기준

- 농촌에코뮤지엄에서는 농촌에 있는 유산, 즉 광의의 농업유산을 찾아서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활동이 핵심이 됨. 이렇게 설계되는 농촌에코뮤지엄은 그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유산의 고유한 특성에 의해서 지역마다 다른 모습을 갖게 될 것임. 그러므로 농촌에코뮤지엄의 유형화를 위해서는 광의의 농업유산을 구성하는 개념요소를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음
- 넓은 의미의 농업유산이란 그 범위가 크게 농업활동과 농촌생활에 관련된 유산으로 구분됨
- 먼저 농업활동과 관련된 유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FAO에서 말하는 농업유산(GIAHS)이며, 농업유산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경관과 토지이용시스템(농업활동시스템)으로 정의되었음. 그러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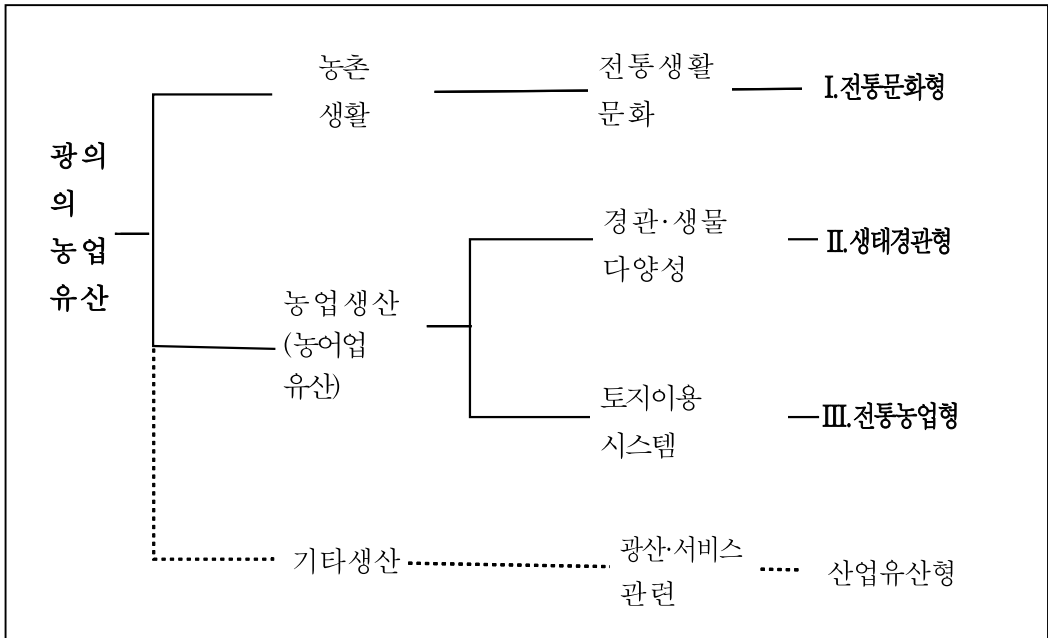
농업유산 가운데 생물다양성을 강조한 것을 하나의 유형으로, 그리고 농업유산 가운데 토지이용시스템에 무게 중심을 둔 것을 두 번째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해 짐

- 다음으로 농어민의 농어촌생활과 관련된 유산은 대부분 문화유산과 관련된 것으로 이것을 또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 다시 말하면 농촌에코뮤지엄은 농업활동과 관련하여 2개의 유형, 그리고 농촌생활과 관련하여 1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모두 3개의 유형으로 크게 구분함
- 이와 같은 유산의 특성에 따라서 농촌에코뮤지엄을 세 가지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음

나. 에코뮤지엄의 유형

1) 생태경관형

- 생태경관형은 자연경관으로서의 산, 강, 계곡, 숲, 습지 등의 자연유산과 농업과 관련하여 생물다양성이 잘 보존되고 있는 지역이 대상이 될 것임
- 이 유형에서는 특히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중요한 요소로 하는 친환경, 유기농업이 주요 소재가 될 것임. 대표적인 예로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는 동물 특히 새를 대표적인 상징물로 내세우는 친환경 농업을 들 수 있음. 황새 농업, 일본 사도시의 따오기 농업 등이 이에 해당함. 이외에도 오리농업, 우렁이 농업, 참깨 농업, 물고기 농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그림 2-3> 농촌 예코뮤지엄의 유형구분

2) 전통농업형

- 전통농업형은 농어업유산 가운데 전통의 농업활동시스템이 잘 남아 있는 지역이 해당될 것임. 여기에서 농업활동시스템이란 주로 전통적인 토지 및 수자원이용시스템을 말함
- 대표적인 토지 및 수자원이용시스템으로는 조사표의 예시와 같이 산악지대의 토지이용시스템의 형태인 다랑이논(구들장논), 계단식 밭, 건조장(황태 등), 산지나 바다의 개간, 간척 농업시스템, 고부가가치 작물재배시스템(인삼, 담배, 차 등), 축산과 관련된 것으로는 전통적 방목지, 채초지, 임업과 관련된 것으로 전통적 생산림, 어업과 관련된 시스템으로는 독살, 염전, 갯벌, 죽방염, 어항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전통적인 관개시설로서의 각종 저수지나 관개농수로 등을 들 수 있음
- 전통농업형에서는 한국농어업유산의 개념에 해당하는 유산은 당연히 좋은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음. 이외에도 한국농어업유산의 조건에 미달되는 것, 예컨대 지금은 활동이 멈추었지만 역사적 의미를 지닌 저수지나 물레방아 방앗간, 수로 등의 유적지는 이 유형의 농촌예코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음

3) 전통문화형

- 전통문화형은 다른 것보다도 역사 문화적 유산이 특별히 많은 지역이 대상이 될 것임. 특히 이 유형에는 농업유산 가운데 생활과 관련된 유산들이 대부분 포함되게 됨
- 이 유형의 소재로는 구체적으로 말해서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모든 문화재는 물론이고 이외에도 마을의 역사적 자료(마을형성과정, 마을명칭, 행정구역 변천, 마을전설 등), 전통가옥 등 전통건축물, 기념비, 담장, 우물, 하수로, 성황당, 제당, 장승, 전통공예 및 가구, 생활용기(제기 등), 전통의복 및 음식, 이외에 기타 관습, 풍습, 축제, 행사, 전통예술 등이 포함될 것임
- 대표적으로는 전통민속마을, 전통한옥마을 등의 지역을 들 수 있음. 안동의 경우에 안동지역이 가지고 있는 유교적 사료, 대표적인 유학자계보, 서당과 제당, 제사음식, 의병관련기록물, 그 외에 하회탈과 관련된 민속문화 등이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음. 다른 예로, 제주도의 4.3사태와 관련되어 발굴·수집된 사료는 이 유형에 적합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다. 유형화의 유의점

- 이상과 같은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을 때 광의의 농업유산의 개념 가운데 제외된 유산이 일부 있을 수 있음. 이는 농업외의 생산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컨대 탄광, 금광 등의 폐광, 그리고 음식 숙박업 등과 같은 서비스업활동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들이 있음. 이것들을 산업유산형으로 별도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임. 이는 에코뮤지엄의 대상지역을 작게 지정할 때에 가능할 것임. 그러나 대상지역을 군 단위 정도로 확대할 경우는 이 같은 특징이 해당지역의 핵심적 요소로 부각되기 어려울 것임. 이때는 다른 세 가지 유형의 에코뮤지엄 가운데 하나의 위성박물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그런데 이상과 같이 농촌에코뮤지엄을 유형화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유산을 찾는 데에 소홀히 할 수 있을 우려가 있음. 농촌에코뮤지엄이란 원래 복합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의 유산이 갖는 특징을 강조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유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들의 가치를 찾아내는 것도 역시 중시되어야 함

- 면 단위의 소형에코에서는 어느 하나의 유형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큼. 그러나 여러 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군 단위급 이상의 농촌에코에서는 하나의 유형적 특징이 사라지면서 복합적인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큼. 예를 들어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청산도의 구들장논의 경우에 청산도를 구역으로 하는 농촌에코의 설계에서는 전통농업형이라는 유형적 특징이 잘 나타날 수 있겠으나 구역이 완도군 전체로 확대될 경우에는 청산도의 전통농업유형적 특징과 다른 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생태경관형적 특징 및 전통생활문화형적 특징이 모두 포함되게 되므로 군단위 전체로 볼 때는 전통농업형이라는 하나의 유형으로 특징짓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
- 일반적으로는 대상범위가 확대될수록 유형적 특징이 줄어들 수 있겠으나 군단위라고 하더라도 유산의 특성에 따라 유형적 특징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삼의 경우 농업유산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된다고 할 때 그 재배지역을 전통농업형농촌에코뮤지엄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에 인삼재배시설이 군 전체에 분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이런 경우는 군 단위에서도 전통농업형이라는 유형적 특징을 가지게 될 것임

[표 2-3] 농업유산 대상목록 및 평가(예시)

분류	종류	평가기준				
		실천성*	지역성**	유익성***		
전통 문화	3. 국가지정문화재 4. 국가등록문화재 5. 지방자치단체 지정 문화재 및 자료 6. 마을 역사물(마을형성과정, 마을명칭, 행정구역 변천 등) 7. 전통가옥 8. 기념비 9. 담장 10. 우물, 하수로 11. 성황당, 제당 12. 장승 13. 기타 전통건축물 14. 전통공예 및 가구 15. 생활관련 기구(제기 등) 16. 전통의복 등 생활관련 자료					
	17. 관습, 풍습, 축제, 행사, 전통예술 등 18. 전통음식 조리방법, 19. 마을의 전설 등					
	생태 경관	20. 산, 21. 강, 22. 계곡, 샛강 23. 나무, 24. 늪지, 25. 야생서식지 26. 동물, 곤충 등 27. 식물(야생화, 약초, 나물 등) 28. 친환경농, 밭 29. 둌병				
		전통 농어 업	30. 다랑이논(구들장논) 31. 계단식 밭 32. 건조장(황태 등) 33. 전통작물(인삼, 담배 등) 34. 작목별 시목지 35. 전통적 방목지, 채초지 36. 전통적 생산립 37. 독살 38. 염전 39. 갯벌 40. 죽방염 41. 어항			
			기타	기타산업유산(광산, 채석장, 공장지대 등)		
			주: *: 실천성은 주민참여성, 협력성, 예산제약 등을 고려함, **: 지역성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의 정도임 ***: 유익성은 주민생활에 대한 기여의 정도임 자료: 자료:한국농어촌유산학회(2013), 농어업유산의 이해, p. 63. 방현영(2003), 농촌활성화를 위한 지역유산활용및마을 만들기에 대한 연구, p.167, 박현춘(2011), 앞의 논문, p.119,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4. 농촌에코뮤지엄 설계의 실제

가. 기본구상

- 농촌에코의 설계를 위한 첫 단계는 해당 지역의 유산을 찾아내는 작업임. 지역의 유산을 발굴하기 위하여 농업유산 대상목록(표 2-3)을 가지고 해당되는 유산을 체크해 나가고 새로운 것은 다시 추가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임
- 각 지역에서 찾아진 유산은 가치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어느 유형의 농촌에코뮤지엄에 가까운지를 결정될 것임. 그러나 농촌에코뮤지엄의 유형은 설계자가 사전적으로 결정해 놓고 그에 맞추어 설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유산을 찾아서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산이 발굴되면 다음은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농촌에코뮤지엄의 설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음. 이 단계에서 특히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게 됨

나. 농촌에코뮤지엄의 물리적 구성요소

- 에코뮤지엄의 구상을 현실에 옮길 때 직면하는 첫 번째 고려할 대상은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것임. 대상 지역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농촌지역이 해당됨. 그러나 먼저 시범적 성격을 갖는 에코뮤지엄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농업유산의 특징이 잘 드러난 곳을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다음은 선정된 지역의 핵심적 유산을 조사하여 이것이 위치한 곳에 농촌에코의 센터를 두고 여기를 중심으로 위성박물관을 하나씩 설치해 나가게 될 것임.²⁵⁾ 그리고 센터와 위성박물관, 그리고 위성박물관 간을 연결하는 탐방로를 개설하게 됨. 그러므로 에코뮤지엄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는 센터, 위성박물관, 탐방로라고 할 수 있음

1) 에코뮤지엄 센터

- 농촌에코뮤지엄에는 본부 격에 해당하는 에코뮤지엄센터를 둘 수

25) 이때 대상지역의 범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탄력적이며, 확장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농업유산의 핵심지구가 위치한 곳에서 시작하여 그 범위가 확장되어 나가게 된다. 처음에는 위성박물관의 수가 몇 개에 불과한 적은 규모의 농촌에코를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위성박물관의 수가 점차적으로 추가되어 나감에 따라 농촌에코의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될 것임

있을 것임. 센터의 위치는 주로 핵심유산지역에 둘 수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의 중심지에 둘 수 있을 것임

- 센터에서는 지역유산에 관한 조사, 자료의 수집, 연구, 보존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게 됨. 그리고 농촌에코의 운영을 위한 각종 회의와 주민을 위한 교육 등이 이루어지게 됨
- 센터의 이 같은 기능이 원만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실내 공간을 갖는 건물이 필요할 것임. 이때 그 형태는 기존의 박물관과 유사해도 무방할 것이고, 아니면 기존의 마을회관이 될 수도 있을 것임

2) 위성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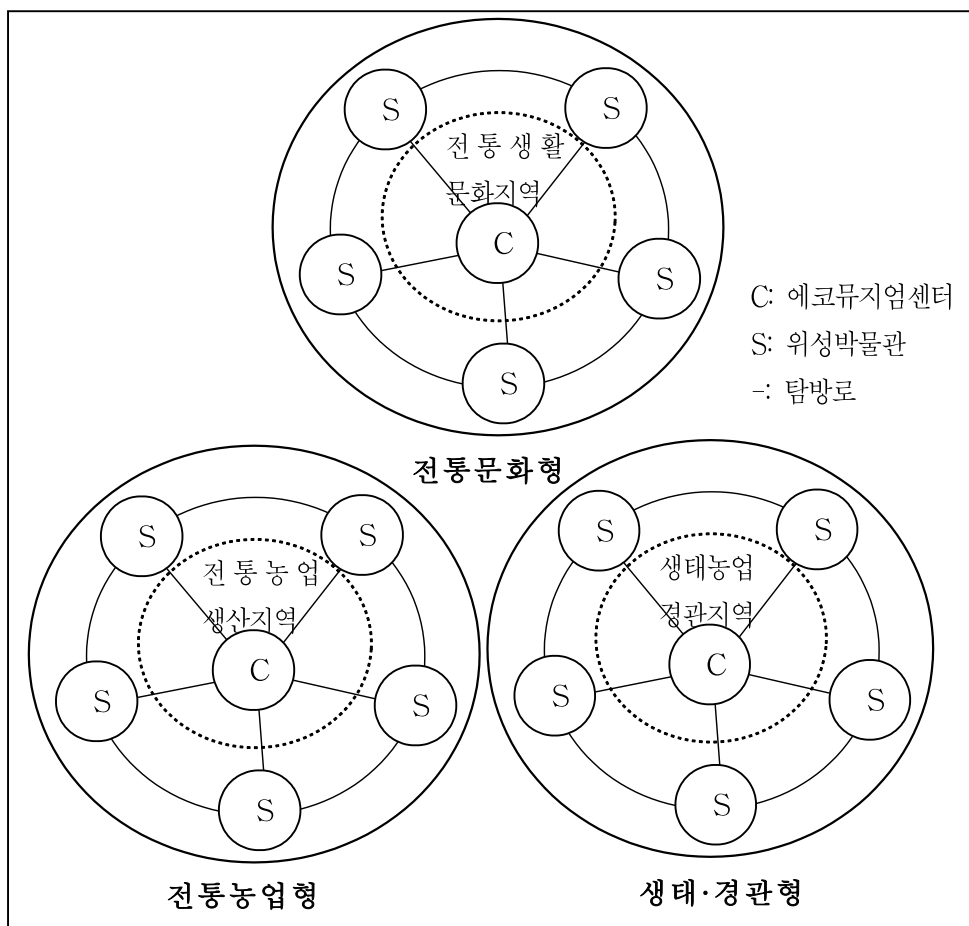
- 유산이 있는 현지에는 주변으로 위성박물관(Satellite Museum)을 둘 수 있음
- 에코뮤지엄의 가장 큰 특징이 유산을 현지에 보존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위성박물관의 존재하는 농촌에코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임
- 위성박물관이란 기본적으로 유산의 위치한 지역이라는 면적인 개념임. 그러므로 위성박물관은 사실상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위성박물관은 지역유산의 발굴에 따라 그 위치와 개수가 결정될 것임. 그러므로 위성박물관의 개수는 적정수준이 정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나갈 것임
- 농어업유산이나 생태경관유산의 경우에는 유산지구 안에 연구, 교육, 전시 활동을 위한 실내공간이 없을 수 있을 것임. 이런 경우에는 실외에 입간판과 같은 것을 설치하여 유산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을 것임. 물론 실내공간이 확보되는 경우는 이곳에서 이상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음

3) 탐방로

- 에코뮤지엄에는 센터와 각 위성박물관, 위성박물관 간을 연결하는 탐방로(discovery trails)의 구축이 필요함
- 탐방로는 위성박물관간의 연결이라는 역할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 탐방로를 생태적이고 미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이것 자체가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고 외부의 관심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탐방로는 지역여건과 거리에 따라서 자동차, 도보, 자전거 등 다양한 형태로 꾸며질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특히 탐방로는 에코뮤지엄의 특징을 살린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그림 2-4> 농촌에코뮤지엄의 유형별 구성도(예시)

제3장 에코뮤지엄 관련 국내 정책 및 사례분석

제1절 부처별 유사제도 검토

- 에코뮤지엄이 지역주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역자원중심’의 면적 보전방식으로 본다면, 이와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중앙부처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문화재청 등이 있음
- 분석의 틀은 크게 개요와 주요내용으로 구분하고, 개요는 근거법,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년도, 추진현황으로, 주요내용은 지정기준 및 범위, 지정절차, 규제 및 지원, 주민참여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1.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지역 1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읍(동)면소재지종합정비,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 신규마을 조성, 기초생활인프라 등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경관보전직불제 등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14)
- 이러한 정책은 2000년 이후 추진방식(하향식 → 상향식)과 지원대상(개인중심 → 마을/권역중심)이 변화하였고, 농업·농촌의 다면적 가치를 중시하게 되었음. 특히 농업유산제도와 경관보전직불제도는 이러한 정책의 흐름에 부합하여 농촌자원에 가치를 두고 이를 발굴하고 보전하는 정책으로, 농촌정책이 개발위주에서 보전적 시각으로 변화함을 볼 수 있음

가. 농업 유산제도

1) 개요

가) 근거법 : 농업 유산과 관련한 직접적인 근거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5조(전통 농경·어로 문화의 계승 등),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제30조(농어촌 경관의 보전), 농어촌정비법 제5조(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등에서 농업 유산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나) 추진배경 및 목적

- 농업 유산제도는 농촌의 사라져 가는 전통 농업 자원을 발굴·보전·전승하기 위해 도입·시행되었음. 이를 통해 지역별 브랜드화,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기대하고자 함

다) 추진년도 : 2012년4월-계속

라) 추진현황 : 청산도 구들장논(제1호), 흑룡만리 제주 돌담 밭(제2호), 구례 산수유농업(제3호), 담양 대나무밭(제4호) 등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음

2) 주요내용

가) 지정기준 및 범위 :

- (기준) ㉠농업유산이 차별성, 역사성 등 고유의 특성을 갖추고 있을 것 ㉡농업유산의 지역적·분야별 대표성이 있을 것 ㉢국가농업유산의 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소유자와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자율적인 참여와 동의가 있을 것 ㉣건전한 미풍양속을 유지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에 적합할 것
- (범위)오랜 기간 환경에 적응하면서 형성·진화해온 보전·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업활동 시스템과 이의 결과로서 나타난 농촌 경관 등 모든 산물

[표 3-1] 농어업 유산의 대상

분류	내 용
논	- 전통적 농업활동 및 기술과 관련(다랑이논, 구들장논, 논둑 등)
밭	- 전통적인 농업활동 및 기술과 관련(계단식 밭, 담배건조장 등) - 특정의 작물 및 독특한 경작방법과 관련(작목별 시목지 등)
축산	- 전통적 축산활동 및 기술과 관련(방목지, 채초지 등)
임업	- 전통적 임업활동 및 기술과 관련(생산림 등)
어업·어항	- 전통적 어업활동 및 기술과 관련(독살, 염전, 갯벌, 죽방염 등)
수(水)	- 전통적 농림어업활동을 위한 수자원 관리 (둑병, 저수지, 용배수로 등)
복합	- 서로 다른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 (논과 수원지, 생산지와 마을) -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의 각 경관이 조합을 이룬 경관

자료출처 : 윤원근 외(2014), 농어업유산의 이해

나) 지정절차 : 지정은 농식품부가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팀과 심의기구에서 이를 조사·심의하여 농업 유산으로 지정함

다) 규제 및 지원 :

- (지원)규제중심의 관리가 아닌 지자체와 주민 간의 “자율관리협정체결” 등을 통한 자발적 관리로, 국가에서는 국가유산의 복원, 주변정비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 (지역당 3년간 15억 원)

라) 주민참여 : 지정된 국가유산은 시군과 주민협의회의 ‘자율관리협정체결’을 통한 자발적 관리

나. 경관보전직불제

1) 개요

가) 근거법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삶의질법 30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확인), 경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16조(경관협정의 체결)

나) 추진배경 및 목적 :

- 농촌 및 준농촌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마을 주민과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농지에 일반 작물 대신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소득 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임

다) 추진년도 : 2005년-계속

라) 추진현황 : 시행면적12,864ha, 마을수 527, 농가수12,778('13년)

2) 주요내용

가) 지정기준 및 범위 :

- (기준)준농어촌지역으로 지역축제 및 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하면서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최소 0.5ha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 2ha 이상 되어야 함
- (범위)마을단위 경관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와 협약을 통해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급
- 해당작물 : 초화류로 경관개선효과가 있는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하는 작물

나) 지정절차 : 농식품부 지침시달(시행지침 및 시도별 예산배정) →

대상마을신청(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마을경관보전계획 수립) → 시·도 대상마을 선정 → 시·군과 마을추진위원회 협약 체결 → 시·군 이행상황점검 → 시·군 보조금 지급

다) 규제 및 지원 :

- (지원)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비를 별도로 각각 지원
- : 경관작물재배는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지원해주고, 마을경관보전활동비는 협약면적에 비례하여 15만원/ha(국고 70%, 지방비 30%)
- : 단, 마을경관보전을 위한 기술 지원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마을주민의 직접 인건비성 경비는 지원 금지

라) 주민참여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마을단위 협약체결을 통해 경관작물 재배관리 및 마을주변 경관보전활동 추진

2. 환경부

- 국가 자연자원의 체계적인 보전을 통하여 생태계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94년부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을 구현함
- 최근 주요 정책방향은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관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국토관리체계 구축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강화 ㉣생태계와 인간이 어우러지는 한반도 자연환경 조성 ㉤자연환경관리기반 구축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협력체계 강화 등이 제시되었음

[표 3-2] 환경보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매체 중심의 정책	수용체 중심의 정책
보전위주의 정책	보전과 이용의 조화
규제위주의 보전	규제·투자 및 지원의 조화
정적·포인트 개념의 보호	동적 네트워크 개념의 보전
다원화된 관리체계	체계화·정비화된 관리체계
포괄적, 추상적 생태가치 추정	객관적, 과학적 경제성 분석
중앙정부 중심관리	지역과 주민, 이해관계자 참여관리

자료출처 : 환경부(2014),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보도자료 일부

- 자연환경 보호지역이란 특정지역의 자연생태계, 자연경관지, 문화유적지 등의 자연환경이나 문화환경을 개발이나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일정한 구역임. 이러한 보호대상은 생물다양성, 특이한 자연자원, 또는 역사적·문화자원 등이 해당됨

[표 3-3] 환경부 자연환경 보호지역 지정 주요현황('13.11)

보호지역 명칭	지정근거	지정 현황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환경부장관, 지자체장)	- 78개소, 7,908km ² *국립(21개소), 도립(29개소), 군립(28개소)
생태·경관 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장관, 지자체장)	- 32개소, 284km ² * 환경부(9개소), 시·도(23개소)
습지 보호지역	습지보전법(환경부장관, 해수부장관, 지자체장)	- 32개소, 374km ² *환경부(18개소), 해양수산부(11개소), 시도(3개소). 람사르습지 18개소, 177km ²
백두대간 보호지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환경부장관, 산림청장)	- 6개도 32개 시·군, 2,634km ²

자료출처 : 환경부(2014),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보도자료 일부

가. 생태·경관보전지역

1) 개요

가) 근거법 : 자연환경보전법 제 13조

나) 추진배경 및 목적 :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에 의해 지정됨

다) 추진년도 : 1989년-계속

라) 추진현황 : 32개소, 284km²(환경부-9개소, 시·도-23개소)

- 동강유역(64.97km²), 왕피천 유역(102.84km²), 소항사구(0.12km²), 고산 봉 붉은 박쥐서식지(8.78km²) 등

2) 주요내용

가) 지정기준 및 범위 :

- (기준)

: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 :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 (범위)
 - :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핵심구역)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 :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생태·경관전이(轉移)보전구역(전이구역)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지정절차 : 지정계획서 작성(중앙정부 단위) → 당해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수렴(시·군 단위) →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30일내 의견제시) →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고시(중앙정부 단위)
- 다) 규제 및 지원 :
 - (규제)제한 및 금지행위 등을 통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함
 - : 야생동·식물을 포획, 채취, 이식,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덧·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토석채취, 수면매립, 불을 놓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지원)토지매수, 주민지원 및 손실보상 등
 - :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 매수
 - :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의 오수 또는 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
 -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이 당해 지역을 우선적 이용
- 라) 주민참여정도 : 지정하려는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공청회 또는 개별통지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함

[표 3-4] 환경부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지원(동강유역 프로그램)

사업명	지원내용	비고
동강 생태주택 개량사업	국고보조 80%, 친환경 주택관련	지식경제부
동강유역 지역주민 해외연수	강원도	강원도
친환경 실천농가 지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 국고보조 100%	농식품부
지역주민 소득 증대방안	마을 주민공동으로 야생화 단지조성시 매입토지 임대 및 종묘지원(원주청)	환경부
동강유역 사유지 매입	연차적 매입 전액 국고보조(100%)	환경부
동강유역 생태탐방시설 설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국고 지원 (50%)	환경부
동강관련 정보공개 창구개설	원주청	환경부
동강유역 레프팅사업	동강유역 4개구간 레프팅허용	환경부
동강유역 생활하수 사업추진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장, 하수관거) 국고지원(70%)	환경부, 농식품부

자료출처 : 생태·경관보전지역 업무지침(2009), 환경부

3. 국토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바탕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전을 위해 활용가능한 제도적 수단으로는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의 용도지구가 있음
- 기존 정책에서 건축을 도시를 구축하는 물리적 행위로 다루어 왔다면,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은 건축문화 진흥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어 건축을 ‘문화’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보여줌
 -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건축’의 범위를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 등의 공간환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정의
 - 지역별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보유한 지속가능한 건축자산 구현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

가. 역사문화 미관지구

1) 개요

가) 근거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나) 추진배경 및 목적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주로 사적지 및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유지를 목적으로 함

다) 추진현황 : 서울특별시 북촌과 남산일대, 부산 대연지구 등

2) 주요내용

가) 지정기준 및 범위 : 주로 근대이전의 역사문화자원 위주

나) 규제 및 지원 :

- (규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시·도의 도시계획조례 상에 개별 건축물을 대상으로 용도제한, 건축물의 높이, 건축선 후퇴부분 등 최소규제 위주로 관리되고, 지구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시에 건축물의 미관사항에 관해 각 자치구 건축위원회에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건축물의 높이는 기본적으로 4층 이하로 제한하며 일부 6층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건축선 후퇴부분에 있어서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영업등과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됨

: 건축선 전면부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차면시설·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굴뚝·환기시설·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등은 설치해서는 안됨

- 규제로서 관리하는 지구이기에 실행을 위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기 문화자원보존지구)

1) 개요

가) 근거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나) 추진배경 및 목적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시설물 이외에는 모든 건축행위를 제한

다) 추진현황 : 경주시

2) 주요내용

가) 지정기준 및 범위 :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주로 근대이전의 사적지와 전통건축물을 기준으로 지정됨
- 도시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자체와 그의 보호물, 보호구역만을 보존지구로 지정됨
-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보존지구 설정함
- 이는 문화재 주변을 포함하여 관리하는 지구적 관점에서의 관리라고 할 수 없음

나) 규제 및 지원 :

- (규제)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안에서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시설 이외에는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건축제한을 하고 있음.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
- 규제로서 관리하는 지구이기에 실행을 위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 그 외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1) 개요

가) 추진배경 및 목적 :

- 최근 국내에서 지역특성화와 도시재생의 수단으로서 건축문화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보전 및 활용 방안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재생과정에서 지역의 가치있는 건축문화자산이 ‘재생’되지 못하고 훼손·멸실되어 가는 사례가 빈번하고, 설사 건축자산을 고쳐서 쓰려고 해도 기술력과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관련 정보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아 과다한 비용문제가 발생하는 등 수많은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는 실정임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은 현행 건축자산에 불합리한 법 규정에 따라 그 가치와 물리적인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건축자산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 생활을 수용할 수 있는 활용을

통해 건축문화자산이 멸실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나) 추진년도 : 2014.06.03.(’15.6 시행예정)공고

2) 주요내용

가) 법의 성격 :

- 본 법이 「문화재보호법」과 대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규제법’이 아니라 ‘지원법’이라는 데 있음

: 건축문화자산을 보전하고 관리하며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법의 성격을 가지며, 동시에 많은 지자체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는 한옥지원조례 및 근대건축물 지원조례와 같은 기존 건축문화 자산 관련 지원조례의 상위 근거법 성격을 가짐

- 본 법은 건축자산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가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매년 ‘건축자산 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건축자산의 기초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에 대한 공공의 책무도 규정하였음

나) 기본방향 : 첫째, 기본적으로 「문화재보호법」과 충돌 방지를 위해 건축자산에서 문화재는 제외하며 둘째, 소유자의 자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기준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 적용하고 셋째,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소유자의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지원을 해주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제’를 운영하며 넷째, 특정 건축자산의 점적 관리뿐만 아니라 건축자산 밀집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해 면적 관리제도를 마련토록 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한옥의 진흥을 위해 한옥에 한해서 신규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해서도 지원규정을 두고 있음

- 건축자산의 정의는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경제·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근대건축물 등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말함

-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등록문화재는 기본적으로 50년이 지난 것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건축자산은 조성시기의 제한이 없어 공간사육과 같은 현대건축물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임. 대상으로서 ‘건축’의 범주는 「건축기본법」에 근거하여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물로 이루어지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아우르는 공

간환경을 포함함

- 아울러 ‘유산’이 아닌 ‘자산’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대대로 이어져오는 것을 그대로 전승 또는 계승하는 의미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경제성을 지니는 다양한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제도는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한 소유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여 스스로 건축자산의 가치를 증진하고, 활용 등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건축자산의 유지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수건축자산’의 의미는 건축자산으로 발굴·목록화 된 대상 가운데 ‘우수’하다는 비교 우위의 의미보다는 소유자 스스로 증·개축 비용에 대한 지원 또는 건축 특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등록된 건축자산을 의미함
-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건축물 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기술 지원과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은 물론 조세도 감면받을 수 있음. 외관 등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증·개축 시 건축법, 주차장법, 소방법 등 관계법령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도 있음. 특례적용 범위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안전과 직결되는 성능 규정은 해당 성능에 준하는 대체 방안을 마련하였을 경우에 한해 완화해 주도록 함
- 건축자산 진흥구역제도는 우수건축자산 주변지역 또는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종합적인 관리와 경관적 특성을 보전하기 위한 면단위 관리체계임. 일반적으로 비문화재로서 건축자산은 개별 가치는 크지 않을 경우라도 군집됨으로써 가지는 역사·경관적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마련됨
-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의 고유한 도시관리가 필요한 지역(인천 내항 등), 지역의 역사·문화에 기반을 두어 조성된 독특한 가로나 필지 등 도시조직과 그것이 이루는 경관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종로 피맛길, 명동 등), 개별 건축물의 역사적·예술적 가치는 낮더라도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독특한 지역경관을 형성하는 지역(부산 감천문화마을, 인천 갯이부리마을, 서울 서촌 한옥마을, 장수마을 등)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음

-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관리계획의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전제로 구역 내 기반시설 정비 및 건축물 보수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이때 일반건축물에 대한 관리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
- 하지만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축 및 개·보수 비용에 대한 지원과 건축법 등의 특례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이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경우 건축자산 밀집에 따른 경관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축자산 주변의 일반건축물들의 관리와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임. 즉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경우 수반되는 관리·규제사항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이라 할 수 있음

다) 주민참여 :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설치 시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규정도 마련

4.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는 최근 관광4.0시대(융합시대)를 맞아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이 강조되면서 융합발전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광정책의 영역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특히 관광을 위한 문화예술자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예술자원이 집적된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면적보전 수단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가. 문화지구제도

1) 개요

가) 근거법 : 「문화예술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를 근거로 함

나) 추진배경 및 목적 :

- 배경은 시장경제의 한계로 인한 문화예술자원의 특성 및 경쟁력 상실, 기존 도시계획제도의 한계성, 지역 문화예술자원의 보호·관리의 필요성, 문화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임
- 목적은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문화지구 내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 등의 보존·육성을 통해 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의 계획적으로 조성

[표 3-5] 문화지구제도의 목적 및 기대효과

세부목적	기대효과
문화예술 보존 및 육성	(물리적, 공간적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보존·육성하고자 하는 특정분야의 문화예술 특성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발전
공동협력 체계 구축	밀집한 관련업종 및 시설들 간의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집적의 경제성(저비용, 고효율)을 달성하고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정체성 및 이미지 형성에 기여, 장소마케팅 요소로 활용 ·관광객 증가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증대 ·지역주민 소득향상, 지역에 대한 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3), 「관광특구 제도 개선방안」 일부 수정

다) 추진년도 : 2000년-

라) 추진현황 : 2002년 인사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대학로, 파주 헤이리, 인천 개항장, 제주 저지문화예술인마을까지 총 5개의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

2) 주요내용

가) 지정기준 및 범위 :

- (기준)①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등의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②문화예술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③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

나) 지정절차 :

-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관할 단체장은 1년 이내에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문화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해 권장용도와 불허용도를 제한하는데, 권장용도에 대해서는 재정 및 행정 지원 등의 혜택이 있음
- 시·도지사는 3년마다 평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해야함

다) 규제 및 지원 :

- (규제)문화지구 지정목적에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지구별로 제한함
 - (지원)시·도 조례에 따라 다르긴 하나, 기본적으로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문화지구 내 각종 문화시설 및 업종들(권장시설)은 조세감면, 용자금 지원 및 행정적 지원 등을 받음
 -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50% 감면
 - : 건물 소유자에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권장시설의 신/개축 또는 대수선비의 용자
 - : 권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비 및 운영비의 용자
 - * 조세 및 부담금 감면실적을 살펴보면, 2010-2012년 3년간 총 조세감면금액은 639,804천원이고 용자금 운영상황 및 시군 기금운용 관리실태는 2010-2012년 3년간 권장시설 용자금지원은 총 10건, 10,950천원으로 매년 용자지원 승인건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승인율이 높지 않은 편임
- 라) 주민참여정도 : (사)헤이리가 주민협의체로 활동 중이나,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협의체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표 3-6] 문화지구제도 규제와 지원

구분	규제내용	지원내용
목적	·기존 도시조직 보호 ·보행환경 개선 및 지역환경 개선	권장시설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업종(시설)규제
성격	이질 용도 및 건축행위제한	지원을 통한 보호
내용	·용도제한 ·건축제한 ·주요지역 개발원칙 수립	·권장시설 세제감면 및 용자지원 ·홍보 및 마케팅 ·환경개선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 개발 등 지원 ·주민협의회 운영 지원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3), 「관광특구 제도 개선방안」

5. 문화재청

- 문화재청은 지속적 문화유산 보존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갈등이 상존하고 문화재 특성별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에 대한 요구가 증가됨을 인식하고, 현상유지 중심의 문화재 보존방식 패러다임 전환 및 유형별 항구적 문화재 보존 체계 강화를 추진하려고 함
- (규제위주에서 진흥·장려행정으로 문화재보존 기본 틀 전환노력) 현상변경 허용기준 범위 내 문화재와 조화로운 건축행위 시, 건축비 지원 등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지역의 역사문화경관 조성 유도(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 기본계획 마련_‘14-’15년)하러 함
- (규제 강도에 상응하는 단계적 보상_조세감면, 주민지원) 규제지역 범위 내 주민대상, 생활편익·복리증진·경관개선 사업 등 지원(문화재보호법 개정 추진 협의_‘14년)을 마련하려고 함
- (문화유산을 매력적 장소로 탈바꿈 하기 위한 현대적 활용) 실생활에 밀접한 문화유산 향유·활용 정책추진으로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생생문화재 사업을 통한 지역문화 및 전통공간 활성화(70개, 36억원)하고 향교·서원 활용 전통문화 전승 및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유교아카데미 등)로 지역 문화유산 관광자원화(38개, 13억원)함과 더불어 지역 문화유산자원의 매력창출을 위한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사업 필요성 확산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 개요

가) 근거법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6항, 해당지자체 조례

나) 추진배경 및 목적 :

-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동산, 무형문화재는 제외/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조례(각 시도별 문화재보호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기존 현상변경허용구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

된 제도

다) 추진년도 : 2010년-

2) 주요내용

가) 지정기준 및 범위 :

- 지정문화재의 의미 상 역사문화자원이 형성된 시기는 기준이 되지 않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근대이전 뿐 아니라 근대에 형성된 역사문화자원도 그 가치가 인정되면 지정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에 따라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적용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으로부터 문화재의 왜소화 현상을 방지하고 있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 예술적, 학문적,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함.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음

[표 3-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범위

분류	지정범위 기준	지정범위
국가지정 문화재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이내 (200m-500m:10층 이상 건축물)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존지역	500m이내
시·도지정 문화재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이내 (200m-300m:10층 이상 건축물)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존지역	300m이내
서울특별시	국가지정문화재	100m이내
	시·도지정문화재	50m이내

자료출처 : 양초원(2013), 「역사문화경관 관련지구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지구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 연구」

나) 지정절차 :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허용절차 추가)

- 다) 규제 및 지원 : (규제)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주변환경을 문화재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구역을 나누고 건물의 높이 등을 제한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지정되면 규제구역을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세분하여 구역마다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달리 적용. 단, 구역의 구분은 문화재 주변의 보존 필요성, 주변의 개발정도, 기존 건물의 높이, 토지이용현황, 삼림, 수계 지형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짐

[표 3-8]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내용

구분	내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외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재와 조화되는지의 여부
주변과의 조화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 여부
유해물질 발생 유무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에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굴착행위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 행위 수반 여부
수질변화	수계·수량 변경 또는 수질 오염 여부
역사·문화·자연환경 저해 여부	고도경관 또는 역사·문화·자연환경 저해 여부
매장문화재포장여부	매장문화재 포장 여부

- (지원) 「문화재 보호법」에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시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지역 내 일반건축물 소유자 등을 지원해 줄만한 근거 규정은 찾아볼 수 없음. 그러나 소유 건물이 보존지역에 위치함으로 인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그 건물의 수리 또는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은 해당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나. 집단민속문화재구역

1) 개요

가) 근거법 : 문화재보호법

나) 추진배경 및 목적 : 중요민속문화재가 일정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함

다) 추진현황 : 안동하회마을, 경주양동마을, 성읍민속마을, 성주한개마을, 고성왕고마을, 아산외암마을 등

2) 주요내용

가) 지정기준 및 범위 :

- (기준)민속문화재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정되는 국가지정문화인 중요민속문화재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 민속문화재의 개별적인 지정을 갈음하여 구역을 지정함

: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고유 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 (범위)집단민속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사례를 보면 전통적인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민속마을단위인 것을 알 수 있음

나) 지정절차 :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와 동일(해당 지자체 문화재청에 지정신청→전문가 3명이상 현지조사→문화 지정예고(30일)→문화재위원회→지정결정)

다) 규제 및 지원 :

- (규제)집단민속문화재구역 내의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 환경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서,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른 규제를 받음. 그 내용은 용도·규모·높이·모양·재질·색상의 조화여부,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 여부, 유해물질 발생 유무, 굴착행위 여부, 역사·문화·자연환경지해여부, 매장문화재포장 여부 등을 포함함. 또한, 집단민속문화재구역으로 설정된 민속마을은 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종합정비계획이 마련되어 관리됨

[표 3-9] 양동마을 종합정비계획 기본방향

구분	내용
가옥정비	원형이 훼손되었거나 완전히 개조된 가옥에 대한 보수 정비 사업으로 가옥 내부 및 외부 보수, 담장 및 석축 보수, 초가이어 잇기, 화장실 수세식 정비
환경정비	기존도로의 정비 및 포장, 배수로정비, 하천의 석축과 바닥, 교량정비, 마을 전체조경사업, 사적담방로 개설
기반시설	마을의 대다수 가옥들이 목조이기 때문에 소화시설이 필수, 급수·오수관, 배·오수관, 전기, 통신, 전화, 가스시설 설치
마을공동시설	마을의 경관과 편의를 위해 농기계 보관소를 마을공동시설로 건립, 물레방아와 연자방아, 연못 등 설치
전시교육 및 관광편익시설	관람객 편의시설로서 주차장, 화장실, 정보센터, 휴게소, 음수대 등을 마을경관과 주민들의 생활 저해방지를 위해 마을 바깥쪽 어귀지역에 설치

자료출처 : 경주시(2002), 「양동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보고서」

- (지원)집단민속자료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는 것은 중요민속문화재로의 지정을 의미하므로 문화재의 보수·정비는 「문화재보호법」 제51조에 따라 국가의 보조금 지원으로 이루어짐. 양동마을의 경우, 지정 초기인 1990년대에는 1년에 1-2억 정도의 지원금으로 마을을 보수·정비하였음. 해마다 그 지원금이 늘어나고 2010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로는 20-30억 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어 마을을 보수·정비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6. 기타

- 한옥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11) 총 33개 지자체에서 한옥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음

[표 3-10] 지자체 한옥관련 조례 운영 현황

조례형태		조례내용
별도조례 운영	광역단체 : 서울 등 3개 지역 기초단체 : 전주, 경주 등 34개 지역	·적용대상 ·한옥의 등록 ·신축 및 개·보수 비용지원
건축조례 포함	경주, 영주, 부여	·한옥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한옥기금 설치 등

가. 서울시 ‘한옥밀집지역’ 지정 관련

1) 개요

가) 근거법 :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추진배경 및 목적 :

- 한옥 개·보수 및 신축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한옥밀집지역 지정함

다) 추진년도 : 2002년 -

라) 추진현황 : 북촌지역(2007), 인사동, 운현궁 주변, 돈화문로(2009), 경복궁 서측(2010) 등

2) 주요내용

가) 지정기준 및 범위 : (한옥등록제 및 한옥등록관리대장 운영) 5개 지역 내 한옥은 2,358동, 비한옥은 4,214동으로 총 6,572동의 건물 이 본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등록한옥은 2011년 10월 기준으로 총 490건으로 이는 한옥밀집지역내 한옥(2,358동) 의 약 20.8%에 해당함

나) 지정절차 : (한옥위원회 운영) 서울시 한옥위원회는 서울시의 한 옥 보전 및 진흥과 관련하여 한옥보전진흥정책, 한옥밀집지역의 지정·변경, 한옥 수선 등 기준의 수립·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조 사·심사 또는 자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음

: 모든 위원이 참석하는 본위원회는 한옥관련 정책수립 및 지원금 의 확대지원 등과 같은 중요한 결정사항을 심의하고, 소위원회 는 한옥 개·보수 지원금 결정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그 기능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다) 규제 및 지원 : 서울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한옥등록제 를 운영하면서 등록한옥에 대해 지원과 함께 지원을 받게 될 경 우 이에 따른 행위제한을 동시에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유지·관리 및 보전책을 펼쳐오고 있음

- (규제) 일정기간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해서는 안 되며, 지 원금을 받은 당시의 용도와 가로입면을 유지해야 함. 또한 한옥 등록 관리대장을 통해 등록한옥의 유지 상태, 보조·용자 지원내 용 및 현황사진을 기재하도록 함
- (비용지원) 등록한옥 개·보수 등의 비용지원 뿐만 아니라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한옥 밀집지역

에 공동주차장 설치 등 환경정비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 (신축시)보조금은 외부공사에 대해 최대 8천만원(전면수선시 6천만원), 용자금은 전면보수 내부공사에 최대 4천만원(신축시 2천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보조금과 용자금을 합한 지원금 총액을 한옥 한 채당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함
- : (정기적)지붕 등을 수선하여야 하는 한옥의 특성상 지붕은 개·보수시 5년 단위로 지원하고, 기타 전면수선 및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 20년 단위로 개·보수를 지원하고 이때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함
- (조세감면)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서는 한옥등록의 소유자 등에게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 조항을 근거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제9조에서는 종로구 역사문화미관지구의 한옥에 대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옥 및 부속토지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음

7. 소결

- 농식품부는 농업 유산제도와 경관보전직불제를 농촌자원의 면적보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규제중심의 관리가 아닌 지자체와 주민간의 자발적 관리를 지향함으로써 이를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농업 유산제도의 경우 유산지정 대상 및 범위에 있어서 경관뿐만이 아니라 전통적 농업활동, 이의 결과로 나타난 토지이용시스템과 생물다양성 등 유·무형의 자원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할 수 있음
-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통해 자연환경을 현 상태 있는 그대로 보전함을 원칙으로 제한 및 금지행위 등의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고, 보전대상은 생태계중심의 자연환경으로 한정되어 있고, 지정면적은 보전대상에 따라 다양함. 또한 지역주민참여는 보전지역 선정 시 의견수렴 정도로 한정되어 사실상

- 관리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역사문화자원의 면적보전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음. 이러한 용도지구는 근본적으로 역사문화유산의 가치를 정의하고 보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보다는 새로운 개발행위를 규제하고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규제위주의 관리를 하고 있음. 지정대상은 도시지역에 위치해 있는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을 중점으로 함. 하지만 최근에는 지역특성화와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한옥 등 건축문화자산이 멸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거법을 마련하면서 자원의 가치와 대상을 확대시키는 변화를 보이고 있음
 - 문체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국토계획법 등에 근거하여 문화지구제도를 면적보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 제도는 지구단위계획의 규제적 기능과 문화자원의 보호와 육성에 대한 지원이 상보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라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인사동, 대학로, 파주 헤이리 등 주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고 있음
 - 문화재청은 역사·문화자원을 원형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집단민속문화재구역 등을 면적보전수단으로 활용해 관리하고 있음. 대부분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어 농촌의 다수 중요 유산을 포함하고 있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아직까지 규제중심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활동과 관련성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표 3-11] 부처별 유사제도 검토

부처	명칭	근거 법령	주요내용					
			목적	지정 대상	지정 범위	규제	지원	주민 참여
농식품부	농업유산 제도	-	보존 활용	농어업	개별	-	지역당 15억원 (3년간)	0
	경관보존 직불제도	-	활용	작물	마을	-	재배와 활동비를 ha당기준을 설정하여 지급	0
환경부	생태경관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법	보존	자연	지역 (다양)	행위 제한	토지매수, 손실보상	-
국토부	역사문화 미관지구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존	문화재	지구	용도, 건축 제한	-	-
	역사문화 환경보존 지구		보존	문화재	지구	건축 제한	-	-
문체부	문화지구	문화예술 진흥법	보존 활용	문화집 단시설	지구	설치 제한	조세감면, 융자금 등	-
	건축자산 진흥구역 (예정)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	보존 활용	한옥 등 건축	구역 마을	건축 제한	건축물보수비용 등	0
문화재청	역사문화 환경보존 지역	문화재 보호법	보존	문화재 주변	지역	행위 제한	건물 수리비등 (지자체)	-
	집단민속 문화재구역		보존	문화재	마을	행위 제한	보수·정비 비용 등	-
서울시	한옥밀집 지역	해당 지자체 조례	보존	한옥	지역	행위 제한	개·보수비용, 융자금, 조세감면 등	-

제2절 부처별 유사사업 검토

- 분석의 틀은 크게 개요와 주요내용으로 구분하고, 개요는 근거법,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년도, 추진현황으로, 주요내용은 선정기준 및 범위, 선정 및 추진절차, 주요사업내용, 규제 및 지원, 주민참여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1. 농림축산식품부

가.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1) 개요

가) 근거법 : 근거법 없음, 단 농어업 유산 지정 관리기준 고시 ('12.12.6)

나)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농촌의 도시적 개발, 효율성 중심의 현대농업발전 등으로 인해 오랜 동안 형성된 농업 유산이 방치·소멸될 우려
: 그러나 농업 다원적 가치 제고, 우리 고유의 농촌다움을 잃지 않는 농촌 개발을 위해 농촌의 유무형 자원 유지보전 필요
: 특히, 농어업적인 전통과 문화적 가치가 크고, 전승할만한 가치가 있으며, 국가적인 대표성이 있는 것은 국가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목적) 산업화 논리 및 배금주의 등에 따라 멸실·훼손되어가고 있는 전통적인 농어업 시스템과 경관 및 기법 등이 결합된 다원적 자원을 개발·활용하여 농어촌을 활성화하고 부가적 가치(소득, 일자리 등)를 창출

다) 추진년도 : 2013-2019년

라) 추진현황 : 청산도 구들장논(제1호), 흑룡만리 제주 돌담 밭(제2호), 구례 산수유농업(제3호), 담양 대나무밭(제4호)

2) 주요내용

가) 선정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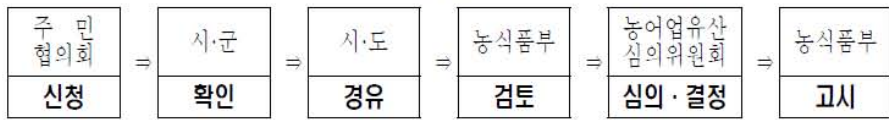
- (기준) GIAHS 등재기준을 참고하여 국가 유산의 품격과 희소 가치를유지하고, 농어촌의 발전과 연계성을 갖도록 기준 설정
: 유산의 가치성(역사성, 대표성, 특징), 파트너십(협력도, 참여도),

효과성(브랜드, 활성화 또는 생물다양성)을 모두 충족

- (범위) 완도군 청산도 전역, 제주도 전역 등 지역전체를 범위로 지정

나) 선정 및 추진절차

- (선정) 시·군에서 보전·활용 가치가 있는 유산을 조사하여 주민협의회(2/3동의)에서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신청서를 우리 부로 제출
: 국가유산의 지정·해제는 관주도를 지양하고 일반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그림 3-1> 국가농업유산지정절차

- 다) 주요사업내용 : 유산자원의 복원, 주변 환경정비 및 관광객 등을 위한 편의·휴게 시설 등 설치
- 라) 규제 및 지원
 - (지원) 지정된 지역에서는 농업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유산자원의 복원, 주변 환경정비, 관광자원 활용 등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받게 됨(1개소당 3년간 10.5억 원-15억)
- 마) 주민참여단계 : 국가유산지정신청을 위해 주민협의회가 결성되어 추진

2. 환경부

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사업

1) 개요

가) 근거법 : 자연환경보전법 제37조

-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공유수면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방법 등

을 내용으로 하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음

나) 추진배경 및 목적

- 1997년 8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신설로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등 행위규제 위주의 직접규제 방식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함

다) 추진년도 : 2002-계속

- 라) 추진현황 : '97. 8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신설한 후, '02년 3개 시·군에서 창원시(주남저수지), 군산시(금강호), 해남군(영암호·고천암호·금호호) 등 철새도래지 대상 시범사업 실시, '10년 20개 시·군 철새도래지 등 실시

2) 주요내용

가) 선정기준 및 범위

- (기준) ㉠철새인증지역 등 철새의 주요 서식지 및 철새의 먹이제공 효과가 큰 벼농사 지역 ㉡계약면적은 철새의 개체수 및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추진 협의회』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 ㉢대상지역 선정시에는 차량 또는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도로변, 주택부근 등 철새의 서식환경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역은 대상지역에서 가능한 배제 ㉣해당지역의 결빙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벼 미수확존치 사업면적의 축소조정 등을 통하여 사업효과와의 적절한 평가가 가능한 면적으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추진 협의회』의 결의를 거쳐 추진 ㉤가능한 벼짚존치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 (범위)철새도래지 주변지역으로, 경작관리계약과 보호활동관리계약으로 구분함
 - : 경작관리계약은 사업대상 농경지에 지역주민이 보리(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 등) 등을 계약경작
 - : 보호활동관리계약은 철새의 먹이 제공을 위한 농작물(벼) 미수확 존치, 벼짚존치, 쉼터 조성관리 등 지역주민의 생태계보전 활동지원

나) 선정 및 추진절차

- (선정)관계 공무원·생태전문가·환경단체·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추진 협의회』에서 결정

나. 개요자연생태우수마을 및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사업

1) 개요

가) 근거법 :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

나) 추진배경 및 목적 :

- 지역주민의 자연환경 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자연자산을 자율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기 위해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을 선정

다) 추진년도 : 2001-2010

라) 추진현황 : 자연경관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이나 주민들의 노력으로 자연경관 등이 잘 조성된 100개 마을

2) 주요내용

가) 선정기준 및 범위

- (기준) ㉠자연생태우수마을은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이나 주민들의 노력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조성된 마을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은 자연형 하천 조성, 녹화, 생태연못, 생태공원 등 오염된 지역이나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을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복원하여 그 복원효과가 우수한 마을

나) 선정 및 추진절차 :

- (선정)생태마을지정신청서 제출(마을단위, 환경단체 등) → 생태마을지정신청서 취합 제출(시·군·구) → 광역자치단체(시·도) 심사 → 유역(지방)환경청 심사(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필요시 → 최종 선정결과 통보 → 지정서 수여(인증 표지판 포함)

다) 규제 및 지원

- (지원)인센티브 및 사후관리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
: 자연생태학습장과 생태연못 조성, 돌담 복원 등 마을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종합심사를 거쳐 선정된 1개 마을에 대하여 3천만

원의 보조금 지급

- : 환경 관련분야 포상 시 해당 생태마을 우선 선정
- : 생태마을 지정사항에 대한 환경부(환경청) 홈페이지 게재 등
- : 지정기한(3년)이 도래한 마을은 재신청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 지정만료)

3. 문화체육관광부

가. 개요문화·역사마을 가꾸기(종료)

1) 개요

가) 근거법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나) 추진배경 및 목적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마을의 문화·역사적 소재를 발굴·육성하여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문화와 환경이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함

다) 추진년도 : 2004년-2009년(마을당 2년)

2) 주요내용

가) 선정 및 추진절차

- (추진)중앙부처에서 사업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전국문화원연합회에 배당함.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방문화원에 시달하게 됨. 또한 지역별 핵심자원에 맞는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특히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 지방문화원, 마을주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별 추진위원회는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책임지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나) 주요사업내용

- 매년 전국 9개 마을(각 도별 1개마을)을 선정하여 255억원(관광진흥개발기금 170억원, 지방비 85억원)의 총 사업비 지급
- 물량위주의 건축이나 마을정비사업보다는, 문화·역사·환경·소득이 조화된 장기적 마을발전 전략수립을 기본으로 유교, 돌담, 잠녀(해녀), 전통술, 전통놀이 등 전통, 생태, 유무형의 문화자원이 핵심인 점에 초점을 두었음
- 지원예산의 집중 투자, 민간전문가의 적극 활용, 마을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사업 지침 시달 등

다) 규제 및 지원

- (지원)마을당 30억원(관광진흥개발기금 20억원, 지방비 10억원)을 지원해주고, 마을발전 전략 수립·경관개선·상징물 설치·관광상품개발·마을역사체험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을 사업으로 지원함

4. 문화재청

가. 생생문화재 사업

1) 개요

가) 근거법 : 문화재보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준율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나) 추진배경 및 목적 : 1지방자치단체 1생생문화재 사업 추진을 목표로 문화재 활용이 최대의 문화재 보존이라는 새로운 가치아래, 지역에서 잠자고 있는 문화재에 생기를 불어넣고 향토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프로그램형 지역재생 사업임. 따라서 생생문화재사업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 및 지역 활성화 도모하고 지자체 및 문화재 경영단체 문화재 활용 역량 강화시키고자 함

다) 추진년도 : 2008년-계속

2) 주요내용

가) 선정기준 및 범위

- (기준) ㉠프로그램·컨텐츠 우수성(문화재 정체성, 프로그램 경쟁력) ㉡사업 추진체계·프로그램 운영 ㉢지속발전성 및 지역 기여도(문화재산업화 사회적 자본형성) 등
- (범위) ㉣문화재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거나, 현대적 기능부여 등 문화재의 내재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여 활용한 사업 ㉤다양한 문화유산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지속가능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한 사업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지역 문화 진흥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문화재형 지역재생 사업 기반이 되는 콘텐츠 및 프로그램 사업 ㉧문화재 이야기 자원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사업

나) 선정 및 추진절차

- (선정)심사 및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가칭) 「생생문화재 사업 심사평가위원회」 구성·운영(내·외부 관계 전문가 4~8명 이내로 구성)하여 1·2차 심사 실시
 - : 제1차 심사 : 서류심사 및 전년도 사업 결과 등을 종합 검토
 - : 제2차 심사 : 공개 프리젠테이션(10분 이내) 및 질의응답(연중 상설 지속적으로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역 내 다양한 문화재들을 연계한 프로그램 우선 선정)

다) 주요사업내용

- 시행주체는 지자체로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융·복합적으로 창출하는 교육·문화·관광산업 프로그램 발굴·운영함에 있어 시범육성형(1년차), 집중육성형(2~4년차), 지속발전형(5년차~)으로 구분함
 - : 시범육성형(1년차) 아직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문화재를 대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한 사업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아 시범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사업
 - : 집중육성형(2~4년차) 시범육성 사업결과 콘텐츠 및 프로그램이 우수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 : 지속발전형(5년차~) 집중육성 사업결과 프로그램·콘텐츠의 우수성 및 주관단체의 역량 등을 고루 갖춘 사업으로 문화재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라) 규제 및 지원

- (지원) 총 사업비 중 사업 당 2천-1억원 내외 지원(국고 70%, 지방비 30%_2012년까지는 100%)
 - : 문화재 활용 전문기관을 선정,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현장 자문 실시 및 정보 공유 및 협력망 형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 사업 컨설팅
 - : ‘생생문화재’ 웹페이지 개설, 홍보 리플릿 제작, 교과부 창의·인성교육넷 등과 연계한 홍보와 문화재청 헤리티지 채널 및 현장 모니터링 단체와 연계하여 활동 동영상 제작 활용 등 사업홍보 지원
 - : 문화재청장 표창 및 부상 수여, 사업선정 및 지원규모 우대, 문화재청 활용프로그램 견학 우대 등 평가결과 우수사업 기관 특전부여

5. 소결

- 부처별 에코뮤지엄 관련 유사사업을 살펴본 결과, 각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비슷한 목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중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 중 농진청(농촌진흥청통테마마을), 환경부(자연생태우수마을), 문체부(문화·역사마을가꾸기) 등의 유사사업은 종료
- 농식품부는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을 실시하여 국가농어업유산으로 선정된 지역에 유산자원의 복원, 주변 환경정비, 관광자원 활용 등의 필요한 예산을 3년간 15억원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음. 또한 이러한 국가유산지정신청을 위해 주민협의회가 결성되어 향후 주민주도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지향함
-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철새도래지 주변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이를 위해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
-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등을 근거로 생생문화재 프로그램형 사업을 실시하여 문화재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진흥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표 3-12] 부처별 유사사업 검토

부처	명칭	근거법령	사업계속여부	주요내용					
				목적	사업발굴대상	사업범위	규제	지원	주민참여
농림부	다원적 자원활용	-	'13-계속	보존 활용	국가농업유산	지역	-	개소당15억원 (3년간)	0
환경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자연환경 보전법	'02-계속	보존	철새도래지	개별	-	계약지역 ha당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	0
	자연생태 우수마을		종료	활용	자연자원	마을	-	국고보조 사업시 우선지원, 홍보	0
문체부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관광진흥개발 기금법	종료	활용	역사문화자원	마을	-	30억원	0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문화재보호법	'08-계속	보존 활용	문화재	사업	-	2천-1억원	-

제3절 국내 사례

1. 진안군 백운면 에코뮤지엄²⁶⁾

가. 추진배경

- 백운면지역은 자연, 역사, 문화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존 및 개발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가 강한 지역임
- (사)생명의 숲 마을조사단 사업과 행자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지역문화인, 공무원, 주민들이 수십 차례의 공동학습과 회의를 통해 백운면 에코뮤지엄 만들기 계획 수립

나. 사업추진 기본방향

- 백운면 전역의 에코뮤지엄화
- 전반적인 생활문화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자긍심 증진
- 외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계획수립, 추진, 평가과정 전반에 주민의 적극 참여 보장

다. 주요 자원

- 자연 영역: 데미샘, 해발 1천 미터 이상 산들(성수산, 덕태산, 선각산, 팔공산, 내동산), 백운동 계곡, 신암리 산촌마을, 귀틀집, 숲속휴양타운 조성(계획)
- 역사 영역: 만육 최양 선생 유허비, 오정마을(동학 전봉준 장군 활동지), 동창리 동신 나들목마을
- 문화 영역: 매사냥(무형문화제), 영모정, 운교리 물레방아, 마을숲과 모정, 계남정미소, 손내옹기

라. 영역을 연계하는 인적 자원과 민관협력 거버넌스

- 마을조사단 : (사)생명의 숲 시범사업
 - 2006년 4월부터 실시된 백운면 29개 행정리 전수조사 사업. 2007년도 2차 사업을 예산 2억원으로 추진중

26) 다음은 진안군 백운면 에코뮤지엄만들기 계획서 및 지역활성화센터의 '진안군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사례-백운면 에코뮤지엄 구상' 주민견학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조사원 8명이 9개월간 상주하며 문화컨텐츠 발굴과 시범사업 실시
- 진안군과 백운면은 마을조사단 사업을 적극 지원하며 지역발전의 공동 파트너 관계를 구축 중
- 귀농인 마을간사가 민관 가교 역할 수행
 - 마을 대표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고 도시민의 귀농정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진안군만의 독특한 제도
 - 백운면에는 마을간사 및 마을사무장 각 1인이 활동
- 활발한 주민자치 활동과 평생학습지도자 상근
 - 주민자치센터의 상근 실무자로 평생학습지도자를 선발하여 센터 관리, 각종 프로그램 진행과 조정 등의 활동을 적극 추진
- 민관협력적 으뜸마을가꾸기 사업 경험 축적
 - 으뜸마을가꾸기 사업 경험을 통해 민관의 깊은 신뢰관계 기 구축
 - 백운면에서는 동창리 동신마을이 대상지구로서 지정되어 지역환경을 보전하고 전통문화를 복원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중임

마. 주요 전략 - 어메니티 자원들을 연계한 종합적 연계구상

1) 에코뮤지엄 위성박물관 개발 및 정비 : 점적 개발



- 백운면 에코뮤지엄을 자연, 역사, 문화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 개별 공간을 위성박물관으로 개발
- 지역의 품격과 예술성을 높인 공간의 개발과 정비
- 지역 소재를 활용한 생태건축 기법의 적극 도입* 건축 디자인 전공자를 사업기간중 아트 디렉터로 채용

2) 자연 영역 개발 및 정비



- 선각산, 덕태산, 성수산을 연결하는 능선길(약 20km) 보수와 디자인 개선 (안내표지판 설치, 쉼터 개발 등)
- 상징공간으로 데미샘 공원을 정비, 야외 생태교육장으로 활용

- 신암리 산촌마을을 방문자센터로 활용
- 지역고유의 귀틀집을 쉼터 및 관람 시설로 복원·정비

3) 역사 영역 개발 및 정비



- 전봉준의 활동지였던 오정마을(현 남계리)의 남계정미소를 소규모 동학박물관으로 리모델링
- 동창정미소와 덕현정미소를 자전거 보관시설 및 기념품 판매소, 카페 등의 쉼터로 리모델링
- 남계리 두원공소(천주교 성지)의 성역화

4) 문화 영역 개발 및 정비



- 평장정미소를 (사)생명의숲 주관의 마을조사단 사업과 연계하여 향토박물관으로 리모델링
- 공동체박물관(계남정미소), 손내옹기와 연계하여 사진인화와 옹기체험이 가능한 전시체험관 건립
- 마을숲/모정/물레방아의 복원 및 정비

자연, 역사, 문화가 숨쉬는

데미샘 에코뮤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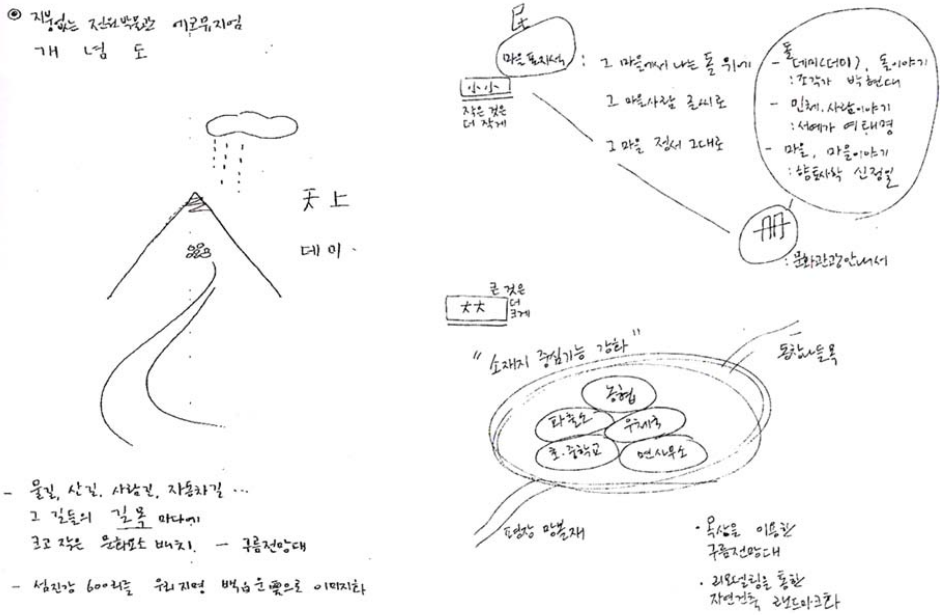
■ - 정미소 [미운영]
정미소 [운영중]



<그림 3-3> 백운면 에코뮤지엄 구상도

바. 백운면 에코뮤지엄 사례에서의 착안점

- 1) 지역 내외의 다양한 주체들이 관련되어 참여하는 거버넌스방식을 통해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진행
 - 그 결과 지역 내 다양한 자원들을 통일된 아이디어에 따라 연계 개발하고자 시도하는 에코뮤지엄 구상이 백운면 전역을 대상으로 구체화됨
- 2) 지역 어메니티 자원 발굴의 주체로 주민들이 중심적 역할 수행
 - 테미샘 에코뮤지엄 개발 구상은 선도적인 지역 주민의 아이디어가 바탕
 - 또한 마을조사단에서 기획한 옛날 사진전 등에서 주민들이 주인공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도 여러 가지 자원 발굴 활동 과정에 주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결과임



<그림 3-4> 지역 주민이 구사한 에코뮤지엄 개발 개념도

3) 공동체박물관 계남정미소의 성공적 활용

- 옛 정미소 건물이나 오래된 이발소 등 지나간 소재들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해오던 어느 사진작가가 낡은 정미소 건물을 사들여 이를 미술관으로 탈바꿈시킴
- 이 지역 주민들의 지나간 사진들을 모아서 옛날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으로 농촌에 소박하면서도 품격 있는 문화적 명소로 거듭남. 화려하지는 않지만 백운면 방문객이 반드시 들르는 답사코스로 자리잡음



<그림 3-5> 공동체박물관으로 활용되는 계남정미소

4) 개성 있게 변모한 면 소재지

- 거리 간판 가꾸기 등 마을 가로 정비의 결과 농촌다운 소박함을 간직하면서도 문화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면 소재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함
- 2007년 문화관광부의 “일상장소 문화생활 공간화 기획·컨설팅 지

원” 사업의 일환으로 면 소재지 간판·안내판 정비와 가로 경관 디자인 등의 작업을 추진

- 지역주민 및 단체의 참여와 백운면 마을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



<그림 3-6> 특색 있는 간판 정비를 벌인 백운면 소재지 거리 모습

2. 철암 빌리지움

- 철암 빌리지움은 국내에서 에코뮤지엄의 개념이 처음 시도된 곳으로 폐산업시설이었던 탄광을 이용한 지역활성화 계획이 있었음. 2001년 2월 10여명의 젊은 건축가들이 주축이 되어 강원도 철암지역을 살리기 위한 ‘철암지역 건축도시작업팀’을 결성하였음. 하지만 철암지역이 인문, 지리, 경제, 사회적 기반이 거의 와해되어 에코뮤지엄의 중요한 구성요건인 주민참여 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아 에코뮤지엄과는 변별되는 개념인 빌리지움(Villsgeum)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였음
- 빌리지움 프로그램은 철암을 마을박물관으로 만들기 위해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다양하고도 특색있는 탄광시설과 저탄장, 석탄시설, 탄광 광부들의 사택, 철암천변을 따라 독특한 풍광을 보여주고 있는 건물들을 보존하면서 조명을 통해 멋진 야경도 만들자는 것임. 그들은 철암에 남아있는 석탄관련 시설을 탄광지역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독특한 관광자원으로 보고 일상적인 스케일을 넘어

서는 거대함에서 충격적이며 역동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음

- 또한 철암팀은 철암다운 경관의 보존, 도시경관의 특화와 철암천의 정비, 생태복원, 산림문화전시관 설치, 새로운 건축 유산 만들기 등 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고자 하였음
- 그러나 철암 빌리지움 계획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모두 떠나버린 후에 너무 늦게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점임. 또한 2003년 홍수로 인해 철암천 주변의 주택들도 대부분 파손된 점 들 수 있음. 이로써 철암 빌리지움 계획은 산업유산을 활용한 실천 계획단계의 사례로만 남아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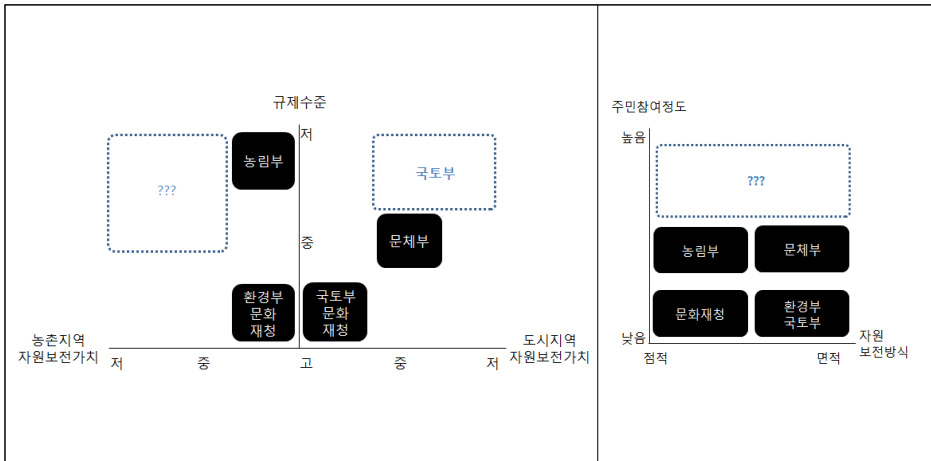
<그림 3-7> 공간의 재발견! 미술관의 색다른 변신!

(출처 :<http://talk.imbc.com/news/view.aspx?idx=76621>)

제4절 검토결과

- 앞 절에서 에코뮤지엄과 관련된 현행제도 및 사업, 사례 등을 살펴 보았음
- 이 절에서는 이와 같은 현행 제도 및 사업들이 면적보전수단으로서 어떠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 고찰해보고 에코뮤지엄 도입의 타당성을 밝히고자 함
- 세계적으로 유산의 개념과 보전대상이 ‘개체’로부터 ‘환경’으로 확장되고,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탁월한 고급문화재로부터 마을이나 지역까지 확대되고, 보전의 범위 또한 마을이나 지역전체를 통째로 보전한다는 통합적 보전원칙이 강조되고 있음(정석, 2009)
- 농촌은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여야 하는 문화재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어 지역전체차원에서 총체적으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제어와 관리 등이 중요한 과제임
- 하지만 각 부처에서 지역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부처별 필요성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농어촌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다수의 유·무형의 자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함
 - 농식품부는 2005년 삶의 질 법을 제정하여 여러 부처에 걸쳐 다기화된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을 체계화하고자 시도하였음. 그러나 통합적 농어촌 지역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수준에만 머물고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함
 - 국토부의 경우 주로 도시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규제위주의 면적보전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최근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원법의 성격을 가진 근거법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축문화자산이 멸실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 환경부, 문화재청 등은 근거법을 가지고 주로 농촌지역의 문화재,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규제위주의 면적보전방식을 취하고 있음
 - 문체부 역시 근거법을 가지고 주로 도시지역의 문화집단지설을 중심으로 규제와 지원이 상보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면적보전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이처럼 각 부처들은 명확한 근거법을 토대로 지역자원 중요성에 대

한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으나 주민주체의 지역자원의 적극적 관리 및 활용보다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규제중심의 보존에 머무르고 있음



<그림 3-8> 부처별 지역자원보전방식

- 특히 농식품부의 경우는 자원이나 유산관리방식이 타 부처에 비해서는 규제보다 지원, 주민참여를 지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산재되어 있는 농업·농촌자원을 지역이라는 총체적 시각을 가지고 면적으로 보전하려는 ‘통합적 보전’방식으로서의 접근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됨
- 물론 최근 농식품부가 농어촌의 사라져 가는 전통 농업자원을 발굴·보전·전승하기 위해 농업 유산제도를 시행하였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가농업유산을 보존하는데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일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유산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지역유산의 관리는 개별 유산에서 농촌지역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제도의 목표 또한 ‘점적인 보존’에서 보다 포괄적인 지역에 대한 ‘면적인 관리’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산재되어 있는 지역자원은 일상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주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민간 부문에서 많은 역할이 필요함
- 따라서 소유주의 보존 및 활용 의지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발굴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는 성격의 정책마련이 필요함

제4장 에코뮤지엄 해외 정책 및 조성사례 분석

제1절 일본 사례

1. 에코뮤지엄에 관한 일본의 현황 및 내용

가. 일본 에코뮤지엄 도입 및 형성

- 일본에 에코뮤지엄이 최초로 소개된 것은 1970년대 중반임
 - 1974년 ICOM(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국제박물관협의회) 자연사박물관 국제위원회 제10회 대회에 참석한 일본의 츠루다(鶴田總一郎)가 「환경박물관」 또는 「생태박물관」이라는 용어로 에코뮤지엄을 일본에 최초로 소개함(糸長, 1996)
- 1986년 아라이(新井重三)가 에코뮤지엄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함. 이후 문화보전, 박물관·미술관 정비·재생, 자연·역사·문화·산업을 활용한 지역 가치를 창조하는 컨설턴트인 단세연구소(丹青研究所)²⁷⁾가 에코뮤지엄 관련 연구와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 함
- 1989년 야마가타현(山形縣)의 아사히마치(朝日町)에서는 「후루사토 창생사업(ふるさと創生事業)」을 계기로 「아사히 마치 에코뮤지엄 연구회²⁸⁾」를 설립하여 에코뮤지엄 관련 활동을 시행하고 있음. 아사히마치 에코뮤지엄은 일본 최초의 에코뮤지엄으로 불리고 있음
- 1995년 3월에 에코뮤지엄 관련 연구자 및 관계자가 「일본 에코뮤지엄 연구회(약칭 JECOMS)」를 설립하고 1995년 아사히마치에서 아사히마치 에코뮤지엄 연구회와 JECOMS가 공동으로 제2회 에코뮤지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에코뮤지엄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였음
- 1990년대에 들어와 토쿠시마현(徳島縣)의 사카노 초, 치바현(千縣葉)의 도미우라초 등의 지자체가 에코뮤지엄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 개발 및 활성화 관련 사업 및 활동을 추진함
- 한편 일본의 중앙정부에서도 에코뮤지엄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교육, 농촌지역정비 등을 시행하였음
 - 환경청(현 환경성)은 1995년부터 에코뮤지엄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교육의 장을 정비하는 「에코뮤지엄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음

27) 단세연구소(丹青研究所) 홈페이지 <http://www.museum.or.jp/tanseiken/index.html>

28) 1999년에 「NPO법인 아사히마치 에코뮤지엄 협회」로 NPO법인화 함

- 농림수산성은 ‘21세기 전원의 힘을 즐기자’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1998년부터 「전원 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전원 공간 박물관」을 정비하였음
- 국토청(현 국토교통성)은 「디지털 에코뮤지엄 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한 에코뮤지엄 홍보를 지원하였음
- 현재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에코뮤지엄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편이며, 일본 에코뮤지엄 연구회를 비롯하여 NPO 등 민간을 중심으로 에코뮤지엄 관련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나. 일본 에코뮤지엄 현황

- 참고 문헌 등을 통해 일본의 에코뮤지엄 사례 지역을 조사한 결과 약 50지역에서 에코뮤지엄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 가꾸기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농수산성이 「전원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전원공간박물관을 정비한 곳 약 50지역을 더하면 일본에는 약 100지역 정도의 에코뮤지엄이 있다고 추정이 가능함. 하지만 전원공간박물관을 정비한 후 실질적으로 에코뮤지엄으로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다. 일본의 에코뮤지엄 활동 내용

- 에코뮤지엄은 지역의 유·무형의 다양한 자원을 네트워크시켜 활용·보전·연구하는 종합적인 활동을 시행하므로 그 활동 내용은 지역 사회계승, 경제활성화, 문화계승, 자연환경보전, 농업진흥, 도시농촌 교류, 환경교육, 지역역사·자원연구, 주민생애학습, 천연기념물보호 등 다양함. 이렇듯 각 지역의 특성과 에코뮤지엄의 비전에 따라 다양한 에코뮤지엄의 활동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도 어떤 활동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 「미야카와 유역 에코뮤지엄²⁹⁾」의 경우 경제활성화 보다는 유역

29) 「미야카와 유역 에코뮤지엄」 「키타하리마 전원공간 박물관」의 활동 내용은 2014년 6월에 시행한 일본 현지 시찰로, 「아사히마치 에코뮤지엄」 「미우라반도 지역전체 박물관」 「야쿠시마 에코뮤지엄」 「타케다 에코뮤지엄」 「시로야마 에코뮤지엄」의 활동 내용은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시행한 일본의 에코뮤지엄의 성격 및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 결과로 파악하였음

환경보전, 유역내외의 인적교류, 주민생애학습에 관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음

- 「키타하리마 전원공간 박물관」은 도시민과의 교류 및 지역주민의 생애학습과 경제활성화 측면의 활동을 시행하고 있음
- 「아사히마치 에코뮤지엄」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활동도 충실히 실시하여 박물관 본연의 모습을 중시하고 있음
- 이밖에 「미우라반도 지역전체 박물관」, 「야쿠시마 에코뮤지엄」, 「타케다 에코뮤지엄」, 「시로야마 에코뮤지엄」, 「미타카시 에코뮤지엄」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 자연환경보전, 역사·문화 계승, 토지·농지 활용 및 보전, 주민생애학습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또한, 「자연유산의 현지보전·활용³⁰⁾」 「유적·사적 자료 현지보전·활용 야외박물관³¹⁾」 등이 있음

라. 일본 에코뮤지엄의 주요 운영 주체

- 일본 에코뮤지엄을 주요 운영 주체측면에서 살펴보면, 시정촌이 사무국을 맡아서 운영하는 「행정주도형」, 주민 혹은 민간조직 등이 운영하는 「민간주도형」이 있음. 민간주도형의 운영 주체는 개인, NPO, 에코뮤지엄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운영위원회, 유역 안내인 등의 민간조직 등이 있음
- 중요한 것은 에코뮤지엄은 종합적인 활동을 시행하므로 이러한 운영 주체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주체와 지역주민, 마을, 행정, 지역의 대학 및 연구기관, 지역 내의 조직 등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임

마. 일본 에코뮤지엄 공간 범위

- 일본의 에코뮤지엄의 공간 범위는 ①하천 유역 범위(미야카와 유역 에코뮤지엄 등), ②시정촌이 연계한 범위(키타하리마 전원공간 박물관 등), ③하나의 시정촌을 단위로 하는 범위(미타카시 에코뮤

30) 아키타 현의 후지사토 초 '자연학습식 걷는 체험 박물관', 토야마 현의 다테야마 초 '다치야마 박물관', 시마네현의 오오타시 '산베산 필드 박물관 등

31) 이시카와 현의 아나미즈 초 '아나미즈마치 역사의 마을', 구마모토 현의 구마모토시 '역사회랑도시 구마모토' 등

지엄 등), ④마을을 연계한 범위(우에야마 고원 에코뮤지엄 등), ⑤마을을 단위로 한 범위 등 다양함

- 그러나 마을 단위의 에코뮤지엄 사례는 적고, 대체로 시정촌이 연계한 범위와 하나의 시정촌을 단위로 하는 범위가 많으며, 따라서 일본 에코뮤지엄의 공간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할 수가 있음
- 하지만, 전문가 설문 조사³²⁾에 따르면 마을을 단위로 에코뮤지엄을 추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가 있음

바. 일본 에코뮤지엄 성격

- 프랑스의 에코뮤지엄과 일본의 에코뮤지엄은 공통적으로 지역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프랑스의 에코뮤지엄은 코어가 되는 박물관에 학예원 자격을 지닌 전문가가 있어 주민이 참여한 조사·연구·교육 활동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본의 에코뮤지엄의 경우 조사·연구 활동을 시행하는 에코뮤지엄은 드물다는 점이 다름. 아사히 마치 에코뮤지엄 정도가 주민이 참여하여 조사·연구 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 프랑스에서는 에코뮤지엄의 기본조건으로 학예원의 자격을 가지는 관장이 있을 것, 수집품을 가지고 있을 것, 수집품을 공개할 것 등의 조건이 지정되어 있지만, 일본에서는 특정의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에코뮤지엄의 형태는 지역에 따라 다양함(丹青研究所, 1993)
- 에코뮤지엄 관련 활동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그 목적이 지역사회 활성화, 자연 환경보전, 경제 활성화 등에서 어떤 부분에 더 치중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에코뮤지엄에 활동에 관여해온 전문가들은 에코뮤지엄은 주민 생애학습 관련 활동의 장으로서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 「미우라반도 지역전체 박물관」에 관여해온 전문가에 따르면 “에코뮤지엄은 「뮤지엄」 즉 「박물관」으로서 요소(특징)를 가지며 이 점이 에코투어리즘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음
 - 에코뮤지엄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교육(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하

32)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시행한 일본의 에코뮤지엄의 성격 및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

- 는 한편,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가꾸어나가는데 필요한 기술·지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에코투어리즘과 에코뮤지엄은 지역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불거리, 체험 등)를 제공하는 점은 유사하나, 에코투어리즘이 관광객 등 외부 방문자를 위한 활동을 개발·시행한다면, 에코뮤지엄은 그러한 활동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함. 외부와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에코뮤지엄의 활동은 지역주민을 향한 활동을 중시하는 점을 지적함
 - 「시로야마 에코뮤지엄」과 「미타카시 에코뮤지엄」에 관여한 전문가는 에코뮤지엄은 사회교육 기관이며, ‘사람 만들기(인재 양성 및, 사회관계자본 형성 등)’의 장이라고 말함
 - 지역 활성화는 사람 만들기의 결과 얻어지는 것으로 지역 활성화 중 특히 경제 활성화를 에코뮤지엄 활동의 목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함

[표 4-1] 일본 에코뮤지엄의 내용

유형	주요내용
활동내용	지역사회 계승, 경제 활성화, 문화계승, 자연환경 보전, 농업 진흥, 도농교류, 환경교육, 지역 역사·자원연구, 주민생애학습 등 ※일본의 경우 에코뮤지엄은 주민 생애학습 관련 활동의 장으로서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무엇보다 중요
운영주체	-행정주도형(시정촌이 사무국을 맡아서 운영) -민간주도형(주민 혹은 민간조직-NPO 등-이 운영) ※ 에코뮤지엄은 상기 운영주체가 주도하되 지역주민, 마을, 행정, 지역대학, 조직 등이 상호 협력이 중요
공간범위	-하천 유역 범위(예: 미야카와 유역 에코뮤지엄) -시정촌이 연계한 범위(예: 키타하리마 전원공간박물관) -단일 시정촌(예: 미타카시 에코뮤지엄) -마을 연계(예: 우에야마 고원 에코뮤지엄) ※ 자원에 따라 유역범위는 탄력적이며 단일 마을로도 에코뮤지엄 추진이 가능

[표 4-2] 일본의 에코뮤지엄 리스트

	명칭	대상지역	개요	추진주체
1	洞爺湖 주변지역 에코뮤지엄	홋카이도 洞爺湖주변지역	「火の山」·「北の大地の歴史」를 접하는 자연박물관, 화산에 관하여 배우며, 자연이 넘치는 대지를 접하며, 선조들의 자취를 체험	협의회
2	에코뮤지엄 おさしま센터	홋카이도 中川郡·音威府村 전체	北海道에서 가장 작은 마을	행정 (시정촌)
3	なかがわ 에코뮤지엄	홋카이도 中川郡·中川町 주변	中川町에서 발견된 암모나이트 화석을 중심으로 한 나카가와 에코뮤지엄	행정 (시정촌)
4	川湯 에코뮤지엄 센터	홋카이도,川上郡· 弟子屈町·屈斜路 칼데라를 중심으로한 川湯지역 주변	屈斜路칼데라를 중심으로 川湯지역 자연을 소개	행정 (도도부현)
5	塘路湖 에코뮤지엄센터 あるこっと	홋카이도 川上郡·標茶町· 塘路湖주변	釧路濕原의 사계절의 자연과 이용 정보 제공. 물을 테마로 한 영상「濕原の詩」「不毛の大地、水の大地」와 지오라마, 전시 패널 등으로 濕原의 생태계를 해설	행정 (국가)
6	十二湖 에코뮤지엄센터 湖郷館	아오모리현 縣深浦町	숲과 놀이, 숲을 배움 白神山地	행정 (시정촌)
7	矢島町 에코뮤지엄 기본구상 안	아키타현 矢島町	에코뮤지엄 구상 관련 홈페이지가 남아 있음. 마치 즈쿠리 기본 안 등도 있음. 12년 전 시정촌 합병으로 마치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음. 현재 秋田縣由利本莊市の 시청 홈페이지에는 에코뮤지엄이란 단어가 발견되지 않음	행정 (시정촌)
8	イーハトーブ 에코뮤지엄 구상	이와테현 東和町	東和町은 2006년에 花巻시로 합병, 에코뮤지엄 구상 시행을 중단	행정 (시정촌)
9	釜石지역전체 박물관구상	이와테현 釜石市周辺	구상만 확인 가능, 활동 실태 확인되지 않음	행정 (시정촌)
10	北上川中구역 에코뮤지엄	이와테현 水澤市 北上川中구역	北上川中流域의 역사·문화·자연환경을 살린 박물관을 에코뮤지엄으로 생각하여, 北上川中구역 사이클 워킹로드를 축으로 한 광역적 지역 가꾸기 활동	NPO
11	早池峰 에코뮤지엄	이와테현 早池峰地域	마치에 전해오는 早池峰神樂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만, 에코뮤지엄으로서 활동 실태는 파악되지 않음	불명
12	朝日町 에코뮤지엄	야마가타현 朝日町	국가 명승 「大沼の浮島」과 국가중요문화재 「佐竹家住宅」 등이 있고, 역사적·문화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 일본 최초의 에코뮤지엄으로 불리는 지역	NPO
13	えびの 에코뮤지엄센터	미야자키현 えびの市えびの 고원 주변	霧島連山の 등산 및 화산 화구 호 및 저수지 탐방	

14	야마もと·와たり 전원공간박물관	미야기현 山元町·亘理町	전원공간박물관은 야외에 물품을 전시하는 야외 박물관의 일종.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활동을 시행하는 에코뮤지엄의 일종	행정 (시정촌)
15	일본풍토박물관	미야기현 伊具郡·丸森町	「齋理」은 에도시대부터 쇼와 초기까지 7대에 걸친 거상이고 「齋理屋敷」을 일본 풍토박물관을 핵으로 걸맞게 하기위하여 「交流の館」、 「習の蔵」 시설 등, 산책로를 정비하였음. 매년 8월 추석에는 「齋理幻夜」로 칭하는 타이쇼의 추억 분위기를 풍기는 이벤트를 개최하여, 매년 3만명 정도 관광객이 방문	행정 (시정촌)
16	니가타현 立淺草山麓 에코뮤지엄	니가타현 越後三山只見국 정공원 안의 淺草산록	淺草山麓에 펼쳐진 녹음 풍성한 자연시설·전시연습실이 있는 에코뮤지엄센터. 식물을 접하는 에코필드·자연게임·식물관찰 등 다양한 환경학습 프로그램을 시행	개인
17	里山에코뮤지엄 十觀山환경보전	나가노현上小지 역	十觀山 및 주변 지역의 새로운 관광과 매력을 연결하여, 자연환경보전, 환경교육 충실, 관광 등의 지역 진흥 활동	민간활동
18	信州塩田 에코뮤지엄	나가노현 上田市塩田·手塚 ·野倉지역	일본의 전원 풍경적 농촌 마을과 쇼와 초기의 목조학교旧西塩田소학교, 대형 고민가 존재, 信州의 카마쿠라, 전원 투어리즘, 민가 투어리즘의 별칭	민간활동
19	阿智 전촌박물관	나가노현 下伊那郡·阿智村	阿智村的 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전체 박물관」 「모든 마을 박물관 구상」을 시행. 지역 가꾸기를 시행 하면서, 「阿智전촌 박물관 연합회」를 설립	행정 (시정촌)
20	에코뮤지엄 關ヶ原	기후현 關ヶ原·東海자연 보호 지역	揖斐關ヶ原養老국정공원, 동해 자연 보도 및 연안 자연 이용자에 대하여, 자연의 산물과 지역 문화에 관한 이해를 돕는 활동 시행	불명
21	滑川町 에코뮤지엄센터	사이타미현 比企郡·滑川町	일본 고유 담수 어종인 국가지정천연기념물ミヤコタナゴ의 인공번식, 생태에 관한 조사연구, 야생 복귀 실현을 향한 활동 시행	행정 (시정촌)
22	작은 박물관	동경도 墨田區	墨田구의 산업문화에 관한 귀중한 컬렉션 전시	행정 (시정촌)
23	에코뮤지엄 지역전체박물관 구상	동경도 調布市·深大寺 주변 지역	2009년도 부터調布市시청이 사업 추진 단계, 深大寺 주변 사원, 유적,문 화재를 이용한 사업 추진 중	행정 (시정촌)
24	關さんの 숲 에코뮤지엄	치바현新松戶	도시에 남아 있는 동산『關さんの森』 보전 활동	민간활동
25	湖西·森과 마을호수 뮤지엄	시가현 琵琶湖·湖西지역	공모로 참여한 주민이 미니뮤지엄을 지원하여 운영	사단법인
26	平野·町 전체박물관	오사카부 大阪市·平野區 주변	미니박물관 운동, 시설 및 전시물을 정비하는 목적이 아니라, 운영자와 방문자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주민 자신이 즐기고 지역을 재발견하는 활동 시행.	민간활동
27	키타하리마 전원공간박물관	효고현 西脇市·多可町	키타하리마지역은 西脇市、多可町로 구성된 풍부한 자연과 역사문화, 전통산업, 주민의 생활까지	NPO

			포함한 유·무형의 지역자원을 박물관의 위성자원으로 활용하는 지역진체박물관	
28	우에야마(上山) 고원 에코뮤지엄	효고현북부 툃토리현의扇ノ山산록	上山고원, 산록의 마을 등 주변지역에서, 자연보전, 환경과 공생하는 생활을 배우며 체험하는 장만들기를 지역 주민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체의 참여 협동으로 시행	NPO
29	나라(奈良) 마치카도박물관	나라현奈良市の 네 지역	「나라마치카도박물관」은 생업 기술,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취미, 수공업, 수집품 등을 지역의 중요한 자원으로 공개하여, 교류의 끈을 넓혀가는 지역 가꾸기를 시행	행정 (시정촌)
30	天川村洞川 에코뮤지엄센터	나라현天川村	洞川에코뮤지엄센터는 자연, 물, 수험길을 테마로 大峯山系の 풍부한 자연과 생활환경을 살린 박물관. 吉野熊野국립공원배경, 체험형뮤지엄, 6개의 필드여행 존	행정 (시정촌)
31	熊野 필드뮤지엄	와카야마현熊野지역	熊野필드뮤지엄은 하드형 뮤지엄이 아니라, 각지역에 존재하는 잠재성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쿠마노의 힘」이라는 개념으로 자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熊野전지역을 대상으로 체험을 제공하는 활동 시행	민간활동
32	미야카와(宮川) 유역 에코뮤지엄	미에현宮川유역	미야카유역 르네상스 협의회와 미야카와유역 안내인이 협력하여, 일본 제일의 청류 미야카와유역 지역을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안내인이 지역의 매력을 전달하는 활동 시행	행정 (도도부현)
33	伊勢 마치카도박물관	미에현伊勢市	서민 생활을 전달하는 개인컬렉션 및 지역 산업공방 등 운영. 지역을 伊勢市에서 二見로 확대하여 현재는 29관이 마치카도박물관으로 공개되어 있음. 또한 역사 문화 견식을 높이고, 지역 자원봉사 가이드로 활약 중	민간활동
34	섬진체박물관	코치현大月町	大月町柏島섬에서 섬 전체 박물관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바다 가꾸기 활동 전개	NPO
35	일 역년 역사가 있는 공용섬 전체박물관 天草御所浦 지오파크	쿠마모토현 남동부에 걸친 八代海서부의 작은 18개 섬으로 구성된 도서지역	섬의 지층에는 공룡을 비롯한, 다양한 화석이 있고, 공용의 섬, 화석의 섬으로 불리며, 御所浦地域 지역에는御所浦白亜紀자료관 전시, 각종 지오 사이트 해설이 있고, 지층 및 화석에 대하여 배울 수 있음	행정 (시정촌)
36	ふるさと전체가 박물관	쿠마모토현 東江市 五個莊지역	「五個莊商人」 키워드로 한 지역 전체 박물관, 거상의 지택을 공개	행정 (시정촌)
37	与論섬 지역전체 박물관	카고시마 현 縣与論섬	「与論島ウンバル학교」, 「パーマ문화 농법」 「与論체험 투어」 등 시행	개인

※주: 고유 명사, 시정촌 명은 일본어로 표기, 단 행정 구역인 현(縣)의 명칭은 한국어로 표기

※출처: <https://sites.google.com/site/machimeguri/jouhou-risuto/sankou-jouhou-rinku> 을 참고하여 추가 작성

2. 에코뮤지엄 관련 일본 중앙정부 정책 및 실행

가. 환경성 : 에코뮤지엄 정비사업

- 국립·국정 공원 내에 자연체험 및 자연학습을 위한 중핵 시설로서 지역의 자연을 종합적으로 관찰·체험할 수 있는 필드와 이용정보의 제공 및 해설활동 등의 거점이 되는 비지터 센터(방문자 센터; 에코뮤지엄 센터)를 일체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2개소를 정비하였음

□ 사업개요

국립 국정공원의 주요 영역에 아동 및 공원이용자가 생명체나 자연의 생물을 접하고 자연을 학습할 수 있도록 중핵시설을 정비

○ 주요 사업내용

- 에코뮤지엄센터 정비

지도원의 자연해설, 네이처크래프트 및 실험 등의 실시, 체험학습 및 이용정보 제공, 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시설을 정비

- 에코필드 정비

에코뮤지엄센터와 하나가 되어 자연체험을 행하는 필드. 에코뮤지엄센터와 자연관찰시설 등을 트레일(산책로)로 연계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의 생태와 호소, 연못, 하천, 습원 등을 관측하는 장을 정비

□ 사업주체 : 환경성, 도도부현(都道府縣)

□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 1995년~

- 사업비 : 개소당 약 8억엔 (국비 1/3, 현비 1/3, 시정촌비 1/3)

□ 사업지구

- 현재까지 12개소 정비

[표 4-3] 환경성의 에코뮤지엄 정비사업

공원명	도도부현	시정촌	사업지구
阿寒 국립공원	홋카이도	弟子屈町	川湯
釧路濕原 국립공원	나라현	標茶町	塘路
吉野熊野 국립공원	나라현	天川村	洞川
阿蘇くじゅう 국립공원	오이타현	九重町	長者原
津輕 국정공원	아오모리현	岩崎村	十二湖
揖斐關ヶ原養老 국정공원	기후현	關ヶ原町	關ヶ原
秋吉台 국립공원	야마구치현	美東町	秋吉台
北九州 국립공원	후코오카현	北九州市	平尾台
霧島屋久 국립공원	미야자키현	えびの市	えびの
越後三山只見 국정공원	니가타현	入廣瀬村	淺草岳

*주: 고유 명사, 시정촌 명은 일본어로 표기, 단 행정 구역인 현(縣)의 명칭은 한국어로 표기

*출처 : 일본 환경성 환경백서



[표 4-4] 환경성의 에코뮤지엄 정비사업 및 관련 정책과의 관계

※ 일본 환경청(현 환경성) 「自然とのふれあい(자연과 만남)」 (환경청 에코뮤지엄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에코뮤지엄 정비사업과의 관계

- 「自然とのふれあい(자연과의 만남)」 추진
 - 1995년부터 어린이들이 자연과 접하여 자연을 배울 수 있도록 중핵시설(에코뮤지엄)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에코뮤지엄정비사업」이 개시되었고 위 사업과 함께 추진되어 환경기본법에 규정된 「인간과 자연의 풍부한 만남」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출처 : 환경청 환경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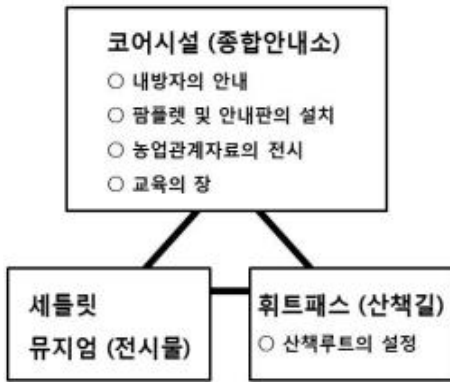
나. 환경청 : 천연기념물 에코뮤지엄 사업

- 「천연기념물의 정비 활용 사업」에 에코뮤지엄의 명칭을 붙인 사업으로 천연기념물의 소유자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주체가 되고, 그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정비에 대해 국가가 보조하는 제도임 (新井, 1997)
- 천연기념물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환경교육이나 생애학습의 장소를 만들어 천연기념물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보급 계발과 보존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천연기념물의 현상에 따라 각 시설이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관찰이나 학습 등의 활동을 쉽고 즐겁게 실시할 수 있도록 배려 함
- 주요 설치시설 : 학습시설, 야외 관찰시설, 야외관찰로 등이 있음
- 1994년부터 시작되어 1997년까지 6개소를 정비하였음
- 대표지역 : 토야마현의 뉴우젠초 스기사와의 늪삼나무, 아키타현의 오오다테시 나가시리 바람구멍 고산식물 군락 및 시바야치 습원식물 군락 등

다. 농림수산성 : 전원정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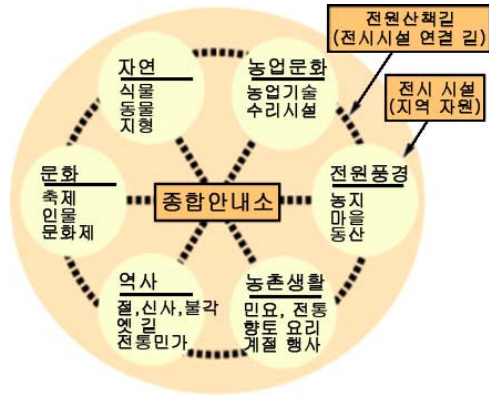
- 「전원공간 박물관」을 정비하는 「전원정비사업」은 일본 농림 수산성의 보조사업으로 1998년도 보정예산으로 창설한 사업임. 「전원정비사업」은 크게 「전원공간정비사업」과 「전원교류기반 정비사업」으로 구성 됨
- 전원정비사업은 1997년 말에 내각에서 결정한 「제5차 전국국토종합개발계획」인 「21세기의 국토 그랜드 디자인」(제1부 제1장 제3절 「다축형 국토 구조의 형성」참조)과 1999년 1월 29일에 내각에서 결정한 「생활공간 배증전략 플랜」이란 정책을 배경으로 시행하였음
- 전원정비사업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법률은 없으며, 관련사업의 시행요강·요령으로 실시하였음
- 하지만 2009년 11월 민주당 정권 당시 행정쇄신회의 사업 재평가에서 ‘중앙 정부보다는 지자체에서 해야 할 사업임’, ‘목적과 효과가 불명확 함’ 등의 의견으로 폐지되었으며, 1998년도에서 2009년도 까지 12년간 전국에 58개소(지구)에서 시행하였음

전원공간박물관의 구성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



전원공간박물관 개념도

(전원공간박물관 : 지역속성을 고려한 계획작성과 사업효과, 佐藤岳洋 인용)



<그림 4-2> 농림 수산성의 전원 공간 박물관의 개념

- 전원공간 박물관 관련 정비사업은 도시와 농촌의 공생과 농촌진흥을 목표로 농업과 농촌이 지닌 풍부한 자연, 전통문화 등 다면적 기능을 재평가 하여, 전통적 농업시설과 아름다운 농촌경관 등을 보전·복원하고, 전원공간 산책을 위한 길 (Foot path) 등을 정비 (「전원 공간 박물관」을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전원 공간 박물관은 프랑스의 에코뮤지엄과 영국의 그라운드 워크 등을 참고하여³³⁾ 중핵시설이 되는 「종합안내소」, 「전시 시설 (지역 자원)」, 「전원산책의 길」로 구성됨
- 사업 주체 (신청 주체)는 도도부현, 시정촌, 토지개발구 등 임. 사업 대상 공간 범위는 단일 시정촌, 복수의 시정촌 임
- 사업 시행 요강을 보면, 전원 정비 사업은 ①공공시설 용지의 확보 (농지 정비 사업의 창설 및 환지 등으로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 ②전원 공간 정비 사업 (농촌에 존재하는 전통적 농업 시설, 아름다운 농촌경관의 보전·복원 등을 고려한 생산 기반 시설 정비 등), ③전원 교류 기반 정비 사업 (지역간의 연계도로 정비) 로 구성
- 사업비는 부담은 중앙 정부50%, 도도부현25%, 관련 시정촌 및 농가 25%임. 사업 내용은 하드 부분에 한정하였음

33) 일본 농림 수산성의 전원공간정비사업 담당자에 의하면, 전원공간정비사업은 일본 에코뮤지엄 연구회와는 관련이 없다고 함

- 사업 주체가 「전원 정비 구상」을 책정하여 이 구상에 따라 작성한 「전원 사업 정비 계획」에 기초하여 사업 실시 함. 계획 수립 시 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이 참여 함
- 사업 후의 시설의 운영 주체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고, 지구에 따라 시정촌, 주민 조직 등 운영 주체는 다양함
- 전원 공간 박물관 관련 정비 사업은 폐지되었지만, 2014년 현재 농산어촌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 교부금 사업 (교부금을 지원하는 사업, 각종 메뉴를 지자체가 자유롭게 선택, 소규모), 아름다운 농촌 재생 지원 사업 등으로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표 4-5] 전원 공간 정비 사업의 내역

사업 종류	사업 내용
1. 전원공간정비	
(1) 공공시설등 용지정비	
①포장정비(농용지정비)	농용지에 관하여 시행하는 구획정리 및 이에 상당한 관련이 있는 다른 공사를 일체적으로 행하는 사업
②농업용용배수시설정비	농업용 용배수시설 신설, 폐지 혹은 변경
③농도정비	농도, 농도교, 삭도(공중케이블) 혹은 궤도 등 운반시설의 신설, 폐지 혹은 변경
④농업집락도정비	농업집락 주변에 대하여 토지개량법에 근거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관한 농도를 보완. 주로 농업기계의 운행 등의 농업생산활동 및 농산물 운반에 사용되는 농업집락의 길 정비
⑤집락녹화시설정비	공공 광장, 공공시설 등의 주변 환경 미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수경(修景)시설 등 정비
⑥용지정비	포장정비 및 환지 수법으로 창출된 용지 등에서 공용공익 시설 용지 등으로 제공되는 지역 정비
(2) 전원공간박물관 정비	
①포장정비	농용지에 관하여 시행하는 구획정리 및 이에 상당한 관련이 있는 다른 공사를 일체적으로 행하는 사업
②농업용용배수시설정비	농업용 용배수시설 신설, 폐지 혹은 변경
③농도정비	농도, 농도 다리, 삭도(공중케이블) 혹은 궤도 등 운반시설의 신설, 폐지 혹은 변경
④농업집락도정비	농업집락 주변에 대하여 토지개량법에 근거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관한 농도를 보완. 주로 농업기계의 운행 등의 농업생산활동 및 농산물 운반에 사용되는 농업집락의 길 정비
⑤집락배수로정비	농업용 용배수로의 수질보전 및 기능유지와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락 안을 연결하는 빗물배수로와 이것에 부속되는 시설 등의 신설, 폐지 및 변경
⑥농촌공원녹지정비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공원 녹지의 정비

⑦라이프라인수용시설정비	농업집락 배수 시설, 영농음잡용수 시설(營農飲雜用水施設), 그 외 공익시설의 매설 공사에 수반되는 비경제적인 도로 훼손·복개를 방지하고 농촌지역의 경관 개선에 도움이 되는, 공공시설을 수용하는 지하 이·활용 시설의 정비
⑧집락수변환경정비	농업용 용배수로, 농업용저수지(못) 등의 수질정화를 배려한 시설, 친수광장 등 신설 혹은 개수
⑨집락녹화시설정비	공공 광장, 공공시설 등의 주변 환경 미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수경(修景)시설 등 정비
⑩주민참가촉진환경정비	본 사업으로 정비하는 시설의 유지 관리 등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를 촉진하고자, 지역 주민의 간단한 생활환경시설의 정비에 대하여 행하는 지원
⑪용지정비	포장정비 및 환지 수법으로 창출된 용지 등에서 공용공익 시설 용지 등으로 제공되는 지역 정비
⑫커뮤니티시설정비	도시민과의 교류 촉진을 위해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건물 및 부대 시설 정비
⑬경관보전시설정비	문화적·역사적 경관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정비
⑭집락농원정비	포장정비사업, 그 외 농용지 개량 또는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것 (1) 시민농원촉진법 2조 규정에 의하여 시민농원 용으로 제공되는 농지의 정비 및 이와 일체적으로 행해지는 주변 농용지를 대상으로 한 사업 (2) 집락농원개설 용으로 제공하는 농용지 및 이와 일체적으로 행해지는 주변 농용지를 대상으로 한 사업 (3) (1) 또는 (2)에 부대하여 도시와 교류를 위해 필요한 시설 정비
⑮보행자전용산책로정비	농촌거주자의 건강 증진 또는 도시 주민과의 교류를 위한 산책로 등의 정비
2. 특인(特認)사업	
특인시설 정비	그 외 각 지방 농정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정비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전원정비사업실시요강 (2003년 개정본)	

[표 4-6] 전원 교류 기반 정비 사업의 내역

사업 종류	사업 내용
(1) 전원교류기반 정비	농촌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집락 간의 연락에 필요한 농업 집락도 등 (집락 내 도로 포함)의 교류 기반 정비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전원정비사업실시요강 (2003년 개정본)	

[표 4-7] 전원정비사업의 개요

<p><input type="checkbox"/> 사업개요</p> <p>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의 발휘가 요구되어짐에 따라, 농촌지역을 농업생산을 지탱하는 생활의 장 뿐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며 전통·문화를 전승해 온 ‘전원공간의 장’으로서 다루는 것이 중요해짐. 이를 위해 농촌의 풍부한 자연·전통·문화 등 다면적 기능을 재평가하고, 농촌에 존재하는 전통적 농업시설 및 아름다운 농촌경관 등을 보전·복원 등을 배려한 각종 농업생산 기반시설 등의 정비를 실시</p> <p>○ 주요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정비, 농업용배수시설정비, 농도정비, 농업집락도정비, 집락배수로정비, 농촌공원녹지정비, 라이프라인수용시설정비, 집락수변환경정비, 집락녹화시설정비, 주민참가촉진환경정비, 용지정비, 커뮤니티시설정비, 환경보전정비, 집락농원정비, 보행자전용산책로정비 <p><input type="checkbox"/> 사업주체 : 도도부현(都道府縣), 시정촌(市町村), 토지개발구</p> <p><input type="checkbox"/> 사업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2009(폐지) <p><input type="checkbox"/> 사업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 6,114백만 엔(국비 18,250백만 엔) ○ 지구당 사업비 약 860만엔 (중앙정부 50%, 도도부현25%, 해당지역 시정촌 및 농민 30%) <p><input type="checkbox"/> 사업추진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촌이 ‘전원정비구상’을 수립하여 이 구상에 따라 작성한 ‘전원사업정비계획’에 기초하여 사업 실시 <p><input type="checkbox"/> 사업시행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2009 기간 중 전국 58지구 (평균공기 8년) <p>※출처: 農林水産省2008</p>
--

라. 국토청(현 국토교통성) : 디지털·에코뮤지엄 정비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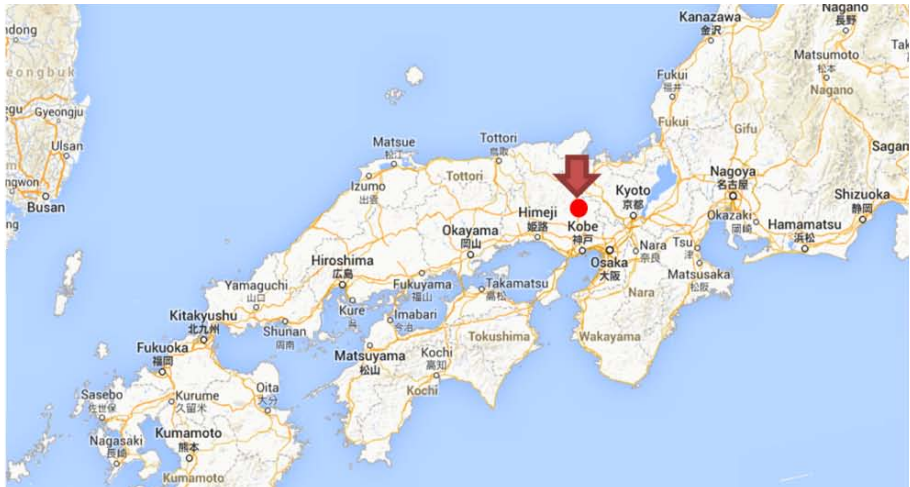
- 「정보통신을 이용한 에코뮤지엄 체험에 의한 농촌지역 활성화 대책 조사 위원회」가 추진 결정. 에코뮤지엄 홈페이지를 에코뮤지엄 코어로 활용하여 방문 유도

3. 에코뮤지엄 일본 사례

가. 기타하리마 전원공간 박물관

1) 대상 지역 개요

- 효고현의 중앙부, 예로부터 기타하리마(北はりま)지역(=(현)니시와키시(西脇市), (현)타키초(多可町))으로 불려온 지역임, 기타하리마 지역은 고베시에서 50km, 오사카시에서 70km 거리에 위치하며 전원공간 박물관의 공간 범위는 시정촌 합병 후의 (현)니시와키시, 타키초(多可町)임, 전체공간 317km², 산림면적 76.7%, 인구 65,922명 (2010년 10월)의 농촌지역으로 과소·고령화가 문제되고 있음(2013년 기준 고령화율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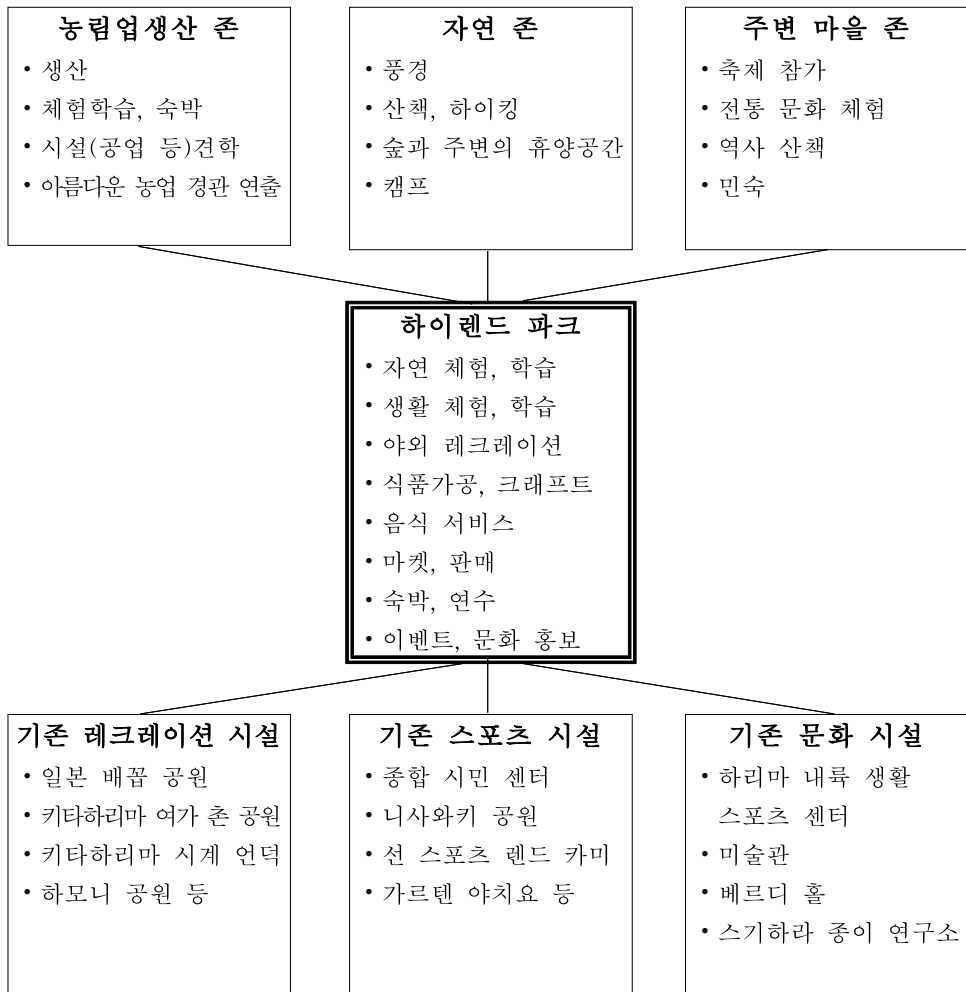


<그림 4-3> 기타하리마 전원 공간 박물관의 범위 및 전경

※지도 출처: 일본 야후, 구글 지도 및 기타하리마 전원공간 박물관 전체 가이드 북(2014년도)

2) 기타하리마 전원공간 박물관 관련 정책 동향

- 당시의 국토계획인 ‘21세기 국토 그랜드 디자인’(이하, 그랜드 디자인)의 4대 전략(‘다자연(多自然) 거주 지역’ 등)에 입각하여, ‘21세기 호고현 장기 비전’의 수립에 따라 (현)니시와키시, (현)타키초가 연계하여 ‘기타하리마 하이랜드 구상’(이하, 하이랜드 구상)을 기획하고 기본계획 및 액션플랜 수립(이하, 1차 액션플랜)(1994년) 후 이를 시행
 - 하이랜드 구상 기본계획의 심볼 프로젝트 정비로 ①하이랜드 파트 정비, ②에코뮤지엄 정비가 추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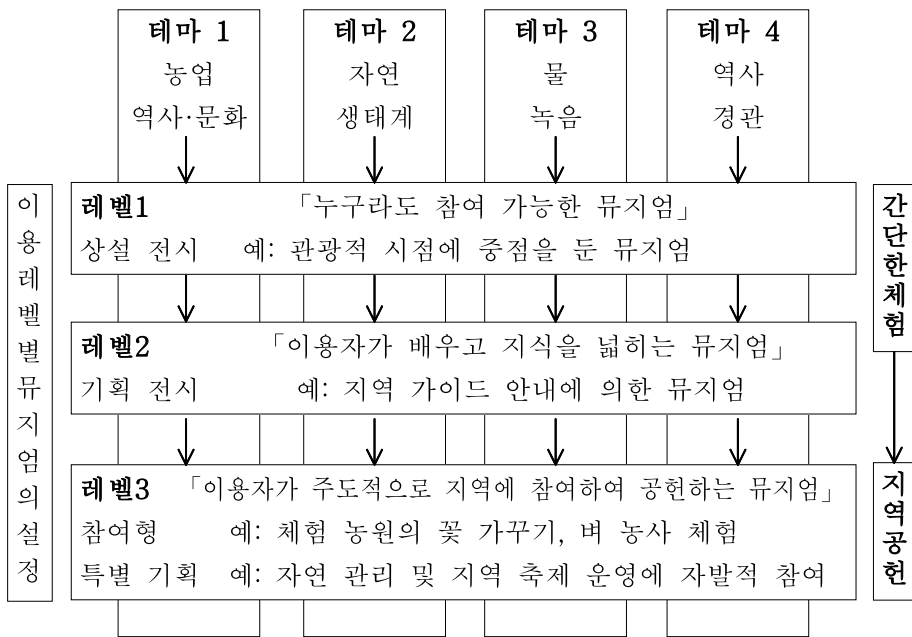


<그림 4-4> 하이랜드 파크와 주변 자원, 시설과의 네트워크 형성 이미지

※출처: 기타하리마 하이랜드 구상 조사 연구회 (1995): 기타하리마 하이랜드 구상 기본 계획 (보고서)

- 전원공간 박물관 정비 방침으로 ①고향에서 숨 쉬는 섬세한 자연의 보전과 재생 (자연연출 기능), ②고향을 상징하는 농산어촌 경관 창출 (고향경관 연출 기능), ③생활, 산업, 자연의 관계 및 체험 연출 (생활산업공간 연출 기능), ④자연을 배우고 지역을 아는 학습 체험의 장 정비 (학습 체험 기능), ⑤어린이들이 자연에서 놀 수 있는 공간 정비 (어린이 놀이 기능), ⑥자연에 친숙한 시스템(환경 리사이클 기능)을 지역으로 환원을 수립하였음
- 이러한 정비 방침 하에 전원 공간 박물관 거점 시설로 방문자 센터 (실내 전시 및, 안내관), 수변 생태 공원, 산림 생태 공원, 모험 체험장 등을 정비하는 것을 계획 함

<테마별 광역 에코뮤지엄 전개로 시정에 걸친 네트워크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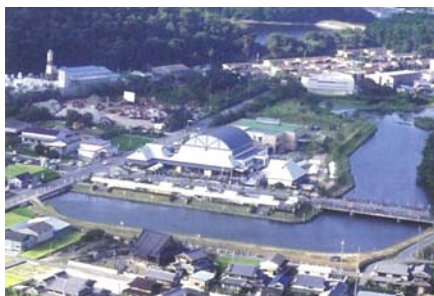


<그림 4-5> 다중 구조를 지닌 광역 에코뮤지엄의 개념

※출처: 기타하리마 하이랜드 구상 조사 연구회 (1995): 기타하리미 하이랜드 구상 기본 계획 (보고서)

- 계획 수립 8년 후(2002년) 어린이 감소 및 고령화, 정보화의 진전 환경에 대한 의식 및 다자연 거주를 비롯한 자연에 대한 의식 증가, 주민과 행정의 파트너십 필요 등 기타하리마 지역 환경도 크게 변화

- 이러한 배경하에 하이랜드 구상이 지향하는 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풍부한 지역 가꾸기를 다음 단계로 전개하기 위하여, 모든 주체의 참여와 협동을 기반으로 하는 「제2차 액션플랜」을 수립
 - 2차 액션플랜 책정 시, 전원공간박물관을 정비하기 위한 농수산성의 전원정비사업이 일단락되었고, 전원공간박물관의 관리·운영·활용에 관한 내용이 2차 액션플랜의 주요 내용으로 반영 됨
 - 제2차 액션 플랜의 심볼 프로젝트인 「키타하리마 전원공간 박물관」(이하, 전원공간 박물관)은 2002년 9월 정식으로 개관, 본격적으로 활동 개시. 같은 해 11월 NPO법인으로 인증
- 3) 구성 및 운영 주체
- 전원공간 박물관의 운영 주체는 NPO법인 키타하리마 전원공간 박물관(이하, NPO법인)이고, 거점 시설은 「미치노에키³⁴⁾ 키타하리마 에코뮤지엄」(이하, 미치노에키)임, 미치노에키 안에 있는 키타하리마 전원공간 박물관 종합안내소(이하, 종합안내소)가 NPO법인의 사무국임. 미치노에키에는 정보코너, 체험학습 코너, 특산품 코너, 부대시설(식재료공급 시설 및 주차장)등 이 있음
- 4) 활동 배경 및 목적
- 배경도시와 농산어촌이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면서 서로의 문제(도시-과밀, 생활 및 식량 안전, 스트레스, 농촌-과소, 고령화, 생활불편)를 완화·해소한다는 농수산성의 사업 방향성을 바탕으로, 농촌주민 스스로 생활·산업·농촌지역 가꾸기를 확립하는 수단으로



(미치노에키 전경)



(박물관 시설 설명)

<그림 4-6> 종합사무소 시찰 모습

※사진 출처: 현지 촬영

34) 미치노 에키 (길의 역)는 국도변의 휴게소를 말함

전원공간박물관(에코뮤지엄)이란 발상을 활용하여 기타하리마 지역을 공유하는 주민 스스로 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실천

5) 조직 구성 및 활동

- 전원공간 박물관은 이사회(이사15명, 감사2명), 각 부회(①도시교류부, ②지역교류부, ③홍보부, ④특산품부, ⑤총무부), 사무국, 등록위성자원으로 구성, 총회원수 160명, 정회원 116명, 고향회원 41명, 찬조회원 3명 임
- 사무국은 미치노에키 운영·정보 관리에 관한 활동을, 도시교류부는 도시민과 위성자원과의 교류활동, 지역교류부는 이벤트 기획·위성자원 지원 활동, 홍보부는 홍보·정보지 발행 및 홈페이지 운영, 특산품부는 상품 개척, 특산품 판매(납입자 약200명) 활동, ⑤총무부는 회의, 인사, 서무, 회계에 관한 활동을 담당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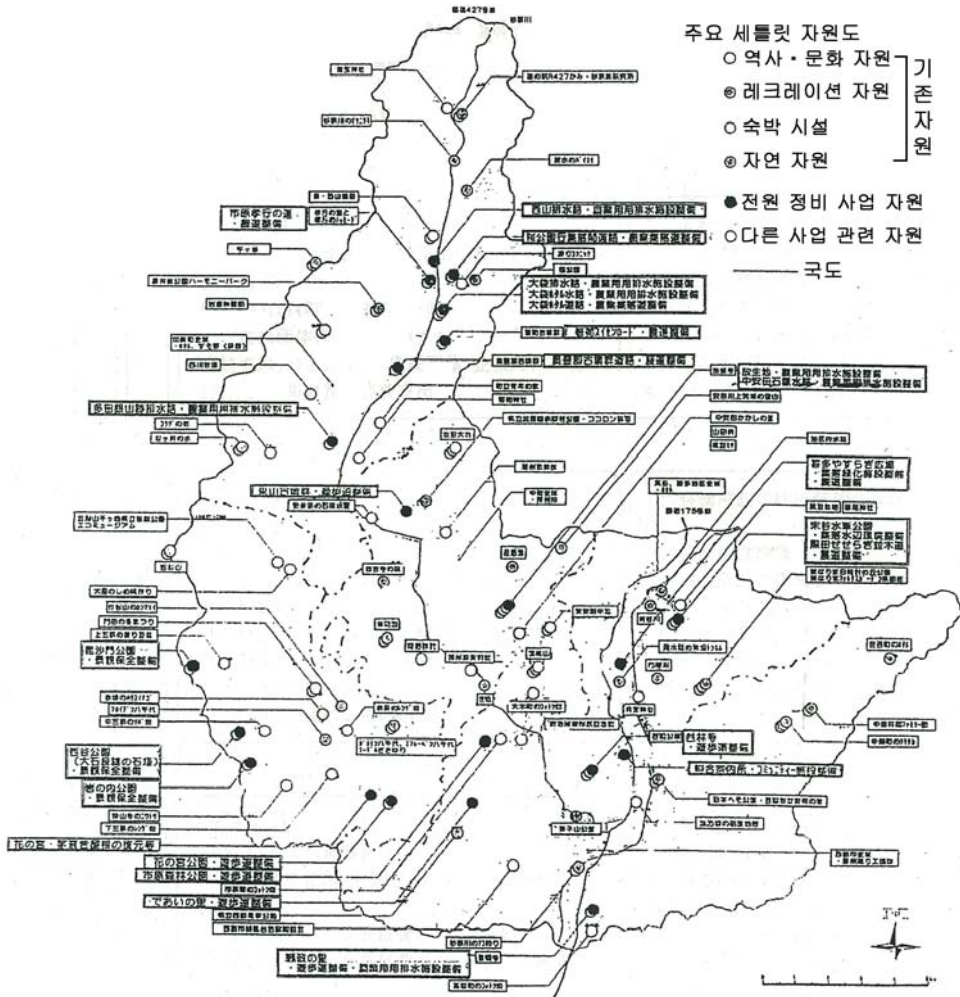
<그림 4-7> 기타하리마 전원공간 박물관의 조직 및 활동

출처: 기타하리마 전원공간 박물관 안내자료

6) 운영 현황

- 회원 :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개인회원 자격으로 참여, 연회비 1,200엔. 회원은 부회에 속하여 활동. 기타하리마 지역의 시·정이 연계하지만, 활동 시에는 시·정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음

- 위성자원 : 지역 전체를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생각, 전시물인 위성자원은 주민 스스로 추천하여,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자발적으로 NPO법인에 신청하여 등록. 위성자원 등록은 위성자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서 이사회가 결정 함
 - 등록 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없음. 위성자원 탈퇴는 자유로움
 - 영리부문(병원, 숙박시설 등)의 위성자원 회비는 10,950엔, 비영리부문(절, 경관 등)의 위성자원 회비는 영리부분의 3분의 1인 3,650엔. 회비징수 및 위성자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음
 - 홈페이지·홍보 등을 통해 위성자원을 외부에 소개하므로 오히려 등록 매력이 있음. 비인기 위성자원을 배려하여 전원 공간 박물관을 탐방하는 코스 계획. 위성자원은 스스로 가치를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
 - 전원공간 정비 사업에 의한 위성자원만이 아니라 기타하리마 지역 전체의 위성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 함(그림 4-8)
- 행정 : 행정은 조직운영, 인사에 일체 간섭하지 않고, 보조적 지원을 철저히 함. 지역 안내, 소개 등 사업을 NPO법인에 위탁하여 시민활동을 지원, 또한 활동 거점과 위성자원의 정비를 지원
- 사무국(NPO법인) : 위성자원의 계획·요청을 접수, 고려하여 홈페이지에 소개, 홍보하며 이벤트 등을 지원함. 조직의 차별화(특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노력하는 위성자원을 중점 지원. 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조직을 만들, 사람 만들기(인재양성 등)를 중시함
- 경제적 측면 : 운영자금은 ①미치노에키의 수입 (특산물 판매 수수료 등), ②행정 위탁 업무 수입 (광고, 안내업무 등), ③회원 연회비 및 위성자원 연회비로 마련
 - 사무국 운영비의 4분의 3은 행정의 위탁 사업 등으로 충당하고 있고, 4분의 1은 미치노에키의 수익으로 충당. 직원 및 자발적 참여자의 활동 보고 후 활동비 지급, 활동비는 시간 당 500엔 임
 - 미치노에키의 수입(수익 부분)을 NPO법인 활동(비수익 부분) 자금으로 사용.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비마련이 중요하므로 미치노에키의 역할이 중요, 즉 영리부분이 비영리 부분을 보완하는 구조. 미치노에키의 수입을 NPO법인 활동 자금으로 사용하므로



키타하리마 전원공간 박물관 위성자원 개소		
시정촌 명	주요 위성자원 수	전원정비사업 자원 수 (좌측 주요 위성자원 안의 개수)
西脇市	17	5
中町	22	3
加美町	22	9
八千代町	18	5
黒田庄町	12	4
計	91	26

<그림 4-8> 키타하리마 전원 공간 박물관 위성 자원 개소

※출처: 키타하리마 하이랜드 구상 조사 연구회 (1995): 키타하리마 하이랜드 구상 기본 계획 (보고서)

로 이사회를 통하여 사용 여부 결정, 별도 회계 처리함

7) 위성 시설 사례 : 이사리가미(岩座神) 집락과 석축 다랭이 논



(석축 다랭이 논 및 집락 풍경)



(집락의 민가)



(논의 석축 및 오너제로 활용하는 논)

<그림 4-9> 이사리가미 집락과 석축 다랭이 논의 풍경

※사진 출처: 현지 촬영

- (현)타키초의 북서쪽에키타하리마 지역의 최고봉인 「千ヶ峰」의 산록에 위치한 산촌, 타다가와(多田川)하천의 유역 최상부에 위치한 21가구로 구성된 집락
- 700년 전에 만들어 졌다고 전해져오는 석축 다랭이 논(334 구역)은 쌀 등 식량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을 발휘하며, 이를 보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풍경을 제공
 - 이러한 농촌 경관은 귀중한 농업문화 유산으로 가치가 있음, 이사리가미 집락은 효고현 조례로 「경관형성지구」로 지정(1999년 12월) 되었음
- 과소화·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농산촌의 환경이 급변하였고, 이사리가미 집락도 과소화 고령화 문제 발생, 이러한 상황 안에서 1985년에 집락의 20·30대 젊은이들이 「인왕회(仁王會)」를 설립하여 마을 진흥을 모색하는 등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지역 가꾸기를 시행한 곳으로, 새로운 작물 재배도 연구하여 여성 그룹이 중심이 되어 밭 냉이고추, 메밀 등을 재배하여 가공품을 만들어 미치노에키 등에서 판매하였음
- 그러나 신 작물 도입만으로는 조상들이 땀과 노력을 흘려 가꾸어 온 경작지를 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논밭 오너제」(논밭 계약 사용제)(1구획 100㎡: 5만 엔)를 시작하였음. 연간 활동을 통하여 논밭 사용자와 교류 (대면식, 벼 배기, 수확제 등)을 시행하고 있음

8) 기타하리마 전원공간 박물관 운영 과제

- 활동을 시작한지 10년 이상 경과되어, 사무국(NPO법인)의 구성원 고령화,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다음 세대 인력 확보가 과제임
- 한편, 행정에서는 당시에 활동하던 사람이 정년퇴임 하는 등 관련 담당자가 바뀌었음. 또한 위상자원의 운영자도 세대 교체가 있음. 전원 공간 박물관은 사무국과 행정·위성자원·지역주민이 협력해서 가꾸어나가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므로 담당자 혹은 세대가 교체된 공무원, 위성자원의 운영자와 전원공간 박물관의 활동 취지를 서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이 과제
- 이를 위해서는 사무국이 행정 및 위성자원의 운영자에게 전원공간 박물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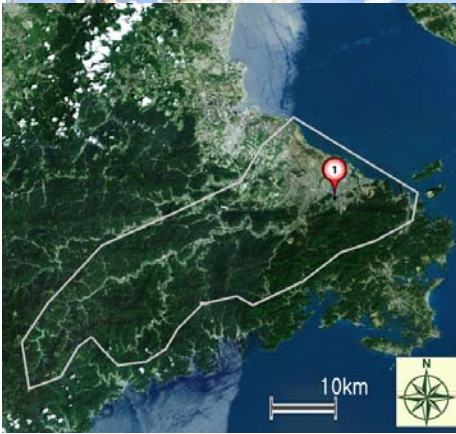
나. 미야카와 유역 에코뮤지엄

1) 대상 지역의 개요

- 미야카와 유역 에코뮤지엄(이하, 유역 에코뮤지엄)은 미야카와 하천에 접한 이세시(伊勢市)·타마키초(玉城町)·와카라이초(度會町)·타키초(多氣町)·오오다이초(大台町)·타이키초(大紀町)·에이와초(明和町)의 1시·6정(町)으로 구성
- 미야카와(宮川)는 大台山에서 발원하여 이세만으로 흐르는 길이 약90km, 유역 면적920km²의 미에현(三重縣)내에서 제일 큰 강으로 1급 하천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성 수질조사에서 전국 1위를 수차례 차지한 바 있음
- 미야카와 유역의 상류부에 요시노쿠마노(吉野熊野)국립공원, 하류부에 이세시마(伊勢志摩)국립공원, 중류부에 오쿠이세미야가와쿄우(奥伊勢宮川峽)현립자연공원이 있음

2) 미야카와 유역 에코뮤지엄 관련 정책 동향

- 과소화·고령화로 유역 중·상류 지역이 쇠퇴함에 따라 유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역환경 보전, 지역 활성화의 필요성 대두. 유역 에코뮤지엄은 단일 사업이 아니라 「미야카와 유역 르네상스 사업」(이하, 유역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광역적인 시정촌 연계 사업 안에서 시행되어 왔음. 유역 르네상스 사업은 미야카와 하천에 접한 1시·6정(이세시·타마키초·와카라이초·타키초·오오다이초·타



<그림 4-10> 미야카와 유역 에코뮤지엄의 범위

※지도 출처: 일본 야후, 구글 지도 및 2013년도 미야카와 프로젝트 활동 집

이키쵸·에이와쵸)이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

- 1997년부터 유역 르네상스 사업을 시작. 1998년에 4개 기본테마에 기초한 「미야카와 유역 르네상스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과 1차 실시계획을 수립 후 실시계획을 근거로 활동 개시. 2000년에 미에현과 시정촌이 연계하여 「미야카와 유역 르네상스 협의회」 (이하, 르네상스 협의회)를 설립. 이 계획은 2010년을 목표 연도로 설정하고, 4년 단위의 실시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 2003년에 2차 실시계획, 2006년에 3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에 기본계획 시행 완료. 완료 후, 지속 가능한 조직체제 구축을 검토. 유역의 정·촌에서 2년 기간 순번제로 르네상스 협의회에 직

원을 파견, 2011~2012년에는 와타라이초가 직원을 파견.
2013~2014년에는 타키초가 파견

- 한편, 기본이념 중 「(1)풍부한 자연 보전·재생」, 「(3)역사·문화의 계승 발전」, 「(4)매력 있는 유역 만들기」 안에 미야카와 유역 에코뮤지엄(이하, 유역 에코뮤지엄) 추진에 관한 사업 (당시 명칭 「오쿠이세 필드 뮤지엄 계획 추진」)이 있음
- 2001년에 에코뮤지엄이라는 발상에 기초한,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 가꾸기를 시행. 2001부터 지역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미

[표 4-8] 미야카와 유역 에코뮤지엄의 전개과정

년도	내용
1996	· 이세현의 교육위원회 생애 학습과와 연계하여 ‘오쿠이세 에코·에리어 구상’
1997	· ‘오쿠이세 필드 뮤지엄 추진 사업’ 시행
1998	· 이세현의 지역 진흥부와 연계하여 르네상스 프로젝트 시작 · 미야카와 르네상스 비전 책정
1999	· 기본계획, 제1차 실시계획 책정
2000	· 미야카와 유역 르네상스 협의회 설립 · 당시 활동 명칭 ‘미야카와 유역 필드 뮤지엄’(가칭)
2001	· 미야카와유역 안내인 양성 개시 ※당시 명칭 ‘미야카와 유역 필드뮤지엄’, 이후 ‘미야카와 유역 에코뮤지엄’으로 명칭 변경
2002	· 미야카와 르네상스 원탁 회의 시작
2003	· 르네상스 프로젝트 제2차 실시계획 시작
2004	· 미야카와 유역 에코뮤지엄 전국대회 개최
2006	· 미야카와 유역 안내인 회 발족
2006	· ‘미야카와 유역 에코뮤지엄 센터 유역관 타이키’ (이하, 유역관) 완성
2007	· 르네상스 프로젝트 제3차 실시계획 시작
2011	· 기본계획 시행 완료 · 활동 실적 등 이후 사업 방향 책정

※출처: 2013년도 미야카와 프로젝트 활동 집

에 현의 예산으로 에코뮤지엄 강좌를 개설하여 유역안내인 양성 시작

- 「미야카와 유역 필드뮤지엄」이란 명칭을 「미야카와 유역 에코

뮤지엄」으로 개칭. 2004년에 미야카와 유역 에코뮤지엄 전국대회 개최

- 2006년에 유역 안내인 회 발족, 2006년에 미야카와 유역 안내인의 거점시설인 유역관 완성
- 2011년에 「유역 선언」을 하여 주민과 다양한 주체가 협력·협동하여 주민이 보람을 느끼는 고향 만들기를 위한 활동을 시행해 옴

3) 구성 및 운영 주체

- 사무국은 미야카와 유역 안내인 회(이하, 유역 안내인 회) 임. 르네상스 협의회와 지역의 행정, 주민, 단체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거점시설은 「미야카와 유역 에코뮤지엄 센터 유역관 타이키」(이하, 유역관)임

4) 활동 배경 및 목적

- 과소화·고령화를 배경으로, 미야카와 유역을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생각하여, 유역 안내인과 주민·기업·행정이 연계하여, 미야카와 유역의 자연·역사·문화를 보전·재생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

5) 조직 구성 및 활동

- 미야카와 에코뮤지엄은 미야카와 유역 안내인회가 운영하며, 르네



<그림 4-11> 미야카와 유역 에코뮤지엄의 목적 및 추진 체계

※출처: 2013년도 미야카와 프로젝트 활동 집

상스 협의회가 그 활동을 지원함

- 활동은 기획 주체에 따라 ①르네상스 협의회가 기획하는 활동, ② 유역 안내인이 개별적으로 기획하는 활동, ③이외 다른 기관이 기획하는 행사가 있음. 유역 안내인이 스스로 활동을 기획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유역 안내인은 미야카와 유역 에코뮤지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유역 안내인회는 매월 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 함. 유역 안내인이 미야카와의 자연·역사·문화·전통을 지키고 계승하는 다양한 활동을 시행. 2013년에는 76활동을 시행하였고, 3,832명이 참여. 유역 안내인의 활동에 대한 특별한 보수는 없고 자발적 참여로 활동, 유역 안내인을 주축으로 르네상스 협의회·행정·주민들이 협력하여 활동을 시행
 - 활동 내용별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면, 환경·경관 보전 활동으로 미에현의 「자연환경보전조례」로, 지역 주민 및 단체가 자연환경보전 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三瀬谷댐 호반의 경관을 살린 친수공원 「벚꽃 고향 공원」, 미야카와 하류에는 「미야카와 친수공원」 등을 정비하였음. 교류·체험 활동으로 미야카와 유역 안내인회와 르네상스 협의회가 공동으로 매년 7월에 초등학교1학년부터 4학년생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부모자식 캠프」,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미야카와유역 어린이 강 서밋(Summit) 1박 2일」, 휴경 논밭에 수생생물과 생식 가능하도록 한 비오톱 「송사리 못」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 체험·교육과 유역 안내인의 개별 행사 (지역의 절 탐방, 산 워킹 등 약 80행사)등 다양한 활동 시행
- 6) 위성 시설 사례- 유역관 타이키



(유역관 모습)



(전시실 모습)



(현지 시찰 설명 모습)

<그림 4-12> 유역관 및 현지 시찰 모습

※출처: 현지촬영 및 2013년도 미야카와 프로젝트 활동 집

- (구)초등학교를 활용한 유역 에코뮤지엄의 활동 거점 시설로 사무

- 실, 전시실, 도서실·회의실이 있어 유역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
- 7) 위성 시설 사례- 휴경 논을 활용한 비오톱(송사리 비오톱) 환경·체험 학습



(송사리 비오톱 모습)



(송사리 비오톱 모습)



(2013년도 어린이
환경·체험 학습 모습)

<그림 4-13> 휴경 논을 활용한 비오톱의 모습

※출처: 현지시찰 촬영 및 2013년도 미야카와 프로젝트 활동 집

- 휴경 논을 활용한 비오톱(이하, 송사리 비오톱)은 (구)勢和村에 있음, 이 지역은 예로부터 「타치바 용수로」가 있음. 지역의 사람들과 타치바 토지개량구가 협동으로 추진하는 「고향 물과 땅 보전」이란 활동 일환으로 타치바 용수로 주변에 수국을 심어 산책로를 만들었음, 송사리 비오톱은 이 산책로의 경로에 속함, 송사리 비오톱은 勢和村이 주최하는 수국 축제의 대상공간이기도 함
- 송사리 비오톱은 자원봉사 그룹인 「호테이 클럽」이 황폐한 휴경 논을 활용하여 만든 농촌의 비오톱이며, 송사리 등 수생 동물, 곤충 50종이 생식. 2013년에는 에코뮤지엄 활동으로 유역 안내인과 연계하여 휴경 논을 활용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송사리 등 방어, 수국 꽃 심기, 풀베기 등 환경·체험 학습을 시행

8) 위성 시설 사례 - NPO법인 오오스기타니 자연학교

- 설립 취지 및 목적
 - 오오스기타니 자연학교는 미에현의 오오다이정이 설립하여,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운영하는 행정설치·민간운영형의 자연학교 임. 현재 이사 3명, 직원7명, 비상근 직원1명으로 구성됨
 - 현대의 소비형 사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일본의 지역사회에 남겨진 순환형사회의 영지를 환경 교육 및 지역 경제에 반영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지속가능한 새로운 사회 창조에 기여 하는 목적
 - 중앙정부, 미에현, 오오다이정의 보조금이 있음. 문부과학성의 관



(자연학교 입구)



(자연학교 내부)



(숲속 유치원 활동 모습
2013년)

<그림 4-14> 자연학교 및 현지 시찰 모습

※출처: 현지시찰 촬영 및 자연학교 제공

런 사업을 자연학교가 맡아서 시행. 오오다이정 교육위원회·임야청·기업·유역안내인·주민 등 여러 주체와 연계하여 활동을 시행.

○ 주요 활동

-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사업 (2002~2005), 인제육성 강좌 (2002~2004), 산림환경교육 추진 사업 미야카와 미래 숲 만들기 (2003~현재), 어린이 공간 만들기 사업 (2004~현재), 자연환경 교실 강좌 (2002~현재), 미야카와 생태계 조사 (2005~현재), 미야카와 초등학교 종합학습 시간 (2001~현재) 시행. 임야청의 지원으로 임업 관련 프로그램 (수업)을 1년간 시행하는 활동의 경우. 뒷산에서 어린이들이 간벌 체험을 하고 껍질을 벗겨서 근처의 시장에 파는 일련의 활동을 체험을 함

9) 미야카와 유역 에코뮤지엄의 활동에 대한 성과 및 과제

- 에코뮤지엄을 시행 하여 주민이 지역에 대한 애착이 증가
- 현재의 문제는 2010년에 르네상스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 2011년부터 사업 주체를 미에현에서 유역의 시정촌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매년 협의회 미에현 예산(위탁금)이 삭감
- 또한 유역안내인의 고령화가 문제.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재원 마련 및 운영 체제 확립이 과제 임

4. 시사점

- 이상으로 일본의 ①에코뮤지엄 관련 정책, 에코뮤지엄 도입, 현황, 활동 내용, 운영 주체, 공간 범위, 성격, ②현지 시찰 사례로 구체적인 시책, 활동 내용, 과제 등을 살펴보았음
- 특히 현지 시찰 사례 지역인 키타하리마 전원 공간 박물관과 미야카와 에코뮤지엄의 과제를 참고하여 한국에서 에코뮤지엄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시사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정리함

가. 주체 간, 지역 간 연계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의 에코뮤지엄의 공간 범위는 시정촌 연계 단위, 시정촌 단위 등으로 공간적 범위가 큼. 또한 코어 시설과 주변의 위성 자원의 연계, NPO·시정촌·지역 주민 등 관련 주체(사람, 조직 등)연계하여 에코뮤지엄을 운영하고 있음. 이처럼 에코뮤지엄은 기본적으로 주체 간, 지역 간 연계라는 기초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에코뮤지엄을 시행하는 대상지역의 관련 주체(주민, 시정촌, 임의 단체, 농협, 협동조합, 학교, 연구 기관 등)에게 지역의 주체 간, 지역 간 연계의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세미나, 교육 등)을 계획 내용으로 넣어야 함
-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에코뮤지엄을 진행하기 위한 추진 협의회를 기본적으로 형성하지만, 이들에 의해서만 에코뮤지엄이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도 계획 과정에 참여³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특히 지역 자원을 발굴하여 이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워크숍을 시행하는 경우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필드워크형(액션 플랜) 워크숍을 활용하는 방법도 참고할 수 있음

나. 활동(계획) 내용의 적절한 방향 설정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의 에코뮤지엄은 다양한 목적으로 시행

35) 일본의 지역 가꾸기에서 「참획(參畫)」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참획이란 지역 주민의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지역 주민이 계획과정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 역할을 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주민 참획을 통한 지역 가꾸기 계획안 작성과 이에 대한 실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 가꾸기에 대한 성숙한 주민의식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등을 통하여 마을 연계 등을 시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한 지역은 드문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에코뮤지엄 계획 및 실천에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절실함

하고 있었음. 자연 환경 보전,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 농촌 교류 등 각 각의 에코뮤지엄이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활동이 있지만, 일본의 에코뮤지엄은 공통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생애학습적인 관점에서의 활동을 중요시하고 있음

- 일본은 농촌지역의 주민은 일반적으로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높고, 교육 수준, 지역 가꾸기에 대한 의식이 높아 생애 학습적인 활동을 중요시 하지만, 이러한 방향성이 한국에 적합하다고는 할 수는 없음
- 기본적으로 주민 참여를 통해 합의를 형성하고, 각 지역의 자원 현황을 파악한 후 이를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이 맞는 방향성을 결정해야함. 이때 그린투어리즘, 에코투어리즘과 같이 외부 사람을 끌어 들여 지역 진흥³⁶⁾(소득 창출, 방문자 증가 등)을 도모하는 관점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및 이용자가 에코뮤지엄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 활성화 (지역 공헌)관점에서 에코뮤지엄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다. 시군의 발전 및 에코뮤지엄의 방향의 통합적 설정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의 키타하리마 전원공간 박물관은 하이랜드 구상 안에, 미야카와 에코뮤지엄은 미야카와 르네상스 사업 안에 자리매김 하여 진행되었음. 즉, 에코뮤지엄은 공간 범위가 서정촌 연계 및 시정촌 단위로 크므로 당연히 시정촌의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키타하리마 전원공간 박물관의 위성 자원의 설정 과정에서도 농수산성의 전원정비사업으로 정비한 시설뿐만 아니라 시정안의 모든 자원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위성자원을 연계하고자 하였음
- 이처럼 한국에서도 에코뮤지엄 사업을 시행할 경우 관련 시군의 발전의 방향성을 고려하고 에코뮤지엄 사업 대상 자원만이 아니라

36) 농촌 계획 혹은 농촌 지역 가꾸기 분야에서 농촌 지역 「진흥」 「활성화」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일본에서는 「진흥」 「활성화」는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 두 개념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많아 이 두 개념의 차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다. 예를 들면 여러 요인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 주민 교류가 증가한 경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진흥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지역 주민의 적극적 노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경제적 진흥, 사회적 진흥에 도달한 경우를 경제적 활성화, 사회적 활성화라고 한다. 즉 활성화란 개념에는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의 참획 및 지역 주민의 활력(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활성화)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음

지역의 모든 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라. 에코뮤지엄 사업 후의 추진 체제 및 주체 명확화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의 키타하리마 전원공간 박물관의 경우는 NPO법인이 에코뮤지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정이 지원을 하고 있음. 미야카와 유역 에코뮤지엄의 경우는 미야카와 유역 안내인으로 구성된 미야마와 유역 안내인회가 운영을 하고 있으며, 르네상스 협의회에 파견된 시정의 직원이 이들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에코뮤지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주요한 담당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운영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함. 예를 들면 위와 같은 경우도 있고, 시정촌이 주체가 되는 경우, 각 마을이 주체가 되어 상호 연계하는 경우, 추진 협의회가 운영 주체가 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추진 주체를 생각할 수가 있음
-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 후 에코뮤지엄 관련 시설 관리 및 활동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에코뮤지엄 사업 추진 요강에 사업 추진 주체와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각 지역과 에코뮤지엄의 특성상 어떤 형태의 추진 주체 및 형태가 정답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추진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함
- 이를 위해서 에코뮤지엄을 추진하는 모델 지역에 사업 완료 후에도 일정기간까지 책임지고 주민과 함께 지역을 가꾸어 나가는 지역 가꾸기 전문가(지역 대학 등)를 할당하여 지역 가꾸기를 위한 지속적인 인적 지원이 필요함. 즉 지역주민과 하나 되어 사업을 진행을 지원하는 인적 지원 체제와 책임 있는 전문가의 역할도 중요

제2절 프랑스 사례

1. 에코뮤지엄에 관한 프랑스의 현황 및 내용

가. 에코뮤지엄의 배경 및 형성

- 1960년대 제 2차 세계대전 후,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을 맞이하며 기존 프랑스의 소장품에만 관심을 두는 박물관 방식에 회의론을 갖는 지식인들로부터 시작되었음
- 이 용어는 리비에르와 위그 드 바린(Hugues de Varine)에 의해 처음 창안되었는데, 1971년 9월 그르노블(Grenoble)에서 열린 제 9차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총회 석상에서 그르노블 시장이자 프랑스 환경부 장관 푸자드(Robert Poujade)에 의해 약 500명의 박물관 학자들이 모인 가운데 환경과 박물관의 결합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면서 처음 공표되어 퍼져나갔음. 이 자리에서 전통적인 ‘박물관’이란 용어의 사용에서 벗어나 에코뮤지엄(Ecomusé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지방자연공원의 박물관들을 에코뮤지엄으로 칭하였음
- 에코뮤지엄의 개념은 리비에르에 의해 처음 정의되었지만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과 이론적 체계는 1972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립되고 발전되었음
-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프랑스에서는 국가의 천연자원을 보호한다는 이념이 서서히 사회적, 정치적, 상징적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였음
- 1975년에는 자연을 보존, 즉 전통적인 관습들(특히 농촌의 관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지방 공원들의 체계가 구축되었음
- 1970년대에 에코뮤지엄은 문화 보존이 곧 일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정체성의 개념을 낳았음
- 1974년 에브라르(Marcel Evrard)는 리비에르와 함께 르 크뢰조(Le Creusot)와 몽소-레-민(Montceau-les-Mines) 두 지역을 중심으로 16개 코뮌(Commune) 공동체의 에코뮤지엄을 창설함. 전형적인 ‘전문가-지역주민의 참여’라는 최초의 역할모델을 만들. 쇠퇴하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시도된 이 에코뮤지엄은 지역공동체의 개념을 처음 도입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박물관의 운영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음

- 리비에르는 1980년 1월 22일 ICOM 총회에서 ‘에코뮤지엄의 발전적 정의’를 발표: “에코뮤지엄은 행정당국과 주민의 방식을 함께 구상하고 이용하는 도구이자, 인간과 자연의 표현이다… 또한 미래를 향한 시간의 표현이자(그것은 결정적인 주체가 되지는 않지만, 정보와 비판적 분석의 원천이기는 하다), 공간의 해석이다… 이러한 연구기관, 보존기관, 교육기관으로서의 에코뮤지엄은 공통적인 일련의 원칙들을 공유함. 에코뮤지엄의 각 양상은 서로 다른 주민 계층에 존재하는 문화의 원천이 어땠던 간에, 문화의 품위와 예술적 표현의 전달을 모색하면서 폭넓게 정의된 공통의 문화를 확인함”³⁷⁾
- 1980년 경부터 문화부가 에코뮤지엄을 사회박물관과 합쳐서 전통 박물관 범주에 통합시킴으로써 정식으로 인정하게 되었음
- 위베르(Hubert)는 에코뮤지엄의 진화를 세 단계로 보고 아르모리크와 그랑드 자연공원의 에코뮤지엄 발전을 목격한 1971년까지 시기를 제 1단계로 간주함. 다음으로 1971년부터 1980년까지의 시기로 다른 접근방법을 제공하는 카마르그자연공원(PNR de Camargue)과 세벤느국립공원(Parc National de Cevennes)의 몽-로제르(Mont-Lozère)와 르 크뢰조(Le Creusot)에 설립된 에코뮤지엄과 함께 제 2시기임. 위베르는 초기 자연공원 에코뮤지엄이 공간에 중점을 두었다면, 제 2시기에는 시간과 영역(지역)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참여라는 중요한 요소를 도입이 특징이라고 주장함. 제 3시기는 1980년 이후로 리비에르가 자신의 에코뮤지엄 정의를 재정립하면서 공동체 커뮤니티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시기로서 에코뮤지엄 설립이 급증하게 됨. 위베르는 자연공원 에코뮤지엄을 제 1세대, 르 크뢰조 에코뮤지엄을 제 2세대, 비영리민간단체인 어소시에이션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에코뮤지엄을 제 3세대 에코뮤지엄이라 칭하였음
- 1980년대 이후 지역 주민의 참여가 강조되게 됨. 이 시기에는 공동체 커뮤니티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게 되며, 에코뮤지엄의 설립이 급증하게 됨. 1990년대 이후 문화부장관인 자크 랑(Jack Lang)이 에코뮤지엄에 상당한 지원을 시작하

37) G.-H. Rivière, La muséologie selon G. H. Rivière, Bordas: Dunod, 1989, p. 142

면서 1993년 37개의 에코뮤지엄의 숫자가 1999년 63개, 최근 2010년에는 87개로 증가하게 됨. 이와 함께 1981년 에코뮤지엄 현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에 는 에코뮤지엄의 정의, 소장품에 대한 규정, 에코뮤지엄의 기능과 조직, 활동이 속함. 이 과정에서 1986년 11월 아보 섬(L'isle d'Abeau)에서는 프랑스 전국 에코뮤지엄 총회가 열리고 이에 전국 에코뮤지엄 관계자들이 모여 네트워킹을 형성하게 됨

- 필립 메로(Philippe Mairot)는 에코뮤지엄은 개혁에 기여했던 박물관 문화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문화유산에 대한 평가와 동원(mobilization), 과학기술적 지식, 관광 사업의 개선에 기여했던 전원(농촌)생활과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문화경관(文化景觀)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평가하고 있음 (Agence régionale d'ethnologie Rhône-Alpes, Écomusées en France: Premières Rencontres, nationales des écomusées, Grenoble, 1987, p. 88./이재영, 프랑스 에코뮤지엄 개념의 형성과 발전과정 연구, p. 239 재인용)
- 1990년에 문화부 장관인 자크 랑(Jack Lang)은 에코뮤지엄이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지역정체성에 대한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때문이라고 생각했음

나. 프랑스 에코뮤지엄의 유형 및 특징

- 성립시기에 따라 3세대의 박물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 (위베르의 분류 기준, 1985) :
- 제 1 세대 : 1960년대 후반 ‘지방자연공원’과 함께 탄생하여 설립된 유형. 전문화된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환경이나 생활이라는 종합화된 전체상을 전시하는 방법
- 제 2 세대 : 1970년대 전반의 도시 산업유산 등 사회환경을 중심으로 지역의 주민을 위해 전개된 유형. 쇠퇴하는 도시의 커뮤니티 기반을 재생하려 의도에서 전개됨. 크뢰조 몽소 레민 에코 뮤지엄이 최초의 사례임
- 제 3 세대 : 소규모의 자발적인 연합체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된 유형으로 1970년대 후반, 특히 1977년 이후에 많이 생겨남

- 설립목적에 따라 6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 (쥬베르의 분류 기준, 1994)
- 연구베이스형 (학술사업이 중심이 되는 에코 뮤지엄)
- 보전베이스형 (보전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에코 뮤지엄)
- 커뮤니티형 (커뮤니티 사업을 우선시하는 에코 뮤지엄)
- 문화사업형 (문화사업을 주로 하는 에코 뮤지엄)
- 영역활동형 (영역 사업을 주로하는 에코 뮤지엄)
- 지역경제형 (경제사업이 기초가 되는 에코 뮤지엄)

다. 에코뮤지엄 및 사회박물관 연맹(FEMS)의 역할과 운영 / 에코 뮤지엄 헌장(Charte des écomusées)

- 1990년대 초에 프랑스 문화부 소속의 프랑스박물관국(Direction de Musées de France, DMF)이 사회적 역사와 공동체 생활을 다루는 모든 박물관들 즉, 역사박물관, 인류학·민족학박물관, 해양박물관, 민중생활박물관, 그리고 에코뮤지엄을 포함한 ‘사회박물관(musée de société)’으로 분류하는 일방적 결정을 내렸음. 프랑스박물관국이 내린 이 결정은 1990년대 초에 설립된 공동체 박물관(커뮤니티 뮤지엄)들이 에코뮤지엄이란 명칭보다는 사회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선택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일란(Boylan)은 설명하였음. (Davis, P., Ecomuseums, A Sense of Place, Continuum, 2011, p.102) 에코뮤지엄들이 그들과 함께 분류되고 공동 관심사를 함께 했던 다른 박물관들과의 단결력이 강화되었음
- 이 박물관들과 기 설립된 에코뮤지엄이 함께 나눈 목표는 이들을 ‘에코뮤지엄 연맹’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결과를 가져 왔으며 결국은 1991년에 ‘에코뮤지엄 및 사회박물관 연맹(FEMS: Fédération des Ecomusées et des musées de société)’으로 개명 이후 꾸준히 회원 박물관 수가 증가하고 있음. 프랑스 ‘에코뮤지엄과 사회박물관 연맹(FEMS)’의 자료에 의하면 회원 에코뮤지엄과 ‘사회박물관’의 숫자는 140여 개에 이르며 관장하는 에코뮤지엄과 박물관이 200개가 넘음
- 이들 에코뮤지엄과 사회박물관에는 약 1500명의 직원과 3000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400만 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 전체 박물관 관람객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임. 에코뮤지엄과 ‘사회 박물관’은 비슷한 역할을 나누어 갖고 있으며 이 둘의 관계는 에코뮤지엄 철학을 채택함으로써 굳은 결속력을 지님. 이들은 테마별로 분류될 수도 있고 지역별로 분류되기도 하며 모두 자신의 공동체 내에 자리 잡고 있음



<그림 4-15> 2014년의 에코뮤지엄 및 사회박물관 연맹(FEMS)에 가입된 박물관의 분포

출처: <http://www.fems.asso.fr/wp-content/uploads/2012/04/FEMS-CARTE-RESEAU-2014.pdf>

- 에코뮤지엄 헌장(Charte des écomusées) : 1981년 에코뮤지엄 헌장(Charte des Ecomusées)이 문화부 교시에 따라 인정받음으로써 에코뮤지엄은 자신의 헌장을 갖고 정식으로 법제화되었음. 이 헌장은 소장품의 규정, 에코뮤지엄의 기능과 조직과 에코뮤지엄의 공식적인 정의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또한 목적이 되는 주요 활동을 열거하고 있음. 또한 주요 활동과 더불어 에코뮤지엄의 일상적 운영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이 헌장에 명시되어있음. 즉 지역 주민 대표로 구성되는 ‘이용자위원회’, 학술적 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분야 출신의 ‘학술위원회’, 각급 지방행정기관과 후원 기업, 민간기부자의 대표로 구성되며 재정 문제와 발전 전략에 책임 있는 ‘관리위원회’의 세 개의 운영위원회가 에코뮤지엄을 운영하기 위하여 명시된 필요조건임

에코 뮤지엄 헌장(Charte des écomusées, 1981년 3월 4일 문화 및 통신부 공표)

정의

제1조

에코 뮤지엄은 주민의 참여로 해당 지역에서 전승되어야 하는 사회 환경과 생활 방식을 나타내는 자연 및 문화 유산들의 총체적인 가치 부여, 연구, 보존, 전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문화기관이다

목적

제2조: 제 1조에서 정의된 기능은 특히 다음의 활동을 실행함으로써 구현

에코 뮤지엄의 동산 및 부동산 유산 목록 작성하기

해당 지역과 관련된 물건들이나 자료들을 수집하여 소개하고 물리적으로 보존하기

전시, 행사, 그 외 다른 대회 등을 조직하기

구입, 기증, 증여 등을 통해 소장품을 풍부하게 하고, 프랑스 박물관 담당 부서의 의견에 따라 유산의 일부 보유자로 협약 맺기

전체 목록 작성의 지방 담당서비스기관과 협력하여 에코 뮤지엄의 확장 범위 속에 포함된 동산, 부동산, 지역유산의 특별한 요소들을 연구하기
관할 기관이 얻을 수 없고 안녕을 자연스럽도록 필요한 보호 방법을 제안하기

에코 뮤지엄의 범주 안에서, 가능한 한 지역 차원의 교육, 연구 기관의 도움으로 주민의 주민들의 사회 조직, 실천, 지식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프로그램을 정의하고 실행하기

교육 및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전문가(관리인, 강사, 연구자, 기술자) 양성하기

연구 자료들을 보존하고 보고하기

학교 및 대학 기관의 도움을 얻어 에코 뮤지엄 활동의 관심을 높이고 홍보하는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에코 뮤지엄이 있는 지역에 대해 교육하기

에코 뮤지엄의 위상

제3조

에코 뮤지엄은 지방 자치제, 공기관, 협동조직, 연합체, 재단에 의해 관리

가 보장됨

수장품의 위상

제4조

에코 뮤지엄의 자연, 문화 유산은 동산, 부동산, 동식물 재산, 무형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에코 뮤지엄의 재산은 양도할 수 없으며 재산에 대한 권리는 취소할 수 없다. 동식물 재산에 대한 특징은 종족 또는 종류와 연관되어 있다. 산업세계의 증거가 되는 동적 재산에 대한 것은 표본으로 대표하는 일련의 계열에 결부되어 있다

에코 뮤지엄이 구입하거나 기증, 증여를 통해 취득한 것을 수용할 때에는 국립박물관협회에 예술적 가치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문화재 담당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에코 뮤지엄의 폐관 또는 소유기관의 해체는 프랑스 박물관 부서의 자문을 얻어 진행되어야 하고, 그 재산은 유사한 위상, 같은 지역에 있는 조직에 할당된다

에코 뮤지엄의 기능

제5조

에코 뮤지엄의 기능은 담당 책임 기관이 정하는 운영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지만 에코 뮤지엄의 운영 관리는 3개의 위원회가 설치되고, 모든 관련 주체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에코 뮤지엄의 법적 성격, 그 중요성에 따라 3개 위원회의 시스템은 어느정도의 형식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상기 언급된 3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음

제6조

학술위원회: 에코 뮤지엄만의 고유의 다영역성을 반영해서 에코 뮤지엄의 활동에 유용하게 적용되고 기본이 되는 학문 분야인 농학, 고고학, 생물학, 생태학, 경제학, 윤리학, 지질학, 역사학, 미술사학, 사회학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합법적 학술사업의 실행에서 에코 뮤지엄의 관장을 지원하고 이용자 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안을 학술적으로 엄격하게 검토한다

이용자위원회: 에코 뮤지엄에의 주민 참여 표현인 이 위원회는 에코뮤지엄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그 활동에 협력하는 비영리단체 및 기타 조직

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사업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

경영위원회: 이 위원회는 에코 뮤지엄에 자금을 지원하는 조직들(정부 부처, 지자체, 민간 기관, 기타 공적 조직)의 대표들과, 계약 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에코 뮤지엄과 재산 양도 계약을 체결한 조직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관장의 보고에 대해 위원회는 에코 뮤지엄의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과 운영을 감사한다

운영

제 7 조

회의는 연합 규정을 바탕으로 3개 위원회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에코 뮤지엄의 관장

제 8 조

관장은 에코 뮤지엄을 진두지휘하고, 유산의 연구, 보존, 가치 향상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예산을 준비하고 집행한다. 관장은 3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권을 가진다

관장은 1945년 8월 31일 법령으로 규정된 조건 속에서 제어되는 박물관 보존 전문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들의 리스트 중에서 채용된다

관장은 에코 뮤지엄 소유 조직에 의해 이 조직의 규정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선발된다

관장은 위와 같은 조건에 따라 채용된 학술적 비서의 보조를 받는다

다른 직원들은 전적으로 에코 뮤지엄이 선발하고 그의 고유 권한 속에 있다. 그 규정은 피고용인 조직의 공통 권리를 따른다

문화부의 개입

제9조

문화부의 프랑스 박물관국과 문화 사업의 지역 담당자로 대표되는 유산국이 협력하여 관여한다. 이렇게 개입하는 것은 특히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프랑스 박물관국은 에코 뮤지엄의 보존과 자산 소개를 감독하고 전시, 체험, 복원, 구매, 카탈로그 작성 등과 같은 박물관학적인 활동의 실현을 위해 학술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또한 에코 뮤지엄에서 착

수한 내장 정비 공사, 외장 공사(리노베이션, 현 건물의 재정비, 증축, 건설)등을 위한 투자 대출은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프랑스 박물관국은 에코 뮤지엄의 일반적인 기능(특히 인건비)은 지원할 수 없다
 유산국은 있는 그대로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방법을 지시한다. 이 2개 부서의 활동과 병행해서 특별 활동에 대해서는 문화발전위원회가 행정 및 재정 계획 수립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
 에코 뮤지엄을 위한 국가의 지원은 참여할 수 있는 여타 다른 부처들(산업, 환경, 대학, 농업, 교육, DATAR, 문화개입기금 등)을 연합할 수 있는 부처간 상호 절차의 틀 속에서 마찬가지로 실행될 것이다

2. 에코뮤지엄 관련 프랑스 중앙정부 정책 및 실행

- 에코뮤지엄 조성의 법적 근거
 - 박물관 조성 및 설립에 대한 일반적인 범규에 준함
 - ‘프랑스 박물관(musee de France)’La loi du 4 janvier 2002: 명칭에 의한 위상 변화, FEAM의 가입 박물관의 48%가 ‘musee de France’의 명칭을 얻고 국가 승인을 받게 됨
 - 2002년에 박물관 관련 새로운 법령이 제정됨으로써 ‘프랑스 박물관 Musée de France’의 위상이 정립되었으며, 그 후에도 박물관 후원 정책, 박물관 전문인력 양성 정책, 관람객 교육 및 서비스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
 - 2002년 1월 ‘프랑스 박물관 Musée de France’ 관련 법령이 공포됨으로써 프랑스 박물관에 대한 정의가 새로워지고, 박물관이란 명칭을 얻는 절차가 까다롭게 되었음. 이 새로운 법령에 의하면, “국가Etat, 공공법인 Personne morale de droit 또는 사단 법인 Personne morale de droit privé에 소속되어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박물관에 프랑스 박물관Musée de France이라는 명칭이 주어질 수 있음. 단, 소장품이 영구히 존속될 수 있으며, 대중의 이익을 위해 소장품이 보존되고 전시되며, 대중의 지식, 교육, 즐거움을 위해 소장품이 전시되는 경우에만 프랑스 박물관 Musée de France으로 인정됨” (LOI n° 2002-5 du 4 janvier 2002 Article 1.)
 - 2002년 법령 공포 전에는, 국공립 박물관을 비롯해서 협회

(association) 및 재단(fondation) 뿐 만 아니라 개인에 의해 설립된 모든 박물관들이 ‘박물관 Musée’이란 명칭을 사용했으나, 2002년부터는 공공법인, 사단법인에 의해 설립되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박물관에 한하여, ‘프랑스 박물관 고등심의위원회 Haut Conseil des musées de France’의 심의를 거친 후, 문화통신부 장관의 명령 또는 박물관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 장관의 명령에 의해 ‘프랑스 박물관 Musée de France’이란 명칭을 부여하게 되었음. 2002년 법령 및 2004년 시행령(Circulaire 2004/014)에, ‘프랑스 박물관 Musée de France’라는 명칭을 얻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심의 과정에 대해 상세히 규정짓고 있으며, 만일 사적인 영리 추구를 위한 활동을 한 경우에는 ‘프랑스 박물관 Musée de France’라는 명칭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003년 이후의 박물관은, 새로 정립된 개념에 해당되는 ‘프랑스 박물관 Musée de France’을 뜻하며, 2005년 기준으로 1299개이다(2003년: 1171개, 2004년: 1188개). (나에리, 1980년대 이후 프랑스 박물관의 변화와 문화정책)

- 에코뮤지엄 관련 지원 및 관리
 -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문화통신부가 관리하고 지자체 기관 및 비영리단체 연합으로 운영. 문화, 관광, 지역개발, 교육, 산업, 경제 등의 중앙 및 지방 정책과 연계됨
 - 문화, 관광, 생태, 산업 등의 측면에서 협력적이고 융합적인 형태의 정책이 수립됨. 그 중심에 문화부가 위치하고 있음
 - 특성상 지역의 고유의 특정 환경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지원의 범위와 형태도 다양함
 - 정부 지원 및 협력 부서: Le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soutient les actions dans le cadre de conventionnements annuels avec la Direction générale des patrimoines et le Service des musées de France, Le Ministère des finances, de l'Économie et de l'Industrie ; DGCIS ; Service du tourisme, du commerce, de l'artisanat et des autres services ; sous-direction tourisme
- 에코뮤지엄 지정기준과 공간적 범위

- 현재 국가를 비롯한 공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Musée de France’에 등록이 되어야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고 라벨을 획득한 이후에는 공식적인 지원과 협력 작업이 이루어짐.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운영상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지역자생 비영리 단체에서 시작한 에코뮤지엄은 문을 닫거나 ‘Musée de France’에 등록되기 위해 노력
- 뮤지엄의 개념적인 정의와 지역적 성격이 중요하므로 설립 의도에 따라 공간적 범위는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띄게 됨. 유형 유산 뿐만 아니라 무형 유산을 포함
-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박물관들을 연계되는 방식의 네트워크 조직체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더욱이 공간적 제한을 두기 어렵고 점적, 선적으로 연결되어 긴밀한 교류를 바탕으로 지역 전체에 대한 방문과 경험을 가능하게 함. 에코뮤지엄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지역 유산을 중심으로 교류의 만남의 장이 되도록 각종 행사가 개최되고 테마별 전시 공간이나 실습 체험, 견학 등이 실내외 공간에서 다양하게 열릴 수 있음
- 운영 주체의 경우도, 에코뮤지엄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다양함. 민간과 공공기관이 관계를 맺고 지방문화활동국(DRAC, 문화부산하 지방주재부서), 광역지역정부, 지역 박물관, 여러 기관 및 협회, 지역주민 등이 연합하여 복합적인 운용 구조를 갖추. 기본적으로 지자체 공무원이 대부분을 운영을 담당하고, 비영리시민단체, 각종 기념관협회, 광역지역문화국, 광역지역의회, 꼬뮌 연합공동체 등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짐
- 에코뮤지엄에 대한 지원과 규제 사항
 - 문화부의 문화재국의 지원을 받고 정기적으로 운영사항과 필수 충족 조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보고를 해야함. 물적, 프로그램적 지원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문화부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전국 박물관과의 연합 및 협력 체계 속에서 상호 발전을 모색
 - 유형 및 무형 문화재에 해당하는 수장품의 보존 및 보전에 대한 박물관의 전통적인 역할과 소임 뿐만아니라 교육, 참여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인 도입이 의무화됨

3. 에코뮤지엄 프랑스 사례

가. 브레스 부르기논 에코뮤지엄(Ecomusée de la Bresse bourguignonne)

- 브레스 부르기논 지역은 약 1,700 km²에 달하고, 112개의 코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만 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음. 이 지역은 토양이 균질하여 프랑스의 농산물 생산에 큰 역할을 차지하였었음. 다양한 작물의 재배 지역이면서 젓소 사육지역이었음. 하지만 다른 농촌들과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의 유출, FTA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농업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81년 당시 광역지역 의회 의장인 피에르 조스(Pierre Jox)의 요청으로 지역의회와 행정당국,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주도가 되어 에코뮤지엄 사업이 시작되었음. 이 프로젝트에서는 에코뮤지엄에 소장될만한 수집품들을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음. 원래는 도의 소유인 피에르 드 브레스 성을 중심으로 에코뮤지엄이 형성되었음
- 브레스 부르기논 에코뮤지엄은 농촌형 에코뮤지엄의 전형적인 사례로 일컬어짐. 브레스 부르기논 지역의 건축물, 유적, 아름다운 경관, 유물들 그리고 기록 또는 증언들을 수집하고 지키고 알릴 뿐만 아니라 여러 상설 전시실을 통해 브레스 부르기논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 농경생활 등 과거와 현재의 여러 상황을 다양하게 전시하고 있음. 과거 티아르(Thiard) 백작이 살던 성의 모습을 재현하거나, 브레스 지역의 지질 구조, 하천, 숲, 경작 등 다양한 모습들도 전시되어 있음
- 피에르 드브레스 성(중핵 박물관)을 중심으로 8개의 소박물관(5개의 위성 박물관과 3개의 연합 시립박물관), 방앗간, 기와제조장, 기름판매소, 대장간들을 관람하는 발견의 길로 이루어져 있음. 이 박물관들과 장소를 연결하는 길에 마을의 유적 및 유산, 주민들의 생활을 생생하게 접할 수도 있음
- 피에르 드 브레스 성에는 지역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상설 전시가 마련되어있고, 브레스 부르기논 지역의 지형, 매장문화재, 농업과 공업, 관광, 생물 등 전반적 사항이 전시되어 있고, 문화센터,

여름학교, 뮤지컬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박물관 관람 시간은 매일 10-12시, 오후 2시-6시까지이고, 10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에는 문을 닫고, 5월 1일 휴관하고, 연간 1달 정도 휴관을 하는데 2014년은 12월 22일부터 후년 1월 17일까지 휴관

- 전시 및 부대시설이 잘 짜여 있어서 주민과 외부 방문객 모두 이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되어있음.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철 농산물로 만든 음식 시식이 마련되어 있어 농산물 홍보도 가능함
- 포도원과 포도주 소박물관에는 직접 와인농가가 살며 그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신문관은 당시 인쇄기기, 신문들을 전시하며 각종 미술갤러리의 역할도 겸하고 있음. 짚과 가구에서는 이 지역에서 많이 나는 짚으로 의자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며, 이를 판매하도록 함. 숲과 나무의 박물관에서는 폐교를 활용하여 산림의 기초적 지식을 쌓도록 교육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음. 농가는 역사적 건축양식으로 지어져 있음. 농작물 창고를 개축하여 농업 박물관으로 만든 곳으로 브레스 치킨에 관한 전시가 이어지고 있다. 물과 동력에서는 물레방아를 이용하여 제분하는 장인들이 실제로 일하며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브레스 부르기논 에코뮤지엄은 총관리부, 연구체계, 기술부문으로 운영조직이 있고, 관리운영위원회를 두어 이용자, 연구원, 관리자라는 세 구성원들이 대표로 참여하고 있음

[표 4-9] 브레스 부르기논 에코뮤지엄의 소박물관

순번	소박물관	내용
1	포도원과 포도주 (Le vigneron et sa vigne)	프랑스 도랑주 옛 성의 중정, 옛 농가와 지하저장고, 곡물 창고를 리노베이션 한 장소에 옛날 전통방식의 포도 재배와 양조과정을 중심으로 한 체험 전시
2	신문 아틀리에 (L'Atelier d'un journal)	지역 신문인 '랭데팡당 뒤 루아네 에 뒤 쥐라'의 인쇄소가 1984년 문을 닫고, 이 곳이 에코 뮤지엄의 위성 박물관으로 변모됨. 리노테이프, 운전기, 인쇄기 등의 기계들이 가동되는 상태로 보존됨. 조판활자 방식의 인쇄작업소를 프랑스에서는 유일하게 보존함. 오래된 인쇄소의 원형이 보존되어있고, 과거 신문 및 인쇄물들이 전시됨
3	의지제작공과 짚 (Chaisiers et pailleuses)	브레스 부르기논의 중심인 루앙의 남서쪽에서 투르누 방향 971번 지방도로로 15km떨어진 곳에 위치함. 다양한 목재 수공예 체험 및 전시
4	숲과 나무의 집 (La Maison de la forêt et du bocage)	생 마르탱 앙 브레스의 페리니 마을에 있는 오래된 초등학교에 위치함. 숲으로 둘러싸여있어서 숲의 다양한 생태계, 벌목 체험 및 전시
5	샹 브레상 농가 (La ferme du Champs bressan)	1937년 파리 국제박람회에 출품작 '농촌생활양식' 재현
6	밀과 빵 (Le blé et le pain)	베르당-쉬르-르-두 밀과 빵의 박물관 상설전시는 축소모형, 삽화, 시청각자료, 기계 전시 등을 통해 세계 밀 경작의 발전과 씨뿌리기, 제분공장의 역사, 빵을 만드는 작업들에 대해서 다룸. 경작 역사, 과정, 빵 제조 관련 체험 전시
7	농업 (Maison de l'agriculture)	19세기부터 현재까지의 브레스 지역의 농장에 대한 자료들 보유. 농가의 작업, 대장간 재현
8	몽자이 물레방아, 물 박물관 (Moulin de Montjay, Musée de l'eau)	이 방앗간에서는 옛 건축과 제분 방식 및 추진력의 변화를 보여줌. 물레방아의 원리 재현



<그림 4-16> 브레스 부르기논 에코뮤지엄의 주요 시설

나. 모르방 에코뮤지엄(Ecomusée du Morvan)

- 모르방 에코뮤지엄은 산악지형의 자연공원에 에코뮤지엄이 생긴 케이스로 7개의 박물관과 4개의 협력관으로 구성되고, 관리는 자연공원 관리사무소와 연계되어 있음. 이 곳은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하여 이 에코뮤지엄의 목표는 “교류(échanges)와 이주(migrations)”임. 7개 테마박물관, 전시관은 대부분 지자체에 의해 운영 중이지만 보방기념관(la maison Vauban)과 샤를레육우목축관(la maison de l'élevage et du Charolais)은 시민단체에서 관리 중에 있음. 모르방 에코뮤지엄은 농촌지역 유산 전문가들의 활동이

중심이 되어 농촌지역 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 체험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

- 인간과 경관테마관은 가축 축사용 부속 건물을 개조하여 사용하며, 지역의 변천과정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삶을 전시하고 있음. 이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다양한 형질이며 동식물의 다양성을 나타내어 자연환경 사이 상호작용과 영향을 보여주고 있음
- 호밀테마관에서는 호밀농사방식에 대해 보여주고 있음. 또한 호밀 짚으로 가옥을 만들며, 별통과 여러 가지 실용품과 양식과 연결되는 과정도 전시됨. 마차 테마관은 별목한 목재를 운반하기 위해 마차꾼들에 대한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있음. 보방기념관은 루이 14세 때 축성기술로 유명한 보방을 기려 만든 것으로 이 지역의 도시계획 및 군사시설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 보방이 만든 요새 12곳은 200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음. 샤를레육우테마관은 모르방 지방의 적갈색 소의 사육형태, 생산 판매의 과정을 전시하고 있음. 구비유산기념관은 지이 지역의 음악, 무용, 음성, 몸짓 등 무형유산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으며 야외 공연장에서 수시로 공연을 열고 있음. 또한 유모의 집도 있는데, 전쟁고아들을 보육하던 시설을 전시하고 있음. 이 외에도 나막신 제조작업장, 포도주통 제조장 등 협력 박물관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림 4-17> 모르방 에코뮤지엄 소개브로셔

출처 : www.morvan-des-lacs.com/



<그림 4-18> 모르방 에코뮤지엄 전경

출처 : 모르방 자연공원 홈페이지 <http://www.parcumorvan.org/>

다. 알자스 에코뮤지엄(L'Écomusée d'Alsace) 38)

- 주민들의 힘으로 마을을 복원한 테마파크형 에코뮤지엄이 알자스 에코뮤지엄임. 1984년에 개관한 알자스 에코뮤지엄은 프랑스 알자스(Alsace)지방 오랭(Haut-Rhin) 도의 뮐루즈(Mulhouse)에 소재하고 있음. 프랑스 알자스(Alsace) 지방의 마을을 해체, 복원해서 실

38) 이하의 소개 내용은 '배은석, 알자스 에코뮤지엄에 투영된 알자스인의 삶과 문화, 인문콘텐츠 제 26호, 2012'에서, 사진은 알자스 에코뮤지엄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음

제 알자스 마을을 재현한 테마파크형 에코뮤지엄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일반적인 에코뮤지엄에 현지의 주민이 살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알자스 에코뮤지엄은 마을을 옮겨놓은 곳에 마을을 복원하여 유지하고 그들의 전통을 구현하고 있음

- 소멸 위기에 처했다가 구조되어 복원된 농가 73 채로 구성되어 있는 마을은 알자스 문화의 정수를 모아 그 진정성을 응축하였음. 계절의 순환에 따라 이 마을을 찾는 사람들은 예술과 지역의 민속, 전통을 가로지르는 태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마을의 삶을 발견할 수 있음. 아뜰리에, 요리실, 시식 체험 등에서 장인, 집 주인, 초등학교 교사, 농부, 소작농 등 마을 사람들을 마주치게 됨. 방문객은 상설전시와 기획전시, 길과 동물농장 등을 산책하면서 알자스 마을의 특별한 체험을 경험하게 됨. 알자스 마을은 방문자에게 다양한 실현가능성을 제공





<그림 4-19> 알자스 전통 가옥 중 하나인 Koetzingue 주택 해체, 이전
복원 및 재조립을 위한 작업과정과 완성된 모습(1980년)



<그림 4-20> 알자스 에코뮤지엄의 배치도와 마을 전경

- 단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살아있는 마을을 복원하고자 하였음. 알자스인들은 예배당, 수레제조 작업장, 구두점, 증류소, 학교, 창고, 대장간, 헛간, 기름 짜는 집, 맛과 빛갈의 집, 도기제조소, 나막신제조소, 제재소, 마구제조장, 통제조장 등 다양한 농가마을의 건축물을 복원하였다, 아울러 이들을 연결하는 마을길을 재현하였

으며 그 안에 살아있는 생물과 마을 사람들을 복원하고자 하였음. 건물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패널 자료로 기록되어서 방문객에게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를 말해줌. 좁지만 그 곳에 모여 살았던 가족들의 사진과 부엌의 살림살이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음. 장인들의 아틀리에에는 다양한 시연과 체험 활동이 운영되고 있음. 마을 곳곳에는 염소, 돼지, 오리, 닭 등 알자스 사람들이 키웠던 가축들도 있음

○ 알자스 에코뮤지엄의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1) 지역의 장인과 예술가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은 대부분 아틀리에의 장인이나 지역의 예술가, 자원봉사자, 박물관 가이드에 의해서 진행됨. 그리고 기업의 메세나 활동에 따른 지원을 받으며 이는 에코뮤지엄의 활동과 연계함. 장인들의 아틀리에가 있는데, 나무 조각체험, 점토놀이, 도자기공예, 건물 골조와 지붕수리, 벽돌제작, 대장간 체험, 의복과 자수 체험, 알자스 가정요리체험 등이 있어서 방문객들에게 알자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2) 교육 프로그램

평상시 교육프로그램은 마을의 학교에서 옛날의 방식의 수업을 통하여 알자스의 역사에 대해 배움. 오늘날보다는 엄격한 수업 방식으로 진행되며, 프랑스와 독일의 역사를 배움. 또한 계절에 따라서 케익과 음료를 포함한 간식이 제공되며, 1시간 정도 아틀리에를 선택하여 체험할 수 있음. 방학프로그램으로는 4세에서 14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데, 월요일 점심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마을에 머무르면서 전통 복장을 입고 마을의 주민이 되어서 에코뮤지엄 곳곳의 프로그램을 체험

(3) 계절별 이벤트

계절에 따라, 기념일에 따라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마을에서 진행되는데, 음악 페스티벌, 까지모도(부활절 후 첫 주일), 불의 예술 등과 같은 행사들이 주제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마을에서 펼쳐짐

(4) 농촌체험 프로그램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농사짓기, 다종작 재배, 우유 짜기, 농

장 체험, 돼지 먹이 주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음. 특히 포도 수확과 와인 양조 체험을 할 수 있음. 알자스 에코뮤지엄에는 1000㎡ 가량의 땅에 여러 가지 품종의 포도나무들이 심어져 있음. 매년 포도 수확은 자원봉사 팀에 의해 이루어지며,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알자스 고유의 와인을 생산. 포도를 수확하는 날이면 방문객들은 포도채취의 기초를 배우고, 포도나무 기르는 법과 포도의 효능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포도를 재배하는 주민의 집에서 열리는 강좌를 통해 직접 포도 압착에 참여할 수 있으며 포도주 양조과정을 배울 수 있음

(5) 지역의 문화유산 발견 프로그램

유럽문화유산의 날에 박물관 가이드와 함께 알자스 고유 건물들을 방문하며 그 역사와 알자스에코뮤지엄의 역사를 알아보는 것과 벽돌제조 장인과 골조와 지붕 장인의 진행으로 알자스 목조 건물의 건축의 전통 기술에 대하여 살펴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바 있음. 특별 기념일 외에도 매달 새롭게 기획되는 토요일 프로그램에서는 알자스 지역의 예술가를 초빙하여 그들의 전통적인 방식의 노하우를 방문객들에게 전수함

			
도자기 체험	포도수확 체험	동물 농장 체험	자연 체험(다양한 생물종 관찰과 탐색)
			
수확 축제 체험(2014년 8월 15-17일)	Kilbe 축제(2014년 7월 12-14일)	제7회 포크 음악 페스티벌(2014년 8월 23-24일)	알자스 마을 생활 체험

<그림 4-21> 알자스 에코뮤지엄의 체험프로그램

- 알자스 에코뮤지엄에는 이처럼 다양한 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이 자원봉사자, 에코뮤지엄의 직원,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계절별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은 방문객에게 유료로 제공되며, 그 수익금은 에코뮤지엄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음
- 알자스 에코뮤지엄의 경우는 알자스 전체에 흩어져 있는 고건축물을 비롯한 기억, 자연, 전통, 유산, 지역공동체 등이 뿔루즈에 옮겨져서 구현된 것임. 이는 마치 한정된 공간에 주제와 의미를 부여하고 주제에 부응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테마파크와도 같은 특성을 갖음. 사실상 알자스에코뮤지엄은 테마파크와 에코뮤지엄의 경계를 넘나드는 속성을 갖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뮤지엄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공간의 구성과 설치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작용하였다는 것임. 주민 스스로의 노력과 자원봉사자들의 힘에 의해서 이미 있는 알자스의 요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일정한 영역에 구현되는 과정을 갖고 있다는 점임. 그 외에도 자발적으로 결성된 자원봉사자 협회와 이들의 지속적인 학습활동, 이들을 후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운동이 ‘주민의 주체적 참여’라는 요소를 충족시킴

라. 렌느 지역 에코뮤지엄(Écomusée du pays de Rennes)

- 이 뮤지엄은 렌느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프랑스박물관’ 라벨을 획득하였음. 뱅티네 옛 농장 속에서 정비된 렌느 지역 에코 뮤지엄은 렌느 지역의 문화재들 가치높이기, 이 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해 외부 관광객과 지역 방문객 교육시키기 국토에 대해 수많은 문화주체들간의 관계 맺기를 목적으로 함
- 역사 : 60헥타르에 달하는 뱅티네 옛 농장은 렌느 지역의 가장 중요하고 성공적인 농업 탐방 중에서는 오래된 것으로 이 이름은 7세기 전부터 지속되어왔음. 이 에코 뮤지엄은 1987년에 설립되었는데 브르타뉴 박물관의 안테나 박물관의 역할을 하고 공동 컬렉션과 서비스들을 공유하고 있음
- 박물관 : 박물관은 뱅티네 농장의 중심건물에 위치함. 1200m²의 면적에 16세기 오늘날까지 렌느 지역의 변천에 대해 전시하고 있음.

건축, 농업, 생활방식, 도시와 시골의 관계와 같이 매우 다양한 테마를 풍요롭게 하면서 농장과 거주자들의 이야기들을 다룬. 이러한 변천을 보여주면서 물체, 기계, 가구, 복원된 방 등을 전시하고, 독특하면서도 보편적인 이 역사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연령대의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오디오 가이드, 인터랙티브 게임, 영화 등이 제공되고 있음

- 기획 전시 : 에코 박물관에 의해 조직되는 기획전시의 정책은 토지유산의 다양한 영역을 설명하고 매우 다양한 주제를 강조하는 것임. 이러한 기획전시들은 평균 9개월의 연례 행사를 이유로 공간이 무대로 활용되기도 함. 자주 열리는 행사를 통해 관객들은 보다 폭넓게 박물관 전시기획을 발견할 수 있음. 에코 뮤지엄은 진정한 공동체성을 구성하는 축제와 체험도 제안함. 몇 가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 연례 양털 깎기, 양모 처리 과정
 - 벌꿀 수확과 꿀 제품 생산
 - 지역 생산 사과로 품질 좋은 사과주 만들기
- 축제 특성과는 별도로, 행사들은 에코뮤지엄의 존재이유이기도 함. 이러한 행사들은 예를 들어 질 좋은 사과주의 전통방식생산과 같은 경제활동들을 자극하고 지역 경제 재생에 이바지함
- 동물 품종 보존 : 닭에서부터 수레끄는 말에 이르기까지 브르타뉴의 가정 사육 동물인 19종의 동물들이 이곳에 한데 모여 있음
 - 멸종 위기 품종의 유전적 보존과 홍보
 - 브르타뉴에서 농업 변천의 수세기를 추적하면서 교육적 프로그램 안에서 동물들을 보여줌
 - 렌느 지역의 에코뮤지엄은 프랑스 고유 농업문화의 중심을 차지함
- 식물 품종 보존 : 수세기 동안 보존되어온 농업과 축산을 발견하게 되는 탐방로와 함께 에코 뮤지엄은 수집된 식물들과 탐방로를 결합시키면서 이제 지역의 중요 농업 공원이 되었음. 19헥타르의 땅에서 방문객은 브르타뉴의 농작물 변천과 농사 변천을 발견할 수 있음. 동물의 품종처럼, 오래된 식물 품종은 다른 것이 더 생산되거나 경작 제약이 많아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해졌음. 이러한 유전적 위협은 많이 생산되는 식물뿐만 아니라 과일, 지역 생산야채

에도 가해졌음

- 농작물 탐구 : 탐방로는 20여개 이상의 농작물과 어제와 오늘의 문화를 종합하고 있음. 전통 작물(아마, 대마, 메밀)과 1960년대 브르타뉴에 유입된 현대 작물(옥수수, 유채 등)이 공존함
- 보존 과수원과 과일 유산 : 사과주는 사라진 토속 식품의 좋은 예임. 이 유전적 풍요로움이 사라지지 않도록 에코뮤지엄은 지역 사과주의 품종 보존 프로그램과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 보존 과수원에는 렌즈 지역과 그 인근에서 생산되던 120여종의 사과가 수집되어 있음. 여기에는 배와 체리 나무도 포함되어 수집되었음



1. 안내소
(Le bâtiment d'accueil)

2010년에 신축된 안내소 건물은 나무를 주재료로 한 매우 현대적인 건축형태를 띠 방문객 안내시설에 인접해 위치한 350 m²의 큰 홀이 있어서 매우 다양한 유산들의 테마로

	매년 기획전시를 열
2. 박물관 (Le musée)	벵티네 농장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시동선은 16세기부터 오늘날까지 렌즈 지역의 변천을 따르고 있음. 건축, 농업, 생활방식, 도시-시골 관계 처럼 다양한 주제를 다룸. 관람 소요 시간: 1시간 30분
3. 사육 건물 (Les bâtiments d'élevage)	마곳간, 축사, 돈사, 가금사육장에 지역에서 보존대상인 21종의 동물이 사육됨. 이 사육장은 인간과 가금류의 관계를 생각해서 설정된 탐방로에 포함됨
4. 옛 품종 목축 자산 (Un cheptel de races anciennes)	가금류 생물다양성을 위한 노아의 방주 - 멸종 위기의 21품종 - 보존 프로그램 및 확산 프로그램 - 약 250마리 이상 복제 - 정비된 외부 숲길
5. 보존 과수원 (Les vergers conservatoires)	렌즈 지역의 과수 보존 - 220 그루 이상이 모인 3개의 사과 과수원 사과주 생산을 위한 150 종 이상의 사과 13종의 배 9 종의 체리
6. 농업 관련 공간 (L'espace agricole)	농지 교육 탐방로 - 30종 이상의 농작물 재배 - 1 km 정도의 농지 탐방로 - 산 울타리의 3km가 조성된 숲이 우거진 산책로 - 재구성된 농장의 텃밭 - 5월과 9월에 최대 관심 - 방문 소요 시간 : 45분
7. 정원 (Le jardin)	건물들의 북쪽에 위치한 정원이 농장 정원의 전통적인 농작물뿐만 아니라 과수들도 통합함. 가금사육장이 특별 설치됨 : 닭, 오리, 거위 등

<그림 4-22> 렌즈지역 에코뮤지엄 시설위치도 및 시설 설명



<그림 4-23> 렌느 지역 에코뮤지엄 주요 사진

4. 시사점

- 프랑스의 에코뮤지엄은 탄생 시점의 목표와는 달리 현재에는 보다 확장된 의미로 적용됨으로써 여러 유형으로 분화됨을 알 수 있음
- 설립 의도에 따라 에코뮤지엄의 공간적 범위는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띤다. 그 범위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물레방아 건물이나 옛 주택 등에서부터 1,700 km²이상의 광범위한 농업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을 대상으로 분산된 박물관들이 네트워크로 연계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규모의 제한이 없다는 것이 특징임
- 지역 주민의 주체적 참여가 강조된다는 점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프랑스 에코뮤지엄은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의 발의와 참여로 조직된 것들이 많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작용하였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박물관의 기본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유형유산 및 무형유산의 보존, 문화 콘텐츠의 활용과 발굴 등에 주민들의 참여가 어우러져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있다. 지역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지역 활성화의 기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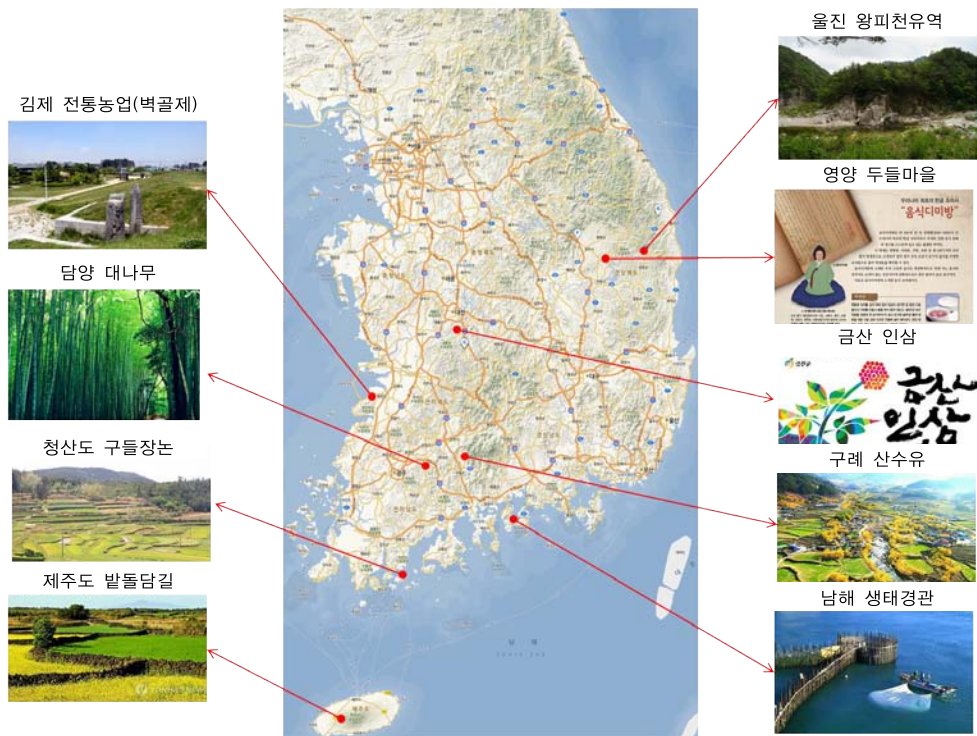
-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에코 뮤지엄이 담당하는 것임
- 전시, 교육, 체험, 연구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계절별, 주제별, 거점별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에코뮤지엄 및 사회박물관 연맹(FEMS)’이 각양각생의 에코뮤지엄 간 교류를 증진시키고 결집하는 역할을 함

제5장 에코뮤지엄 유형별 시범조성 모델개발

제1절 기본방향

1. 대상지 선정방향

- 농촌에코뮤지엄에서는 농업유산을 발굴하고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5장에서 구분된 유형에 따라 시범조성모델을 개발하기로 함
- 광의의 농업유산은 크게 농업생산과 농촌생활로 나눌 수 있으며, 농업생산에는 경관·생물다양성을 핵심으로 하는 생태경관형, 토지이용시스템을 핵심으로 하는 전통농업형이 있으며, 농촌생활에는 유무형의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문화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5-1> 에코뮤지엄 시범조성 대상지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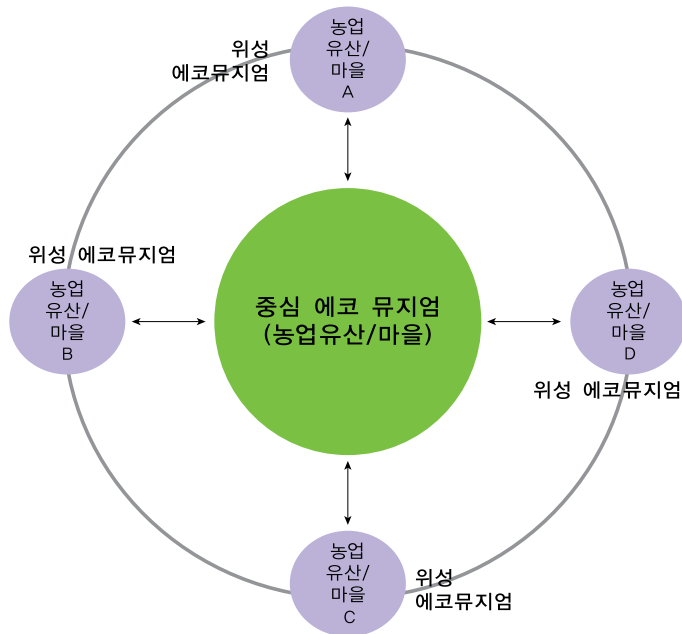
[표 5-1] 에코뮤지엄 유형별 대상지 후보

유형 구분	대상지	주요 농업유산 ³⁹⁾	비고
전통 농업형	전남 완도군 청산도	청산도 구들장 논 청산팔경 정월굿, 꽃상여, 초분	세계농업유산
	제주도	제주밭담 화산섬, 올레길 성읍민속마을	세계농업유산 제주도 전역 세계자연유산
	전남 담양군	대나무숲 담양10경	농업유산
	전북 김제시	벽골제, 김제평야 대나무숲, 간척지	고대 관개저수지, 벼농사역사
	충북 금산군	개삼터, 약령시장, 인삼시장 비단강, 진악산	고려인삼 주민네트워크 구성(다락원)
전통 문화형	경북 영양군	두들마을, 가마실마을 음식디미방 영양원늘음(농한기) 연당마을 서석지, 도곡리 마을숲 고추재배 일월산	전통마을 음식문화 조경문화 놀이문화
생태 경관형	전남 구례군	산수유 시목 및 군락지 구례10경, 지리산, 섬진강 벚꽃길 구례 잔수농악	자연경관 농업유산
	경북 울진군	소광리 금강소나무숲, 불영계곡, 성류굴, 왕피천 친환경 농업 망양정, 굴구지 산촌마을	생태경관보전지역
	경남 남해군	팔색조, 한려해상국립공원 다랭이마을	해안경관과 다랭이논, 팔색조, 국립공원

39) 광의의 농업유산 개념임

2. 계획방향

- 유산의 중요도, 보전정도에 따라 중심에코뮤지엄과 위성에코뮤지엄으로 나누어 계획을 수립하며, 보전계획을 중심으로 균형있는 활용계획을 수립함
- 중심 에코뮤지엄은 해당 시군의 핵심적인 농업유산으로서 보전 개념을 담아 계획을 수립하며, 보전가치가 높은 유산일 경우 완충지역을 두는 것을 고려함
- 위성 에코뮤지엄은 해당 시군에 남아있는 농업유산이거나, 기존의 정책사업이 실시되어 농촌마을로서 정비와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마을로서 다수의 대상지가 설정될 수 있음
- 또한 농촌에코뮤지엄계획에서는 중심과 위성에코뮤지엄간의 연계계획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 중심에코뮤지엄 중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보전 및 활용계획과 예산은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못한 농업유산의 경우에는 농촌 에코뮤지엄 계획을 통하여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함



<그림 5-2> 에코뮤지엄 계획방향

제2절 전통농업형 에코뮤지엄 시범 조성

1. 대상지 개요

가. 지역현황

1) 위치

- 본 대상지(청산도)가 속한 전라남도 완도군은 전라남도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남, 강진, 장흥, 보성, 고흥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음



<그림 5-3> 대상지 위치

- 청산도의 토지이용형태를 살펴보면, 총면적 41.87km² 중 임야 71.4%, 답 12.2%, 전 8.9%, 기타 7.5%로 주로 분지 및 완경사지에 는 구들장논과 다랭이논이 많이 분포



<그림 5-4> 청산도 지목별 면적구성(2012)

자료: 완도군 통계연보(2012)

- 완도군의 인구는 2012년 현재 25,215 세대에 54,516 명이며, 청산도의 인구는 1,370 세대의 2,559명임
- 청산도에는 총 24개의 자연부락이 위치하고 있는데, 섬 서측과 분지형태를 보이는 중심부에 많이 분포하며, 반농반어촌마을의 형태를 보임
- 청산도에는 남쪽 최고봉인 매봉산(385m)와 보적산(321m), 북쪽 대봉산(334m)가 위치해있고, 읍리, 양중리 인근에 평지가 위치하였다. 남쪽에는 10m가 넘는 해식애가 발달하였고, 동백, 후박, 곰솔 등 남대림이 잘 형성되어 있음

2) 행정구역

- 청산도(41.88km²)는 23개의 행정리(13개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음
 - 13 법정리: 국산리, 당락리, 도청리, 동촌리, 모도리, 부흥리, 상동리, 신흥리, 양중리, 여서리, 읍리, 지리, 청계리
- 청산도는 전라남도 완도군에 소속된 섬으로 남쪽을 19.2km, 배로 50분 거리의 다도해 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5개의 유인도(장도, 대모도, 소모도, 여서도)과 9개의 무인도로 나누어짐

3) 대상지의 접근성

- 완도항에서 남쪽으로 19.2km 떨어져 있어 선박운행으로 약 50분 정도 소요되며, 청산농협에서 완도항-청산도 선박운행을 담당
- 슬로시티 지정 이후 청산도 관광객이 2013년 기준 약 37만 명까지 증가하면서 선박 대수와 운행 횟수를 증편하는 등 내륙에서 청산도로의 접근성이 향상
- 섬 내부의 교통편으로는 마을버스 1대, 순환버스 1대, 투어버스 1대, 관광버스 4대, 소형버스 1대, 택시 5대가 운행 중이며 관광버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청산도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음

4) 연혁

- 청산도는 신라시대부터 주민이 살았다는 정황은 있으나 구전에 의한 것이며, 기록은 찾아볼 수 없음. 고려시대에 탐진현(현 강진군)에 속하였음

- 청산도에 마을이 형성된 것은 조선 인조 말 1640년경 김해 김씨가 강진에 처음으로 들어와 거주하였다고 함
- 임진왜란을 계기로 왜구의 침입이 빈번하자 선조 41년(1608)에 주민들을 입도하여 거주하였으며, 숙종 때에는 지리마을의 중앙에 활터를 설치하여 궁장으로 무사를 양성하였는데 이곳을 ‘솔지개’라 함
- 고종 3년(1866년) 청산도에 첩사진이 신설되며 당리에 청산진성이 축조되었고, 진의 높이는 15척, 길이는 10리로 3방향(동,서,남)으로 문을 두었음
- 청산진의 군사는 420여명 정도였고, 당리마을 서편에는 매일 시장이 섰다고 하며, 성내 호구는 약 460여호, 인구는 약 2000여명이었다고 함
- 고종 33년(1896년) 완도군이 신설되자 완도군 산하 청산도로 편입되었으며, 1964년 10월 1일 대모도 동리 모도출장소를 설치함
- 1981년 12월 23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음

나. 대상지현황

1) 인구 및 농업 현황

- 청산도에는 총 2,987명이 살고 있으며, 그 중 도청리와 해동리에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
- 1990년대 중후반까지 청산도는 어업보다는 벼농사 중심의 농경문화가 발달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 양식업의 비중이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농가 비율은 감소

[표 5-2] 청산도 인구 현황

2012년 기준 (단위: 명)

법정리	관산리	득암리	해동리	도청리	당락리	읍리	청계리	부흥리	양중리	상동리	계
총인원	283	340	690	756	316	198	104	95	111	94	2987
남	135	176	361	369	149	92	52	44	58	36	1472
녀	148	164	329	387	167	106	52	51	53	58	1515

※자료: 완도군 통계연보(2013)

[표 5-3] 청산도 농업인구 현황 2012년 기준 (단위:명,호)

연도	농가수	농업인구		
		계	남자	여자
2012	716	716	491	215
2011	760	760	532	228
2010	785	785	550	235

- 청산도 논밭은 전체면적의 약 20% 정도로 협소한 농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산을 논과 밭으로 전환하여 범용적으로 이용해 왔으며, 현재 다음과 같은 식량작물들을 청산도에서 생산

[표 5-4] 청산도 식량작물(정곡, 채소류) 생산량

구분 (정곡)	미곡		백류		잡곡		두류			서류	
	논벼	밭벼	쌀보리	맥주보리	옥수수	메밀	콩	팥	녹두	감자	고구마
면적 (ha)	258	-	0.4	0.4	1.2	0.8	37	1	1	1	6.3
생산량 (M/T)	1,016	-	1.6	1.7	2.9	0.5	43	1.1	0.9	16	105.7
구분 (채소류)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			특용작물				
	호박	배추	무	고추	양파	마늘	참깨	유채			
면적 (ha)	0.3	4.0	1.3	8.9	7.5	12.5	2.5	4.2			
생산량 (M/T)	16.5	306	83	27	415	160	1.2	4.2			
농가수(호)	7	12	6	31	24	89	22	19			

2) 어업 현황

- 청산도에는 총 10개의 어촌계(구장리, 국화리, 권덕리, 당리, 도락리, 도청리, 동촌리, 모동리, 모북리, 모서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협중앙회에 의한 유형구분으로 볼 때 모두 연안촌락 어촌계로 분류
- 청산도의 어촌가구는 주로 주향인 도청항에 근접한 도락리와 도청리에 집중
- 청산도 어촌가구의 평균소득은 33,208천원으로 완도군 평균 어촌가구 소득인 26,080천원에 비해 7,128천원 정도 높음
- 청산도 중에서 도락리 어촌가구의 평균소득이 제일 높은 87,240천원으로 나타났으며, 동촌리 어촌가구의 소득이 제일 낮은 10,400천원으로 나타남

[표 5-5] 청산도 어촌계 현황

(단위 : 명, 호)

구분	어촌가구	어촌계원	어가구(전체가구)	어업인구(전체인구)
전국	1,972	152,723	160,424(1,300,094)	285,337(3,596,455)
전라남도	854	62,468	59,323(206,662)	113,195(570,612)
완도군	201	14,307	12,230(24,189)	23,717(47,967)
청 산 도	소계	10	-	509(811)
	구장	1	-	18(33)
	국화	1	-	26(29)
	권덕	1	-	16(22)
	당리	1	-	31(73)
	도락	1	75	47(99)
	도청	1	-	221(374)
	동촌	1	-	30(43)
	모동	1	-	25(51)
	모북	1	-	30(24)
	모서	1	-	65(63)

3) 인적자원 확보현황

- 청산도는 약 14개의 주민단체가 활동하고 있음

[표 5-6] 청산도 주민단체현황

순번	단체명	대표자
1	구들장 논 주민협의회	이용남
2	청년연합회장	양성준
3	새마을협의회장	양광채
4	청산도부녀회장	이복희
5	투자유치위원장	정옥남
6	한국자유총연맹청산 지회장	이경희
7	청산도노인회장	김방열
8	가고싶은섬 추진위원장	유성중
9	농업경영인연합회장	위성은
10	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	임인석
11	농촌지도자협의회장	곽달연
12	청산도119지역대장	박광필
13	민주당지역협의회장	김민남
14	청산도의용소방대장	강상홍

※자료: 완도군 홈페이지

다. 에코뮤지엄 자원현황



<그림 5-5> 에코뮤지엄 종합현황도









1) 중심 에코뮤지엄

- 대상지의 중심 에코뮤지엄은 청산도의 대표적인 농업경관인 구들장논 및 인근 상서리 돌담마을 일대로 설정함
 - 청산도 구들장논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지정된 보전할 가치가 큰 농업유산임. 이를 ‘구들장논 오너제도’를 통해 구들장논의 홍보하고 있음
 - 구들장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직접 구들장논에서 농사활동을 체험할 수 있게 구들장논체험장을 운영 중임. 구들장논 체험장에서는 여름에는 논체험, 가을에는 수확체험, 떡만들기 체험을 진행

- 경사진 비탈을 개간하여 만든 다랭이논이 주는 경관 조망이 우수
- 인근 상서리 돌담마을에는 섬 지방의 특성으로 바람이 많아 형성된 돌담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경관이 있으며 돌담찻집과 쉼터도 위치
- 상서리 돌담마을 전체가 원형 그대로 보존된 돌담으로 이루어져 섬마을 특유의 이색적이고 아늑한 경치가 보존됨
- 쉼터에서는 슬로푸드가 제공되고, 돌담 찻집 또한 운영되고 있어 관광객들이 들러 쉬기에 좋음
- 그 외에도 느린섬여행학교, 1박2일 촬영지, 승모사, 배롱나무 뚝방길, 청계리 중촌돌샘, 할머니 나무 등 여러 자원이 존재
- 느린섬여행학교(작가의 집)도 운영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들러 청산도 고유음식을 즐기고 숙박하고 있음. 많은 행사를 치러내고 있는 공간이기도 함
- 승모사는 향토유적지 제2호로 조선시대 문신 김류 선생을 추모하기 위한 사당임. 김류선생은 청산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매료되어 부흥리에 머물러 교육에 일생을 바침
- 목적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아 태고적 신비를 간직한 아름다운 섬으로 바다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비경을 자랑함
- 인근에 목섬(항도)까지 들국화길이 조성되어 있어 바다와 꽃의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훌륭한 공간임



<그림 5-6> 중심에코뮤지엄 현황(1)

	
<p>구들장논</p>	<p>구들장논 체험장</p>
	
<p>다랭이논</p>	<p>상서리 돌담마을 전경</p>
	
<p>돌담차집</p>	<p>느린섬 여행학교</p>
	
<p>송모사</p>	<p>송모사 돌담</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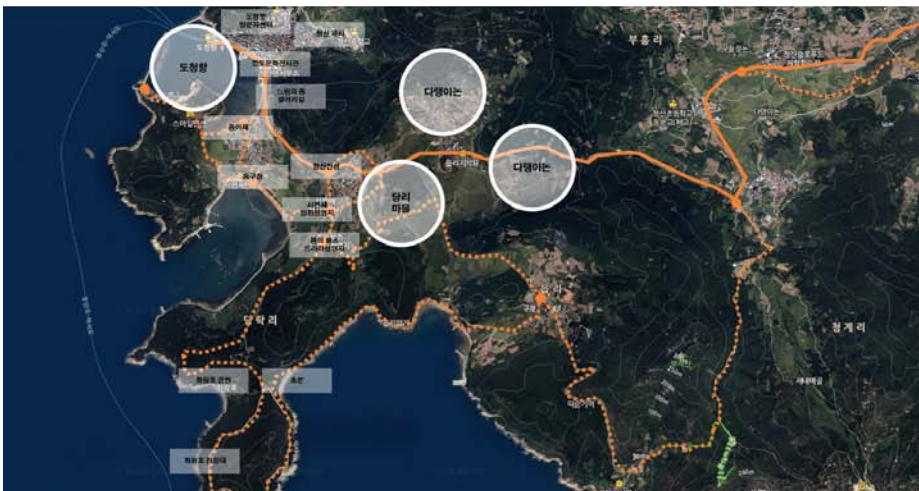
<그림 5-7> 중심에코뮤지엄 현황(2)

	
<p>들국화 길 전경</p>	<p>들국화 길의 '들국화 화분'</p>
	
<p>목섬으로 가는 길</p>	<p>배롱나무 뚝방길의 전경</p>
	
<p>목섬의 전경(1)</p>	<p>목섬의 전경(2)</p>
	
<p>신흥리 풀등 해변</p>	<p>할머니 나무</p>

<그림 5-8> 중심에코뮤지엄 현황(3)

2) 에코뮤지엄센터 - 도청항 인근

- 대상지의 에코뮤지엄센터는 청산도의 진입 관문이자 안내센터가 위치한 도청항과 그 일대로 설정함
- 도청항 인근에 위치한 향토역사문화전시관은 구 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관광객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쉴수 있게 하여 청산도 도청항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음
- 도청항 뒷골목 안통길은 전국 3대 어장 중 하나로 청산도 삼치, 고등어로 유명했던 파시의 옛생활문화와 역사를 찾아볼 수 있음
- 도락리에 있는 동구정이란 우물은 가뭄이 들어도 같은 수위를 유지한다는 신비한 우물이라고 불림
- 서편제 촬영지인 당리입구는 봄에는 유채꽃과 청보리, 가을에는 코스모스로 아름다운 공간임. 당리 입구 옆에는 봄의 왈츠 세트장이 자리 잡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고 있음
- 1866년(고정3년) 축조된 청산진성은 높이 15척, 길이 10리에 해당하며 인근 청산도를 바라다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제공
- 청산도에는 전국 유일의 초분이 존재. 초분은 사람들이 고기 잡으러 나갔을시 상을 당했을 때를 대비하여 시신을 바로 묻지 않고 관을 이엉 등으로 덮어두었다가 2~3년 뒤 뼈를 골라 묻는 어촌마을의 ‘이중 장례 풍습’임
- 풍어와 안녕을 기원하는 보름굿인 ‘풍어제’가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



<그림 5-9> 에코뮤지엄센터-도청항 인근 현황



도청항의 전경(선박길)



청산도 방문자센터



향토문화전시관



느림카페



미로길



청산도 파시거리 전경



파시 전경



안통길

<그림 5-10> 예코뮤지엄센터-도청항 인근 현황(2)

	
<p>서편제 촬영지</p>	<p>봄의 왈츠 촬영장</p>
	
<p>다랭이논</p>	<p>풍어제</p>
	
<p>청산면 복지회관</p>	<p>초분</p>
	
<p>청산진성</p>	<p>청산도 동구정</p>

<그림 5-11> 에코뮤지엄센터-도청항 인근 현황(3)

3) 위성 에코뮤지엄

○ 위성 1: 국화리 전통경관마을

- 국화리에는 큰 방파제가 있으며, 많은 낚시꾼들이 이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모여들
- 인근 진산리 해변길은 일출 광경을 조망하며 진산리 갯돌해변으로 연결됨. 진산리 갯돌해변은 둥글둥글 갯돌로 이루어진 해변으로 모래사장과는 또 다른 해변의 모습을 보여줌
- 인근 단풍나무길은 푸른바다와 대비되는 색다른 경관연출하며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음

	
국화리 방파제 원경	국화리 방파제 근경
	
진산리 해변길	진산리 갯돌해변
	
단풍나무길 가을 풍경(1)	단풍나무길 가을 풍경(2)

<그림 5-12> 위성 에코뮤지엄 1-국화리 전통경관마을

○ 위성 2 : 범바위 전망대 일대

- 범의 모습을 닮은 바위가 있어 범바위라는 지명을 얻게 됨. 범바위에는 전망대가 있어 인근 도동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음
- 인근에 말탄바위, 칼바위, 해녀바위, 공룡알해변지, 선녀와 나무꾼 연못 등 다양한 관광자원도 위치
- 특히 공룡알해변지는 땡큐(SBS 예능 프로그램)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며, 돌이 마치 자석같이 달라붙어 나침반의 위치를 찾지 못하는 몽돌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음

	
<p>범바위</p>	<p>범바위 전망대</p>
	
<p>범바위 인근 마을풍경</p>	<p>멀리서 바라본 범바위</p>
	
<p>공룡알 해변지에서 '땡큐'의 촬영모습</p>	<p>선녀와 나무꾼 연못</p>

<그림 5-13> 위성에코뮤지엄 2-범바위전망대 일대

라. 에코뮤지엄 자원평가

○ 농업유산형 에코뮤지엄 자원평가는 다음의 4가지기준으로 평가

기준 자원		공통			농업유산적 가치
		원형유지	농업·농촌과 관련성	중심과 위성간 연계가가능성	
중심 에코 뮤지엄	구들장 논	- 구들장논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통방식으로 농업시행 - 상서리마을의 돌담 마을경관 유지	- 세계중요농업유산인 구들장논의 형태를 잘 보전하고 있음 - 바람을 막기 위한 돌담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경관을 볼 수 있음	- 느린섬학교에서 숙박 및 각종 행사가 가능 - 에코뮤지엄센터와 연계가능성이 높음 - 위성 에코뮤지엄과 남북으로 연결하기 좋음	- 구들장논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매우 우수한 가치를 가짐
에코뮤 지엄 센터	도청향 일대	- 서편제 촬영지, 봄의 왈츠 촬영지도 농업경관의 모습을 유지 - 파시의 전통상업형태도 남겨져있음	- 다랭이논과 어우러진 전통적의 마을취락구조를 잘 보여줌 - 파시를 통한 반농반어촌의 마을경관을 보여줌	- 청산도의 서쪽에 위치하여 청산도로 들어오는 관문인 도청향이 위치 - 중심에코뮤지엄으로 이어지는 길을 중심으로 연계가능성이 높음	- 다랭이논과 어우러진 취락구조는 영화촬영지가 될 정도로 매우 우수한 경관가치를 가짐 - 파시는 전통반농반어촌마을경관을 보존하여 가치가 큼
위성 에코 뮤지엄	국화리 전통경 관마을	- 진산리 갯돌 해변과 방풍림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잘 유지	- 갯돌 해변과 방풍림 등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반농반어촌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청산도의 북쪽에 위치하여 중심에코뮤지엄과 에코뮤지엄센터와 연결	- 갯돌 해변과 방풍림 등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전통적 반농반어촌마을 경관이 우수
	범바위 전망대 일대	- 도동항을 내려다보는 경관이 뛰어난 - 범바위라는 우수자연경관이 잘 유지	- 도동항과 범바위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반농반어촌의 마을 경관이 우수	- 청산도의 남쪽에 위치하여 중심에코뮤지엄과 에코뮤지엄센터와 연결	- 도동항과 범바위의 자연경관이 매우 우수

마. 타사업실적

1) 추진사항

사업유형	사업명	세부사업	주요내용	
하드웨어	국가중요농업유산 종합계획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준비(소프트웨어사업과 함께 약15억)	농촌 집 고쳐주기, 리모델링	
	미향도청만들기	도청향 입구 가로환경정비	가로등 설치, 공원 조성	
		도청향미관포장	아스콘 및 잔디블록 포장, 슬로길 향토포장	
	가고싶은섬만들기 지원센터 조성	청산도 방문자센터 조성	방문자 지원센터 조성, 수협어판장 리모델링	
		향토역사문화전시관 조성	청산도 향토문화 소재의 전시공간 조성	
	마을정비사업	마을문화쉼터 조성	마을창고 리모델링을 통한 쉼터 조성	
		농어촌 체험관광 시범마을 정비	돌담 쌓기, 주차블럭 정비, 우물 조성	
		역사문화 시범마을 정비	돌담 쌓기, 청산진터 복원 등	
	친환경에너지 활용 프로젝트	-	노거수 쉼터/돌담정비(2개소)	돌담 쌓기, 덩굴식물 식재 등
			-	청산복지회관 태양광 설비 축조
	산책 등산로 정비	일주도로 등 꽃길 조성	슬로길 및 해안일주 도로 동산 및 꽃길 조성	
		해안경관 산책로 가꾸기	해안일주 도로 식재 개선 등	
	공원조성 정비	해안조망 쌈지 쉼터 조성	해안조망 쌈지쉼터 조성	
		역사문화 쌈지공원(고인돌 고원)	정자 설치 및 조경식재	
	야생화 천국섬 만들기	청산 파시 문화거리 조성	도청리 안통길 파시테마 거리 조성	
		슬로시티 느낌쉼터 조성	청산복지회관 앞 물양장 쉼터 조성	
		청산도 스토리 조형물 설치	도청향에 청산도 상징 조형물 설치	
		범바위 주변 야생화단지 조성	범바위 진입로 및 주차장 주변 정비	
	관광기반 구축	지리해수욕장 주변정비	전석쌓기 및 데크 조성	
		진산 갯돌밭 주변정비	돌담체험장 편의시설 및 화장실 설치	
관광안내체계 구축		주요 관광지 안내판 정비		
구들장논 복원/정비		구들장논 복원		
경관포인트 지점 관리	-	슬로길 주변 포토존 및 경관데크 조성		
전시 및 공연 프로그램	전시관·문화쉼터 프로그램 개발	청산호 선상전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명사와 함께 걷는 청산도 걷기 여행 개최		
	전통문화 보전 사업	양지리 청산도 구들장논체험장 조성 등		

사업 유형	사업명	세부사업	주요내용
소프트웨어	국가중요농업유산 종합계획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준비(하드웨어사업과 함께 약15억)	농촌인성학교 지정, 컨설팅 지원, 다차적 자원보전관리법 제정 등
	농어촌 체험관광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지원	1사1촌 자매결연 등 기업공동마케팅 추진
		소규모 농어촌마을 축제 기획/운영	슬로우건기축제, 청산휴가어울림한마당
		청산도 고유음식 개발	고유음식 요리법 엮서 제작 등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보급	생태문화콘텐츠 제작 및 보급	청산도 역사문화생태도감 제작 및 배포
	브랜드 개발 및 홍보마케팅	농수특산물 브랜드 개발	농산물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개발
		청산도 관광 및 농수특산물 홍보	농수특산물 달력 제작 및 보급 등
		홈페이지 및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슬로길, 문화·관광자원 소개 등
		청산도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가고싶은섬 사업에 대한 추진경과 소개 등
		가고싶은섬 청산도 SNS 운영	SNS를 통해 온라인상의 정보공유 강화
		숙박침구 지원사업	청산휴가 민박운영협의체 지원
	청산도 팸투어 프로그램	-	봄, 가을 총 4회 팸투어 실시
	워크숍 및 사업모니터링	-	사업총괄 자문회의 및 주민워크숍 추진
섬 내 친환경 개선 사업	섬 내 친환경 개선	친환경 경관 개선을 위한 컨설팅 시행	
	방문자센터 내부 인테리어 개선	슬로길 안내판 부착, 관광안내테스크 설치	
휴먼웨어	주민역량강화 사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고유음식 상품화, 문화해설가 과정 추진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기본과정, 사회적 사업가 양성 과정 추진

※자료: 가고싶은섬 시범사업 최종평가, 문화체육관광부(2011) 및 기타 내부자료

2) 문화행사 현황

향토문화 축제	시행일 (기간)	장소	축제주요내용	주최
청산도 슬로우건기 축제	4월	청산도 일원	느림메시지 전달, 느림의 종 타종, 나비야 청산가자(청산완보)	슬로우건기축제추진위원회

2. 기본방향 및 계획내용

가. 기본방향

1) 기본방향 구상

구분	핵심요소		현황	기본방향	
중심에코뮤지엄	전통농업		-세계적인 농업유산인 구들장논	보전	-청산도 휴경지 구들장논 경관농업 육성 -청산도 구들장논 학술연구 콘텐츠 개발
				활용	-청산도 구들장논 논활 프로그램 개발 -청산도 구들장논 오너제도
에코뮤지엄센터	전통농어촌		-다랭이논 등 우수농업경관 -3대 어시장 중 하나였던 파시의 옛 모습 존재 -도청항 방문자센터 존재 -청산도의 다양한 농어촌 문화 존재	보전	-청산도 다랭이논 경관농업 육성 -파시 복원을 통한 전통경관 재현
				활용	-도청항 에코뮤지엄 작은 박물관 -에코뮤지엄 청산도 보물섬
위성에코뮤지엄	국화리	마을경관	-마을경관을 보전 -해변과 방풍림이 어우러진 국화리 마을	보전	-국화리 전통경관마을 주택보수지원 -국화리 방풍림 복원
	활용			활용	-국화리 에코뮤지엄 작은 박물관
범바위일대	자연경관		-범바위, 칼바위, 말탄바위, 해너바위 등 자연경관 유지	보전	-자연경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활용	-자연경관자원 활용을 위한 포토존 설치

2) 기본방향 설정

- 중심에코뮤지엄으로서 전통농업유산인 구들장논, 다랭이논을 체험하고 상서리 돌담마을의 경관을 접할 수 있는 전통농어업생활공간이 되기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
- 에코뮤지엄센터로서 도청항일대는 초분, 파시, 풍어제 등 농촌 문화의 보전 및 활용을 극대화하고, 청산도를 들어오는 관문으로서, 청산도에 대한 종합정보를 지원할 수 있는 안내센터로 방향설정
- 주민공동체가 스스로 에코뮤지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직체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성장을 이끌어냄
- 위성에코뮤지엄으로서 국화리 마을은 중심에코뮤지엄과 에코뮤지엄센터와의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며, 자연경관의 우수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방안 모색

3) 목표설정



섬마을 특유의 농촌과 경관 생활문화를 주민 공동체가 이끌어가는 에코뮤지엄



<그림 5-14> 청산도 에코뮤지엄 조성의 기본방향

나. 계획수립 목적

- 청산도의 구들장논, 다랭이논, 작은 항구 등의 농어업자원, 돌담과 해안경관의 공간환경자원, 주민들의 전통적 삶과 공동체가 만들어 나가는 휴먼자원인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에코뮤지엄을 제시
- 청산도 슬로길, 구들장논 관련 사업으로 기조성된 시설 및 프로그램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청산도 4개 권역에 대한 연계 및 종합계획 및 관리방안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함
- 청산도 에코뮤지엄 관련 계획들은 이미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준비하면서 다수의 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이 부분은 ‘완도군(2014),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 종합계획 및 지표자원 조사분야 수립’을 중심으로 ‘완도군(2014), 청산도 농어촌 가치창조 특화사업 학술사업’, ‘완도군(2014), 청산도 농어촌 가치창조 특화사업 학술연구’ 등의 사업 등을 선별해내고, 일부분에 내용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한 계획을 추가하였음

다. 계획내용

1) 중심 에코뮤지엄 보전 및 활용계획

가) 보전계획

(1) 청산도 휴경지 구들장논 경관농업 육성

- 청산도는 현재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구들장논이 주는 경관에 관심이 많음
- 농지에 유채꽃, 청보리 등 경관작물을 식재할시 계절별로 다양한 경관을 연출하여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음
-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산기슭의 환경사지의 상당수가 휴경지로 방치된 상태이기에 이곳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음
- 경관가꾸기는 시민참여 및 각종 행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체험 프로그램 형태로도 진행가능
- 경관가꾸기는 단순한 물리적 사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청산도 고유의 문화와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임
- 경관가꾸기는 또한 휴경지에 식재를 통해 농업경관회복과 생태

복원의 의미도 갖게 됨



청산도 휴경기지 모습



청산도 경관농업의 사례

<그림 5-15> 상당수 눈에 띄는 휴경기지

- (2) 청산도 구들장논 학술연구 콘텐츠 개발
- 초반의 구들장논에 대한 연구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세계농업유산 등재 이후 많은 연구단체들인 협력하며 현재 구들장논에 대해 많은 연구네트워크가 생김
 - 현재 구들장논에 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GIAHS 주관 학술대회나 아시아 논 학회 등 우수 학술대회에서 발표함으로써 구들장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교류
 - 구들장논의 연구결과에 대해 도서 발간, 방송 제작 등을 통해 국

내 유산 전문가와 주민, 시민의 지식 공유



<그림 5-16> GIAHS 국제 학술대회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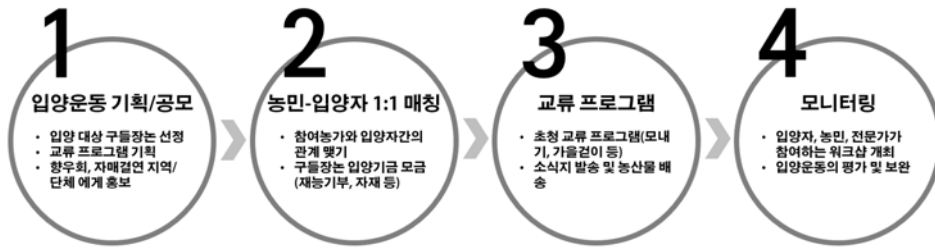


<그림 5-17> 구들장논에 대한 방송 및 연구논문

나) 활용계획

(1) 청산도 구들장논 오너제도

- 청산도 구들장논의 높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대기계 사용의 어려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업생산성 저하로 구들장논 중 휴경지가 계속하여 증가
- 구들장논을 경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고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요청
- 구들장논 오너제도를 통해 관광객 및 방문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관리를 도우며, 청산도 주민과 실질적인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함
- 협동조합, 농협, 지역향우회 등을 통해 농가와 1대 1로 연결하여 1년의 경작과정과 경작물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계획
-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구들장논 오너 명패만들기’, ‘봄맞이 모내기, 가을걷이 체험행사’, ‘구들장논 오너와 주민간 교류 프로그램’, ‘구들장논 소식지·농산물·기념품 전달’ 운영



<그림 5-18> 청산도 구들장논 오너제도의 단계

2) 에코뮤지엄센터의 보전 및 활용계획

가) 보전계획

(1) 청산도 휴경지 다랭이논 경관농업 육성

- 다랭이논은 청산도 특유의 농업경관자원임에도 상당수 농경지가 구들장논과 같이 휴경지로 방치되어 있음
- 다랭이논에 유채꽃, 청보리 등을 식재하여 경관농업 체험프로그램과 자원봉사 등을 이용하여 다랭이논에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경관을 복원할 수 있음
- 다랭이논의 경관이 복원된다면 더 많은 장소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될 것임

(2) 파시 복원을 통한 전통경관조성

- 파시는 우리나라 3대 어시장 중 하나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나, 운영이 되지 않아 예전의 전통문화경관을 쉽게 인지하기 힘들. 파시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도록 보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
- 파시의 빈 건물에 지역주민들이 와서 운영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지원책을 마련하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움
- 5일장 등의 형태를 통해 지역주민의 운영에 대한 노력을 줄이면 서도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날짜를 제시하여 운영

나) 활용계획

(1) 도청항 에코뮤지엄 작은박물관(키오스크)

- 도청항 방문자센터를 활용하여 테마가 있는 키오스크형 작은 박물관

물관을 조성

- 도청항 방문자센터를 조사하고 에코뮤지엄 작은박물관으로 활용하기 좋게 외관과 내부를 재정비
- 지역 고유의 농업관련 유물을 기부 및 저렴한 가격에 수집하여 박물관으로 활용
- 청산도 및 도청항 인근을 돌아볼 때 간단한 소개 브로셔를 받을 수 있는 에코뮤지엄 작은박물관으로 활용
-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거나 자원봉사를 통해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함



<그림 5-19> 진안 꽃잔디마을 박물관 사례 (외관:위, 내부:아래)

(2) 에코뮤지엄 청산도 보물섬(아카이브)

- 청산도의 풍경, 이야기, 사람, 문화 등 다양한 자원과 정보를 기록하고 전시할 수 있는 에코뮤지엄 보물섬(아카이브) 조성
- 청산도의 여러 무형 자원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관련 연구자 및 방문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아날로그, 혼합형으로 각각 나누어 관리하며, 계속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마련



<그림 5-20>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신화마을 아카이브전 사례



<그림 5-21> 서울 관악구 달동네 밤골마을 사진 아카이브 사례

3) 위성 에코뮤지엄 보전 및 활용계획

가) 국화리 전통경관마을

(1) 보전계획

(가) 국화리 전통경관마을 주택보수지원

- 생활문화형 전통경관마을로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므로 비지정문화재인 마을주택들의 원모습을 유지하기 위함
- 마을주택에 관해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수신청을 받은 후, 총 보수비용의 80%(자부담 20%)이내 및 1,000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 신청한 마을주택 중 최종 보수지원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향토사학자, 고건축분야 등)로 된 자문단을 구성함
- 보수 시에는 마을내부구조 및 주택의 원형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 관련 기념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국화리 전통경관마을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함



<그림 5-22> 제주도 전통경관마을 복원사례

(나) 국화리 방풍림 복원

- 국화리 해변에는 방풍림에 300년이 넘는 노송 800여 그루가 있는데 이는 마을을 지키는 우수한 경관자원임
- 이러한 경관자원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훼손 부분을 잘 파악하고 복원할 수 있도록 함
 - 병해충 또는 사람들의 방문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 마을사람들에게 국화리 방풍림을 잘 보전관리하고 관광객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도 병행



<그림 5-23> 국화리 방풍림의 모습



<그림 5-24> 마을숲으로 복원된 남해군 물건리 방조어부림 사례

- (2) 활용계획: 국화리 에코뮤지엄 작은 박물관
 - 국화리 곳곳에 산재해 있는 빈집, 창고를 활용하여 테마가 있는 키오스크형 작은 박물관 조성

나) 범바위 전망대 일대

- (1) 보전계획: 자연경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범바위 전망대를 중심으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섬마을에 대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범바위, 칼바위, 해녀바위, 공룡알해변지 등을 돌아보며 섬마을의 특이한 경관에 대해 알아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 (2) 활용계획: 자연경관자원 활용을 위한 포토존 설치
 - 범바위 인근의 자연경관을 더욱 잘 바라볼 수 있는 데크로드와 포토존을 설치하여 더 많은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함

4) 연계계획

가) 에코뮤지엄 테마별 교통서비스

- 청산도 에코뮤지엄 전 구간을 순환하는 전기차, 친환경 버스, 전기자전거 등 테마가 있는 교통 수단 운영
- 버스의 경우 청산도 내를 운행하는 기존 마을버스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선 증편, 에코뮤지엄과 농업유산지역을 경유하도록 노선 변경, 친환경 버스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최소화

- 전기차와 전기자전거 대여시스템도 설치하여 가까운 거리 이동 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경관자원, 농업자원, 인적자원별로 다른 방식으로 청산도를 돌아 볼 수 있는 테마별 교통서비스 MAP을 제시



<그림 5-25> 경주, 전주 무료셔틀(좌), 포항 관광을 위한 자전거 대여소(우)

나) 스마트폰 이용 청산도 루트 안내 어플리케이션 개발

- 청산도에는 다양한 루트의 길이 있으나 길의 형태나 경사도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관광객 이동에 어려움을 야기
- 스마트폰을 이용한 청산도 내비게이션 시스템 운영하여 관광객들이 이동루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지원받도록 도움
- 스마트폰을 이용한 안내는 다양한 관광물의 설명과 추천관광루트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차량과 자전거, 보도 이용시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세부 프로그램 어플을 개발





<그림 5-26> 스마트폰 관광정보 제공 사례

5) 추진체계 구축

가) 논 생태 예술제

- 청산도 구들장논의 풍경과 자연생태, 예술이 어우러지는 융합형 참여 예술축제 프로그램 운영

나) 구들장논 체험여행 상품으로 구들장논학교와 연계한 논활

- 청산도 농/특산품, 조개공예를 활용한 관광 기념품, 에코백 등 에코 뮤지엄 관련 아트상품 개발/판매

다) 에코뮤지엄 특산품/ 관광기념품 개발/ 판매

- 청산도 농/특산품, 조개공예를 활용한 관광 기념품, 에코백 등 에코뮤지엄 관련 아트상품 개발/ 판매

라) 주민공동체 비즈니스로서 달팽이 여행사 운영

- 청산도 관광 주민공동사업 및 관리운영 조직체로서 에코뮤지엄 청산도의 체험, 음식, 숙박,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달팽이 여행사 설립/운영
- 청산도는 현재 매년 3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오므로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여행사 또는 전문 운영기관에 위탁.
- 다만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운영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주민협의회(중간지원조직)가 돌려받아 주민추진체계 운영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

마) 에코뮤지엄 전통문화경관 보전지원

- 청산도의 전통문화경관(논 쟁기질, 해녀물질, 전통어업 방식-취리 등)을 보전/형성해 나가는 활동 지원

바) 에코뮤지엄 청산도 해설사 양성

- 청산도 슬로길 및 구들장논 체험 코스 중심의 해설 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라. 종합

구분			주요 내용
중심에코뮤지엄	구들장논 일대	보전	<p>청산도 휴경지 구들장논 경관농업육성</p> <p>청산도 구들장논 학술연구 콘텐츠 개발</p>
		활용	<p>청산도 구들장논 오너제도</p>
		<p>청산도 휴경지 구들장논 오너제도를 통해 관광객 및 방문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관리를 도우며, 청산도 주민과 실질적인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함</p>	
에코뮤지엄센터	도청항 일대	보전	<p>청산도 다랭이논 경관농업육성</p> <p>파시 복원을 통한 전통문화 프로그램</p>
		활용	<p>청산도 다랭이논에 체험프로그램 및 자원봉사를 통해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다양한 경관을 연출</p> <p>파시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도록 보전</p>
	에코뮤지엄 청산도 보물섬	<p>도청항 에코뮤지엄 작은 박물관</p>	<p>도청항 방문자센터를 활용하여 테마가 있는 키오스크형 작은 박물관 조성</p>
		<p>에코뮤지엄 청산도 보물섬</p>	<p>청산도의 풍경, 이야기, 사람, 문화 등 다양한 자원과 정보를 기록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인 에코뮤지엄 청산도 보물섬 조성</p>
위성에코뮤지엄	국화리 마을	보전	<p>국화리 마을 주택보수지원</p> <p>국화리 방풍림 복원</p>
		<p>생활문화형 전통경관마을로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므로 비지정문화재인 마을 주택들의 원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지원 실시</p> <p>국화리 해변 일대의 방풍림을 복원하여 경관자원으로 활용</p>	

	활용	국화리 에코뮤지엄 작은 박물관	- 국화리 곳곳에 산재해 있는 빈집, 창고 등을 활용하여 테마가 있는 키오스크형 작은 박물관 조성
범바위 전망대	보전	자연경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범바위, 칼바위, 해녀바위, 공룡알해변지 등을 돌아보며 특이한 자연경관에 대해 알아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	자연경관자원 활용을 위한 포토존 설치	- 범바위 일대의 자연경관을 더욱 잘 바라다볼 수 있는 데크로드와 포토존 설치
연계 계획	에코뮤지엄 교통서비스	테마별	- 청산도 에코뮤지엄 전 구간을 순환하는 전기차, 친환경 버스, 전기자전거 등 테마가 있는 교통 수단 운영
	스마트폰 이용 청산도 루트 안내		- 스마트폰을 이용한 청산도 내비게이션 시스템 운영하여 관광객들이 이동루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지원받도록 도움
추진 체계 구축	논 생태 예술제		- 청산도 구들장논의 풍경과 자연생태, 예술이 어우러지는 융합형 참여 예술 축제 프로그램 운영
	구들장논 체험여행상품, 구들장논학교/논활		- 청산도 농/특산품, 조개공예를 활용한 관광기념품, 에코백 등 에코 뮤지엄 관련 아트상품 개발/판매
	에코뮤지엄 특산품/관광기념품 개발/판매		- 청산도 농특산품, 조개공예를 활용한 관광기념품, 에코백 등 에코 뮤지엄 관련 아트상품 개발/ 판매
	주민공동체 비즈니스, 달팽이여행사 운영		- 청산도 관광 주민공동사업 및 운영 조직체로서 에코뮤지엄 청산도의 체험, 음식, 숙박, 교통 등이 연계된 달팽이 여행사 설립/ 운영
	에코뮤지엄 전통문화경관 보전지원		- 청산도의 전통문화경관(논, 쟁기질, 해녀물질, 절통어업 방식-휘리 등)을 보전/형성해 나가는 활동 지원
	에코뮤지엄 해설사 양성	청산도	- 청산도 슬로길 및 구들장논 체험 코스 중심의 해설 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마. 기대효과

구분	기대효과	내용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구들장논의 가치 제고	-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구들장논에 대한 우수성과 보존적 가치를 널리 알림
	청산도의 브랜드 가치 제고	- 구들장논과 다랭이논 등의 농업자원, 해변의 아름다운 경관자원, 인적자원을 통합한 청산도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고취
	농촌생활문화 보전	- 청산도 특유의 일대의 전통 농어촌생활문화를 보전하여 많은 관광객들에게 널리 파급시킴 - 구들장논, 파시, 초분 등을 집약하여 볼 수 있는 농어촌에코뮤지엄으로서 사회·문화적 역할 기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민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청산도 주민들에게 ‘주민공동체 비즈니스, 달팽이 여행사 운영’, ‘에코뮤지엄 청산도 해설사’ 등의 교육을 통해 지역민으로서의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 시킴 - 청산도 특유의 농어촌생활문화 요소들을 재발견하여 새로운 세대에게 전승함
	기투입된 농어촌사업효과 극대화	- 청산도 슬로길이 가지고 있던 루트개발의 장점에 농어업자원의 콘텐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연계상생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결과물을 활용하고 연계하여 청산도를 종합적 시각에서 관리할 수 있는 운영기법을 도입하여 관광객 증가를 기대
	부가가치 유발효과	- 농어촌 에코뮤지엄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청산도 일대에 관광객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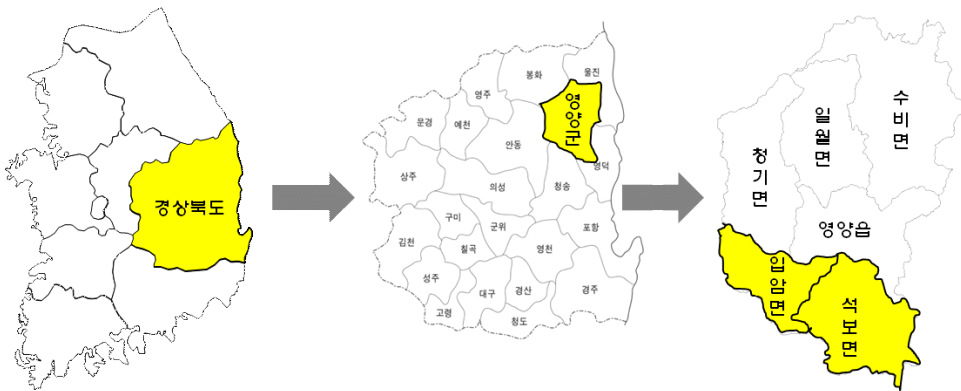
제3절 전통문화형 에코뮤지엄 시범 조성

1. 대상지 개요

가. 지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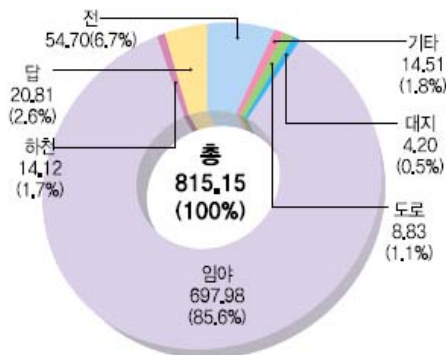
1) 위치

- 본 대상지(석보면과 입암면)가 속한 경상북도 영양군은 경상북도 동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봉화, 울진, 안동, 청송, 영덕과 경계를 이루고 있음



<그림 5-27> 대상지 위치

- 영양군은 임야가 총면적의 8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경지의 73%가 밭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산촌지역임



<그림 5-28> 영양군 지목별

자료: 영양군 통계연보(2013)

- 영양군은 다양한 전통생활문화와 특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전통 마을과 음식문화, 조경문화, 토종 고추 등 농촌에코뮤지엄으로서 가능성이 높은 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
- 대상지인 석보면과 입암면은 영양군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통마을인 원리 두들마을과 연당리 연당마을 등이 있어 전통생활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지역임

2) 행정구역

- 석보면(122.03km²)은 20개의 행정리(13개 법정리)와 43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음
 - 13개 법정리: 원리리, 지경리, 옥계리, 소계리, 답곡리, 신평리, 택전리, 화매리, 포산리, 삼의리, 요원리, 흥계리, 주남리
- 입암면(79.06km²)은 19개의 행정리(13개 법정리)와 36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음
 - 13개 법정리: 연당리, 교리, 금학리, 노달리, 애천리, 방전리, 병옥리, 산해리, 삼산리, 신구리, 신사리, 양항리, 흥구리

3) 대상지의 접근성

- 대상지는 영양군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31번국도로 접근이 가능함
- 석보면은 동쪽은 영덕군 창수면·영해면, 남쪽은 영덕군 지품면, 서쪽은 청송군 진보면, 북쪽은 영양읍에 접함
- 입암면은 동쪽으로 석보면, 남쪽은 청송군, 서쪽은 안도시 임동면, 북쪽은 영양읍에 접함
- 대중교통으로는 서울 동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매일 출발하는 정기버스와 부산에서 출발하는 안동행 정기버스를 이용한 후, 안동에서 영양행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함

4) 연혁

- 석보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진보군 동면 창상동 일부와 포산, 삼의, 택전, 화매 등을 병합하였으며, 이 지역이 신라시대 석보부곡의 고지로 명칭을 계승하기 위하여 석보면으로 칭하였음
- 입암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영양군 남면(5개리)과 진보군 북면(6개리), 안동군 임동면 (산해리)일부를 병합하여 연당에 있는 선바위의 이름을 따서 입암으로 명칭을 정함

나. 대상지현황

1) 인구 및 농경지현황

- 석보면은 1,196가구(2,271명)가 살고 있으며, 입암면은 1,191가구(2,408명)가 생활하고 있음
- 석보면은 임야가 83.4%를 차지하며, 입암면은 75.2%를 차지하고 있음

[표 5-7] 인구 및 농경지현황

2012년기준

구분	인구수(명)			가구수(호)			면적(ha)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답	전(과수원)	임야	기타
계	4,710	2,329	2,381	2,387	1,654	733	20,102	831	1,871	16,121	1,279
석보면	2,302	1,160	1,142	1,196	862	334	12,195	367	1,037	10,173	618
입암면	2,408	1,169	1,239	1,191	792	399	7,907	464	834	5,948	661

*자료: 영양군 통계연보(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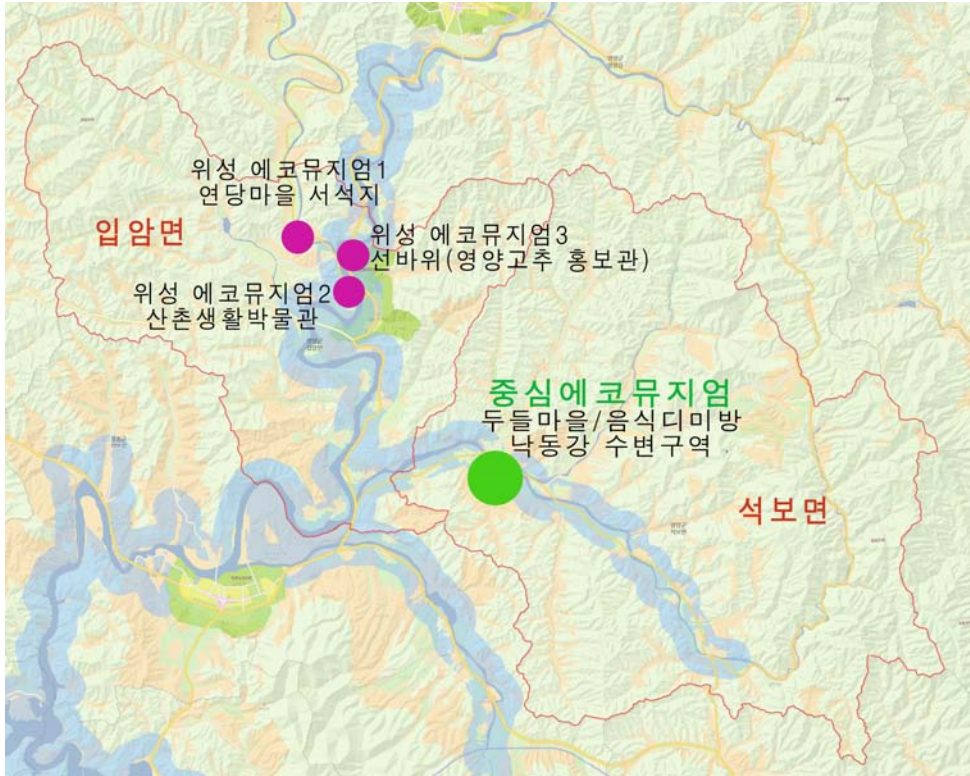
2) 인적자원 확보현황

- 석보면은 17개의 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음

[표 5-8] 석보면 사회단체현황

단체명	대표자	주소
원리권역운영위원회	이병철	석보면
병암회	권정락	석보면 원리3길3
리장협의회	김병희	석보면 홍계길 91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김선배	석보면 소계2길 30
새마을부녀회	권분영	석보면 원리길 14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	이운우	석보면 원리길 23
석맹청년회	김명도	석보면 옥계3길 10-1
의용소방대	김상호	석보면 원리길 63
농업경영인회	김광형	석보면 건들길 11-3
농촌지도자회	김길동	석보면 석영로 271-2
생활개선회	윤복자	석보면 중논실길 5
자율방범대	박문환	석보면 답곡로 61
유도회	이병순	석보면 원리2길 21

다. 에코뮤지엄 자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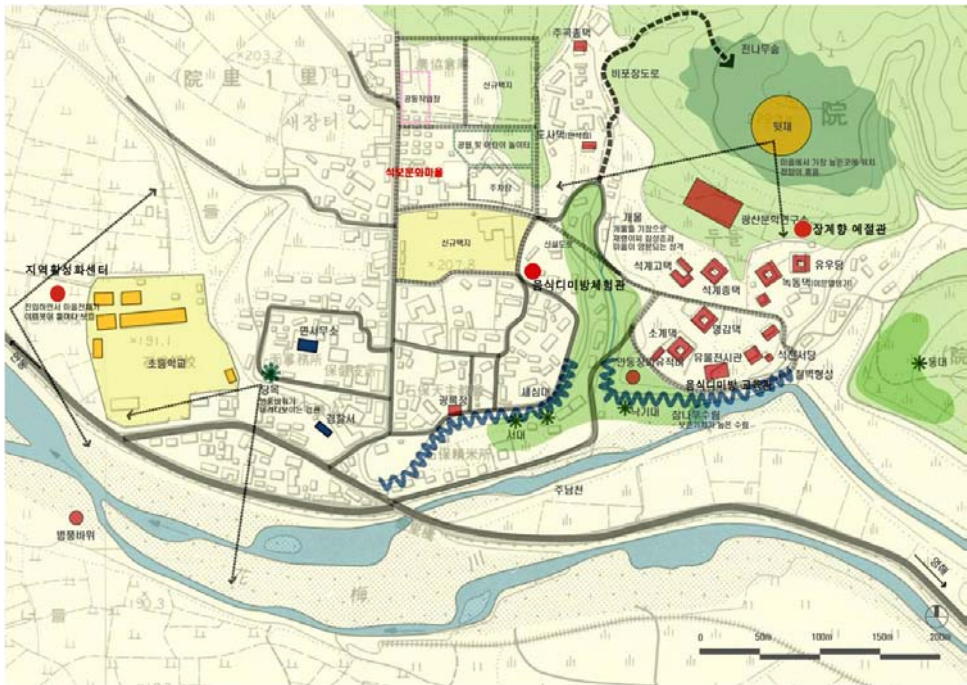
<그림 5-29> 에코뮤지엄 자원현황

1) 중심 에코뮤지엄

- 대상지의 중심 에코뮤지엄은 영양군의 대표적인 전통마을인 석보면 원리 2리에 위치한 두들마을로 설정함
- 두들은 재령이씨 집성촌으로서 많은 한옥이 남아있으며, 마을안길과 담장, 안동장씨 유적비, 낙기대, 세심대, 동대, 광록정 등의 유적과 석보8경 등 남아있음
 - 석계고택: 경상북도 민속자료 91호(석보면 원리리 308)
 - 원리주곡고택: 경상북도 민속자료 114호(석보면 원리리 354)
 - 석천서당: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79호(석보면 원리리 109)
 - 유우당: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285호(석보면 원리리 106)
 - 광록정(석보면 원리리 275)
- 특히 정부인 안동장씨(1598-1680)가 남긴 요리서인 '음식디미방(17

세기 중엽)’은 그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음식문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헌으로서 146개항에 달하는 음식조리법이 한글로 쓰여졌으며, 현재 음식디미방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어 2012년 2500여명이 체험관을 이용하였음

- 안동장씨 유적비
 - 음식디미방 체험관, 교육관, 전시관
 - 여중군자 장계항 예절관
- 영양원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활성화센터(2010)를 개관하고 목욕탕, 교육관, 농산물판매장, 쉼터 등이 조성되어 운영 중



<그림 5-30> 중심에코뮤지엄-두들마을 현황(1)

	
<p>두들마을 주차장</p>	<p>두들마을 입구 전경</p>
	
<p>음식디미방 교육관 및 전시관</p>	<p>음식디미방 체험관</p>
	
<p>두들책사랑</p>	<p>예절교육관</p>
	
<p>음식디미방 전통주 담기 체험</p>	<p>고가음악회</p>

<그림 5-31> 중심에코뮤지엄-두들마을 현황(2)



면소재지 마을 전경



석보면사무소



석보면소재지 전경



석보문화마을전경



석보면 지역활성화센터(1)



석보면 지역활성화센터(2)



지역활성화센터내 목욕탕



면소재지내 담장

<그림 5-32> 중심에코뮤지엄-면소재지 현황

2) 위성 에코뮤지엄

○ 위성 1: 연당마을(입암면 연당리)

- 입암면 연당마을의 서석지는 국가지정 중요 민속문화재 제 108호로서 조선시대 민가의 조경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임
- 서석지는 석문 정영방(1577-1650)이 1613년에 조성한 별서⁴⁰⁾(別墅)로서 조선시대 민가정원을 잘 보여주는 유적임. 전체적인 배치는 연못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경정(敬亭, 정자)을 북쪽에는 주일재(主一齋, 서재)를 세웠으며, 경정 뒤쪽에는 수직사(守直舍)를 두었으며, 연못 북쪽에는 네모난 단을 조성하였는데, 여기에는 매화, 국화, 소나무, 대나무를 심어 사우단(四友壇)이라 하였음
- 연못의 이름은 가운데의 60여개의 암반인 서석군(瑞石群)에서 유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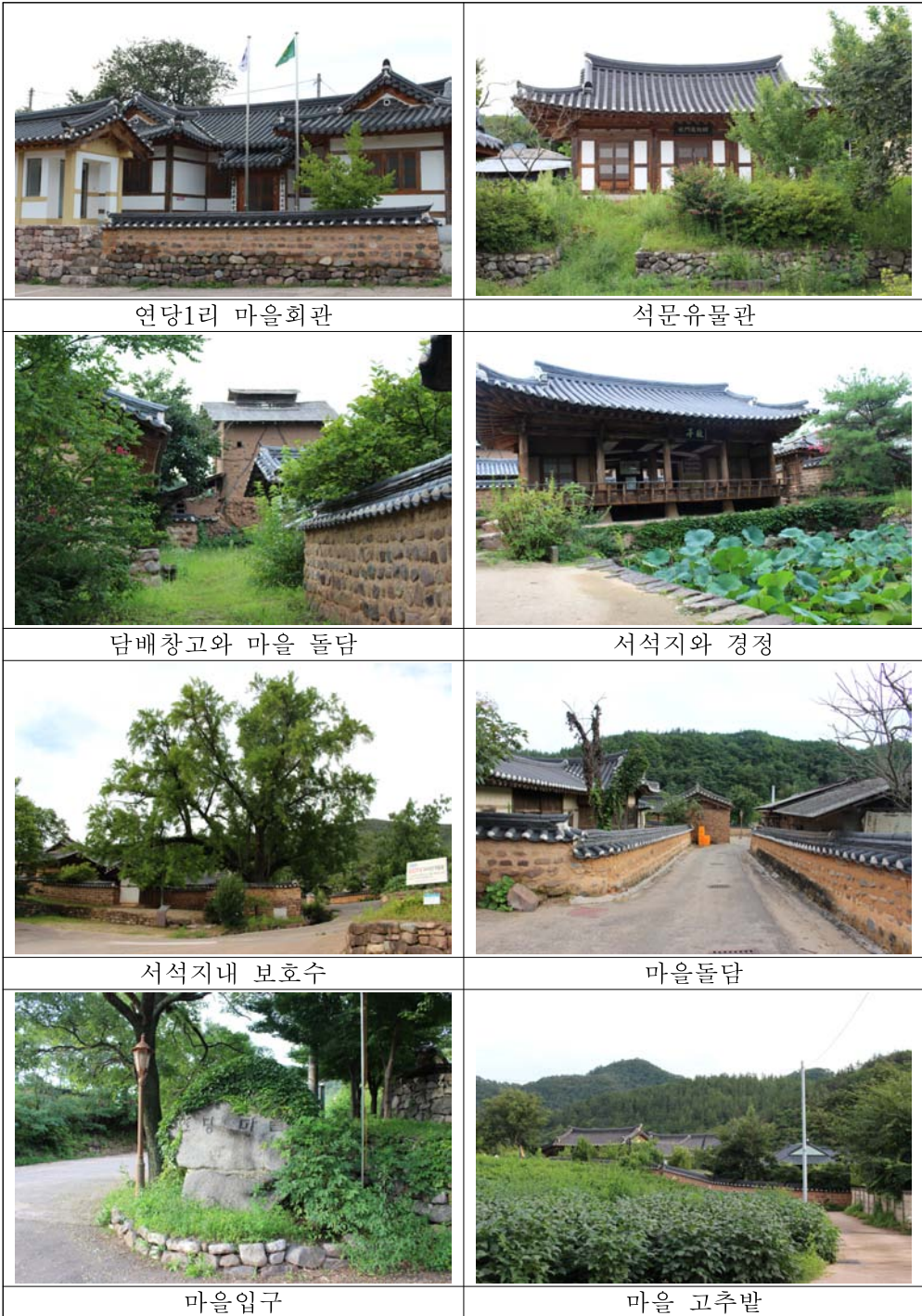
○ 위성 2:영양산촌생활박물관(입암면 연당리 20)

-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에 위치한 산촌박물관은 산악이 발달한 북부지역의 산촌문화를 조사·연구·전시·교육하기 위하여 건립되었으며, 산촌생활과 관련된 유물전시와 생활상의 재현을 통해 시대적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야외 전시장에는 투방집과 너와집 등 전통가옥을 볼 수 있으며 전통생활체험장, 자연생태체험장 등이 조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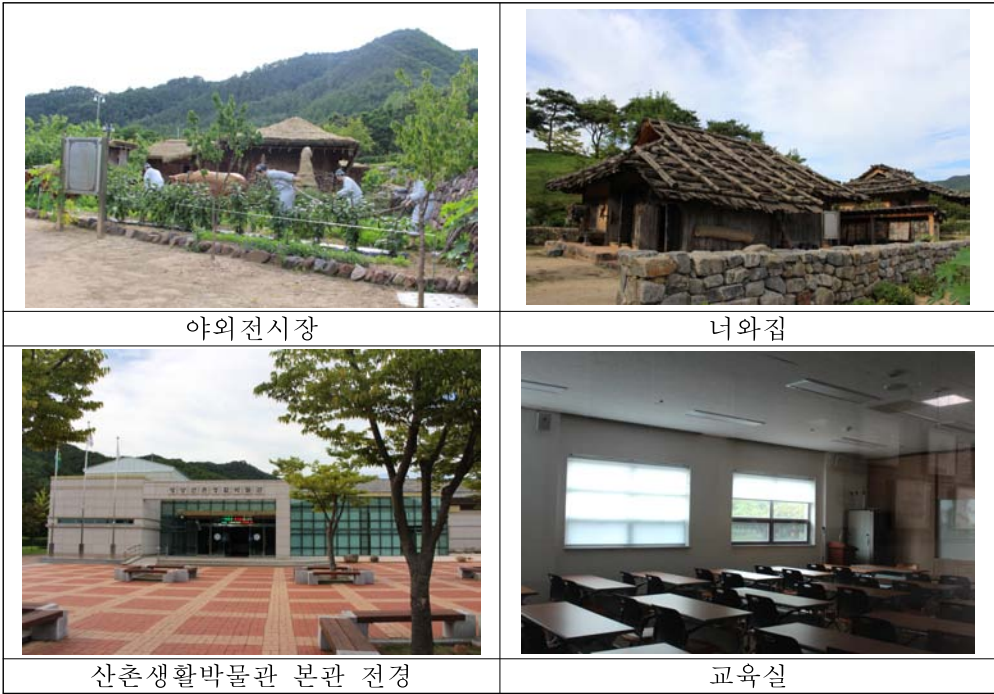
○ 위성 3:선바위 영양고추 홍보관(입암면 신구리 95-7)

- 영양군 입암면 신구리에 위치한 선바위 관광지내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위치
- 영양고추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층규모로 건립하였으며, 주요시설로는 테마관, 홍보관, 영상관, 농수산직판장으로 구성

40) 조선시대 별서란 문인들이 세속을 피해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지었던 주택의 한 유형으로 별장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농사를 짓던 곳을 의미하며, 이곳에 부속된 정원을 특별히 별서정원이라 칭함



<그림 5-33> 위성에코뮤지엄 1-연당마을 현황



<그림 5-34> 위성에코뮤지엄 2-산촌생활박물관



<그림 5-35> 위성에코뮤지엄 3-선바위 영양고추 홍보관

라. 에코뮤지엄 자원평가

○ 전통문화형 에코뮤지엄 자원평가는 다음의 4가지기준으로 평가

기준		공통			전통문화형
		원형유지	농업·농촌과 관련성	중심과 위성간 연계가능성	살아있는 생활문화
중심 에코뮤지엄	두들마을	-고택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축된 교육관 등도 전통양식을 따르고 있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으로 마을내부길 등이 정비되어 원형 상실	-농촌의 전형적인 양반마을 -농작물을 활용한 음식문화	-위성에코뮤지엄과 도로 및 하천으로 연계가능성 높음 -지역활성화센터, 두들마을 시설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에코뮤지엄의 중심지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음	-인접한 문화마을과의 경관의 상이성 등으로 이질감이 있음 -면소재지는 주민생활공간으로 활기가 있으나, 두들마을은 주민들의 활기찬 생활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음
	연당마을	-서석지를 중심으로 마을내부길, 고택, 진흙으로 만든 담배창고 등이 원형대로 남아 있음	-농촌의 전형적인 양반마을	-위성에코뮤지엄들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연계가능성이 높음 -중심에코뮤지엄(두들마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가능	-마을내부길, 마을회관, 마을주민들이 서석지를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살아있는 농촌마을로 남아있음
	산촌생활박물관	-사라져버린 산촌생활상을 박물관형태로 재현	-산촌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음	-위성에코뮤지엄들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연계가능성이 높음	-박물관으로 재현해 놓은 자원으로 박제(剝製)형
위성 에코뮤지엄	영양고추홍보관	-영양고추 재배과정 등을 재현	-산촌의 환금성이 높은 특작물로서 재배되었던 고추농사의 중요성이 높음	-위성에코뮤지엄들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연계가능성이 높음	-전시관으로 재현해 놓은 자원으로 박제(剝製)형

마. 타사업실적

1) 추진실적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재원	주요사업내용	주요성과
석보면 원리권 역농촌마을중 합개발사업	7,000	2005~ 2009	농림축산 식품부/영 양군	소득기반시설, 관 광프로그램, 지역 활성화센터 등	체험관광, 기초생활 환경정비
석보면 화매 권역 종합정 비사업	4,570	2013~ 2016	농림축산 식품부/영 양군	다목적복지회관, 탐방로 조성 등	기본계획 수립/진행 중
입암면 선바 위권역 농촌 마을종합개발 사업	5,500	2010~ 2014	농림축산 식품부/영 양군	다목적광장, 건강 관리실 신축, 부 용봉 생태탐방로 등	1단계사업 완료
입암면 사래 마을 미래형 농어촌마을재 개발사업	2,136	2010~ 2013	농림축산 식품부/영 양군	신규택지조성 및 기존마을정비	보상지연 으로 토지 수용절차 진행 중
입암면소재지 정비사업	6,500	2013~ 2016	농림축산 식품부/영 양군	면소재지 정비사 업	진행 중

2) 문화행사 현황

향토문화축제	시행월 (기간)	장소	축제주요내용	주최
두들마을 어린 이축제	5월	두들마을 일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음 식디미방체험, 모내기체 험 등	원리권역운영 위원회

2. 기본방향 및 계획내용

가. 기본방향

1) 기본방향 구상

구분	핵심요소		현황	기본방향
중심에코뮤지엄	전통문화	전통마을	-두들마을을 중심으로 한 재령이씨 집성촌	-보전:살아있는 두들마을로 만들기 위하여 장기체류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지역활성화센터 등 기 조성된 시설 활용도 극대화
		음식문화	-음식디미방 체험관 등 운영(요리 및 식사) -음식디미방에 나온 요리법 전승 -전통예절교육	-보전: 에코뮤지엄 해설사양성 -활용:음식디미방과 관련된 음식점을 일회성 체험 뿐만 아니라 상설화방안 모색
위성에코뮤지엄	전통문화	전통마을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 서석지 -전통경관을 보전하고 있는 연당마을(연당1리)	-보전:주민들의 주택 및 마을내부경관유지를 위한 공공의 지원 -활용:중심 및 에코뮤지엄간 연계
		산촌생활	-산촌생활박물관 운영	-보전:산촌생활 교육프로그램 개발 -활용:에코뮤지엄 해설사 교육
	전통농업	영양고추	-선바위 관광지 영양고추 홍보관운영	-보전:영양토종고추 수비초재현 -활용:영양군 농특산물 직판장과 영양고추 브랜드 '빛갈찬' 활성화

2) 기본방향 설정

- 중심에코뮤지엄으로서 두들마을이 박제(剝製)형 보전공간에서 벗어나 살아숨쉬는 전통생활문화공간이 되기 위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함
- 위성에코뮤지엄으로서 연당마을은 두들마을을 보완하면서 긴밀한

- 연계를 통해 보전과 활용을 극대화하고 마을내부길, 마을회관, 주택 등을 보전하기 위한 공공지원방향설정
- 두들마을, 연당마을, 산촌생활박물관, 영양고추홍보관 등의 생활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에코뮤지엄해설사 양성
 - 반변천, 화매천을 중심으로 중심/위성 에코뮤지엄간 연계방안 모색

3) 목표설정



나. 계획수립 목적

- 기존의 관광일변도의 활성화 방안을 지양하고 농촌생활문화의 보전과 활용의 균형을 취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석보면 원리권역, 화매권역, 입암면 선바위권역)으로 기조성된 시설 및 여기에 참여했던 마을들에 대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운영방안을 찾기 위하여 각기 분리되어 운영되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권역들을 통합하여 시너지효과를 기대함

다. 계획 내용

1) 중심 에코뮤지엄 보전 및 활용계획

가) 보전계획

(1) 두들마을 완충녹지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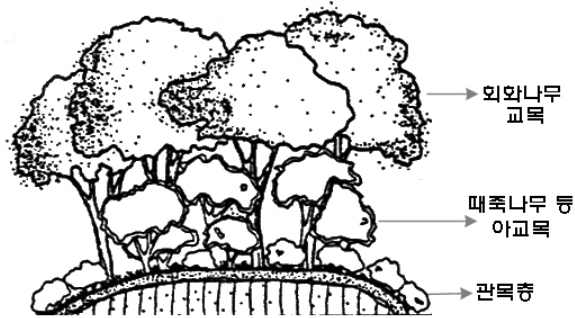
- 현재 두들마을과 도로하나를 경계로 신규로 조성된 석보문화마을이 위치하여 이질적 경관을 연출하고 있음
- 석보문화마을과 두들마을경계를 이루고 있는 도로(약 6m)에 향토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하고 하층부에는 다층식재를 하여 완충녹지역역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종은 선비를 상징하는 회화나무를 중심으로 조성



<그림 5-36> 두들마을 완충녹지조성계획



<그림 5-37> 현재
신규주택지(석보문화마을)전경



<그림 5-38> 다층구조식재예시

나) 활용계획

(1) 두들마을 장기체류 프로그램

- 현재 두들마을의 시설들을 적극 활용하고 박제(剝製)형 전통마을이 되지않기 위하여 두들마을 장기체류 프로그램을 개발
- 고택 및 예절교육관을 활용하여 문학 및 예술분야 작가들의 레지던스를 지원하여 주중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유도해 나감

(2) 두들마을내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시설 확충

- 두들마을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석보면지역 노인들을 위한 ‘공동생활홈’으로 활용함

(3) 에코뮤지엄센터

- 현재 지역주민들의 목욕탕(1층)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활성화 센터의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에코뮤지엄 센터로 활용
-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2층의 사무실과 정보영상관을 석보·입암면 에코뮤지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를 할 수 있는 에코뮤지엄센터로 활용하고, 외부의 주차장 및 조경시설을 활용하여 자전거길 코스의 출발점으로 함



외부조경시설

2층 유희공간(사무실, 정보영상실)

<그림 5-39> 에코뮤지엄센터로 활용가능한 지역활성화센터 시설



<그림 5-40> 에코뮤지엄센터 구상(지역활성화센터 활용)



<그림 5-41> 안동하회마을 관광안내센터

(4) ‘음식디미방’ 일품요리개발

- 현재 음식디미방 체험관에서는 10명이상 예약했을 경우에만 음식디미방 조리서에 나온 요리를 먹어볼 수 있게 되어 있어 가족단위나 개별 방문객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 한정식(5만원, 3만원)만 이용가능함
- 특히 두들마을 인근에는 별도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일반 방문객들이 머무르기 불편한 상황임
- 음식디미방에 나오는 요리를 간소화하여 일반 방문객들이 음식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2) 위성 에코뮤지엄 보전 및 활용계획

가) 연당마을

(1) 보전계획: 연당마을 주택보수지원

- 마을안길 등 전통문화형 농촌마을로서 옛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므로 비지정문화재인 마을주택들의 원모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수지원을 실시함
-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수신청을 받은 후, 총 보수비용의 80%(자부담 20%)이내 및 1,000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함

- 신청한 마을주택 중 최종 보수지원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향토사학자, 고건축분야 등)로 된 자문단을 구성함
- 보수시에는 마을내부구조 및 주택의 원형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2) 활용계획: 마을입구 한뼨공원 확충

- 연당마을 입구에 마을주차장과 공공화장실이 있으나 별도의 휴게시설이 없어 방문객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장소가 없는 상황임
- 마을입구에 한뼨공원(휴게시설)을 확충하여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함



<그림 5-42> 연당마을 입구 현황



<그림 5-43> 연당마을 입구 한뼨공원

나) 산촌생활박물관

(1) 보전계획: 산촌생활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 야외 교육장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함
- 쟁기질, 고추밭(농사체험), 서낭당(민속종교체험), 투방집, 너와집, 굴피집(산촌 주생활 체험)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2) 활용계획: 에코뮤지엄 교육장

- 산촌생활박물관에서 에코뮤지엄과 관련된 교육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련 단체에 시설대관을 할 수 있도록 함
- 영양산촌생활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전통문화의 보존, 보급, 연구,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의 경우 기획전시실과 세미나실 대관이 가능

- 본관에 위치한 교육실(30명 수용가능) 및 기획전시실을 활용하여 에코뮤지엄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인력(지역사랑평생교육, 에코뮤지엄 해설사)을 양성하는 장소로 활용
- 산촌생활박물관에서 에코뮤지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홍보효과 및 관람객 증가 유도



<그림 5-44> 에코뮤지엄 교육장소



<그림 5-45> 에코뮤지엄 교육장소 제공

다) 영양고추홍보관

(1) 보전계획: 영양 토종고추 수비초 재배장 조성

- 영양의 토종고추인 ‘수비초’를 심은 밭을 조성하여 산촌에서 환금작물로서 담배에서 고추로 변화해간 역사를 재조명하고 토종고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
- 수비초는 매운맛과 단맛이 적절히 어우러진 재래종 고추로 1960년대 영양군 수비면 일대에서 재배되던 품종이었으나 일반종묘업체에서 파는 다수확 품종과 섞여 교잡종으로 바뀌는 바람에 1990년대 이후 사라짐
- 농가에서 재배할 경우 시판종 고추에 비해 병해충에 약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한데다 생산량이 적은 관계로 인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농가들의 오랜 숙원이었음.
- 2012-2014년까지 경북도 농업기술원 영양고추시험장에서 육성하는데 성공하여 다수확용 수비초 신계통을 2016년부터 일반농가에 분양할 예정



<그림 5-46> 영양고추홍보관 수비초 재배장 조성 대상지

(2) 활용계획: 고추장 카페 운영

- 영양고추 브랜드 ‘빛깔찬’을 에코뮤지엄과 연계하여 활성화시키고, 영양고추홍보관내 고추장을 활용한 요리를 선보일 수 있는 카페를 운영함
- 영양고추홍보관내 위치한 특산물 직판장은 홍보관 밖에 위치한 영양군 농특산물직판장과 그 기능이 중복되므로 이 공간을 ‘(가칭)고추장카페’로 리모델링하여 위탁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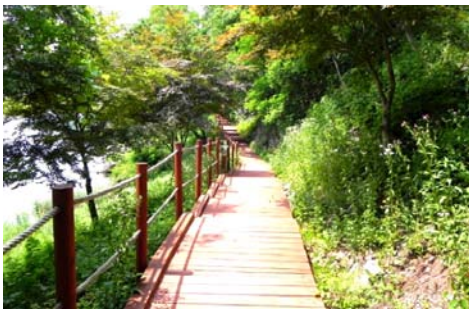


<그림 5-47> 영양고추 홍보전시관내 (가칭)고추장카페 운영

2) 에코뮤지엄간 연계계획

가) 반변천 트래킹

- 위성 에코뮤지엄인 연당마을, 산촌생활박물관, 영양고추 홍보전시관을 반변천을 따라 산책이 가능한 트레킹코스가 이미 개발되어 있으므로 에코뮤지엄에 대한 안내판 설치 등 소규모 비용으로 활성화가 가능함



남이포 산책로



반변천 석문교

<그림 5-48> 반변천 트레킹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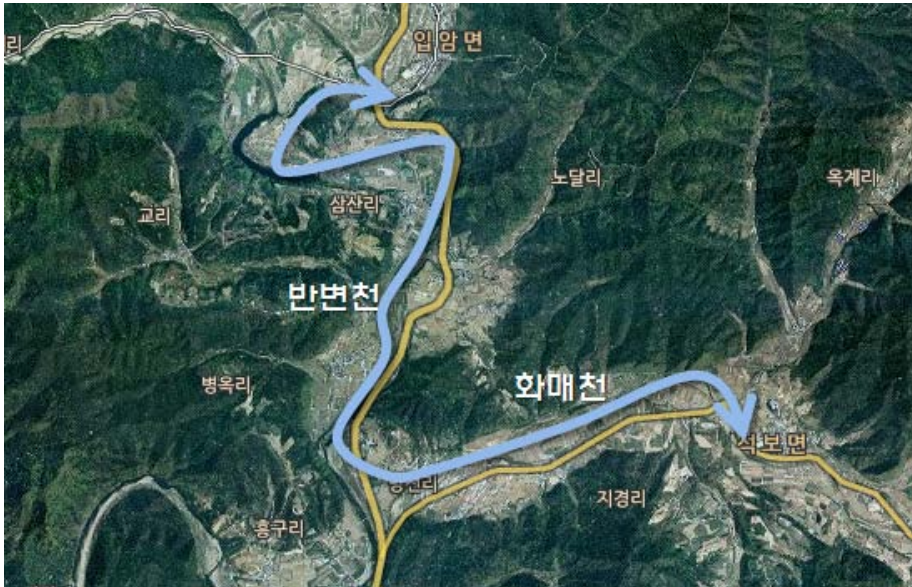
- 주말에는 중심에코뮤지엄(두들마을)에서 영양고추홍보전시관(선바위관광지내)까지 이동하는 에코뮤지엄 순환버스를 이용하여 방문객이 편리하게 위성에코뮤지엄을 반변천을 통해 걸어서 관람이 가능하도록 함
- 주중 하루에 1회(오후 4시), 주말에는 하루에 3회(오전 10시, 오후 2시, 4시) 정해진 시간에 입암면 권역의 에코뮤지엄 해설사가 대기하여 방문객과 함께 이동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



<그림 5-49> 반변천 트레킹 세부내용

나) 자전거길 개발

- 중심에코뮤지엄과 위성에코뮤지엄 연계를 위해 화매천변을 따라 반변천으로 이어지는 자전거길 코스를 개발하여 방문객들이 자전거로도 이동 가능하도록 조성
- 하천변을 따라 약 10km의 자전거길을 통해 약 1시간 소요예정
- 중요지점에 휴게시설 도입



<그림 5-50> 자전거길 노선도



<그림 5-51> 안동 하회마을 무료셔틀버스 사례

3) 추진체계 구축

가) 지역사랑평생교육

-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석보면과 입암면에 관한 문화적·역사적 사실들을 재발굴하고 이를 지역민들과 공유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
- 일주일에 두시간씩 4회에 걸쳐 실시하며, 이때 농촌에코뮤지엄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함

나) 농촌에코뮤지엄 해설사 양성

- 지역사랑평생교육을 마친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촌에코뮤지엄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는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석보면·입암면 농촌에코뮤지엄에서 해설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촌에코뮤지엄 해설사는 문화관광해설사 기준 1일 4만원(교통비, 중식비 포함)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그림 5-52> 안동하회마을 문화해설사

- 농촌에코뮤지엄 해설사 주요 교육내용
 - 에코뮤지엄의 이해
 - 한국적 전통마을에 대한 이해
 - 산촌생활에 대한 이해
 - 두들마을의 역사와 '음식디미방'조리서의 의미
 - 연당마을과 한국의 조경문화
 - 영양고추 특성

다) 농촌 에코뮤지엄 협의체 구성

- 중심 에코뮤지엄이 포함된 석보면과 위성에코뮤지엄이 포함된 입암면의 주민조직을 연합하여 농촌 에코뮤지엄 협의체로 발전시킴
 - 특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었던 원리권역(석보면)과 선바위권역(입암면) 운영위원회를 농촌에코뮤지엄 협의체로 전환
 - 향후 농촌 에코뮤지엄 운영 및 상호연계를 위한 의견조율기구로 함

라. 종합

구분			주요 내용
중심에코뮤지엄	두들마을	보전	두들마을 완충녹지조성 - 두들마을의 전통마을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규로 조성된 문화마을과의 경계에 가로수 식재
		활용	두들마을 장기채류 프로그램 -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홍보 및 작가들에게 주거와 관련된 관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주민을 위한 공동시설 확충 - 고택을 리모델링한 공동생활홈
			에코뮤지엄센 터 - 기조성된 지역활성화센터 2층 유휴공간을 농촌에코뮤지엄센터로 활용 - 안내간판 및 안내물 제작
			‘음식디미방’ 일품요리개발 - 고가의 한정식 외에 단품의 음식메뉴를 개발하여 음식디미방 상설화
위성에코뮤지엄	연당마을	보전	연당마을 주택보수 지원 - 마을주택들의 원형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택개보수시 지원
		활용	한뼮공원 - 마을입구에 주민 및 방문객들의 휴게시설 확충
	산촌생활 박물관	보전	산촌생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산촌 농업 및 생활체험 프로그램 개발
		활용	농촌에코뮤지 엄 교육장 - 농촌에코뮤지엄과 관련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장소제공
	영양고 추홍보 관	보전	영양토종고추 수비초 재배장 - 1990년대 이후 사라진 토종고추 수비초 재배장을 조성하여 산촌의 환금작물 변천사를 재조명하고 토종 품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
		활용	고추장 카페 - 영양고추 홍보전시관내 농특산물직판장을 리모델링 하여 고추장 카페로 운영
연계 계획	반변천 트래킹		- 위성 에코뮤지엄인 연당마을, 산촌생활박물관, 영양고추 홍보전시관을 도보로 연계
	자전거길 조성		- 중심 에코뮤지엄과 위성 에코뮤지엄을 연계하는 자전거길 조성
추진 체계 구축	지역사랑평생교육		- 지역민들이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사실들을 재발굴하여 애향심을 기르는 교육
	농촌 에코뮤지엄 해설사		- 지역사랑평생교육을 수료한 교육생 중 농촌에코뮤지엄 해설사를 원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에코뮤지엄 해설프로그램을 운영
	농촌에코뮤지엄 협의체 구성		- 원리권역(석보면), 선바위권역(입암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위원회를 발전시킴

마. 기대효과

구분	기대효과	내용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농촌생활문화 보전	- 영양군 석보면, 입암면 일대의 농촌생활문 화를 보전하여 많은 방문객들에게 널리 파급 시킴 - 전통마을, 전통음식, 산촌생활, 영양고추, 조경문화 등을 집약하여 볼 수 있는 농촌에 코뮤지엄으로서 사회·문화적 역할 기대
	영양 토종품종 수비초 확산	-영양군 수비면 일대에서 재배되던 토종 품 종인 수비초를 재현하여 맛과 품질의 우수성 을 널리 알림
	지역민 애향심 고취	-석보면, 입암면일대 주민들에 대한 ‘지역사 랑평생교육’을 통하여 애향심 고취 -지역의 농촌생활문화 요소들을 재발견하여 새로운 세대에게 전승함
지역경제 활성화	기투입된 농촌사업효과 극대화	-기 완료된 3개 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 업(원리권역, 화매권역, 선바위권역)이 개별 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 석보 면과 입암면의 사업들을 연계함으로써 기투 입된 농촌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함 - 기초성된 농촌마을사업을 연계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운영기법 도입으로 방문객증가 를 기대함
	부가가치 유발효과	-농촌에코뮤지엄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석보 면과 입암면 일대에 방문객 증가를 통해 지 역 연계산업 활성화를 기대함
	영양고추 특산물 홍보	-산촌에서 재배하던 영양고추에 대한 인식제 고와 음식문화를 연계함으로써 영양고추를 비롯한 특산물 홍보효과를 기대함

제4절 생태경관형 에코뮤지엄 시범조성

1. 대상지 개요

가. 지역현황

1) 위치

- 구례군은 전라남도 동북쪽 소백산맥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리산을 배후로 강, 평야 등이 공존하는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사방이 해발 500m 이상의 산악으로 둘러싸여 아늑한 산간분지 지형을 이루고 있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청정지역으로, 구례군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며, 경남 하동군, 서쪽으로 곡성군 고달면, 북쪽으로 전북 남원시와 경계가 닿았고 남쪽으로 용방면과 광의면이 접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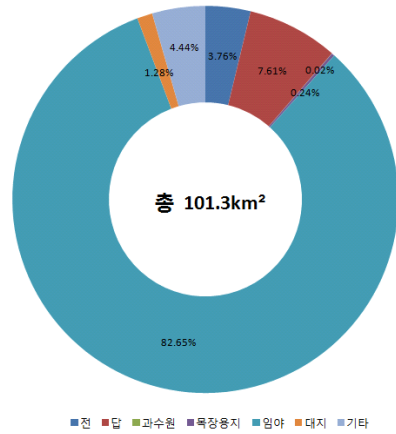


<그림 5-53> 대상지 위치

2) 행정구역

- 산동면(101.3km²)은 34개의 행정리(15개 법정리)와 49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음
 - 15개 법정리: 원촌리, 계천리, 원달리, 수기리, 내산리, 대평리, 위안리, 좌사리, 관산리, 탑정리, 외산리, 신학리, 이평리, 둔사리, 시상리

- 산동면의 토지이용형태를 살펴보면, 총면적 101.3km² 중 임야가 82.65%, 답7.61%, 전3.76%, 대지 1.28%, 목장용지0.24%, 과수원 0.02%, 기타4.4%로 지리산 자락과 접하고 있어, 산수유 발이 많고 산 자락에는 다락논이 많이 분고하고 있음 (출처:구례군 통계연보 2011)



<그림 5-54> 구례군 산동면 지목별 면적구성(2011)

3) 대상지의 접근성

- 대상지는 서울에서는 경부·중부고속도로와 완주-순천간 고속도로를 이용, 부산에서는 남해 고속도로와 완주-순천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으며, 광주는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곡성 또는 석곡 톨게이트에서 국도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음
- 2011년 1월말 완주-순천간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됨에 따라 구례 화엄사IC 및 황전IC를 이용하여 구례로 들어올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전국 어디서나 3시간 이내에 접근 가능함

[표 5-9] 대상지 접근성

위치	거리(km)	소요시간 (승용차)	비고
서울	294	3시간 5분	
대전	160	2시간	
부산	191	2시간	
광주	88	1시간 10분	

4) 연혁

- 산동면은 남원부 산동방(山洞坊)으로 1864년경에 내산동과 외산동으로 분면되었는데 광무원년(1897)에 구례군에 편입되었고, 지리산 안쪽의 내산면과 바깥쪽의 외산면이었다. 내산면은 계척, 연관, 현천, 삼성, 수락, 중기, 상원덕, 하원덕, 달전, 수평, 내효, 외효, 구산, 반평, 하관, 사포, 월계, 상위, 하위, 평촌, 신평, 대양, 대음, 반곡, 창촌, 상관, 좌사, 당동 등 28개 마을이었고, 외산면은 정산, 탑동, 원동, 시랑, 상신, 하신, 한천, 지초, 외온, 내온, 이촌, 평산, 우와, 오향, 토치, 둔기, 이사, 상무, 하무 등 19개 마을이었음
-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탑정, 원촌, 시상, 외산, 이평, 신학, 둔사 등 7개 리로 구례군 외산면으로, 계척, 수기, 원달, 내산, 관산, 위안, 대평, 좌사 등 8개 리로 구례군 내산면으로 개편하였는데, 1932년 11월 1일에 내산면과 외산면을 병합하여 산동면으로 개칭하였음
- 산동은 지리산 밑의 골짜기이므로 ‘산골’이라 불렀고 고려 때 산동부곡(山洞部曲), 조선 시대에 산동방(山洞坊)이라 불렀으며 산동원(山洞院)이 원촌에 있었음



<그림 5-55> 구례군 산동면 위치

나. 대상지 현황

1) 인구 현황

- 구례군은 12,368가구(27,263명)가 살고 있으며, 산동면은 1,591가구(3,190명)가 생활하고 있음
- 구례군 전체 인구 대비 산동면 인구는 12.9%를 차지하고 있음

[표 5-10] 인구 현황

구분	인구수(명)			가구수(호)
	계	남	여	계
구례군	27,263	13,221	14,042	12,368
산동면	3,190	1,519	1,671	1,591

※자료: 구례군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및 산동면사무소 홈페이지 일반현황 (2014.09 현재)

2) 토지이용 현황

- 구례군 전체면적 443.2km² 가운데 임야가 342.53km²로 7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답 43km², 전 19.39km²로 경지면적은 14.1%에 불과함 그 중에서도 특히 산동면은 전체면적 101.3km² 가운데 임야가 83.9km²로 82.6%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산간 지역으로, 경지면적은 11.9km²에 불과함
- 경작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산간 지역에서 주민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단으로 지형과 기후를 이용한 약용작물 재배에 일찌감치 눈을 돌림. 약 1천여년 전인 11세기 경부터 집주변과 산 구릉지, 마을 어귀, 개울가 등 공한지에 산수유나무를 재배하기 시작함

[표 5-11] 토지이용 현황

구분	면적(km ²)				
	계	답	전	임야	기타
구례군	443.2	43	19.39	342.53	38.28
산동면	101.3	7.96	3.94	83.9	5.5

※자료: 구례군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및 산동면사무소 홈페이지 일반현황 (2014.09 현재)

3) 주요 농작물 현황

- 구례군의 주요 농작물 소득을 살펴보면 전체소득 796억 중 산수유는 60억으로 벼, 오이, 감, 다음으로 높으며, 단위면적당 조수익은 20.20억원/km²로 오이, 애호박, 야생화, 감 다음으로 높음
- 즉 산수유의 조수익은 구례군의 주요 농작물 소득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수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산동면에서는 전체 농업소득의 약 44%를 차지하는 소득원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특산물임

[표 5-12] 주요 농작물 현황

구분	조수익(A)	규모(B)	단위면적당 조수익(A/B)	비율	비고
벼	294	26.20	11.22	36.9	
오이	137	0.42	326.19	17.2	
감	75	3.00	25.00	9.4	
산수유	60	2.97	20.20	7.5	
애호박	48	0.21	228.57	6.0	
녹차	42	2.13	19.72	5.3	
야생화	41	0.42	97.62	5.2	
맥류	32	5.38	5.95	4.0	
한봉	25	200.00	0.13	3.1	
매실	21	1.10	19.09	2.6	
기타	21	-	-	2.6	
전체	796	-	-	100.0	

※자료: 구례군 내부자료, 비율은 조수익의 비율임

[표 5-13] 산수유 주산지별 생산현황

구분	생산량		생산금액		기타
	생산량(kg)	비율(%)	생산금액(천원)	비율(%)	
구례군	241,000	63.37	2,865,008	62.34	
의성군	34,000	8.94	404,192	8.79	
이천시	25,000	6.57	297,200	6.47	
양평군	23,000	6.05	273,424	5.95	
홍천군	3,590	0.94	107,700	2.34	
문경시	7,000	1.84	83,216	1.81	

※자료: 구례군 내부자료

- 약 1,000년전 중국 산동성의 처녀가 지리산으로 시집을 때 산수유 나무를 심었다고 하여 산동면이라는 지명이 전해지며, 이 때 들여와 심은 최초의 산수유 나무가 산동면 계천리 계척마을에 있는

1,000년 수령의 산수유시목으로 이를 시작으로 산동면에 2,28km²의 산수유 군락지가 조성되어 열매는 한약재로 보급되면서 전국 총생산량의 63.37%를 생산하고 있음

- 산수유나무 특성상 씨앗이나 줄기로 번식하는 실생번식의 한계가 분명하여 지금의 대규모 군락지는 주민들이 비배관리 등에 공을 들여 일구어온 결과물임

4) 역사문화자원

- 구례군의 총55개의 문화재 중 5점이 산동면에 위치하고 있음

[표 5-14] 문화재 분포현황

분	총계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계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중요민속문화재	계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무형문화재		
구례군	55	32	6	17	4	2	1	2	13	10	3	-	-	10	2
산동면	6	1	-	1	-	-	-	-	4	1	1			3	-

※자료: 2012년 구례로 떠나는 아름다운 여행

[표 5-15] 산동면내 문화재 내역

구분	지정종별	문화재명	소재지	관리자	지정일시
국가지정	보물584	윤문효공신도비	산동 이평 산191-1	남원윤씨종중	75.3.31
	유형37	윤문효공묘전석 등 및 석비	산동 이평 산191-1	남원윤씨종중	75.5.22
도지정	기념물50	김완장군 전승유허비	산동 원촌 294-2	김상옥 외5	81.10.20
	문화재자료 31	운흥정	산동 구만제로 973-54	주용기	84.2.29
	문화재자료32	방호정	산동 좌사 839-3	손순길	84.2.29
	문화재자료276	구례 외산리 하연유적비	산동 외산리 산 34	진양하씨통덕량대종중	10.5.27

※자료: 2012년 구례로 떠나는 아름다운 여행

	
<p>윤문효공묘전석등 및 석비</p>	<p>김완장군전승유허비</p>
	
<p>운홍정</p>	<p>방호정</p>

<그림 5-56> 산동면내 문화재

5) 관광자원

-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된 지리산이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남도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등 3개도 5개시군 15읍·면에 걸쳐 있음
- 섬진강은 진안군 마이산에서 발원하여 전북, 전남, 경남의 3개도 12개 시군의 유역을 거쳐서 500리 물길을 이루는 강임. 선잠강변에는 구례를 대표하는 3km가량의 벚나무 가로수 길이 조성되어 있음
- 구례산수유는 전국 생산량의 73%, 수확면적으로는 84%에 달해 전국에서 최대의 산수유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 산수유 시목이라 여겨지는 산수유나무가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음. 매년 산수유 꽃이 만개할 시기에 ‘산수유꽃 축제’가 개최되고 있음
- 한국의 전통사찰에 머물면서 사찰의 일상생활을 체험하고 불교의 전통문화와 수행정신을 받아들이는 템플스테이와 동편제 판소리의 본고장 구례에서 직접 판소리를 배워보고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동편제 판소리 체험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5-16] 산동면 자원 현황

관광지명	위치	주요 내용
김완장군전승유허비	원촌리 294-2	고종 24년(1887)에 세운 김완장군의 전승유허비
노고단	노고단로 1068-321	천왕봉, 반양봉과 함께 지리산의 3대 주봉
방산서원	이평리 둔사길 36-13	조선 성종조의 명신 문효공 윤희손을 배향하기 위해 세운 서원
방호정	좌사리 839-9	일제강점기 상황을 달래고 지역의 미풍양속을 가리치고 시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1930년에 지방 유지들이 세운 정자
산수유마을	위안리 277-1	전국에서 제일가는 산수유 재배단지이며, 산수유꽃 축제 개최
산수유군락지와 산수유테마파크	산동면 일원	상위마을, 반곡마을 계척마을, 현천마을의 산수유 군락이 유명
수락폭포	수기리 249-3	하늘에서 은가루가 쏟아지는 듯한 아름다운 풍치를 이루는 높이 15m의 폭포
심원마을	심원길 111	반야봉과 노고단, 만복대가 삼면을 감싸안은 달궁 계곡 끝 마을
운흥정	시상리 219	1926년 지역의 선비들이 문학단체인 시사계를 조직하여 지역의 미풍양속과 시의 기풍을 발전시키기 위해 만든 정자
윤문효공묘전석등 및 석비	이평리 93-7	조선시대 1519년(중종 14년)에 세워진 높이 2.49m 석등, 높이 2.13m 비석

※자료: 산동면사무소 홈페이지



<그림 5-57> 산동면 주요 관광지

6) 산수유 군락지 주변 자연생태 현황

- 산수유 군락지는 산간지형의 구릉지와 계곡, 집 주변의 자투리땅 등에 인위적으로 집단재배한 경작지로서 산림과 취락지역을 잇는 생태 순환축을 담당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산동면 산수유 군락지에서 흔히 발견되는 돌담은 산간 구릉지에 위치한 경사지형의 토지 유실을 방지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는 기능을 함
- 산수유군락지는 경작지 생태환경의 순환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다양한 곤충류 및 양서파충류의 서식조건을 형성함
- 산수유가 자라는 곳에서 흔히 자라는 지표식물인 반생식물로 초화류 및 약용식물군이 융성하여 구례군에서는 일찍부터 나물산업이 부흥하게 되었음
- 산수유나무에는 열매를 주식으로 하는 각종 조류가 관찰되고 있음

[표 5-17] 산수유 군락지에서 서식하는 동·식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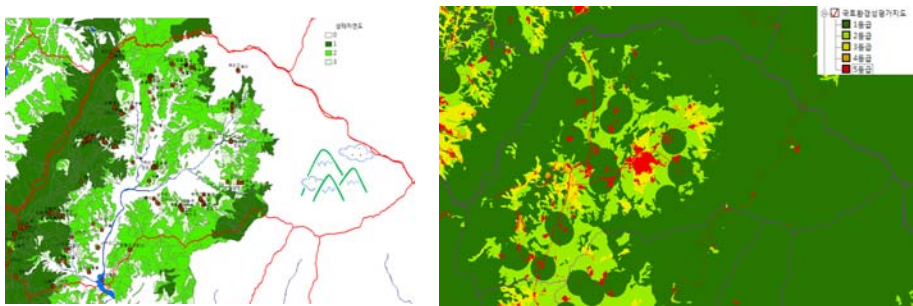
구분	동·식물	비고
초분류	머위, 쉬무릇, 장록, 양하, 돌나무, 민들레, 질경이, 썸바귀, 냉이, 서양민들레, 원추리, 흰민들레, 썩부쟁이, 취나물, 골담초, 며느리밥풀, 고마리, 광대나물, 명아주, 달의장풍, 온대난초, 쇠비름, 별꽃, 애기똥풀, 산괴불주머니, 들현호색, 짚신나물, 산딸기, 자운영, 팽이밥, 이질풀, 담쟁이덩굴, 제비꽃, 겹달맞이꽃, 봄맞이꽃, 꽃마리, 개불알풀, 금창초, 제비썩, 썩, 망초, 개망초, 지창개, 무릇, 꽃무릇 등	
목분류	팽나무, 느티나무, 고로쇠나무, 편백나무, 물푸레나무, 히어리 등	
조류	참새, 굴뚝새, 까치, 콩새, 직박구리, 딱다구리	
양서파충류	구렁이, 능구렁이, 화사, 까치살모사, 살모사, 도롱뇽, 청개구리, 참개구리 등	
곤충류	메뚜기, 따개비, 귀뚜라미, 찌르레기, 거미류 등	
포유류	다람쥐, 청설모, 멧돼지, 멧토끼, 고라니, 너구리,삿, 수달, 담비 등	

		
수달(멸종위기종 1급)	삿(멸종위기종 2급)	담비(멸종위기종 2급)

<그림 5-58> 산동면에서 관찰되는 멸종위기종 포유류

7) 산동면 생태환경지도

- 환경부의 산동면 자연생태환경조사 결과에는 국립공원, 농지, 주거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생태등급 1등급 지역으로 수달, 삿, 담비 등의 생태지표종 들이 관찰되어 있어 자연생태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특히 산지와 농지와 만나는 임연선(ecotone) 지역에 산수유나무 군락이 조성되어 있어 경관적으로도 우수하지만 생물들이 서식하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음
- 산동면은 시가화지역과 농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국토환경성 1등급 지역으로, 지리산을 배후로 서사천이 마을을 관통하고 있으며, 산수유 군락지역이 마을주위를 둘러싸고 있어 지리산과 생물서식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동식물의 종다양성이 잘 보호되고 있는 건강한 생태환경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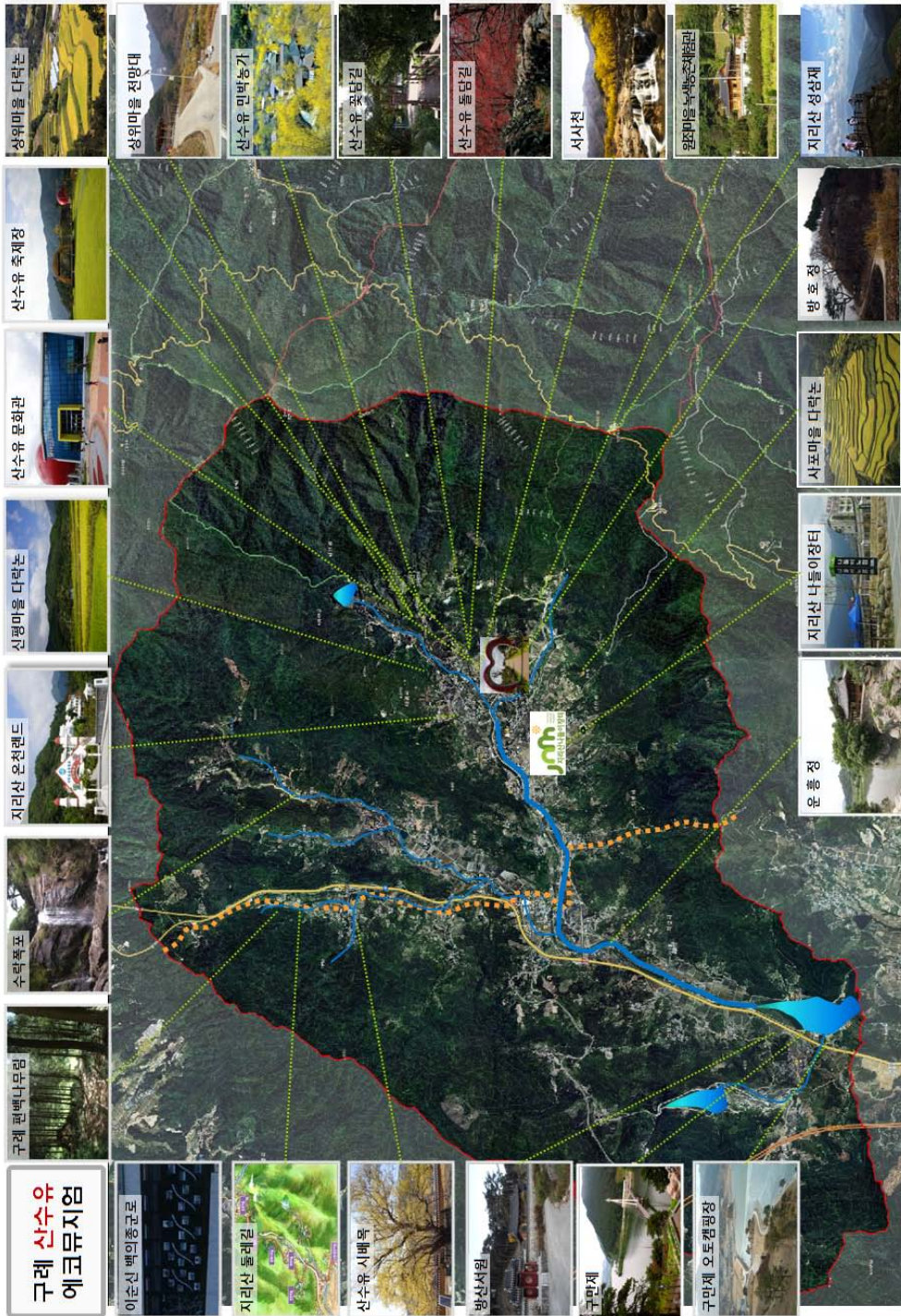


<그림 5-59> 산동면 생태자연도(좌), 국토환경성지도(우)

다. 구례 산동면 에코뮤지엄 자원현황

[표 5-18]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 에코뮤지엄 분야별 자원현황

자원구분	산수유 에코뮤지엄 자원현황	비고
생태자원	서사천, 멸종위기동식물 지리산국립공원(만복대, 성삼재) 구만재, 편백나무숲, 수락폭포	중심에코뮤지엄 자원으로 활용
경관자원	산수유 재배지역, 돌담길 지리산다락논, 상위마을 전망대	
역사문화 자원	산수유문화관, 방호정, 운흥정, 방산서원 김완장군전승유허비, 운문효공묘전석등및석비 산수유시목제, 산동애가, 물레방아, 디딜방아	위성에코뮤지엄 자원으로 활용
사회자원	구례산수유 영농조합법인 지리산나드리장터, 지리산구례공동체 산수유 민박농가, 지리산 온천랜드, 구만재 수변시설 지리산 둘레길, 이순신장군 백의중군로	에코뮤지엄 중간 지원조직으로 활용 지리산 둘레길을 에코뮤지엄과 연계



<그림 5-60> 구례군 산동면 에코뮤지엄 자원현황

[표 5-19]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 에코뮤지엄 자원현황

구분	핵심테마	자원	비고
중심 에코뮤지엄	산수유마을 산수유재배지 산수유사랑공 원	산수유 최대 재배지역, 산수유시배지, 산수유꽃(봄)/산수유열매(가을)축제 산수유 생태경관마을 에코뮤지엄 [평촌, 반곡, 대양, 대음, 신평, 상위, 하위, 원좌마을] ⇒산수유와 관련한 전통생활문화	산수유마을 네트워크
위성 에코뮤지엄 1	산수유시배지	산수유 시배지 마을[계척마을] 산수유시목/시배지, 이순신장군백의중군로	산수유 시배마을
위성 에코뮤지엄 2	지리산 다락논	지리산국립공원과 주변 다락논(상위, 하위, 신평, 사포마을) 경관이 우수한 마을	다락논 경관
위성 에코뮤지엄 3	서시천 생태문화자원	서시천 자연하천 유역 생태경관 관찰 서시천 주변 정자(방호정, 운흥정) 방산서원, 구만재, 백의중군로의 전통문화 탐방	서시천 생태문화
위성 에코뮤지엄 4	나드리장터	지리산 나들이장터,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리산둘레길과 연결(산동-방광 구간)	나들이장터 지리산둘레길

1) 중심 에코뮤지엄

○ 산수유 재배지의 역사

- 산수유는 중국 산둥성의 처녀가 지리산으로 시집을 때 산수유나
무를 가져다 우리나라 최초로 심었다고 전해짐
- 지리산 산간마을인 구례군 산동면은 국내 최대의 산수유단지로 산
동면에서 전국 생산량의 절반이 넘는 산수유를 생산함
- 구례군 산수유는 2008년 3월 12일 지리적표시등록(임산물 제15호)
으로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되었으며, 2012년 12월에는 구례군 산
동면·용방면 일원 0.67km²가 산수유산업특구로 지정됨





<그림 5-61> 산수유 군락지 봄, 가을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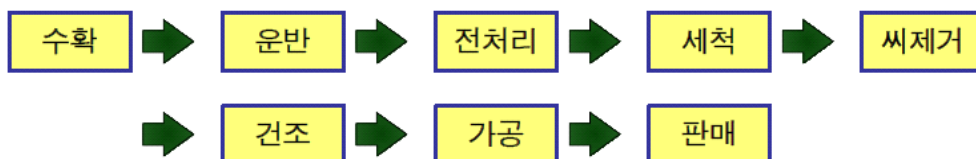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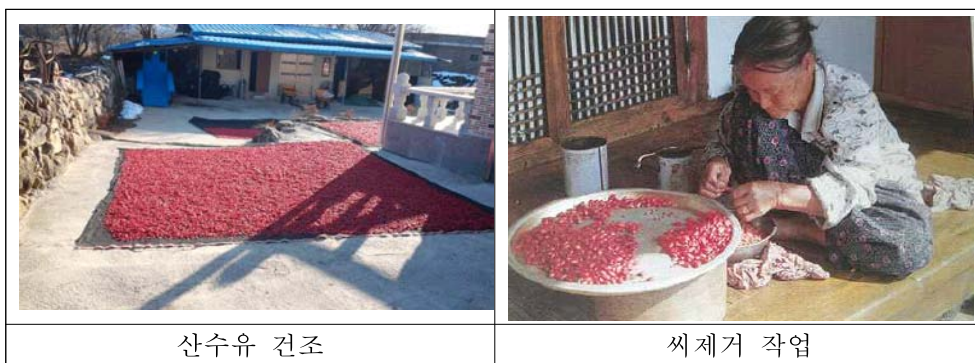
- 산수유꽃축제 개최
 - 1999년부터 3월 중순께 산동면 일원에서 ‘영원한 사랑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구례군의 대표 축제인 산수유꽃축제를 개최함. 방문객 1백만명을 기약하는 전국 규모의 생태문화관광축제로 부상함
 - 축제 내용으로는 공식행사에는 풍년기원제, 창극‘산수유’ 공연, 개·폐막 콘서트, 작은 음악회, 사랑 콘테스트 등이 있으며, 산수유체험 부대행상로는 산수유 차와 막걸리 시음, 산수유 족욕체험, 산수유 학생사생대회, 사랑의 언약나무, 지리산 둘레길 원정대, 산수유꽃 디카사진 콘테스트 등이 있음



<그림 5-62> 산수유꽃축제

- 산수유 관련 지역관광 활성화
 - 산수유 군락지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2011~2015년까지 산수유 테마파크 조성사업, 산수유꽃축제 상설행사장 조성사업, 산수유 마을 경관 정비, 산수유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산수유 마을 농업문화

- 산동면 지역의 대규모 산수유 군락지는 주민들이 비배관리 등에 공을 들여 일구어온 결과물이자 집단재배의 보존현장 임
- 특히 산수유의 씨를 발라내는 작업은 아이들과 아낙네들이 도맡아서 했으며, 산수유 한알 한알을 물고 앞니로 직접 씨를 발라내는 작업을 일생동안 하여 앞니가 다 닳아 있어서 멀리서도 산동마을 아낙을 알아 볼 수 있을 정도였으며, 수확과 건조 과정이 거의 수작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산수유 농사는 ‘고행길’이었음



<그림 5-63> 산수유 생산과정

[표 5-20] 산수유 농업에 필요한 관련 농기구

구 분	농기구	비 고
농사용 농기구	쟁기, 훑치기(밭을 가는 쟁기), 짚덥석(명석), 풀망태, 갈고리(장대), 키(챙이), 풍고, 채반, 장군(합수통)	
탈피작업	도리반상, 낫그릇, 사기그릇, 되 등	

- 산수유 음식문화
- 산수유 자체가 한약재로 높은 가격에 팔려나가 지역주민들의 주 소득원이었기 때문에 산수유를 이용하여 음식을 해먹을 여유가

별로 없어 음식문화가 발달하지는 못했지만 산수유차, 술, 효소를 담그는 문화가 있으며, 현대에 이르러는 산수유식혜, 산수유묵, 산수유두부, 산수유강정, 산수유막걸리, 산수유화전 등의 음식이 개발되고 있음

○ 산수유마을 돌담길

- 산동면 산수유 군락지 주변은 마을전체가 지리산 기슭의 구릉지에 자리잡고 있어 집을 지으면서 터를 잡고 경계에 돌담을 쌓았고 이 돌담 사이로 마을길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집을 짓거나 논밭을 일구면서 생긴 돌을 이용하여 돌담은 집과 논밭의 경계를 표시하였지만, 산수유 재배환경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됨

	
산수유꽃과 돌담길	산수유 열매와 돌담길
	
대음마을	꽃담길 안내판/사인판 설치

<그림 5-64> 중심 에코뮤지엄 산수유돌담길 주요자원

○ 산수유 사랑공원

- 매년봄 산수유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산수유를 테마로 한 공원과 산수유문화관이 조성되어 있고, 야외무대와 대형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어 산수유 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산수유 사랑공원에서 산수유 에코뮤지엄의 정보제공과 주차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방문객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임



<그림 5-65> 산수유 사랑공원 전경



<그림 5-66> 중심 에코뮤지엄 자원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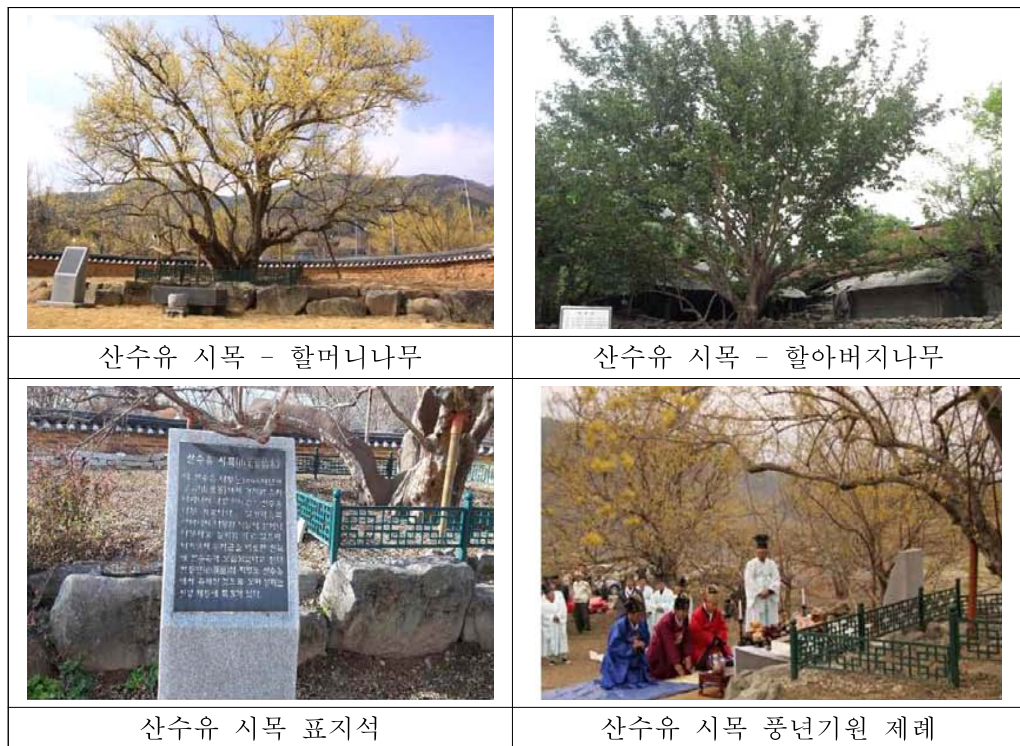
2) 위성 에코뮤지엄

○ 위성 1 : 산수유 시배지(계척마을)

- 산동면 계척리 계척마을 산수유 시목(할머니 산수유)은 우리나라 산수유 나무 중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나무로, 구례군 보호(13-8-8-14, 2001.2.10. 지정)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음

[표 5-21] 산수유 시목(보호수) 현황

구분	지정년도	소재지	수령(년)	수고(m)	근원둘레(cm)	비고
할머니 시목	2001	산동면 계척리 199-1 (계척마을 내)	1000	16	437	
할아버지 시목	2000	산동면 원달리 128 (원달마을내)	300	8	55	



<그림 5-67> 산수유 시목관련 자원

[계척마을과 지리산 둘레길]

- 산수유문화관에서 산수유시목이 있는 계척마을까지는 차로 약8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음
- 계척마을은 지리산 둘레길과, 이순신장군 백의중군로가 마을을 지나가고 있음
- 마을전체가 산수유를 농사를 주로하고 있는 계척마을은 산수유군락지를 직접보면서 지나갈 수 있는 지리산둘레길의 마을임
- 현재 산수유시목 주변에 이순신 백의중군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지리산둘레길을 걷는 탐방객들이 쉬어 갈 수 있음

	
<p>계척마을 입구</p>	<p>백의중군로 안내와 공원</p>
	
<p>마을길과 산수유재배지</p>	<p>백의중군로 안내도</p>

<그림 5-68> 계척마을 및 주변지역 자원사진

○ 위성 2 : 지리산과 다락논

[지리산 생태자원]

-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경남 산청, 함양, 하동군에 걸쳐 있는 산으로 천왕봉(1,915.4m)을 주봉으로 서쪽 끝의 노고단, 서쪽 중앙의 반야봉 등 3봉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로 100여리의 거대한 산악군을 형성함. 화엄사, 천은사, 쌍계사 등 유서 깊은 사찰과 국보보물 등의 문화재가 많으며, 800여 종의 식물과 400여 종의 동물

등 동식물상 또한 풍부함

	
<p>지리산 만복대</p>	<p>지리산 노고단</p>

<그림 5-69> 지리산 만복대 및 노고산 전경

[지리산 다랭이논]

- 구례군 산동면 상위, 하위, 대평, 사포마을 지리산 산비탈 다락논에 농사를 짓고 있는 경관을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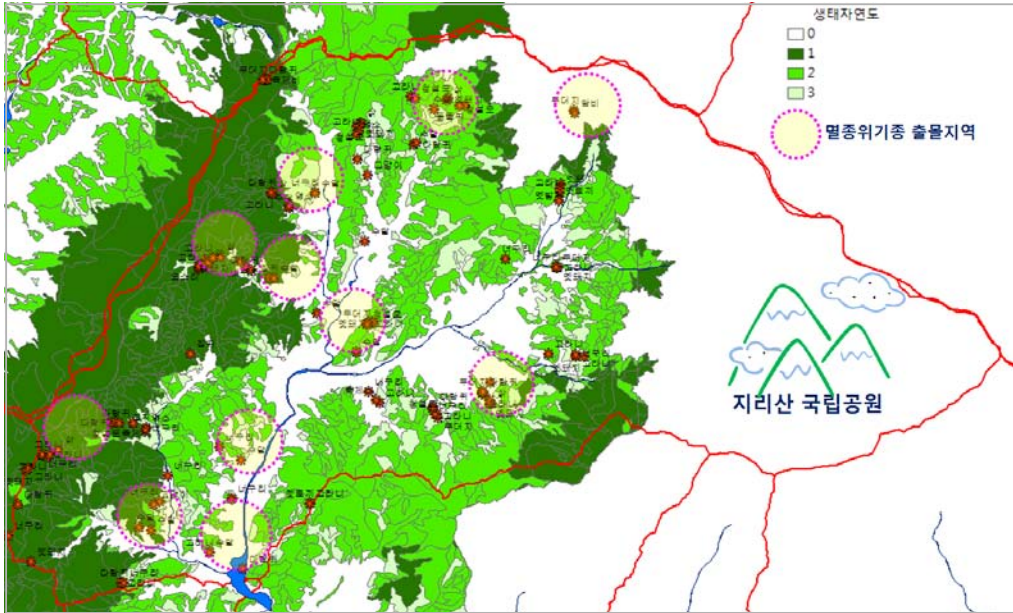
<그림 5-70> 구례 산동면 사포마을 다락논 전경

○ 위성 3 : 서시천 생태문화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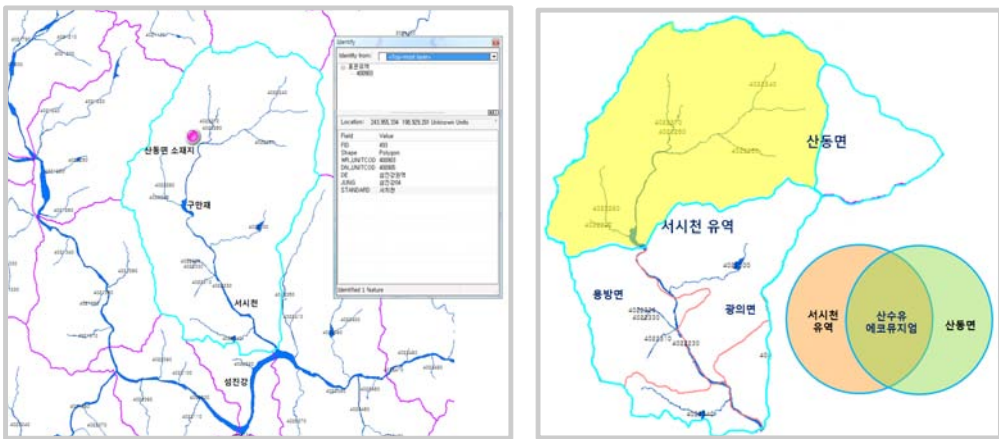
[산동면 서시천유역 생태자원]

- 산동면은 지리산과 이어지는 서시천 유역을 따라 환경부 멸종위기I급 수달, 멸종위기II급 삿, 담비가 서식하고 있으며, 산동면이 지리산 성삼재와 노고단, 반야봉과 만복대 자연보존지구(습지)가 접하고 있

어, 서시천을 유역을 중심으로 자연생태자원이 풍부함



<그림 5-71> 구례 산동면 생태자원도와 멸종위기 동식물 분포지도



<그림 5-72> 섬진강 서시천 유역도(좌), 산동면과 서시천 구만제 상류유역(우)

- 산수유마을의 중심인 평촌마을에서 구만제로 이어지는 서시천 (8.5km) 구간은 지리산 둘레길(방광-산동) 구간이 만나는 곳으로, 서시천 주변에 자연마을들과, 오래된 정자 수달관찰지역이 분포하고 있으며, 서시천 물이 모이는 구만제 주변에는 방산서원과 이순신장

군 백의중군로의 역사자원과 지리산수상유원지, 오토캠핑장, 지리산 치즈랜드가 있어 서시천 수계를 중심으로 생태문화자원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위성에코뮤지엄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그림 5-73> 서시천 유역 주변 자원 분포도



<그림 5-74> 구만제 주변 자원현황

○ **위성 4** : 지리산 나들이장터

[지리산 나들이장터]

- 산동면 소재지 내 면사무소와 구 시가지가 있으며, 산수유마을 초입에 지리산온천랜드를 비롯한 숙박, 식당 등의 상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상가 지역에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구례 사회적기업 1호인 “지리산 구례공동체”에서 지리산나들이장터와 로컬마켓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음



<그림 5-75> 지리산 온천지구내 나들이장터

[지리산둘레길]

- 지리산둘레길은 사단법인 ‘숲길’이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지리산 둘레 800리(약 300km)를 잇는 장거리 도보길임. 지리산을 감싸고 있는 3개도(전남·전북·경남), 5개시군(구례·남원·하동·산청·함양) 100여개 마을의 지리산 옛길, 고갯길, 숲길, 강변길, 논둑길, 마을길 등을 이어 하나의 길(285km)로 연결하고 있음
- 지리산 둘레길 [방광-산동], [산동-주천] 구간이 산동면 소재지와

산수유시배지 마을인 계척마을을 관통하고 있음



<그림 5-76> 지리산 둘레길 코스

라. 에코뮤지엄 자원평가

○ 생태경관형 에코뮤지엄 자원평가는 다음의 4가지기준으로 평가

기준 자원		공통			생태경관형
		원형유지	농업·농촌과 관련성	중심과 위성간 연계가능성	생태경관 농촌문화
중심 에코 뮤지엄	산수유 마을	-산수유 재배지 -마을 돌담길 -생태하천,수로 -산수유 재배 문 화, 노동요	-전국 산수유 최 대 생산지역 -산수유 재배지, 농촌마을경과, 자연하천 생태경관	-서시천을 중심 으로 주변 구릉 지에 산수유 군 락지와 마을이 분포하고 있음	-산수유재배지와 마을돌담, 서시 천이 어우러진 생태경관형 에코 뮤지엄
	산수유 재배 지역	-산수유마을 주 변 구릉지 전체 가 산수유를 재 배하고 있음	-산수유 재배지 의 경관농업지구 로 지정하여 보 전계획 수립필요	-주변마을로 산 수유 경관지구 확대 및 지리산 둘레길과 산수유 꽃담길 연계	-산수유재배지와 서시천 주변 자 연생태등급이 우 수하고 멸종위기 종 동식물 분포
위성 에코 뮤지엄	산수유 시배지 [계척 마을]	-수령 1,000년의 산수유 시배목이 있음	-계척마을의 산 수유가 산동면 전체 산수유 재 배로 이어짐	-중심에코뮤지엄 에서 지리산 둘 레길로 연결됨	-산수유 시목과 지리산둘레길이 지나가는 산수유 시배마을
	지리산 다랭이 논	-지리산 주변 지 형을 그대로 유 지한 다랭이논마 을 분포	-구릉지 지형을 따라 전통농업 방식을 계승하는 다랭이논 논농사 지역 분포	-산수유 꽃담길 을 따라 걸으면 서 다랭이논 경 관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경관 포인트로 활용	산수유 꽃담길 경관자원 활용 지리산권관광개 발조합(JTDA)과 연계한 생활문화 공간 조성
	서시천 생태 문화 자원	서시천 자연형 하천 원형유지 수계 수질보호 서시천 생태보존	서시천 주변 산자 락에 다랭이논 농 사와, 산수유재배 가 주요 농업임	서시천을 따라 '산수유 고향의길' 조성으로, 정자, 서원 등의 문화 자원과 연계 구만제 수상레포츠, 오토캠핑장 활용	서시천 생물다양 성 유지 생태관찰대 설치 서시천을 활용한 에코뮤지엄 탐방 코스 개발
	지리산 나드리 장터	-산수유 에코뮤 지엄을 통한 먼 소재지 중심기능 회복 -산수유마을의 자연경관과 문화 를 연결	-지리산나들이장 터 운영을 통한 중간지원조직 강 화 -농·특산물 판매 장터역할 수행	-산수유 마을 협 의회와 상인회, 지리산 구례공동 체의 협력조직구 성과 연계를 통 한 공동마케팅 -산수유마을 지원 조직역할 수행	-상가지역의 경 관조성을 통한 정체성 회복 -산수유마을의 고유한 풍경을 보여주는 길로 연결하는 연계코 스 개발

마. 타사업 실적

1) 산수유 관련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사업내용	비고
계	11,175	2011~2016	6개분야	
산수유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3,250	2011~2012	산수유 테마파크 조성사업	
	2,815	2011~2016	산수유 축제 활성화 사업	
	1,080	2012~2013	산수유 꽃 축제 상설행사장 조성사업	
	330	2012~2016	산수유 마을 경관 정비	
	230	2012~2016	스토리텔링 마케팅과 연계관광 프로그램 개발	
	3,470	2011~2012	구례 산수유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2) 문화행사 현황

향토문화축제	시행월 (기간)	장소	축제주요내용	주최
구례 산수유꽃축제	매년 3월말	산수유꽃축제 상설행사장	산수유시목제, 산수유콘서트 산수유 웰빙족욕, 카페테리아 산수유차 시음회, 산수유음식전시회	구례군 축제 추진위원회
산수유 열매축제	매년 11월초	산수유꽃축제 상설행사장	산수유열매따기, 열매따기 마을콘서트, 지리산나들이장터	구례군 산동면 이장단

2. 기본방향 및 계획내용

가. 기본방향

구분	핵심요소	자원	기본방향
중심 에코뮤지엄	산수유 마을	산수유 최대 재배마을 산수유꽃축제, 산수유열매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 : 국내 최대의 산수유재배지 -> 산수유농경문화 보전 산수유 경관/생태계획 수립 -> 산수유 경관보전마을 확대 • 활용 : 산수유마을 체류 산수유공원, 산수유 특구활용 산수유마을 확대(3개->8개) -> 8개 마을을 연결하는 산수유꽃담길 확대 조성
위성 에코뮤지엄1	산수유 시배지	계척마을, 산수유시배지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 : 산수유 시목 돌담, 산수유재배 경관보전 • 활용 : 지리산 둘레길과 연계 산수유 시배마을 홍보 백의종군로와 연계
위성 에코뮤지엄2	지리산 다락논	지리산 산동면 다락논 지리산 자연생태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 : 지리산 다락논지역 경관보전 지구 지정 • 활용 : 산수유꽃담길 탐방로 주변 연계자원으로 활용
위성 에코뮤지엄3	서시천 생태문화 자원	지리산과 연결된 서시천 유역의 자연형 하천 역사문화자원 (방호정,운흥정, 방산서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 : 하천생태계 보전 주변식생과 동식물서식지보호 • 활용 : 서시천을 따라 '산수유 고향의 길' 조성으로 산수유마을과 지리 산 둘레길, 구만제 연결 및 생태 관찰로, 관찰데크 설치
위성 에코뮤지엄3	나들이 장터	지리산온천랜드 지리산나들이장터 지리산구례공동체 지리산 둘레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 : 지역경관 정체성 회복 지역주민 네트워크 구축 • 활용 : 산수유 에코뮤지엄 방문자센터 역할수행 지리산나들이장터 활성화 산수유음식문화 확대 산수유마을 커뮤니티와 연계

나. 기본방향 설정

- 대한민국 최고의 산수유 재배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산수유 에코뮤지엄 마을 조성
- 에코뮤지엄을 통한 경관/생태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의 정체성 회복
- 산수유마을을 대표하는 경관조성을 위한 마을환경정비 및 산수유 재배지 확대와 경관농업지역 확대
- 산수유와 함께 천년동안 이어져 내려온 산동면 주민들의 산수유 농경문화와 역사 그리고 전통적 생활상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에코뮤지엄 조성
- 지리산 둘레길과 연계하여, 탐방객들에게 산수유 마을의 역사와 전통, 지리산 다랭이논의 풍경과 지역의 농·특산물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 산수유 마을에서의 쉬어갈 수 있는 거점조성
- “지리산 구례공동체”와 “지리산 나들이장터 상인회”를 통한 산수유 에코뮤지엄 운영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성
- 경관생태형 에코뮤지엄 조성의 기준은 주변지역의 자연생태환경을 고려하여, 대상지의 하천 수계에 따른 유역을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함

구례 산수유 에코뮤지엄 [서시천 유역]



<그림 5-77> 서시천 유역의 산수유 에코뮤지엄 조성개념

목 표

산수유의 역사와 생태경관이 어우러진 구례 산동면 농촌에코뮤지엄 조성

추진전략

중심 에코뮤지엄

1. 산수유 역사, 경관 회복
2. 에코뮤지엄 센터 구축

위성 에코뮤지엄

1. 시베지, 지리산 다락논
2. 서시천 생태문화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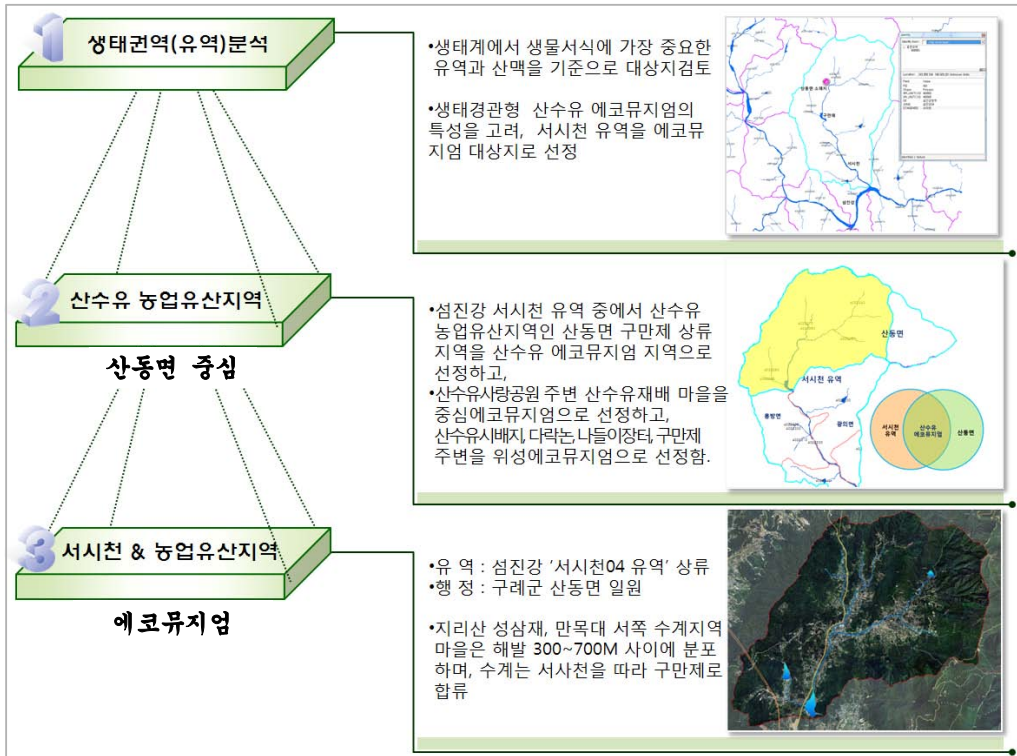
공 통 : 서시천 유역을 따라 생태경관 회복과 네트워크

공통사항

① 산수유경관

② 산수유농업

③ 마을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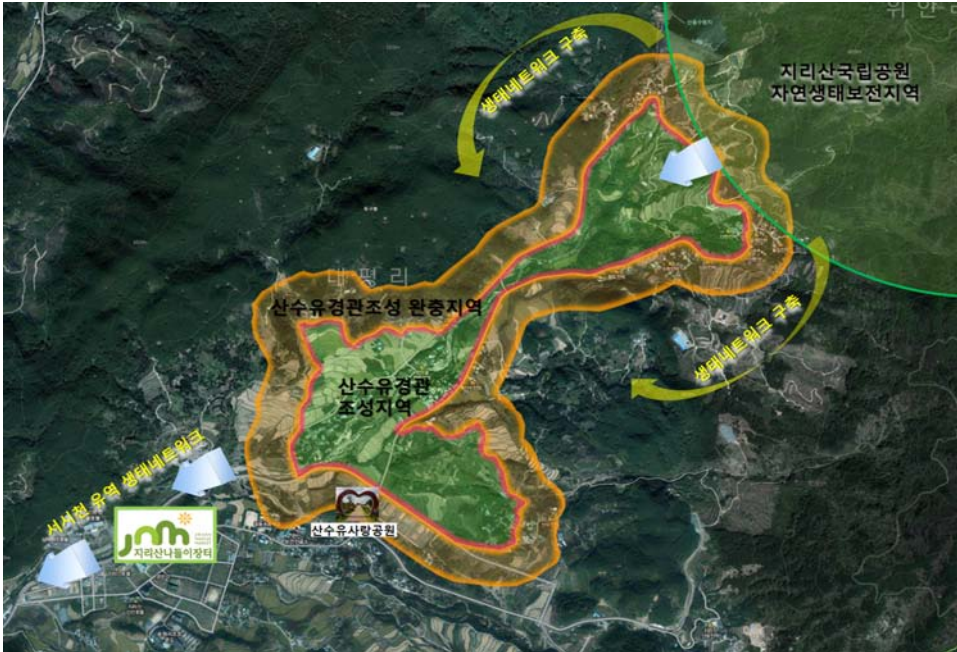


<그림 5-78> 자연생태계와 유역을 고려한 에코뮤지엄 범위설정 단계 주요내용

1) 중심 에코뮤지엄 보전 및 활용계획

가) 보전계획

- (1) 산동면 대평리 평촌마을, 반곡마을, 대음마을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산수유꽃담길’을 주변 8개 마을로 ‘산수유꽃담길’을 확대하고, 서시천을 중심으로 산수유경관보전 지역으로 지정
- (2) 산수유 경관보전지구 8개 마을을 중심으로 주변 산수유재배지역을 경관보전 완충지역으로 지정하여 산수유 재배지역의 보전과 확대를 도모하여,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생태지역으로 보전함
- (3) 지리산국립공원 자연생태보전지역과 산수유경관보전지역이 생태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시천, 산수유 재배지, 돌담길을 연결하여 산수유경관과 생물다양성이 동시에 보전될 수 있는 지역으로 조성함



<그림 5-79> 산동면 중심에코뮤지엄 보전계획을 위한 생태네트워크 구축

나) 활용계획

(1) 산수유 꽃담길 확대

- 산수유꽃담길이 조성되어 있는 3개마을(평촌, 반곡, 대음마을)에서 서사천을 중심으로 하는 8개마을로 꽃담길 확대
- 각 마을의 마을회관 주변에 안내소를 설치하여 탐방객들의 안내소 역할을 하는 쉼터 조성
- 산수유재배지와 마을을 이어주는 돌담길의 정비 및 확대 추진

(2) 산수유 광장주변 환경정비

- 현재 산수유꽃담길 중앙광장에는 이동식 화장실만 설치되어 있어, 산수유꽃담길의 중심성이 떨어지고 탐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광장주변 환경정비와 편의시설 설치



<그림 5-80> 마을돌담길 및 산수유 돌담길 정비 예시



<그림 5-81> 중심 에코뮤지엄 마을네트워크 구축

중심 에코뮤지엄은

산수유마을로 알려진 대평리 평촌마을, 반곡마을, 대음마을을 중심으로, 산수유 군락지가 있는 주변 마을로 확대하여 마을네트워크를 통한 산수유 재배지역 8개 마을로 **산수유 경관지역을 확대**하고,

산수유사랑공원을 중심으로 **방문자센터**에서 산수유마을의 정보를 취득한 후 차량을 주차하고, 산수유 꽃담길을 따라 느릿느릿 산수유재배지와 산수유농경문화가 살아 있는 8개 마을을 걸으면서 살아있는 산수유 에코뮤지엄을 볼 수 있도록 하며, 마을회관 주변에 정자형태의 한평박물관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마을주민들이 산수유농경문화를 보여 줄 수 있는 작은 박물관이자 쉼터를 조성하도록 함

⇒ 서시천을 중심으로 지리산 자락에 펼쳐진 8개 마을이 중심이 되고, 지리산나들이장터가 중간지원조직이 되어 산수유마을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함

구례 산수유 에코뮤지엄 생태단면도



- 서시천 유역을 중심으로 산수유 재배와 생활공간이 함께하는 마을주변을 에코뮤지엄 공간으로 선정
- 서시천 수계가 산수유 에코뮤지엄의 생태축의 기본이 되며,
- 서시천을 중심으로 산수유재배지역, 주거지, 완충녹지, 산림으로 이어지는 생태단면 축의 보전과 보호를 기본개념으로 활용
- 서시천 주변지역과 마을에 산수유꽃담길을 확대하고, 생물종다양성이 양호한 지역 주변에 관찰대(Hide)를 설치하여, 멸종위기 동식물 관찰 포인트로 활용하고, 다락논과 산수유 군락지 조망이 양호한 곳에 경관 조망대를 설치함

<그림 5-82> 구례 산수유 에코뮤지엄 생태단면도

2) 위성 에코뮤지엄 보전 및 활용계획

가) 위성 1 : 산수유 시배마을(계척마을)

(1) 보전계획 : 산수유 재배경관 및 돌담보전

- 산수유 경관보전계획(2014 구례군 기본경관계획수립)에 따른 마을경관보전 협약을 수립하고 재배경관 및 돌담보전에 주민참여 협의
- 산수유 시배지와 계척마을에 대한 장소성이 연계된 스토리발굴과 보완을 통한 산수유 에코뮤지엄 스토리텔링북에 수록

(2) 활용계획 : 지리산 둘레길의 쉬어가는 마을 조성

- 위성 에코뮤지엄 지역에 네이처오피스(방문자센터)를 조성하여, 탐방객들에게 에코뮤지엄에 대한 정보와 쉼터, 포토존 제공 (쉼터, 화장실, 식수, 에코뮤지엄/둘레길 자료제공, 무료Wifi 등 제공)

	
<p>네이처오피스(방문자센터)</p>	<p>에코뮤지엄 방문자센터 조성</p>
	
<p>경관생태계획수립/산수유꽃담길 확대</p>	<p>포토존, 쉼터 조성</p>

<그림 5-83> 산수유 시배마을 주요 계획 (예시)

나) 위성 2 : 지리산 다락논

(1) 보전계획 : 지리산 자연생태계와 산수유 마을의 연계

- 지리산 국립공원에 일부 속하는 산동면은 지리산의 자연생태자원(만복대 자연생태보전지역, 성삼재, 노고단, 심원마을 등)과 지리산의 가파른 산자락에 다락논 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사천이 지리산 자연보전지구와 생태통로가 됨으로써 다양한 희귀 및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권역 내에 서식하고 있어, 산수유 에코뮤지엄 지역의 가치를 더 높여주고 있음
- 산수유 경관보전계획(2014 구례군 기본경관계획수립)에 따른 마을경관과 생태보전에 따른 계획의 실천이 중요할 것임

(2) 활용계획 : 네이처오피스를 통한 경관 생태탐방로 연계

- 위성 에코뮤지엄 지역에 네이처오피스(방문자센터)를 조성하여, 탐방객들에게 에코뮤지엄에 대한 정보와 쉼터, 포토존 제공 (쉼터, 화장실, 식수, 에코뮤지엄/둘레길 자료제공, 무료Wifi 등 제공)
- 지리산 국립공원 생태탐방로와 산수유 꽃담길의 연계
- 지리산 다락논지역 농업경관지구 지정



네이처오피스(방문자센터)



생태해설프로그램 운영



지리산 다락논 경관(상위마을)



지리산 다락논 경관(사포마을)

<그림 5-84> 지리산 다락논 에코뮤지엄 조성

다) 위성 3 : 서시천 생태문화자원

(1)보전계획 : 하천생태계 생물다양성 유지

- 하천주변 습지 생태계보전 및 하천 농가, 산수유재배지, 산수유 완충녹지, 배후지역 산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다양성을 고려한 생태계획 수립을 통한 생물종다양성 확보와 수계지역 오염물질 정화

(2)활용계획 : 서시천 주변 생태문화자원 탐방계획 수립

- 서시천 생태탐방로 정비 및 생태관찰 조망대, 안내판 설치
- 산수유마을과 이어지는 서시천 주변 역사문화 탐방 코스 개발
- 산수유마을에서 산동면, 구만제로 이어지는 서시천 주변을 따라 연결하는 ‘산수유 고향의길’ 조성을 통해 산수유마을과 주변 자원의 연결



<그림 5-85> 생태관찰 조망대(Hide View) 설치 사례



<그림 5-86> 지리산둘레길과 산수유고향의 길 연계 방안

- 산수유마을에서 지리산나들이장터, 산동면소재지, 구만제로 이어지는 서시천 유역을 따라 마을길과 지방도를 연결하여 '산수유 고향의 길'이라는 테마로 8.5km의 걷는 길을 조성하고, 지리산둘레길 탐방객과 주변 관광자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산수유 마을로 찾아올 수 있도록 에코뮤지엄을 연결하는 길 조성
- '산수유 고향의 길'은 서시천을 따라 주변 마을의 다양한 에코뮤지엄 자원을 연결하여 마을숲과 보호수, 마을회관, 정자, 주요 생태관찰지역 등을 연결하는 유역의 수계를 따라 만들어지는 이 지역의 생태와 문화·역사를 이어주는 길로 산수유마을을 시작으로 한 산수유재배지역의 농업유산을 가장 가까이서 보여주는 길로 조성

라) 위성 4: 나들이장터

(1)보전계획 : 상업지역의 산수유 경관성 회복

- 산수유 경관보전계획(2014 구례군 기본경관계획수립)에 따른 마

을경관과 지리산운천지구 상업지역의 경관성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산수유 경관 복원 추진(구례군 추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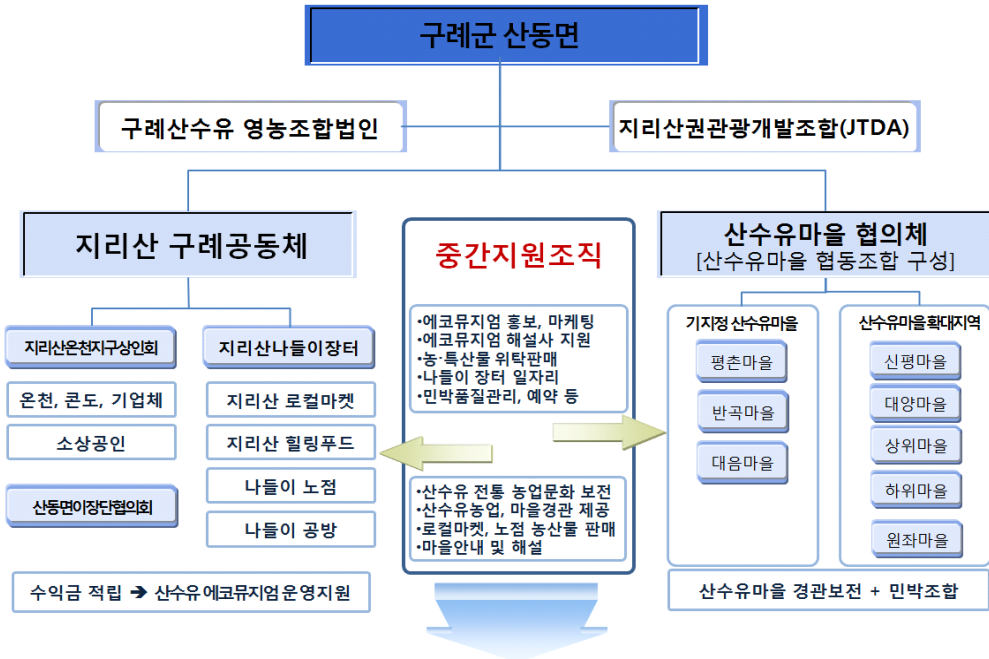
- 산수유 경관보전계획(2014 구례군 기본경관계획수립)에 따른 지리산 둘레길에서 산수유마을로 이어지는 주변지역의 경관성 회복을 위한 계획수립과 산수유 경관 복원 추진(구례군 추진사항)

(2)활용계획 : 산수유마을 중간지원조직 구성

- 위성 에코뮤지엄 지역에 네이처오피스(방문자센터)를 조성하여, 탐방객들에게 에코뮤지엄에 대한 정보와 쉼터 제공(지리산 나들이장터 내 “지리산 구례공동체” 사무실에 지원)
- 8개 산수유마을과 지리산구례공동체가 연합된 산수유 에코뮤지엄 중간지원조직 구축을 통한 에코뮤지엄을 통한 마을과 지역 상업시설의 연계 조직 운영을 통한 에코뮤지엄 운영지원



<그림 5-87> 지리산 나드리장터와 연계한 에코뮤지엄 조성



산수유마을과 구례공동체가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상호협력, 상생관계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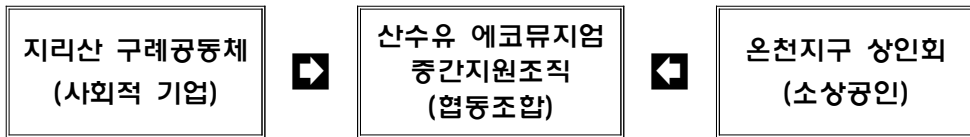
<그림 5-88> 지역조직과 연계한 산수유 에코뮤지엄 중간지원조직 구성(안)

[표 5-22] 구례군 산동면의 주민조직 현황

- 구례 산수유 영농조합법인 : 산수유의 재배와 유통을 전담하는 조직.
- 지리산온천지구상인회 : 지리산 온천지구 상인조직
- 지리산구례공동체 : '지리산나들이장터'를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 산동면 이장단협의회 : 산동면 전체 34개 행정리 단위 이장단으로 구성

[표 5-23] 산수유 에코뮤지엄 중간조직의 구성

- 지리산구례공동체(구례 사회적 기업 1호)를 중심으로 구성
- 지리산 나들이 장터 로컬마켓 운영주체인 지리산구례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로컬푸드 마켓, 나들이 노점 등의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순환 공동체를 기반으로 중간지원조직 구성
- 로컬푸드 마켓, 나들이 노점 등의 운영수익으로 중간지원조직 지원
- 산수유마을 주민, 상인회, 이장단협의회, 귀농귀촌인과 온천지구 기업체와 연계
- 지역상권 마을공동체 그리고 산수유 에코뮤지엄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 역할
- 중간지원조직은 산수유마을 주민이 중심이 되고 지리산구례공동체가 지원조직이 되어 **협동조합** 형태로 구성



[표 5-24] 산수유 에코뮤지엄 중간조직의 역할

- '산수유마을'과 온천지구 상인회와 나들이장터가 중심이 된 '지리산 구례공동체' 를 연결하는 지역커뮤니티의 창구 역할
- 산동면의 자연, 역사, 문화를 보전하고 재생하는 역할의 중간지원
- 산수유 재배경관의 보전과 농업유산의 보전(전통적 농업 방식의 계승)과 유통, 판매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마케팅 역할 수행
- 지역(마을)해설사 양성, 안내와 홍보를 통한 산수유농업의 농촌 다원적 기능 향상
- 지리산나들이 장터 운영을 통한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순환지원
- 주변마을의 민박, 농촌체험, 교육 등의 도농교류활동 활성화 지원

나. 종합

구분			주요 내용	
중심에코뮤지엄	산수유마을	보전	산수유마을 확대	- '산수유꽃담길'을 서시천 유역의 8개마을로 확대하고 경관보전 완충지역 조성
			산수유 경관보전지구 지정	- 서시천 주변 8개 마을에 대한 산수유 경관조성지역과 완충지역으로 구분하고, 대상지에 대한 경관생태 비오톱맵 구축
		활용	산수유꽃담길 확대	- 산수유꽃담길을 8개 마을로 확대 - 마을주변 산수유 꽃담길 정비
			산수유광장 환경정비	- 산수유광장 주변 환경정비를 통한 탐방객 편의시설 제공
			마을회관주변 한평박물관조성	- 산수유꽃담길 8개 마을회관 주변에 한평 박물관(쉼터)를 조성
위성에코뮤지엄	산수유시배지	보전	산수유경관 및 돌담보전	- 2014 구례군 기본경관계획 연계 (2014 기본경관계획은 최종확정되지 않았음)
		활용	네이처오피스	- 탐방객 편의제공을 위한 네이처오피스 (쉼터, 화장실, 식수, 정보제공, Wifi 등)
			산수유꽃담길 조성	-산수유시배지(계척마을) 산수유돌담길 확대 조성
	지리산다랭이논	보전	지리산 생태계와 산수유마을 연계	- 2014 구례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마을경관과 생태보전 연계
		활용	네이처오피스	- 탐방객 편의제공을 위한 네이처오피스 (쉼터, 화장실, 식수, 정보제공, Wifi 등)
			다랭이논 전망대	-상위마을, 사포마을 전망대 설치
	서시천생태문화	보전	하천생태보전	- 하천생태계 종다양성을 보전을 위한 생태계획 수립
		활용	생태관찰조망대	- 수변생태관찰 조망대 2개소 설치
			안내시설	- 산수유 고향의 길 안내소 조성
	에코뮤지엄연계	나들이장터	보전	산동면 경관정체성회복
활용			둘레길 연결로 정비	- 지리산 둘레길 연결로 정비 (산수유쉼터 1개소 포함)
			안내시설	- 안내판, 이정표 설치
추진체계구축	주민 해설사 교육		- 생태해설사 양성교육 프로그램	
	산수유 에코뮤지엄 중간지원조직 운영		- 산수유 에코뮤지엄 중간지원조직 운영지원(교육, 운영인력지원)	

다. 기대효과

구분	기대효과	내용
농업·농촌 생태보전 효과	산수유재배지 경관보전	-농촌에코뮤지엄을 통한 지리산자락 구릉지 에 산수유재배를 하면서 자연스레 조성된 산 수유군락지와 마을돌담의 자연생태와 경관적 인 가치를 보전하고 자원화 -산수유재배지, 돌담길, 서시천과 마을로 연 결되는 산수유 경관 네트워크 구축
	지리산 생태계와 마을의 네트워크	-지리산 생태계와 연결된 서시천 유역을 중 심으로 주변마을을 경관보전지구와 완충지구 로 지정하여 자연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지리산 둘레길_1코스(산수유꽃담길) 연계
사회·문 화적 파급효과	살아있는 산수유 재배 농경문화 탐방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 재배지는 세계적으로 단일지역에 2.28km ² 에 달하는 집단재배지가 있는 유일한 곳으로, 산수유와 함께 살아온 주민들의 삶과 농경문화, 애환이 깃들여 있는 곳이며,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에 코뮤지엄 조성을 통한 산수유농경문화의 재 발견과 새로운 세대에게 전승함
지역경제 활성화	기 투입된 타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효과 극대화	-구례 산수유특구지역에 투입된 산수유공원, 지리산나들이장터, 녹색농촌체험마을 등의 사 업이 한시적 또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산동면 전체가 산수유를 테마 로 연계되어 지역개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함. -지역주민들의 협의체(중간지원조직) 구성을 통한 각 사업과 단체가 연계된 운영기법 도입
	부가가치 유발효과	-산수유 최대 재배지역인 산동면 지역이 농 업소득뿐만 아니라 경관을 통한 볼거리 제공 및 관광사업으로 확대되어 농촌에코뮤지엄을 통한 부가가치 효과가 증가될것으로 기대됨.
	구례산수유 특산물 홍보	-지리산 국립공원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전국 최대, 단일지역 최대 재배지인 구례 산동면 친환경 산수유의 특산물 홍보와 “지리산 나 드리 장터”와 연계한 로컬푸드 제공

제6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에코뮤지엄 조성을 통한 농촌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농업유산을 활용한 에코뮤지엄 시범조성 모델을 개발하고, 농업유산과 연계한 창조상품, 공간적 가치창출 방안을 마련하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농촌지역의 핵심적 자원 중 하나인 현재의 농업유산에서 확대하여 광의의 농업유산을 대상에 포함하여 에코뮤지엄의 조성 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음
- 주요 연구 내용은 에코뮤지엄의 개념 정립 및 유형화 등 이론적 고찰, 에코뮤지엄 및 유사개념간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념 정의, 변천과정, 최근의 동향분석, 에코뮤지엄의 이론 분석을 통한 유형화, 에코뮤지엄에 대한 국내 관련 정책현황 분석 및 유사 사업 및 정책과의 차별성, 선진외국(일본, 프랑스)의 에코뮤지엄 조성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에코뮤지엄 시범조성 가능 지역 발굴 및 유형별 모형 개발을 통한 모델 정립에 있음
- 상기 연구목적을 달성하고 연구내용을 충실히 작성해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음
 - 선행연구 분석 및 에코뮤지엄의 개념정립(1,2장)
 - 에코뮤지엄 관련 국내 정책 및 사례분석(3장)
 - 에코뮤지엄 해외 정책 및 조성사례 분석(4장)
 - 에코뮤지엄 유형별 시범조성 모델개발(5장)
- 선행연구에서는 에코뮤지엄과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몇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첫째,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던 것을 다시 재구성한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는 점,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마을만들기의 새로운 대안이라는 점, 기존 농업유산보다 넓은 개념인 포괄적 유산개념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 단순관람이 아닌 현지보존에 다른 견학과 체험방식을 따른다는 점,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의 보전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임
- 2장에서는 에코뮤지엄이 19세기 유럽에서 탄생한 배경과 목적을 서술하고, 뤼뷔에르의 에코뮤지엄의 개념 이후 수정된 ‘에코뮤지엄의

진화적인 정의'를 언급하였음. 진화적 정의에서는 주민의 주체적 참여, 지역민의 정체성확립, 역사와 문화의 총체적 고려, 연구·교육·실험실적 기능의 강화 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광의의 농업유산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농촌에코뮤지엄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 이론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음. 한국농촌에코뮤지엄은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첫째, 생태경관형으로 농업유산의 개념 가운데 생물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두 번째 유형은 전통농업형으로 농업유산 가운데 토지이용시스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 마지막 유형은 전통문화형으로, 이는 농민의 농촌생활과 관련된 유산유형임

- 3장에서는 에코뮤지엄과 관련한 국내 정책을 분석하였음. 에코뮤지엄을 '지역자원중심'의 면적 보전방식으로 보았을 때,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문체부, 문화재청 등에서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음. 먼저 농식품부의 경우, 농업유산제도와 경관보전직불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환경부의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여 보전을 꾀하고 있었으며, 관련한 사업으로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사업, 자연생태우수마을 사업 등이 있음. 문체부의 경우 문화지구와 건축자산진흥구역 등의 제도를 갖추고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문화재청의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집단민속 문화재구역 제도를 시행중이며, 관련한 사업으로 생생문화재 사업이 있음.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경우 한옥밀집지역 지정제도를 시행중에 있음
- 4장에서는 에코뮤지엄 관련 해외(일본, 프랑스) 정책 및 조성사례를 분석하였음. 일본의 경우, 에코뮤지엄의 활동 내용, 주요 운영주체, 공간범위를 분석하여 일본 에코뮤지엄의 성격을 우선 규명하고자 하였음. 다음으로 일본 에코뮤지엄 관련 일본정부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농수산성의 전원정비사업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실제 사례지역으로 키타하리마 전원공간 박물관을 소개하였음. 또한 유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여러 시정촌에 걸쳐있는 미야카와 에코뮤지엄의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프랑스 사례에서는 에코뮤지엄의 배경 및 형성에 대한 언급으로부터 시작하여, 프랑스 에코뮤지엄의 유형 및 특징 그리고 에코뮤지엄 현

장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함. 이어서 프랑스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관련된 사례지역으로 브레스 부르기논 에코뮤지엄과 모르방 에코뮤지엄, 알자스 에코뮤지엄과 렌느지역 에코뮤지엄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5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에코뮤지엄의 개념, 유형 및 국내·해외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각 유형별 후보지를 나열하고 이중 1개씩 총 3개의 시범모델 대상지구를 선정하였음. 선정된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시범 지구에 대한 계획을 각각 수립. 시범지구에 대한 에코뮤지엄의 계획 방향은 중심에코뮤지엄과 위성에코뮤지엄으로 구분하는 한편, 광의의 농업유산으로서의 보전과 활용의 개념에 기반함
- 선정된 3개 지구는 전남 구례(생태경관형), 전남 완도 청산도(전통농업형), 경북 영양(전통문화형)임. 이들 3개 지구의 계획수준은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을 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업제안서 수준을 기준으로 하였음. 구례, 영양의 경우 자원조사 및 분석, 개념적용, 사업화방안 등의 다각적 논의를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
- 3개 시범지구 중 청산도의 경우, 2014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농식품부의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사업비 15억)에 대한 투자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완도군의 ‘청산도 농어촌 가치창조 특화사업 학술연구’, ‘슬로시티 청산도사업 실태분석 및 비전수립 용역’ 등 총 3건의 관련 연구용역이 14년 완료된 바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되, 최대한 승계·활용한다는 기본전제를 가지고 청산도의 계획을 수립함

2. 에코뮤지엄의 도입 필요성

-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의 사라져가는 전통 농업 자원을 발굴·보전하기 위해 농업유산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을 시행중에 있음
- 그렇지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은 그 대상이 국가농업유산에 한정되어 있어 ‘보전’의 개념을 농촌 전반으로 도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우리의 농촌 주변에 산재하는 소중한 자원인 ‘광의의 농업유산’은 ‘개발’의 방식을 통해서가 아닌, ‘보전’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정

- 체성을 되찾고, 나아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국가농업유산을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의 유산자원까지 폭넓게 활용하여 정책의 대상으로 확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 에코뮤지엄 관련 신규정책의 도입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의 정책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첫째는 에코뮤지엄 조성방안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는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의 후속사업으로 별도의 에코뮤지엄 신규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임
 - 다만, 상기 언급한 두 가지 정책화 방안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에코뮤지엄 사업이 기존사업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느냐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에 있음. 따라서 ‘개발’(기존사업)과 ‘보전’이라는 대분류를 적시하여 에코뮤지엄 사업은 ‘보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임이 강조되어야 함

3. 에코뮤지엄이 갖는 차별성

- 에코뮤지엄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⁴¹⁾은 목적, 대상, 접근방법, 유형, 사업진입 등과 같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표 참고)
- 목적에 있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나, 에코뮤지엄은 농촌의 유산자원을 보전하면서 활용하는 것임. 지향하는 가치 또한 개발과 정비위주의 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보전을 통한 활용가치 증대(에코뮤지엄)로 확연히 구분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은 단일 마을, 마을을 연결한 권역 또는 읍면단위 지역이지만, 에코뮤지엄의 경우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사업범위를 정할 수 있음. 다시 말해 행정단위(리, 읍·면, 군) 뿐만 아니라, 자원권[예: 생태권, 경관권, 생활문화권, 농업(유산)권 등]으로 다양하게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함
- 대상자원의 경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는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들을 그 개발과 활용의 대상으로 다루는 한편, 에코뮤지엄에서는 보전가치가 있는 농업유산자원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음

41) 기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편방향을 함께 검토

[표 6-1] 기존사업과 에코뮤지엄의 차별성

구분	일반농산어촌개발	에코뮤지엄
목적	농촌개발 및 지역활성화	정체성 회복
지향 가치	개발, 정비위주(자원활용)	보전을 통한 활용가치증대
대상 지역	마을, 권역, 중심지	탄력적 공간*
대상 자원	농촌 어메니티 자원	보존가치가 있는 농업유산**자원
접근 및 계획	활용(개발위주) - 하드웨어(개발, 정비) - 소프트웨어(역량강화 등)	보전과 활용의 균형 - 중심 에코뮤지엄 - 위성 에코뮤지엄 - 에코뮤지엄간 연계 - 추진체계 구축
사업 진입 단계	역량에 따라 4단계(예비단계, 진입단계, 발전단계, 자립단계)로 구분하여 사업 진입	1. 농업유산지역은 우선시행 1. 발전 및 자립단계 수준에서 참여 가능 (마을 및 권역단위 사업경험이 풍부한 지역 대상)
사업 시행	공모사업	1. 공공부문의 심의를 통해 대상지 (POOL) 선정 2. 해당지역 추진협의체가 신청
비고	* 행정구역(리, 읍면, 군)단위 또는 자원권(생태권, 경관권, 생활문화권, 농업(유산)권 등) 으로 다양하게 설정 가능 **농업유산 : 광의의 농업유산을 의미하며 기존 농업유산을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임. 농촌주민의 전통적 농림업활동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지역사회의 차별적이고 독특한 유형·무형 자원	

- 또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상지역에 대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계획으로서 접근이 가능하지만, 에코뮤지엄의 경우 보전과 활용의 균형을 강조하며 중심 에코뮤지엄, 위성 에코뮤지엄, 에코뮤지엄간 연계, 추진체계 구축의 4가지로 분류하여 접근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 진입단계에 있어 차이점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역량에 따라 4 단계(예비단계, 진입단계, 발전단계, 자립단계)로 구분하여 진입이 가능한 반면, 에코뮤지엄의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식수준을 가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에코뮤지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주민들의 의식수준은 최소한 앞서 언급한 4 단계에서 발전단계 또는 자립단계에 해당하는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만 농업유산으로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상기 단계에 대한 조건과 관계 없이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농업유산과 광의의 농업유산의 개념은 아직 보편적으로 인식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였을 때, 대상지의 선정과 시행은 일정 기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공공부문의 심의를 통해 후보군(Pool)을 우선 선정
 - 군에 포함되거나 유사한 농업유산자원을 보유한 해당지역 추진협의체가 주민 합의절차를 거쳐 자발적으로 신청

4. 시사점 및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에코뮤지엄의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의 ‘농업유산’보다 확대된 개념인 ‘광의의 농업유산’을 정의하고 적용시키기 위한 유형화방안 등 그 형태와 범위를 구체화하고, 유형별 3개 시범모델에 대한 계획을 현장기반의 관점에서 수립하고 제시하였음
- 이는 향후 정책도입으로 이어질 경우 지자체 담당자, 지역주민 등에게 에코뮤지엄과 농업유산의 개념의 이해를 돕고, 관련 사업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에코뮤지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농업유산지구에 있어 기존의 농업유산 개념을 확대한 광의의 농업유산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보전가치가 있는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폭넓게 발굴하고 보전하는 것이 가능
 - 기존 마을단위 또는 권역단위의 사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구의 재활성화에 기여

- 농촌 에코뮤지엄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그들이 살고 있는 농촌지역의 귀중한 지역유산을 발굴하여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농촌 전체를 하나의 야외박물관으로 만들자는 정책임. 그리고 이를 통하여 농촌주민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의 정체성을 고양시키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음
- 따라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는 에코뮤지엄 조성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참고 문헌

1. 경주시, 2002, 양동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보고서.
2. 구자인 외, 2011, 마을만들기 진안군 10년의 경험과 시스템, 국토연구원
3. 권수미, 지역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에코뮤지엄 적용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연구, 제14권 2호, 2006.
4. 김연진, 2011, 문화지구 제도 개선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 농림축산식품부, 2012,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침.
6. 농림축산식품부, 2012, 농식품부, 농어업 유산 제도 본격 도입 보도자료.
7. 농림축산식품부, 2013, 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결과 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
8. 농림축산식품부, 2014, 농식품부, 전통 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보도자료.
9. 명소, 2014,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 종합계획 및 지표자원 조사분야 수립 중간보고회 자료, 완도군.
10. 명소, 2014, 청산도 농어촌 가치창조 특화사업 학술연구, 완도군.
11. 명소, 2014, 슬로시티 청산도사업 실태분석 및 비전수립 용역, 완도군.
12. 명준영, 2013, 남한산성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관리를 위한 공간계획연구:지속가능한 관광계획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13. 문화재청, 2011,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에 관한 지침.
14. 문화재청, 2013, 2014년 생생문화재 사업 공모 계획.
15. 문화재청, 2014, 2014년도 주요업무현황.
16. 문화체육관광부, 2013, 관광특구 제도 개선방안.
17. 박헌춘, 2011, 에코뮤지엄 개념을 적용한 농촌 마을만들기, 충북대 박사학위논문.
18. 방한영, 2003, 농촌활성화를 위한 지역유산 활용 및 마을 만들기에 대한 연구, 청주대 박사학위논문,
19. 배은석, 알자스 에코뮤지엄에 투영된 알자스인의 삶과 문화, 인문콘텐츠 제26호, 2012, pp.149-171.
20. 송미령 외, 2010, 농어촌 통합형 지역개발 모델 정립 및 실행계획 수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 송주희, 2010, 지역활성화를 위한 에코뮤지엄, 향토사연구 21집.

22. 신현요, 2005, 에코뮤지엄의 발전과정과 개념적 특징에 대한 연구, 청주대 석사학위논문.
23. 심경미, 2014, 지역의 건축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의의와 지원제도.
24. 심경미·최은숙, 2011, 한옥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법제도 개선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5. 양초원, 2013, 역사문화경관 관련지구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지구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26. 오하라 가즈오키, 마을은 보물로 가득 차 있다: 에코뮤지엄 기행, 김현정 역, 아르케, 2008.
27. 윤원근 외, 2014, 농어업유산의 이해, 한국농어촌유산학회.
28. 윤원근, 2003, 우리나라 농촌어메니티 개발정책과 과제, 한국지역개발학회 제15권 제2호.
29. 윤원근, 2010, 한국농촌개발정책의 시기별 전개와 구성요소의 변화, 농촌지도와 개발 제17권 2호.
30. 이수진 외, 2013, 파주 헤이리 문화지구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 경기개발연구원.
31. 이재영, 프랑스 에코뮤지엄 사례 연구: 부르고뉴 지방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2012, pp. 191- 218
32. 이재영·이종오, 프랑스 에코뮤지엄 개념의 형성과 발전과정 연구, EU연구, 제28호, 2011.
33. 이해진, 2009,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농촌지역개발사업: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사례로, 농촌사회 제19집 1호.
34. 채해성, 2012, 지역건축자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관리기반 마련 연구.
35. 채해성, 201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 마련 연구.
36. 정석, 2009, 역사문화환경의 면적보전제도 도입방안,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0권 제4호.
37. 최효승, 2006, 주민참여에 의한 농촌마을계획과정과 지역 통째로 박물관 개념의 적용실험, 건축학회지.
38.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2012,, 농어촌 자원의 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기준 정립 및 관리시스템 개발연구.
39. 한국농어촌유산학회, 2013, 농어업유산의 이해

40. 환경부, 2003,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복원우수사례 선정지침.
41. 환경부, 2006,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06-2015).
42. 환경부, 2009, 생태·경관보전지역 업무지침.
43. 환경부, 2010,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현황.
44. 환경부, 2013, 자연생태우수마을 4개소 재지정.
45. 환경부, 2014,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보도자료.
46. 近畿振興局, 2007, 資料 4 -農業用水と土地利用改良事業について-.
47. 農林水産省, 1998a, 田園整備事業實施要綱(最終改正2005年).
48. 農林水産省, 1998b, 田園整備事業實施要領(最終改正2007年).
49. 農林水産省, 2003, 平成15年度農業農村整備の効率的實施に係る検討會(農村整備事業の見直しについて)報告書(案).
50. 農林水産省, 2006, 環境との調和に配慮した事業實施のための調査計畫・設計の技術指針(最終案).
51. 農林水産省, 2008, 總括調査表-田園空間整備事業-.
52. 丹青研究所, 1993, Ecomuseum, エコミュージアムの理念と海外事例報告, 博秀工芸, p.76.
53. 都市と農山漁村共生・對流關係省連絡協議會, 2008, 都市と農山漁村の共生・對流-既存ストック活用逆引集-.
54. 糸長浩司, 1996, エコミュージアム, 農村計畫學會誌, 14, 71-72.
55. 兵庫縣, 1999, 加美町岩座神地區景觀ガイドライン.
56. 北はりまハイランド推進協議會, 2001, 北はりまハイランド構想-アクションプランII.
57. 新井, 1997, エコミュージアム理念と活動-世界と日本の最新事例集, 牧野出版, p.301.
58. 齊藤潤一・大原一興・藤岡泰寛, 2010, 日本におけるエコミュージアム實踐の自己評価に関する研究,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北陸), pp.471-472.
59. 佐藤岳洋, 田園空間博物館-地域特性に応じた計畫作成と事業効果, 不二総合コンサルタント(株)地域開發研究室.
60. 竹内智美・大原一興・藤岡泰寛, 2008, エコミュージアムの基本理念からみた活動實態に関する研究-チェックリストによる日本とイタリアの比較考察から-,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中國), pp.565-566.

61. 総務省, 2014, 資料-全国総合開発計画(概要)の比較.UNESCO(1985),
62. 特定非営利活動法人北はりま田園空間, 2014, 北はりま田園空間博物館
まるごとガイド.
63. 角野幸博・水野優子, 2001、エコミュージアムの日本の展開-北はりま田
園空間博物館を事例に-, 都市計画、231、pp.17-20.
64. Andrieu, Claire, L'écomusée et le musée de société : Définition,
organisation, économie des services, problématiques
d'accompagnement. Les Repères de l'Avise, Agence de Valorisation
des Initiatives Socio-Economiques, Culture n°1, Juin 2009.
65. Chaumier, Serge, Une nouvelle approche de l'écomusée. Des musées
en quête d'identité: écomusée versus technomusée, Culture &
Musées, n° 6, 2005, pp. 169-170.
66. Cousin, Saskia, Un brin de culture, une once d'économie :
écomusée et économusée [en ligne]. Publics & Musées, n°17-18,
Écomusée et Économusée, 2000, pp.115 137.
67. Hubert, François, Les écomusées en France : contradictions et
déviation, Museum, n°148, 1985, pp. 186-190.
68. Rivière, Georges Henri, Définition évolutive de l'écomusée, Museum,
n°148, 1985, pp. 182-183.
69. Varine, Hugues de, Petite histoire vécue de la Nouvelle Muséologie,
Ecomuseo, AMI, 2010.
70. Varine-Bohan, Hugues de, L'écomusée : au-delà du mot, Museum,
n°148, 1985, p. 185
71. <http://ecomusees.wikispaces.com/Accueil>
72. <http://www.culturecommunication.gouv.fr/>
73. [http://www.culturecommunication.gouv.fr/Disciplines-et-secteurs/Mu
sees/Organismes/Musees-de-France](http://www.culturecommunication.gouv.fr/Disciplines-et-secteurs/Musees/Organismes/Musees-de-France)
74. <http://www.ecomusee-alsace.fr/>
75. <http://www.ecomusee-de-la-bresse.com/>
76. <http://www.ecomuseeduperche.com/>
77. <http://www.ecomusee-rennes-metropole.fr/>
78. <http://www.fems.asso.fr/>

연구 참여자

목 차	소 속	참여자	비 고
1장 서론	농어촌연구원	박윤희 이정환	
2장 에코뮤지엄의 개념정립	협성대학교	최식인	
3장 국내 정책 및 사례 분석	협성대학교 서울대 조경계획연구실	윤원근 이차희	
4장 해외 정책 및 사례 분석	아주대학교 교토대학교	한지형 김두환	
5장 에코뮤지엄 유형별 시범조성 모델개발	도시환경연구센터 (주)누리넷 협성대학교 서울대 조경계획연구실 농어촌연구원	전영옥 구진혁 윤원근 이재혁 이정환	
6장 결론	협성대학교 농어촌연구원	윤원근 이정환	

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발 행 처

연구과제명 : 에코뮤지엄 시범조성 모델 개발 연구	
발 행 일	2014. 12
발 행 인	박 정 환
발 행 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해안로 870 전 화 031 - 400 - 1700 FAX 031 - 409 - 6055
■ 이 책의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단, 이 책의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이 가능합니다.	